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4937-100002-10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4기준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목차 CONTENTS



1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구동향 8 ② 지역별 인구동향 15 ③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18
2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동향 22 ② 산업동향 24 ③ 소비 및 물가 동향 28 ④ 수출입 동향 29 ⑤ 사업체 동향 30 ⑥ 분배 동향 33 ⑦ 지역별 경제동향 35
3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동력 현황 40 ② 취업자 및 고용률 43 ③ 실업자 현황 52 ④ 비경제활동인구 54
4 노동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이직 현황 60 ② 고용24 구인·구직 현황 64 ③ 미충원 인원 68 ④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72
5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업훈련 현황 78 ② 수료자 취업현황 82
6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86 ②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91 ③ 사회보험 가입율(고용형태별) 106
7 노사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동조합 110 ② 노사분규 113 ③ 노사분쟁 사건 116 ④ 근로개선 지도 현황 122
8 산업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재해 128 ② 경제적 손실 131 ③ 산재보험 133

Part 2
대상별
현황

9 시도별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비교

- ① 지역별 인구 현황 138
- ② 인구 이동 현황 140
- ③ 지역내총생산(GRDP) 142
- ④ 산업단지 분포 현황 143
- ⑤ 고용률 144
- ⑥ 취업자 수 145
- ⑦ 실업률 146
- ⑧ 비경제활동인구 147
- ⑨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148
- ⑩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149

1 청년

- ① 인구 및 노동력 현황 154
- ②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155
- ③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158
- ④ 청년 근로조건 159
- ⑤ 취업 활동 과정 160

2 여성

- ① 인구 및 노동력 현황 164
- ②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166
- ③ 여성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172
- ④ 여성 근로조건 175

3 장년
(50세 이상)

- ① 인구 및 노동력 현황 178
- ② 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179
- ③ 장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182
- ④ 장년 근로조건 183
- ⑤ 정년 현황 184
- ⑥ 장년층 동태 분석 188

4 비정규직

- ① 비정규직 취업현황 194
- ② 근로조건 201
- ③ 고용형태 변화 208

부록

고용노동관련
OECD
국제비교

- ① 인구 및 고용 214
- ② 근로조건 226
- ③ 분배지표 235
- ④ 기타 고용노동지표 239

Part 1

전국총괄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1. 인구

2. 경제

3. 고용

4. 노동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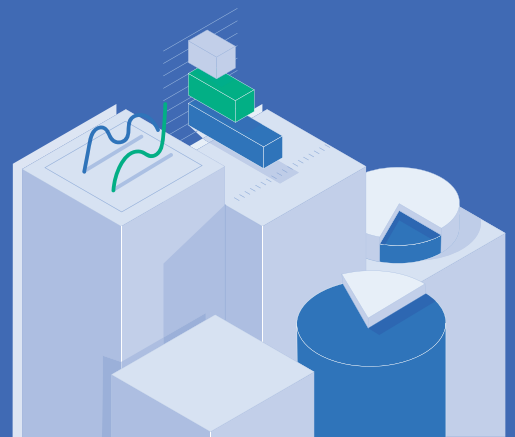
5. 직업훈련

6.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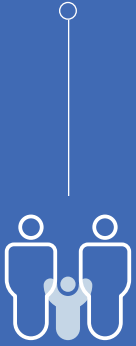
7. 노사협력

8. 산업안전

9. 시도별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비교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1. 인구

- ① 인구동향
- ② 지역별 인구동향
- ③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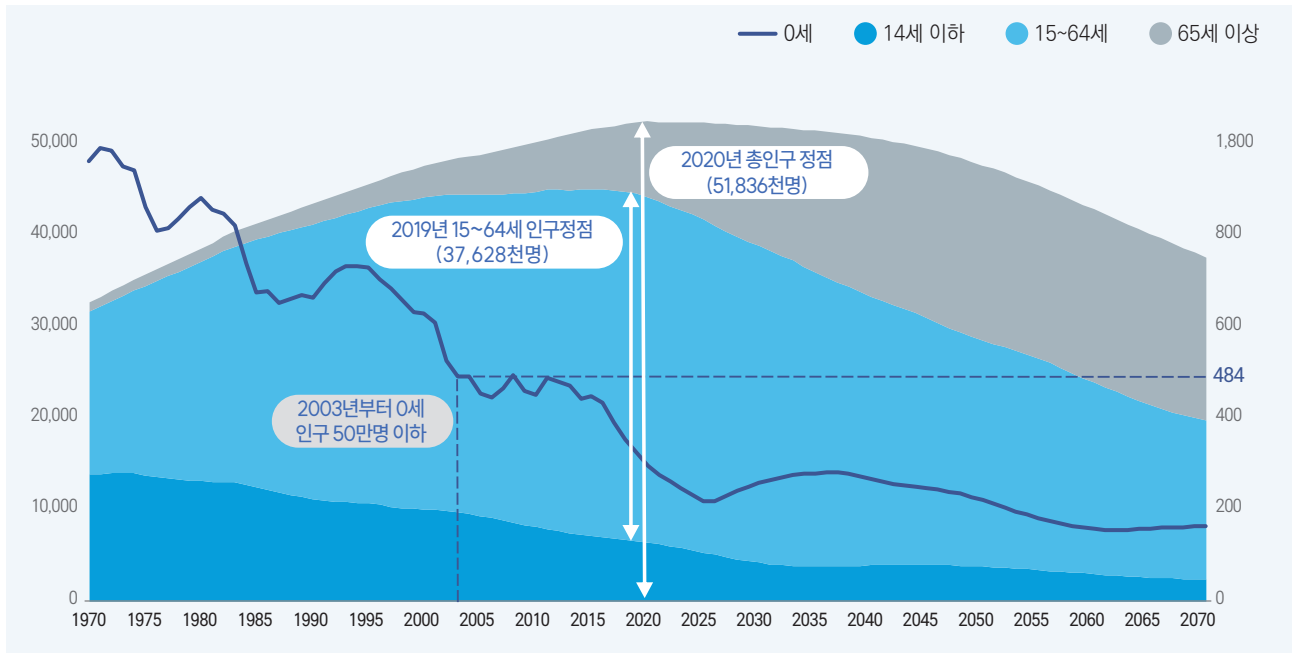
인구동향

연령별 인구추계



2024년 국내 총인구수는 5,175만명으로 1970년(3,224만명)에 비해 1.6배 증가하였다. 총인구는 2020년 정점(5,184만명)에 도달한 후 감소 추세에 있다.

- 연령별로 보면 15~64세 인구는 2019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14세 이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0세 인구는 2003년부터 50만명 이하로 지속적 감소, 2053년 이후 20만명 이하일 것으로 전망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총인구	32,241 (100.0)	38,124 (118.2)	42,869 (133.0)	47,008 (145.8)	49,554 (153.7)	51,836 (160.8)	51,751 (160.5)	51,306 (159.1)	50,059 (155.3)	47,107 (146.1)	42,302 (131.2)	37,182 (115.3)
0세	950	870	656	622	447	292	229	255	263	219	156	161
14세 이하	13,709	12,951	10,974	9,911	7,979	6,306	5,485	4,160	3,879	3,751	2,933	2,393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6,209	37,379	36,328	34,166	29,029	24,448	20,687	17,111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5,366	8,152	9,938	12,980	17,151	18,908	18,682	17,677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 1970년 대비 비율 (단위: 천명, %)
 주 1)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거주 인구임
 2) 1970년 이후 자료는 「2019년 장래인구추계」 자료(중위가정)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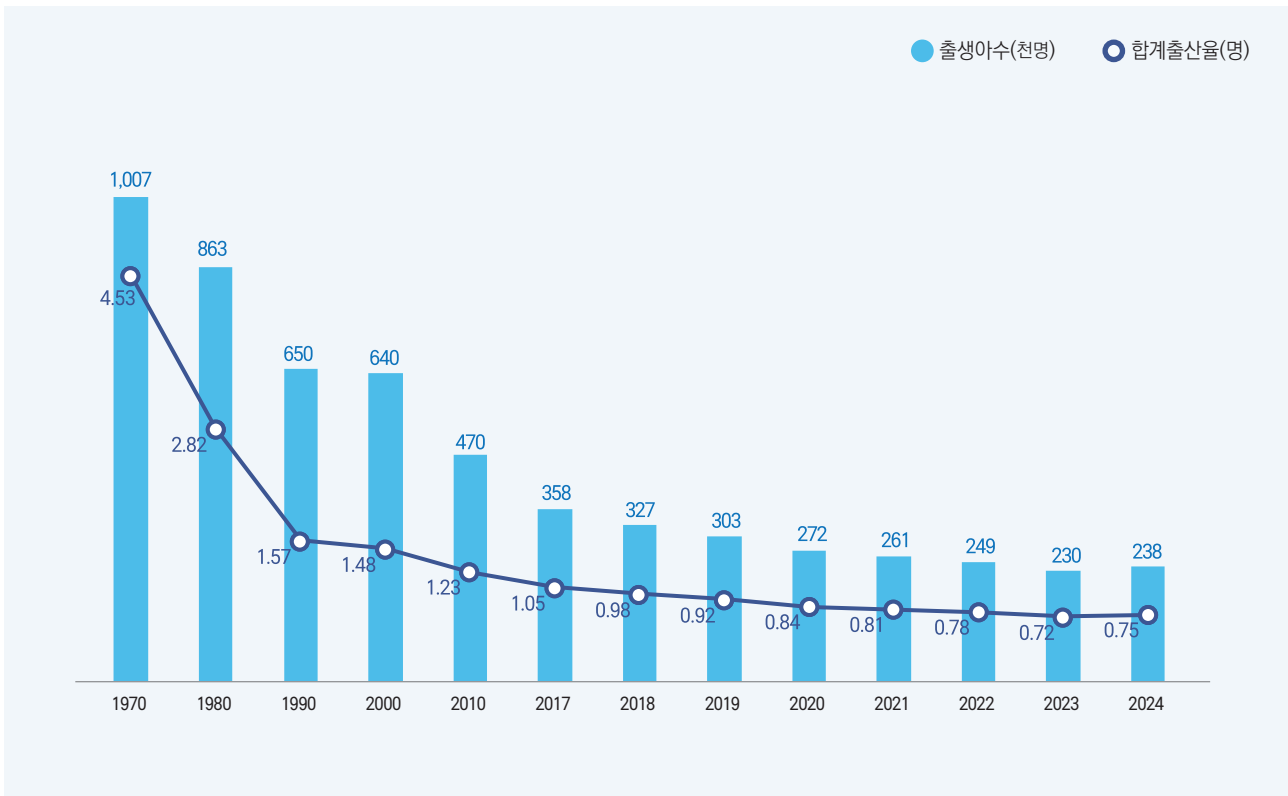
- 한국의 최근 인구성장률은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을 제외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2021년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을 보였음
-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도 인구성장률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반면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은 이민자 유입 등으로 2023년에 각각 0.81%, 0.99%, 0.84%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024년 출생아수는 23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8천명(+3.6%) 증가,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 0.72로 최저수준을 보인 후 반등
- 30대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 20대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
- 전년대비 첫째아는 7.8천명(5.6%), 둘째아는 1.5천명(2.0%) 증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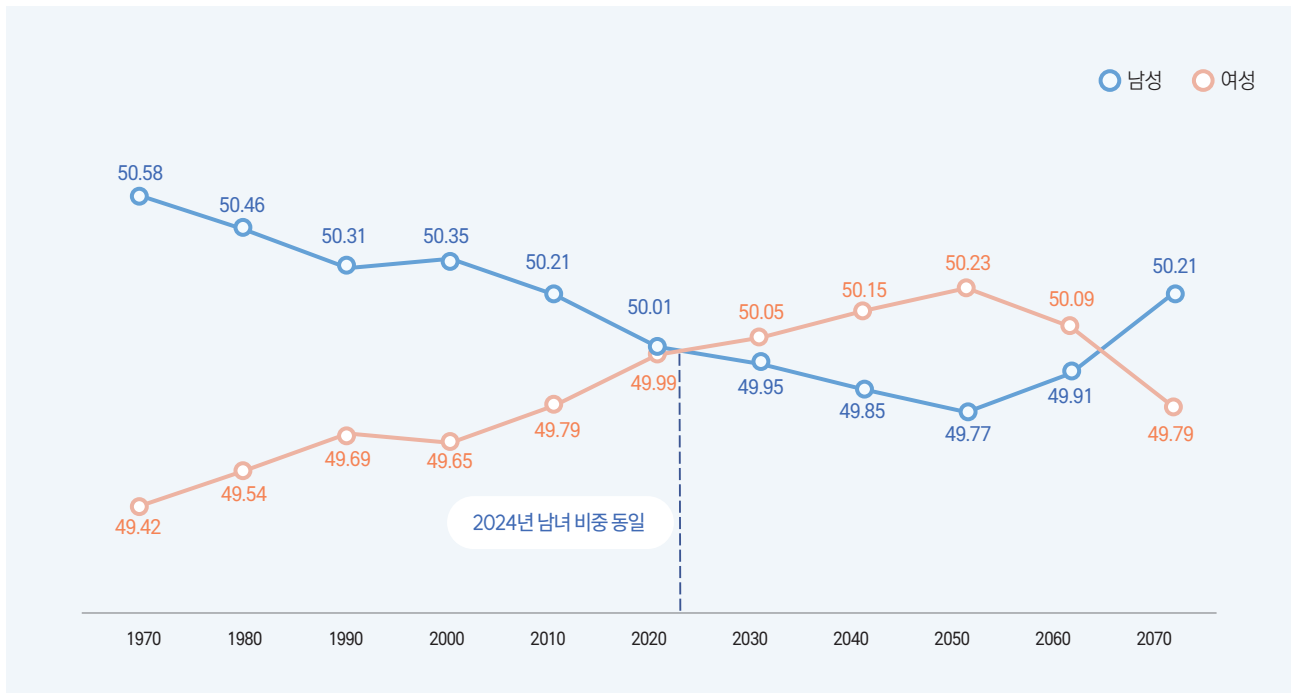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TRF, Total Fertility Rate):**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 **연령별 출산율(ASFR):** 특정 1년 간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성별 연령별 인구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크게 나타났고, 2024년에 처음으로 여성의 비중이 남성의 비중을 넘어섰다.

- 14세 이하, 15~64세는 자연출생성비를 보이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의 비중보다 더 큼
* 자연출생성비: 자연 상태에서 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
- 65세 이상의 남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여성 비율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전연령	남성	50.6	50.5	50.3	50.3	50.2	50.0	50.0	50.0	49.9	49.8	49.9	50.2
	여성	49.4	49.5	49.7	49.7	49.8	50.0	50.0	50.0	50.1	50.2	50.1	49.8
14세이하	남성	51.9	51.8	52.0	52.9	52.1	51.4	51.3	51.2	51.1	51.1	51.1	51.1
	여성	48.1	48.2	48.0	47.1	47.9	48.6	48.7	48.8	48.9	48.9	48.9	48.9
15~64세	남성	50.1	50.5	50.6	50.8	51.2	51.3	51.4	51.6	52.0	52.3	52.1	52.0
	여성	49.9	49.5	49.4	49.2	48.8	48.7	48.6	48.4	48.0	47.7	47.9	48.0
65세이상	남성	41.2	37.4	37.4	38.3	40.9	43.2	44.1	45.2	45.9	46.2	47.3	48.4
	여성	58.8	62.6	62.6	61.7	59.1	56.8	55.9	54.8	54.1	53.8	52.7	51.6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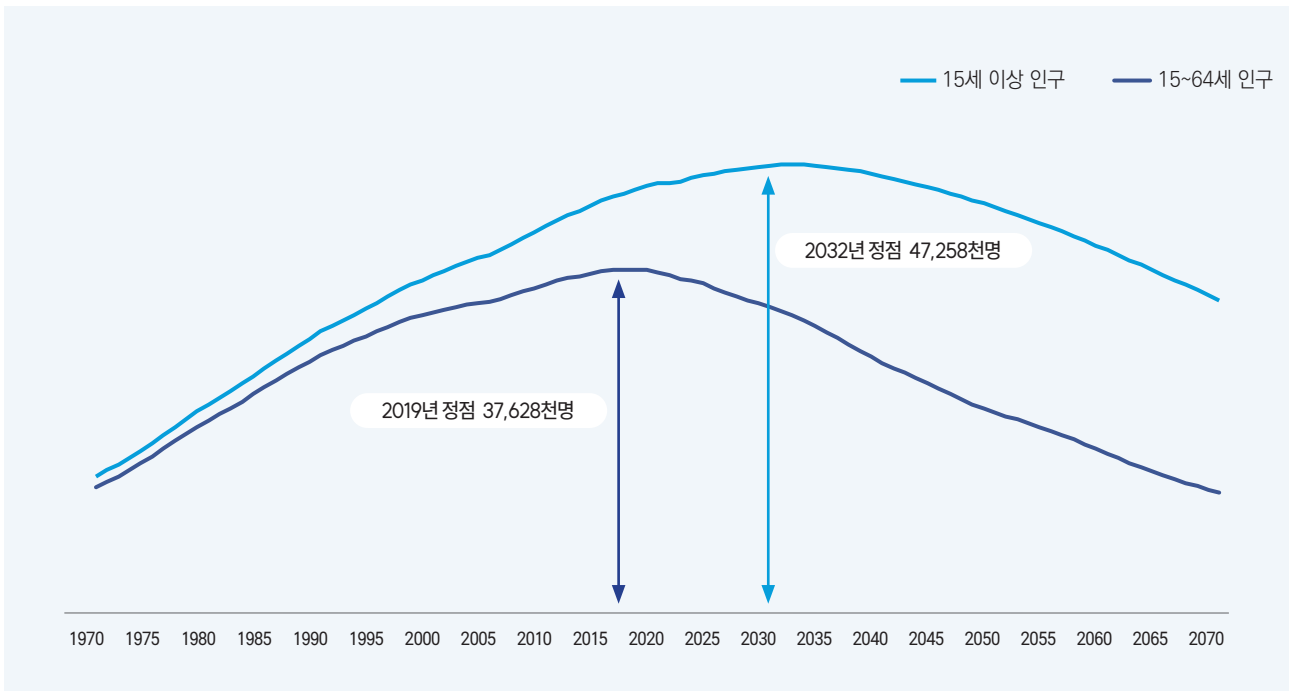
(단위: %)

15세이상 인구



15세이상 인구는 2032년 4,72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3,763만명)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약 40년 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전망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4	2030	2040	2050	2070
15세이상	18,531	25,173	31,896	37,097	41,575	45,530	46,266	47,146	46,180	43,356	39,369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6,209	37,379	36,328	34,166	29,029	24,448	20,687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주) 장래인구추계에서는 15~64세를 '생산연령인구'로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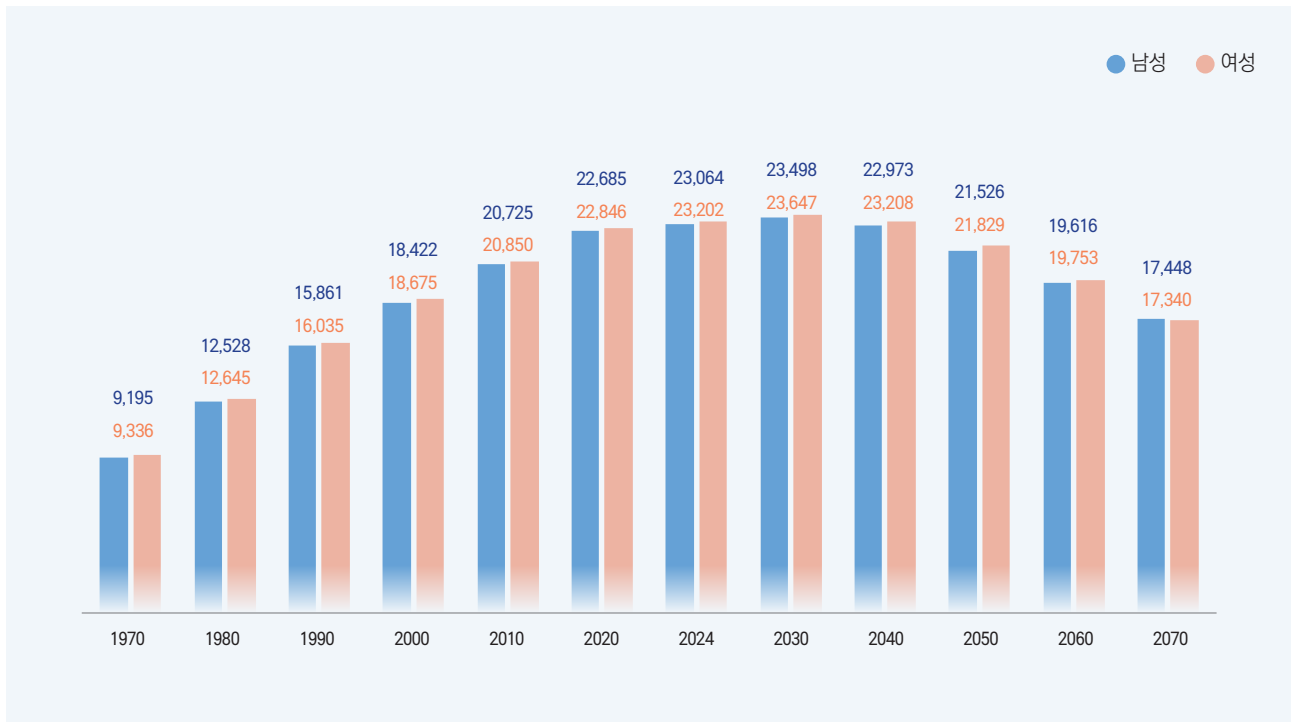
(단위: 천명)

성별 15세이상 인구



1970년 이후 15세이상 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항상 많았으며,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15~64세 인구는 1969년부터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흐름을 보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15세 이상	합계	18,531	25,173	31,896	37,097	41,575	45,530	46,266	47,146	46,180	43,356	39,369	34,789
	남성	9,195	12,528	15,861	18,422	20,725	22,685	23,064	23,498	22,973	21,526	19,616	17,448
	여성	9,336	12,645	16,035	18,675	20,850	22,846	23,202	23,647	23,208	21,829	19,753	17,340
15~64세	합계	17,540	23,717	29,701	33,702	36,209	37,379	36,328	34,166	29,029	24,448	20,687	17,111
	남성	8,787	11,984	15,039	17,122	18,531	19,164	18,677	17,636	15,099	12,789	10,782	8,898
	여성	8,753	11,733	14,662	16,580	17,677	18,215	17,651	16,529	13,930	11,659	9,905	8,213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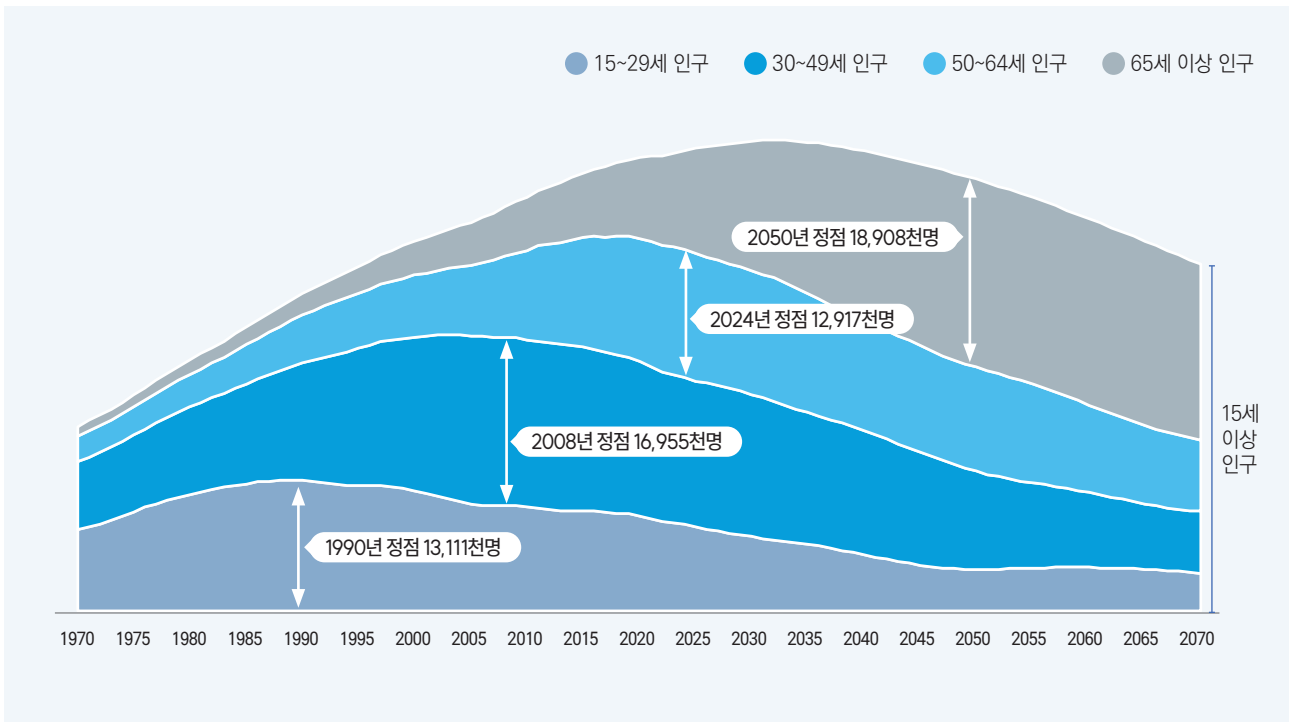
(단위: 천명)

연령별 15세이상 인구



15세이상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중년층(30~49세), 장년층(50~64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65세이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70년에 고령자 인구 비중이 15세이상 인구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청년층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중년층 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장년층 인구는 2024년을 정점으로 감소 진행 중
- 고령층 인구는 205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24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15세 이상 인구	46,266	47,146	46,180	43,356	39,369	34,78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9세 인구	8,645	7,441	5,644	4,154	4,359	3,791
비중(%)	(18.7)	(15.8)	(12.2)	(9.6)	(11.1)	(10.9)
30~49세 인구	14,765	14,304	12,440	9,866	7,507	6,187
비중(%)	(31.9)	(30.3)	(26.9)	(22.8)	(19.1)	(17.8)
50~64세 인구	12,917	12,421	10,945	10,428	8,821	7,133
비중(%)	(27.9)	(26.3)	(23.7)	(24.1)	(22.4)	(20.5)
65세 이상 인구	9,938	12,980	17,151	18,908	18,682	17,677
비중(%)	(21.5)	(27.5)	(37.1)	(43.6)	(47.5)	(50.8)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는 비중

(단위: 천명, %)

장애인 인구



2024년 등록장애인은 263만 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55.3%로 지속적 증가세
*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15년)42.3% < ('20년) 49.9% < ('23년) 53.8% < ('24년) 55.3%
- 인구감소로 매년 신규등록 장애인 수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영향으로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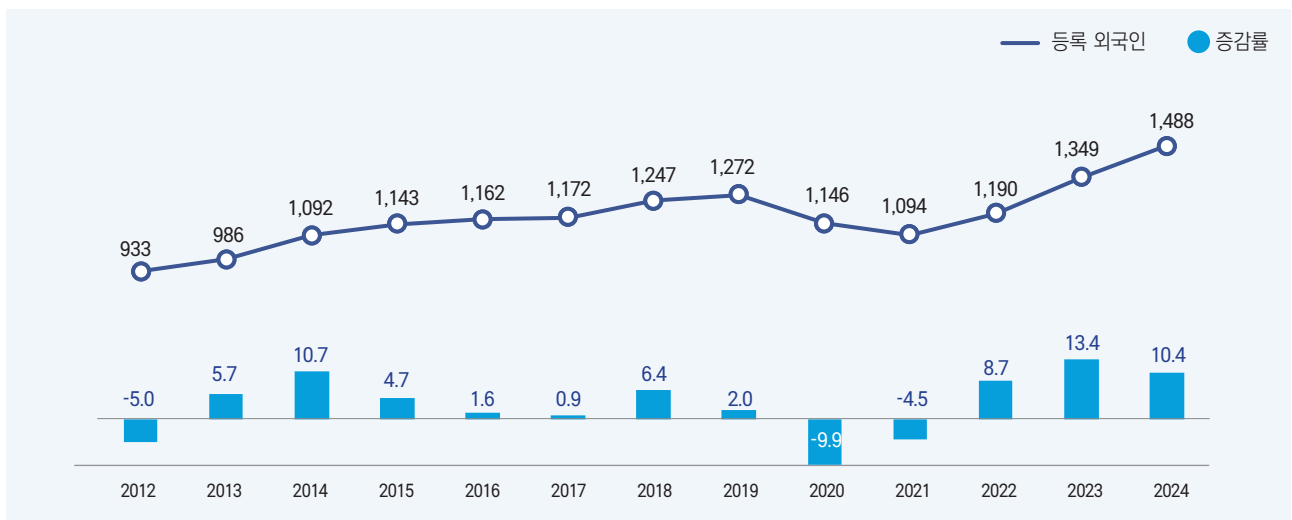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단위: 천명)

등록 외국인 인구

2024년 외국인 수는 149만명으로 전년대비 14만명(10.4%) 증가했다.

- 외국인 수는 COVID-19(2020년~2021년) 시기를 제외하고 점진적 상승 추세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단위: 천명, %)

주) 외국인의 범위: 단기체류 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를 포함하며,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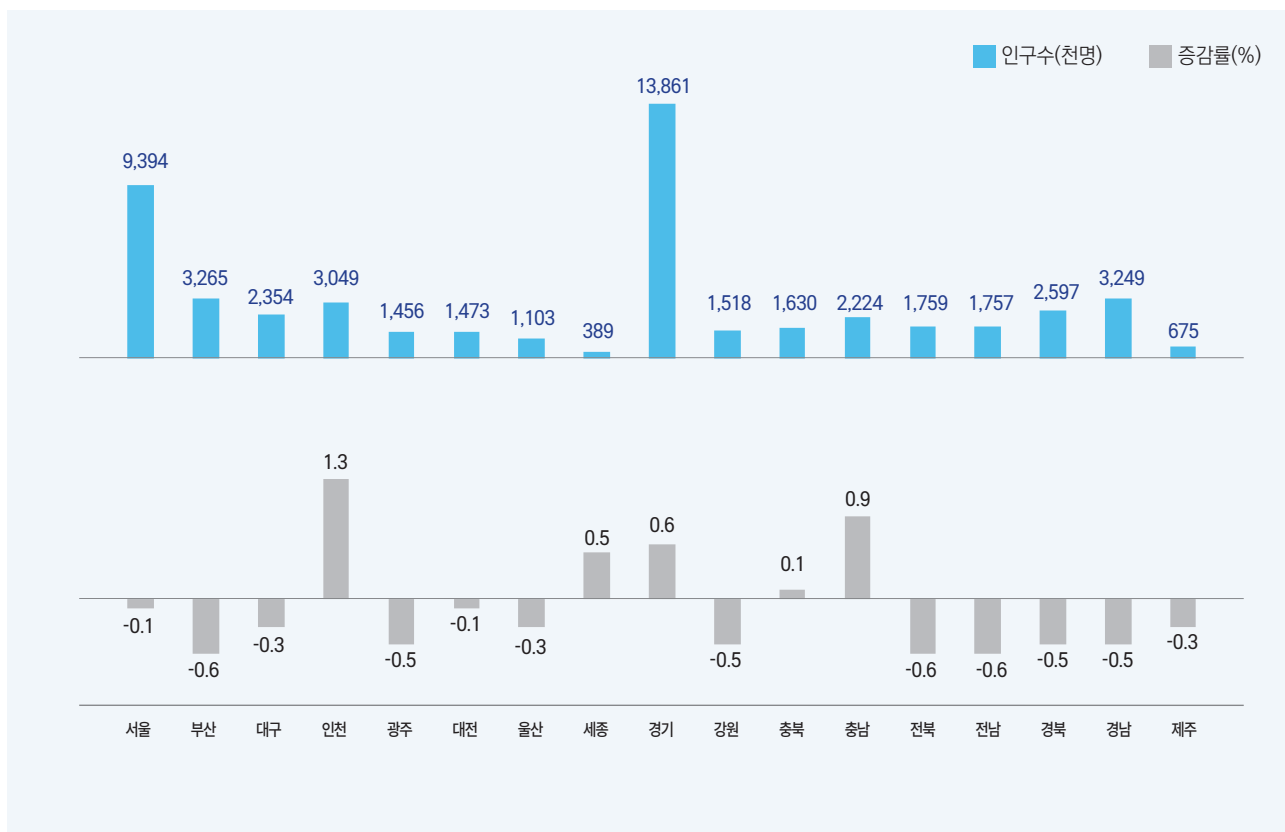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동향

시·도별 인구수 및 증감률



2024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50.8%를 차지해 수도권에 입구 집중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구증감률은 인천(1.3%), 충남(0.9%), 경기(0.6%) 순으로 높으며, 부산·전북·전남(각각 -0.6%)이 낮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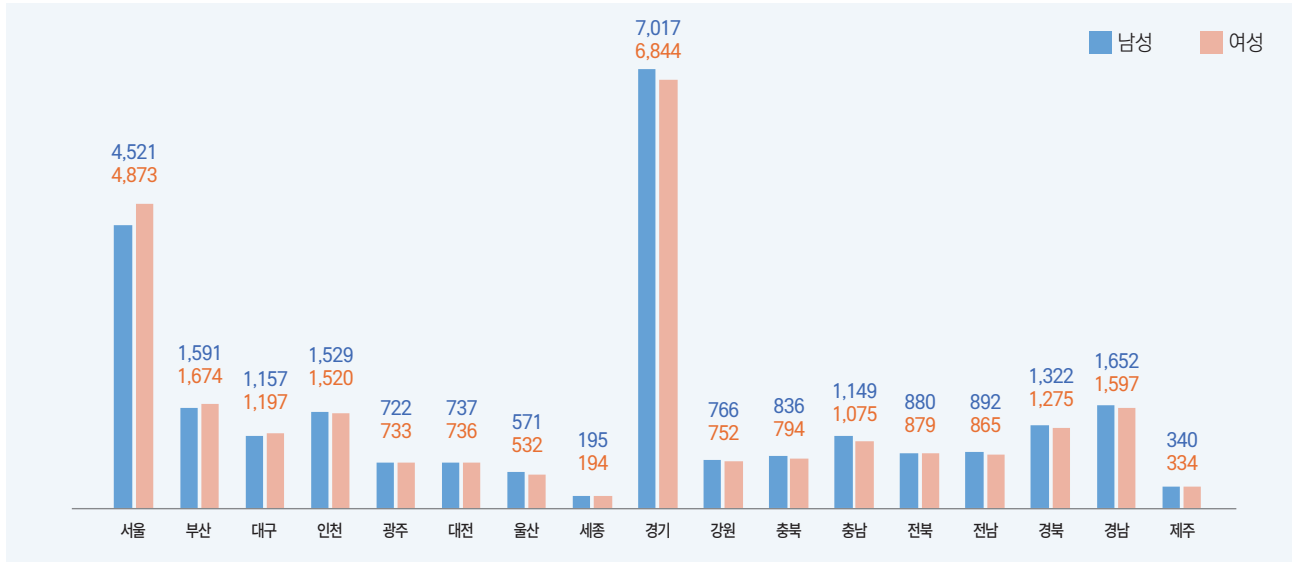
주 1)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인구, 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고 2023년부터는 추계인구임

2) 통계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12월(공표주기 5년)

시·도별 성별 인구

2024년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51.9%)이고 남성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산(51.8%)이다.

- 시·도별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은 여성 비중이 높은 반면, 나머지 지역은 남성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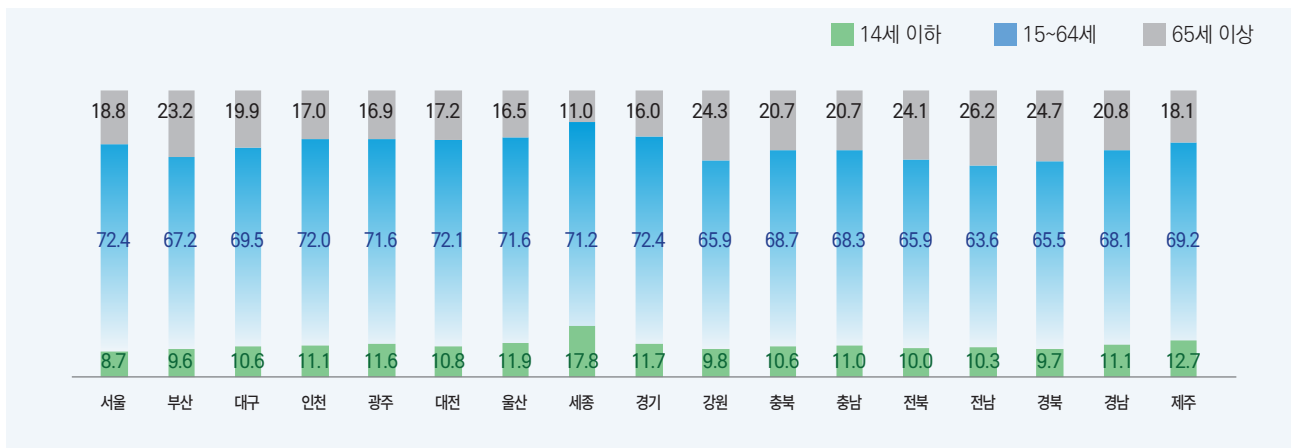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단위: 천명)

시·도별 연령별 인구

2024년 15~64세 인구비중은 대체로 특·광역시보다 도지역보다 높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도지역이 뚜렷하게 높은 모습이다.

- 시·도별 14세 이하의 비중은 대체로 10~13% 수준인데, 세종(17.8%), 제주(12.7%)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서울과 경기도는 15~64세 비중이 가장 높고(72.4%), 14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낮음, 반대로 전남은 15~64세 비중이 가장 낮고(63.6%), 65세 이상의 비중은 가장 높음(26.2%)
- 세종은 14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고(17.8%), 65세 이상의 비중은 가장 낮음(11.0%)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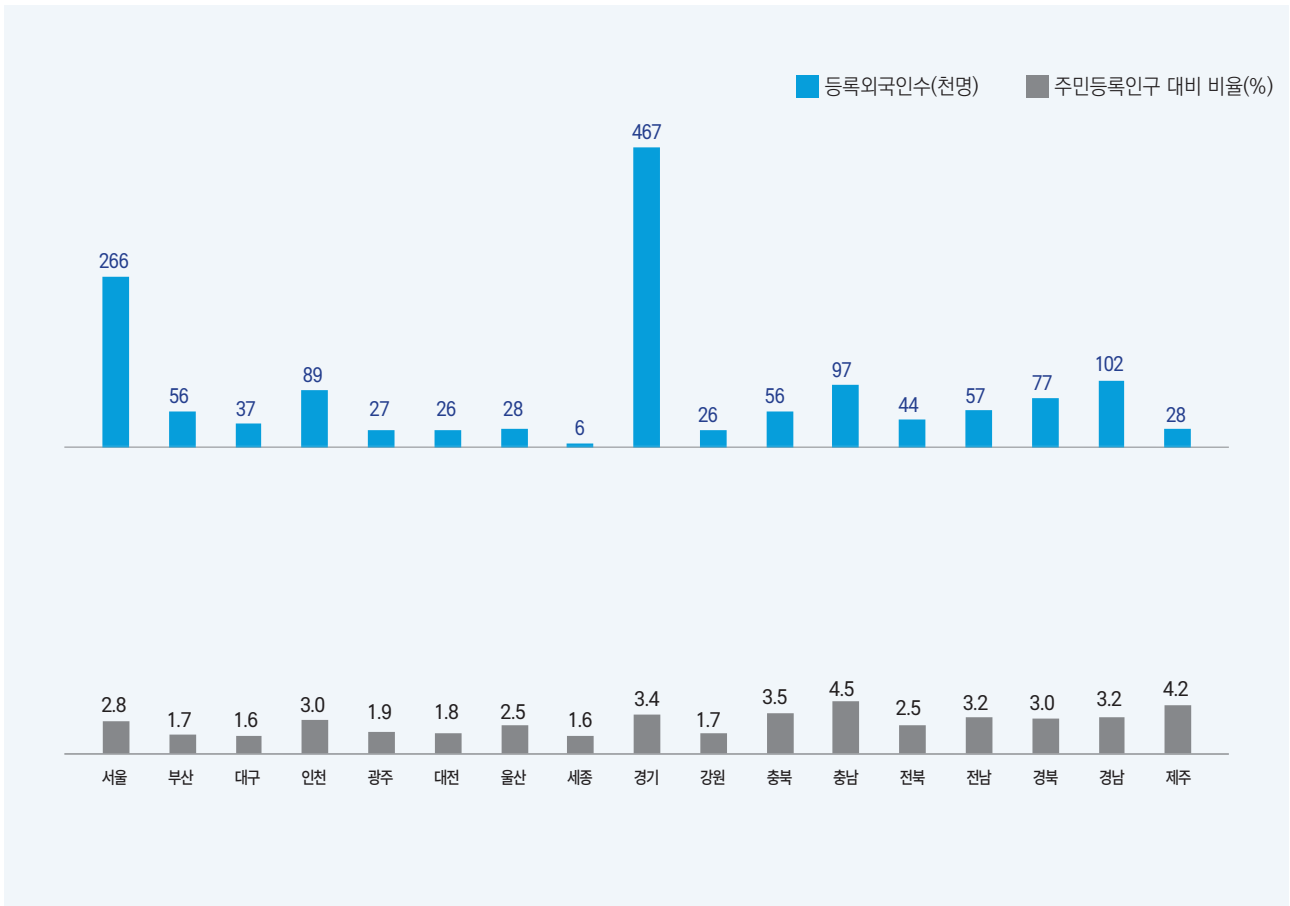
(단위: %)

시·도별 등록외국인수



2024년 등록외국인은 149만명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 등록외국인은 경기(46.7만명), 서울(26.6만명), 경남(10.2만명) 순으로 많음
-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충남에서 4.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세종과 대구는 1.6%로 가장 낮음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

주) 통계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7월

참고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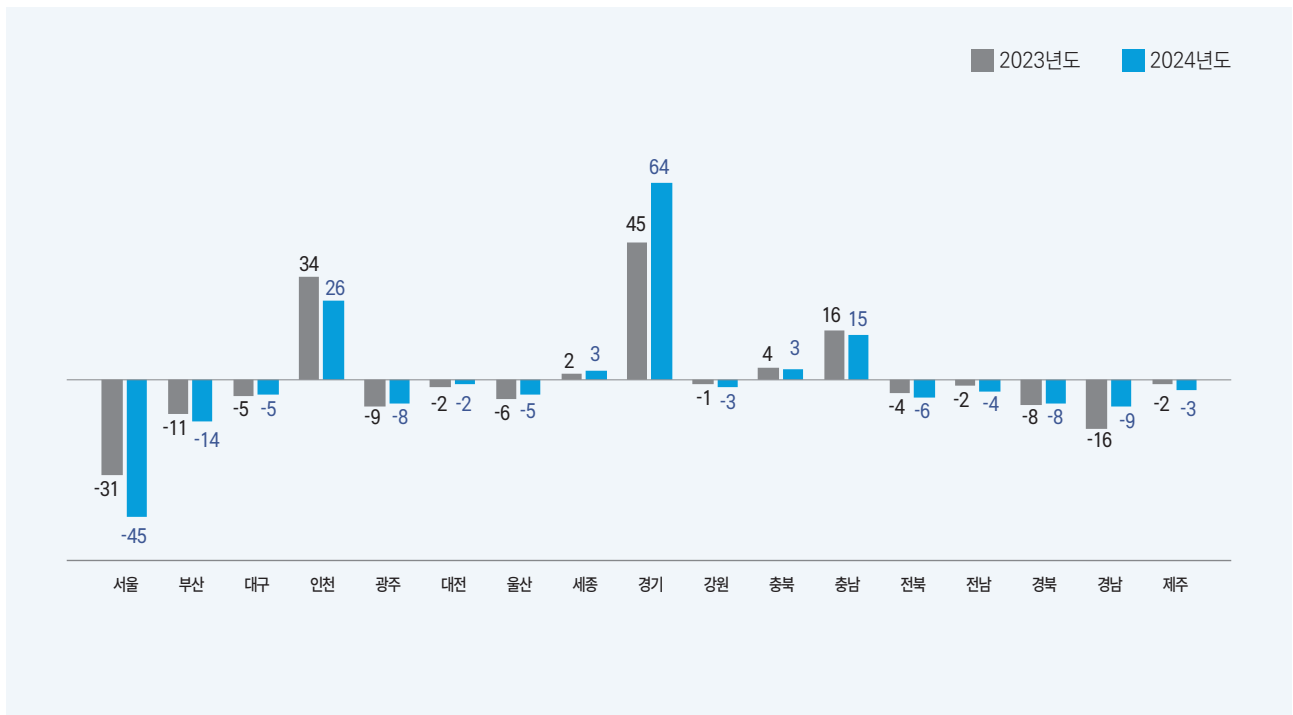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시·도별 인구 순이동



2024년 국내인구이동은 서울의 순전출(타 시·도로 이동)이 4.5만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의 순전입(타 시·도에서의 이동)이 6.4만명으로 가장 많다.

- 경기(6.4만명), 인천(2.6만명), 충남(1.5만명), 충북(0.3만명), 세종(0.3만명) 5개 시·도는 순유입, 나머지 12개 시·도는 순유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순이동=전입-전출)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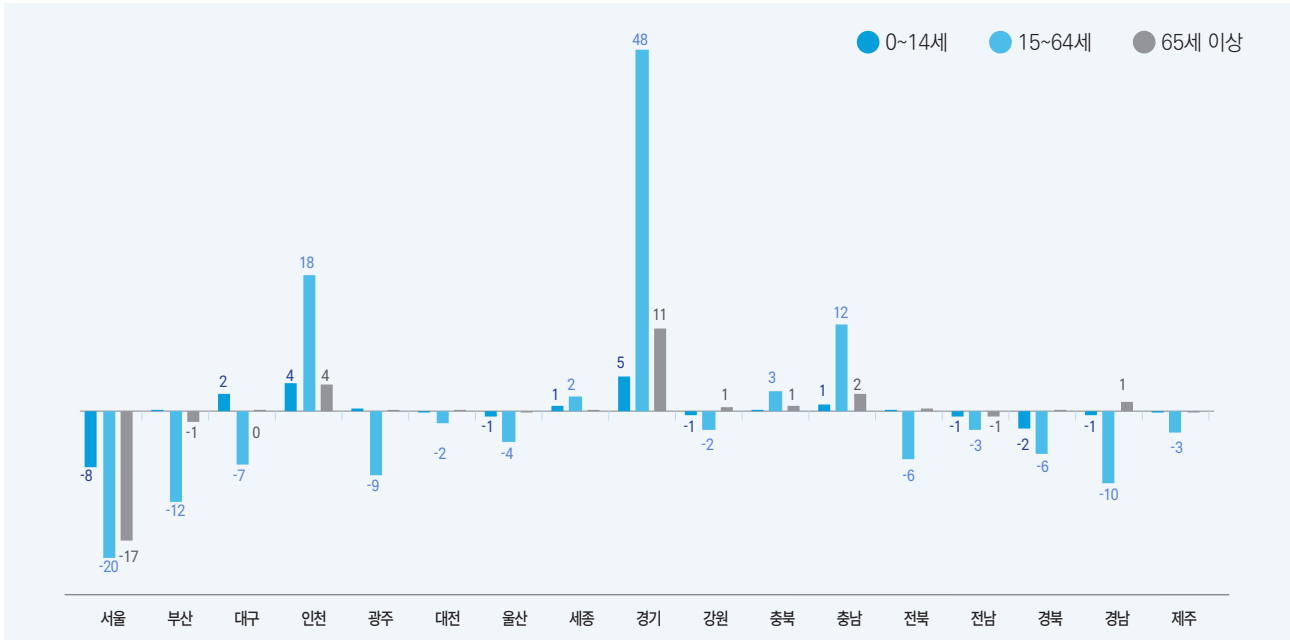
참고

- 국내인구이동은 대규모 신규아파트 입주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이주, 부동산 경기나 고용상황 등에 따라 다소 증감을 나타냄
-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변화, 경제성장률둔화,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감소 추세
-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므로 이동사향의 미신고, 지연신고, 위장신고 등으로 사실 상의 이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도 간 연령별 인구 순이동

2024년 15~64세 순전출은 서울, 부산, 경남, 광주 순으로 크고, 순전입은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순으로 큼

- 특히, 서울은 전 연령대에서 순전출이 크고, 경기는 전 연령대에서 순전입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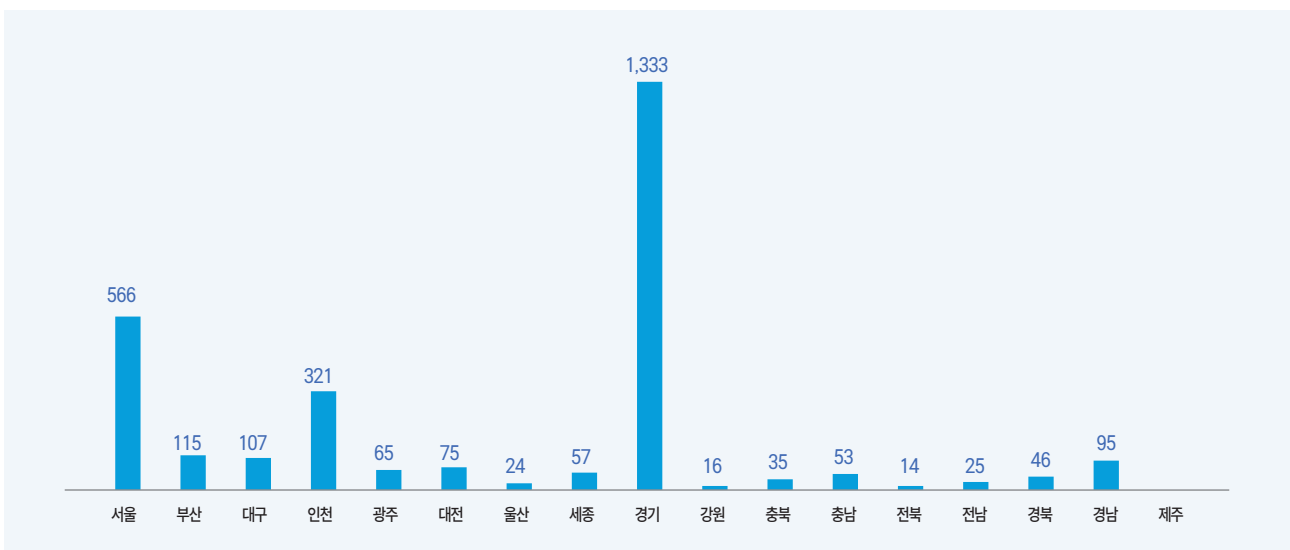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순이동=전입-전출, 2024)

(단위: 천명)

시·도 간 통근자

시·도 간 통근자수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고 이들 수도권 지역이 전국의 75.3%를 차지하고 있어 하나의 권역화된 노동시장임을 알 수 있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2020년)

(단위: 천명)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 경제

- ① 경제동향
- ② 산업동향
- ③ 소비 및 물가 동향
- ④ 수출·입 동향
- ⑤ 사업체 동향
- ⑥ 분배 동향
- ⑦ 지역별 경제동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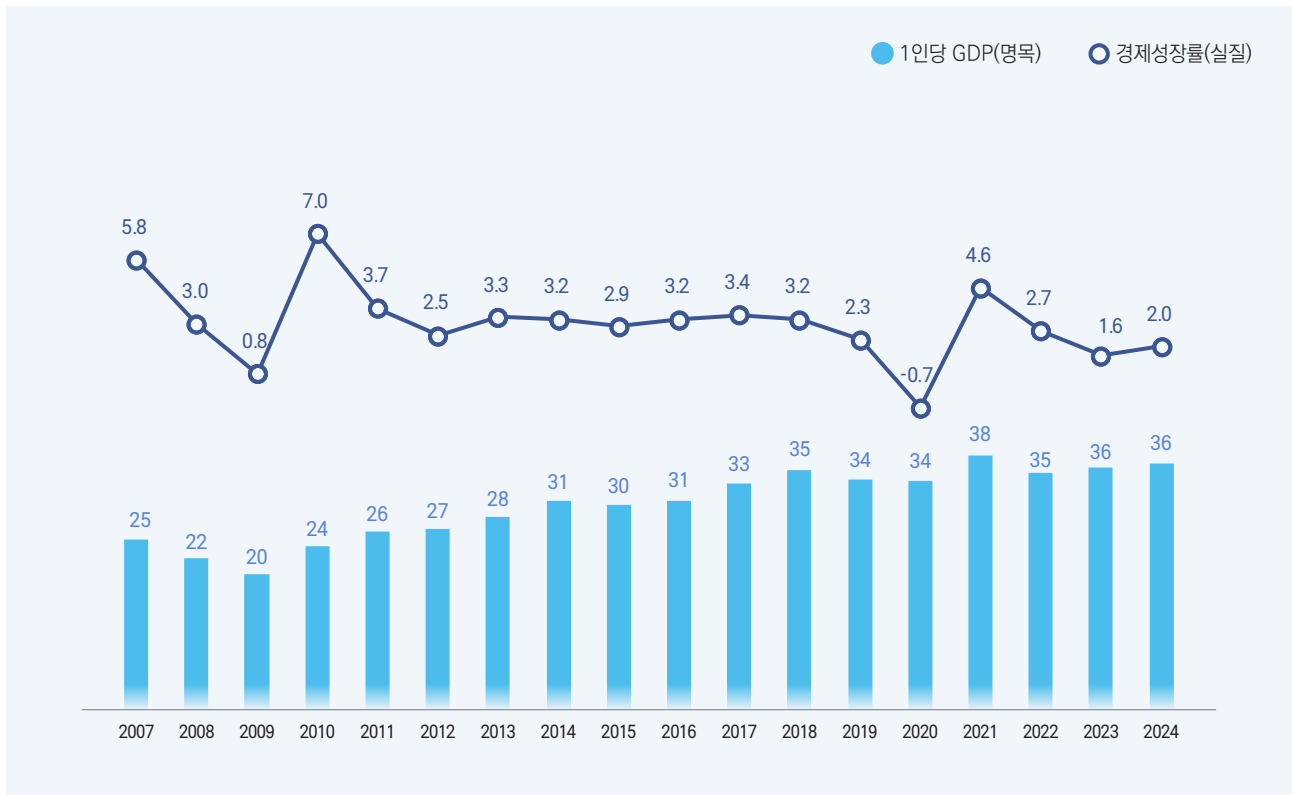
경제동향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로 전년(1.6%)대비 0.4%p 상승하였고, 1인당 GDP(명목)는 3.6만 US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7%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약 4%대로 하락
- 2008년 이후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3% 내외로 하락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0.7%)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증가 전환(+4.6%)하여 2024년까지 약 2% 대 유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단위: 천US달러, %)

주) 1인당 GDP는 = GDP ÷ 총인구, 총인구수는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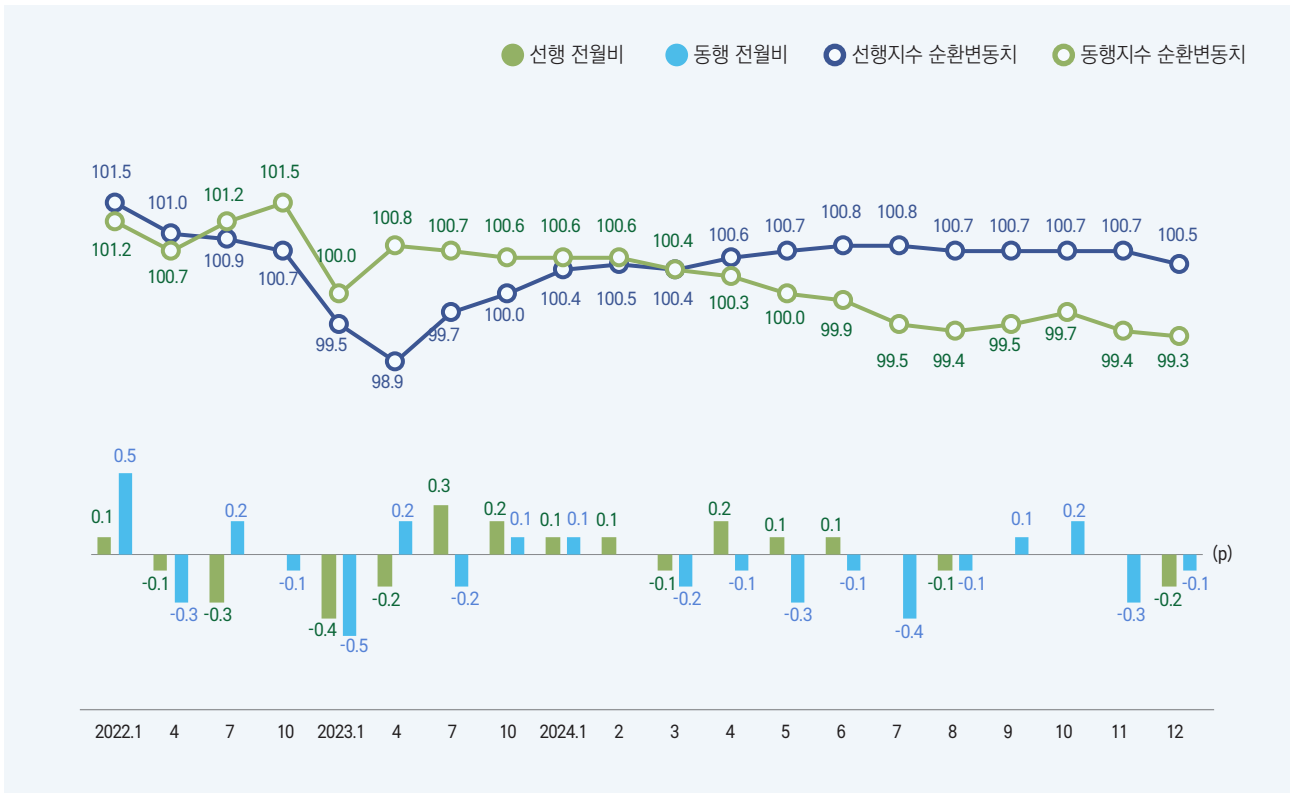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즉, 금년의 실질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
- **국내총생산(GDP)**: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득도 포함

경기종합지수



2024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 이후 100보다 낮게 나타나며 하락하고 있어 체감경기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연중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0을 상회하고 있어 단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예측된다.

- 추세치=100을 기준으로 순환변동치가 100을 상회하면 추세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100을 하회하면 추세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순환변동치 수준보다는 방향 중심으로 해석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단위: 불경기 < 100 < 호경기, p)
 주 1) 선행종합지수: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7개 지표(기건설수주역, 기계류내수 출하지수, 재고순환지표 등)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2) 동행종합지수: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7개 지표(관광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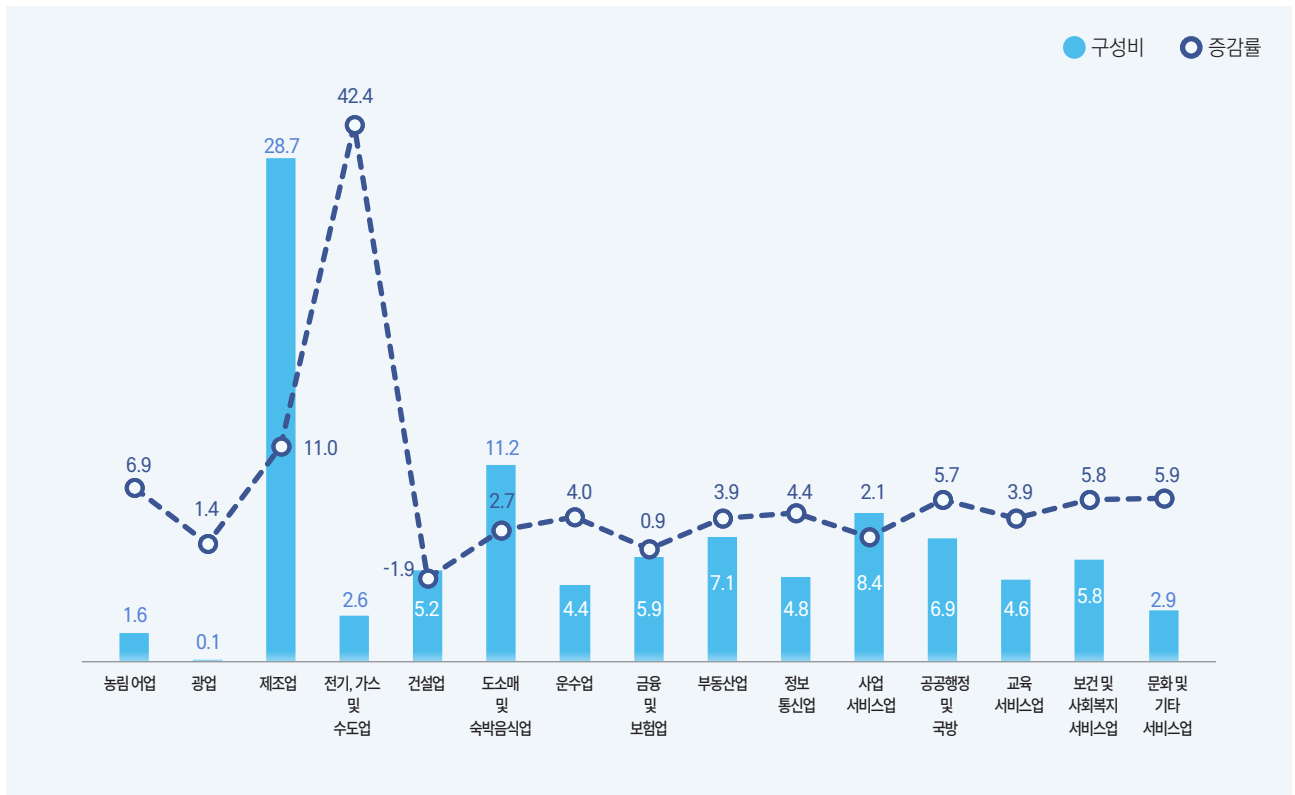
- 경기종합지수는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동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부문별(생산, 투자, 고용, 소비 등)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 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합성하여 작성
- ☞ 개별 구성지표들의 증감률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도 알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속도까지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대표적 종합경기지표로 활용

산업동향

업종별 총생산액 비중(%)



2024년 업종별 총생산액은 제조업(28.7%),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11.2%), 사업서비스업 8.4%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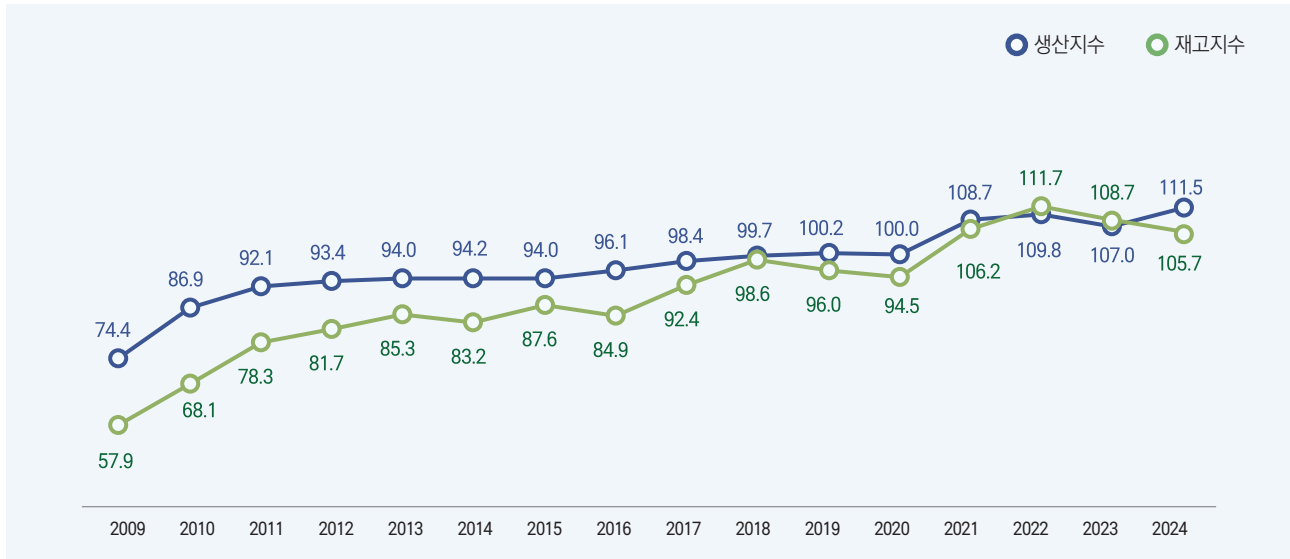


- 국민계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분류, 회계규정을 근거로 일관적이고 통합적으로 만들어진 거시경제계정표, 대차대조표를 말함
- ☞ 경제분석, 의사결정, 정책입안을 위해 경제데이터를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회계체계를 제공

제조업 생산지수 및 재고지수

2024년 제조업 생산지수는 111.5로 2020년(=100) 대비 11.5% 높으며, 제조업 재고지수는 105.7로 나타났다.

- 2000년 이후 제조업 생산지수와 재고지수는 추세적 증가를 보이며, 2022년과 2023년은 재고지수가 생산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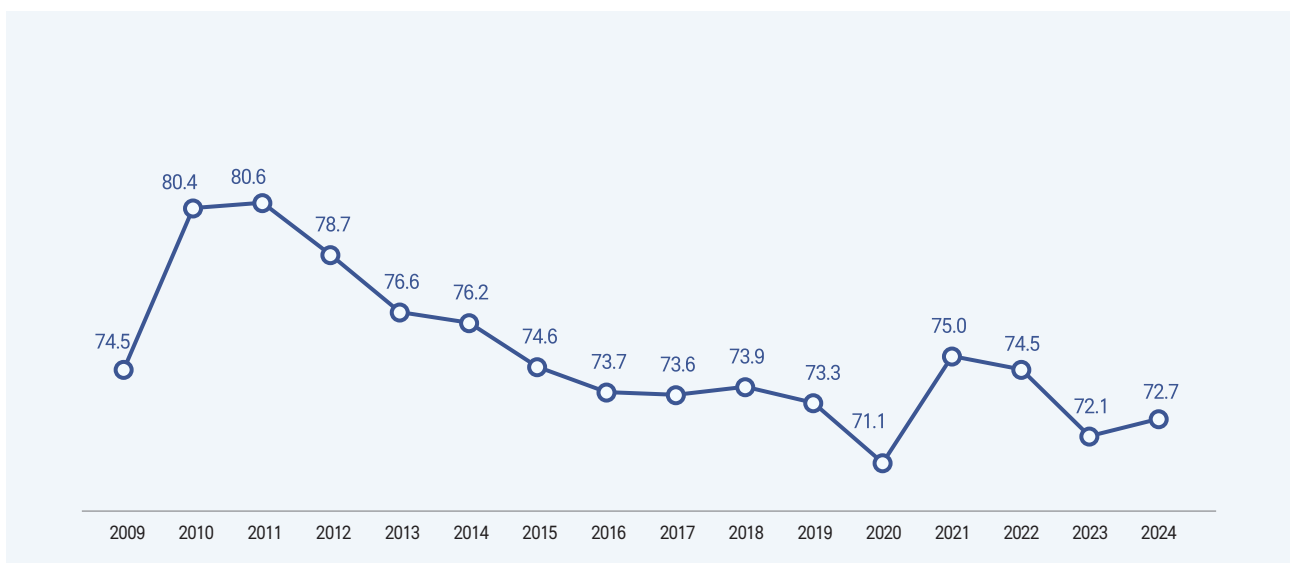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단위: p)

- 주 1) 제조업 생산지수: 제조업의 생산량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산업 생산 수준을 반영
2) 제조업 재고지수: 제조업체가 보유한 완제품 재고 수준을 나타냄, 경기 후행지표 역할

제조업 평균가동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23년까지 생산활동 위축으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 회복세로 72.7%까지 반등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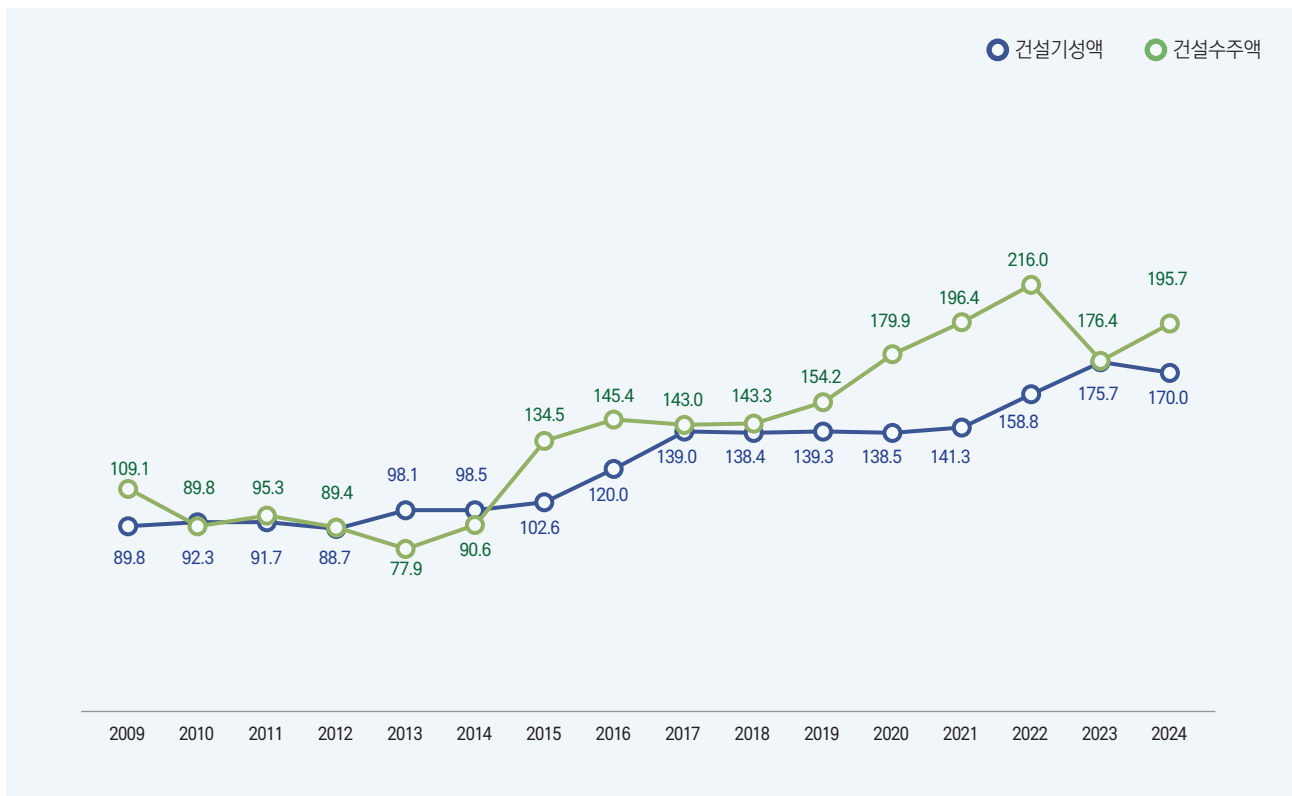
(단위: %)

- 주) 제조업 평균가동률: 제조업체가 보유 중인 생산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지표

건설수주액 및 기성액



2024년 건설수주액은 195.7조로 전년대비 19.2조(+9.8%) 증가한 반면, 건설기성액은 170조로 전년대비 5.7조(-3.4%) 감소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단위: 조원)

주) 국가데이터처 발표 건설수주액은 건설경기동향조사 총기성액의 54%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하여 대한건설협회 발표 자료와 결과치에 차이 발생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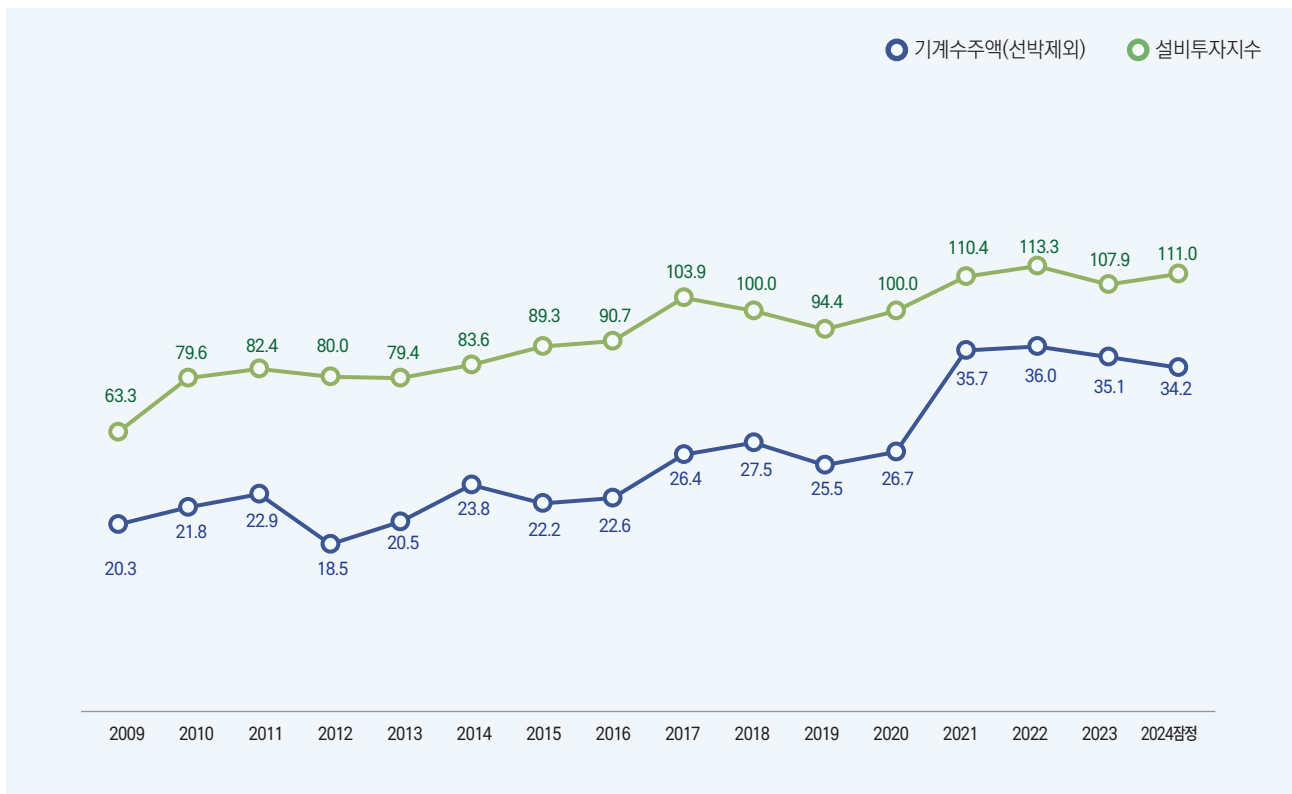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은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을 의미, 건축허가 통계와 함께 향후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선행지표로서 국내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

※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으로 실질금액 분석을 위해서는 물가변동요인의 감안이 필요하고, 대규모 건설수주가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월별 진폭이 큼

기계수주액 및 설비투자지수



기계수주액과 설비투자지수는 추세적 상승 중이나, 2024년 기계수주액은 34.2조로 전년대비 0.9조(-2.7%) 감소하였고, 설비투자지수(잠정)는 111.0으로 전년대비 2.9% 상승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기계수주동향조사, 산업활동동향(설비투자지수 2020=100)

(단위: 조원,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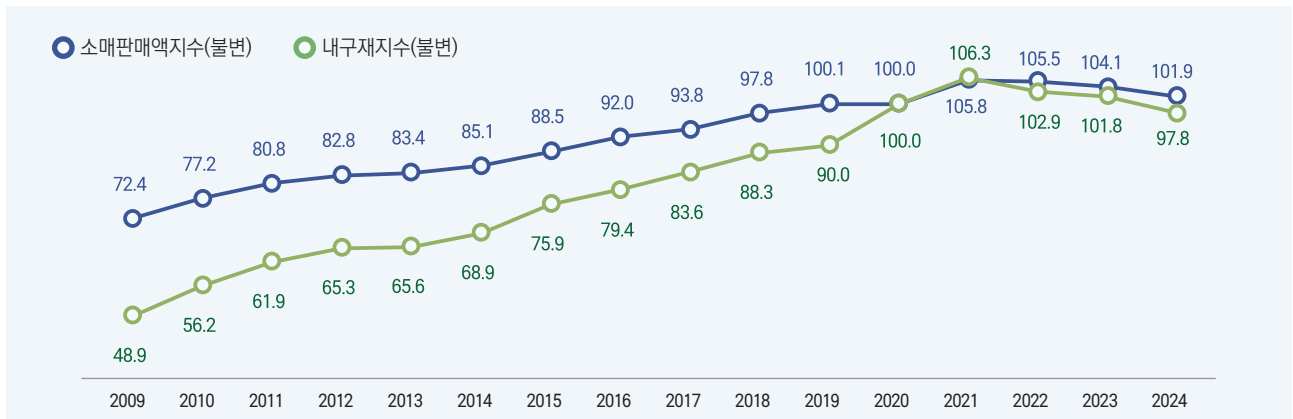
용어 정리

- **설비투자지수**는 신속한 설비투자 동향파악을 위해 매월 국내에 공급되는 설비투자재의 투자액을 추정하여 지수화한 것
- **설비투자**란 생산과정에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중 기계류 및 운송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말함.
 - ※ 설비투자는 단기적으로 경제의 총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소비 및 물가 동향

소비

2024년 소비판매액지수는 101.9로 전년대비 2.1% 하락하였고 내구재지수 역시 97.8로 전년대비 3.9%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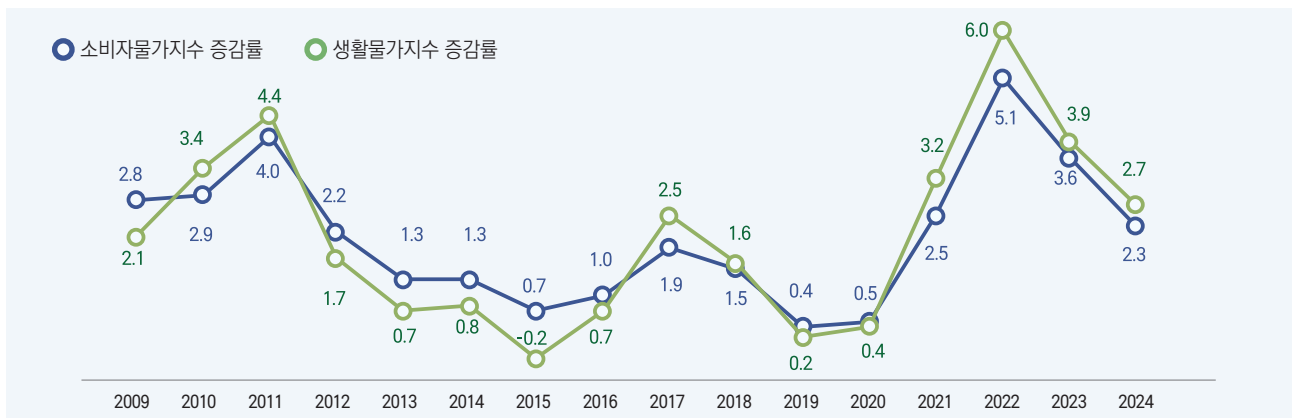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2020=100)

(단위: p)

주) 내구재 :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고가 상품이 해당됨,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통신기기, 가구 등이 해당

물가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2로 전년대비 2.3% 상승, 생활물가지수도 116.7로 전년대비 2.7% 상승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단위: %)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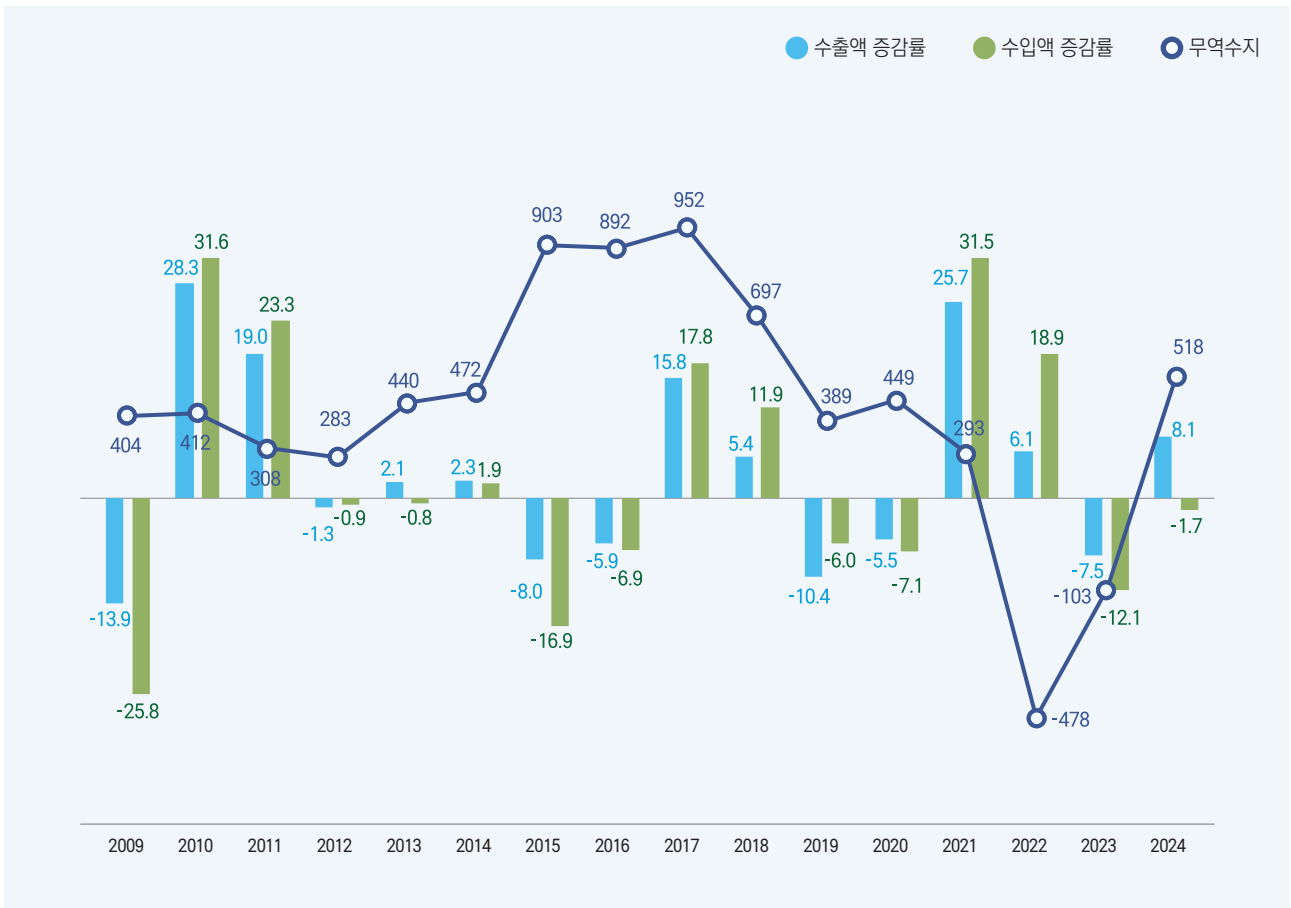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해야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수출·입 동향

수출·입 동향



2024년 수출액은 6,836억 달러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6,318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다.
한편, 무역수지 규모는 518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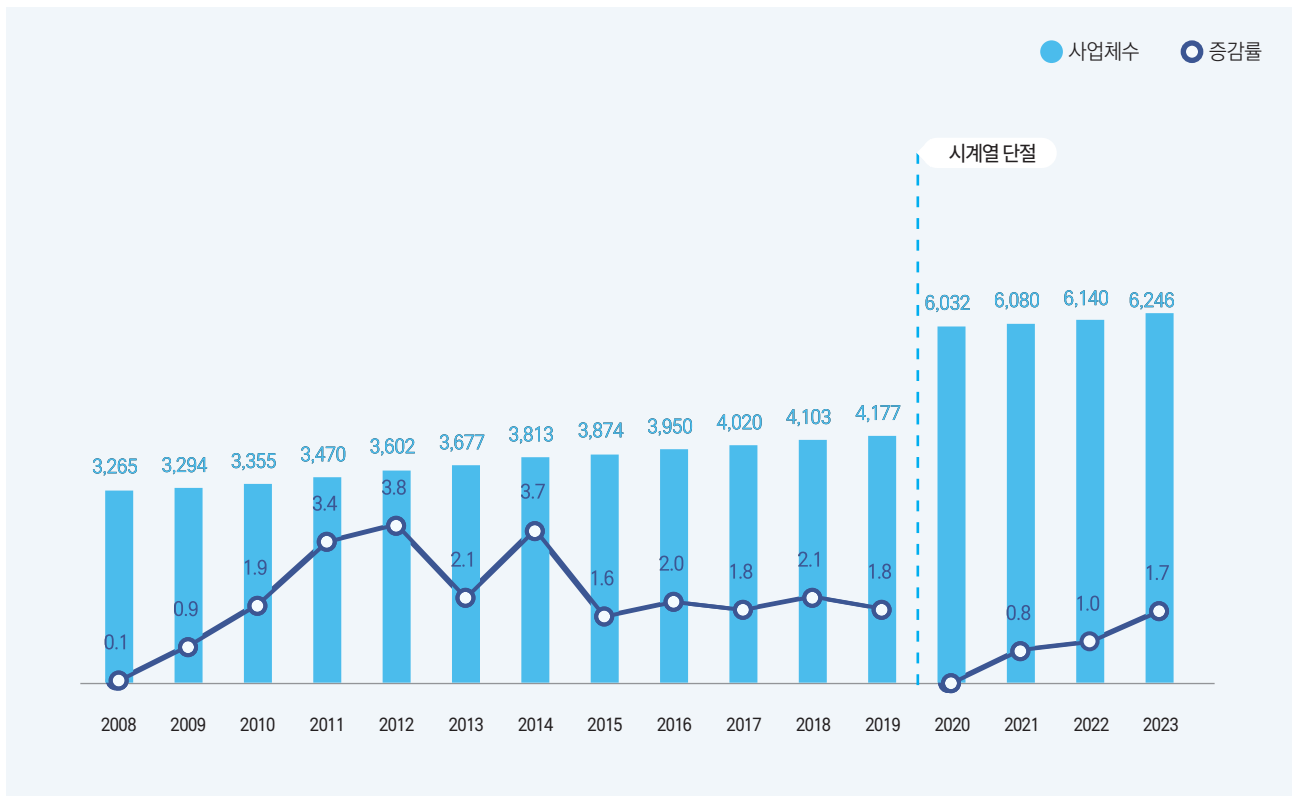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실적

(단위: 억달러, %)

사업체 동향

2023년 전국의 사업체 수는 625만개소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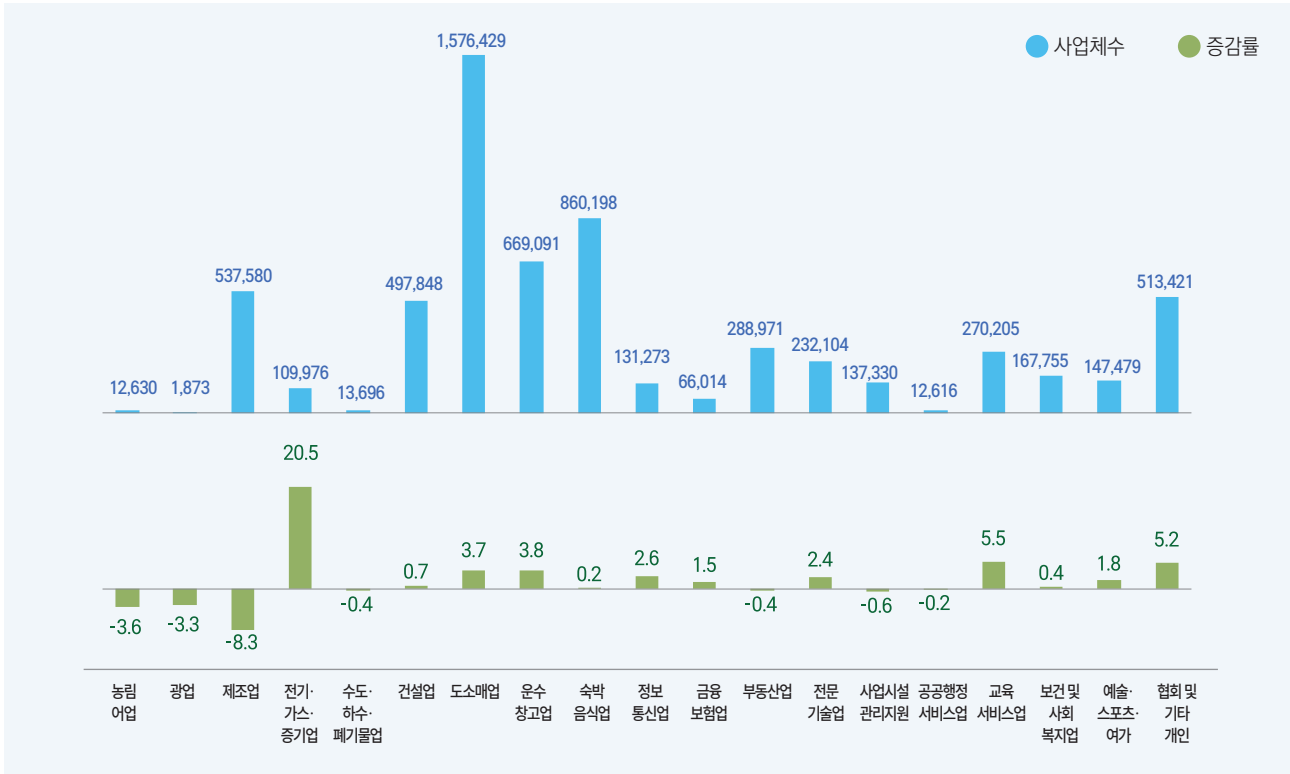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단위: 천개소, %)
 주) 2021년 기준 조사부터 등록기반(행정자료를 활용한 모집단을 도입)으로 작성하고 통계표는 2020년부터 수록하여 2020년 이전 자료와 시계열 비교 시 주의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 수

2023년 전국의 사업체 수는 도소매(158만개), 숙박음식업(86만개), 운수창고업67만개) 제조업(54만개) 순이며, 전기·가스·증기업(20.5%), 교육서비스업(5.5%), 협회기타개인(5.2%)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단위: 개소, %)

전 산업	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개소	비중	증감률	개소	비중	개소	비중
전 산업	6,246,489	[100.0]	<1.7>	6,241,869	(99.9)	4,620	(0.1)
농림어업	12,630	[0.2]	<-3.6>	12,628	(100.0)	2	(0.0)
광업	1,873	[0.0]	<-3.3>	1,870	(99.8)	3	(0.2)
제조업	537,580	[8.6]	<-8.3>	536,850	(99.9)	730	(0.1)
전기·가스·증기업	109,976	[1.8]	<20.5>	109,946	(100.0)	30	(0.0)
수도·하수·폐기물업	13,696	[0.2]	<-0.4>	13,692	(100.0)	4	(0.0)
건설업	497,848	[8.0]	<0.7>	497,457	(99.9)	391	(0.1)
도소매업	1,576,429	[25.2]	<3.7>	1,576,250	(100.0)	179	(0.0)
운수창고업	669,091	[10.7]	<3.8>	668,897	(100.0)	194	(0.0)
숙박음식업	860,198	[13.8]	<0.2>	860,164	(100.0)	34	(0.0)
정보통신업	131,273	[2.1]	<2.6>	131,012	(99.8)	261	(0.2)
금융보험업	66,014	[1.1]	<1.5>	65,856	(99.8)	158	(0.2)
부동산업	288,971	[4.6]	<-0.4>	288,927	(100.0)	44	(0.0)
전문기술업	232,104	[3.7]	<2.4>	231,633	(99.8)	471	(0.2)
사업시설관리지원	137,330	[2.2]	<-0.6>	136,655	(99.5)	675	(0.5)
공공행정서비스업	12,616	[0.2]	<-0.2>	12,046	(95.5)	570	(4.5)
교육서비스업	270,205	[4.3]	<5.5>	269,925	(99.9)	280	(0.1)
보건 및 사회복지업	167,755	[2.7]	<0.4>	167,218	(99.7)	537	(0.3)
예술·스포츠·여가	147,479	[2.4]	<1.8>	147,437	(100.0)	42	(0.0)
협회 및 기타 개인	513,421	[8.2]	<5.2>	513,406	(100.0)	1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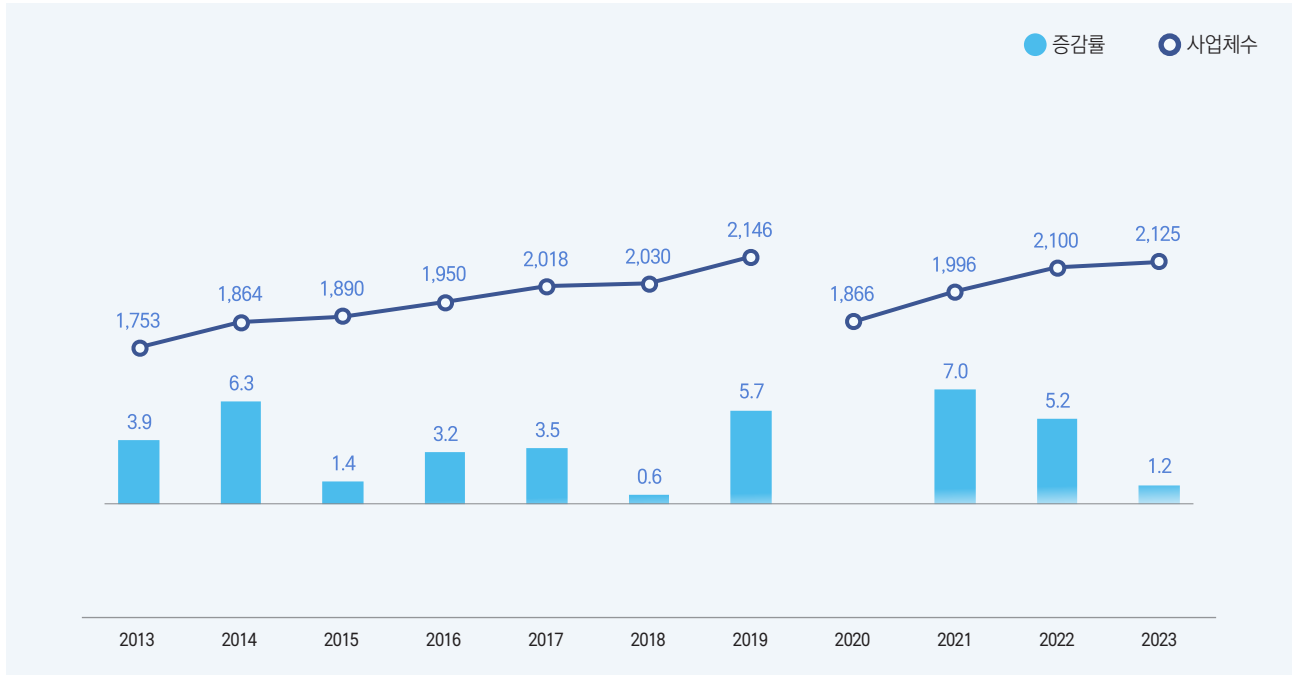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23년)

(단위: 개소, %)

주) [] 업종별 비중, < > 전년대비 증감률, () 업종내 규모별 비중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2023년 1인 이상 사업체는 212만개로 전년에 비해서 2.4만개(+1.2%) 증가하였다.



	전 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중기업	수도·하수·폐기물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전규모	2,124,670	7,713	946	302,999	1,968	9,347	134,607	460,193	48,365	352,235
1~4인	1,314,925	4,734	420	149,261	1,053	4,381	68,876	334,526	25,537	237,519
5~9인	471,687	1,704	183	75,860	260	2,120	36,716	87,905	8,556	92,081
10~29인	249,825	988	266	56,936	187	1,960	21,964	31,009	8,727	20,768
30~99인	70,620	265	72	16,935	346	820	5,488	5,634	4,228	1,696
100~299인	13,603	20	1	3,274	91	63	1,162	939	1,126	134
300인 이상	4,010	2	4	733	31	3	401	180	191	37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관리·지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업	협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규모	59,576	41,605	92,465	119,953	57,573	91,076	151,167	45,028	147,854
1~4인	37,426	14,003	66,058	73,779	34,367	56,023	53,628	30,861	122,473
5~9인	9,615	10,667	17,867	25,858	9,329	20,636	46,546	9,464	16,320
10~29인	8,141	11,950	7,532	14,536	7,838	10,458	35,558	3,513	7,494
30~99인	3,329	4,407	812	4,315	3,927	3,318	12,841	809	1,378
100~299인	811	417	152	1,007	1,411	402	2,070	353	170
300인 이상	254	161	44	458	701	239	524	28	19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단위: 개소, %)

주 1) 규모는 전체 종사자수(자영업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기준

주 2) '21년 기준 조사부터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모집단인 전국사업체조사를 등록기반(행정자료를 활용한 모집단을 도입)으로 작성하여 '20년 이전 자료와 시계열 비교 시 주의

참고

-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국가데이터처 전수조사인 「전국사업체조사」로부터 ①일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②공무원 재직기관, ③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등을 제외하고 작성한 가공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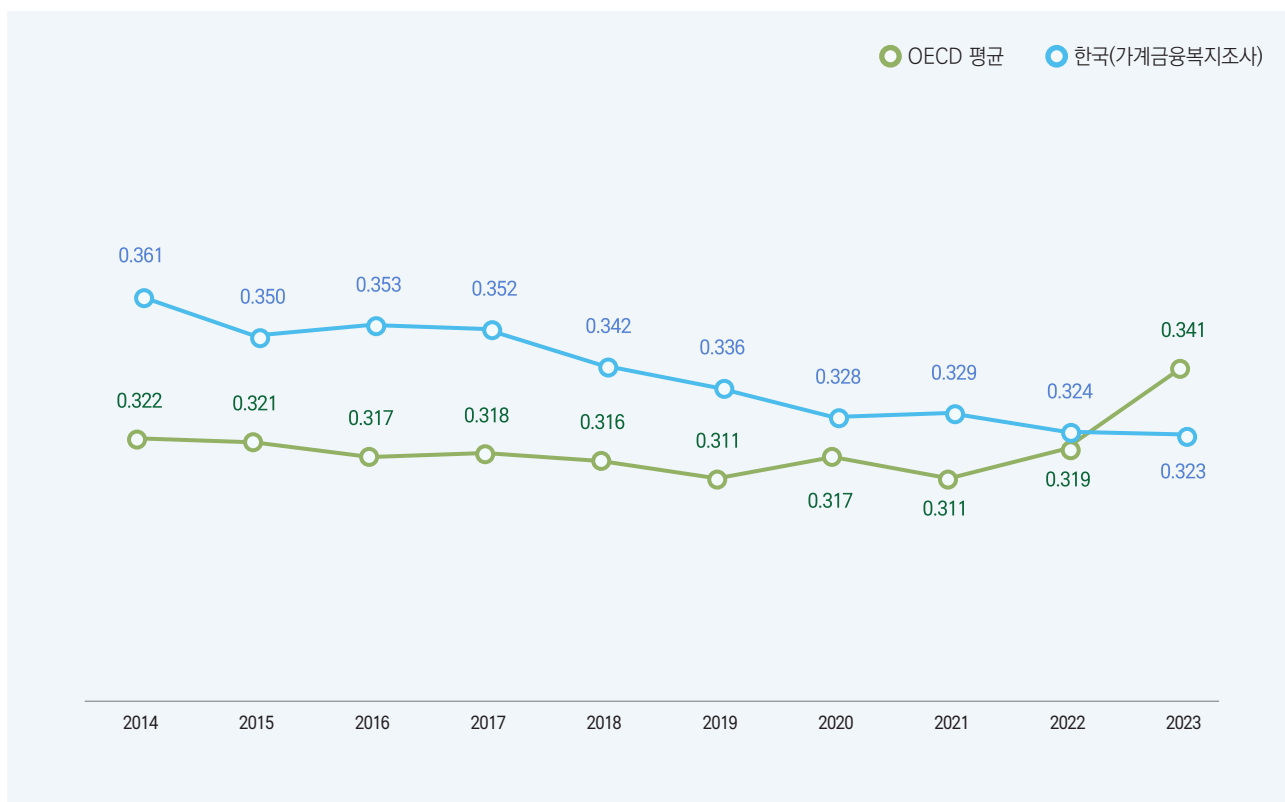
☞ 산업분류 중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분배 동향

지니계수



2023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3으로 전년(0.324)보다 소폭 낮아졌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 1)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최근 OECD 작성기준(Wave7)에 따라 작성
- 주 2) 소득분배지표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작성하다 '16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



-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
 - ☞ 지니계수는 국가 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간의 소득분배를 비교할 수 있고, 국가 내에서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상을 가리키며, 소득 불평등의 증감을 알 수 있음

상대적 빈곤율

2023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OECD 평균(16.2%)보다 1.3%p 낮게 나타났다.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위: %)
 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최근 OECD 작성기준(Wave7)에 따라 작성, 2011~2019년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급여 항목을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재작성



-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는 곧 빈곤가구의 규모를 나타낸다. 소득불평등 지표로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과 함께 자주 활용
 ※ OECD 자료로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14.9%)은 미국(18.1%)보다 낮지만, 영국(11.8%), 스웨덴(8.4%), 프랑스(8.3%) 등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편

저임금근로자 비율

2024년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6.1%로 전년(16.2%)보다 0.1%p 소폭 낮아졌다

- 국제적으로 한국은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함
- 2023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16.2%)은 영국(23.5%), 미국(23.3%)보다 낮으나, OECD 평균(12.7%) 보다 높은 수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OECD 「Benefits, earnings and wages」 (단위: %)
 주) 저임금근로자 비율 = (월임금 중위 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 ÷ 전체 임금근로자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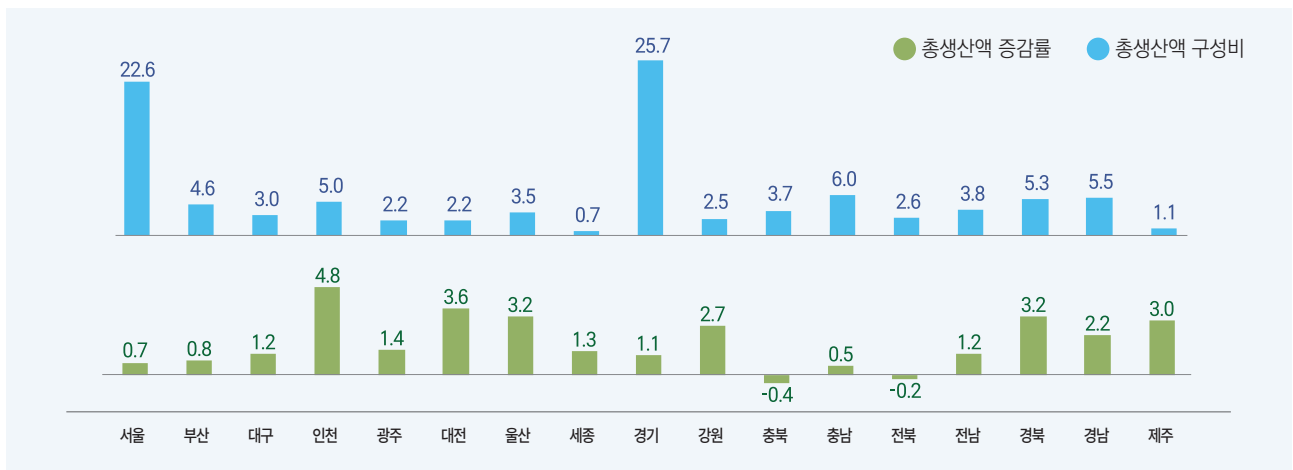


-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 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지표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지역별 경제동향

시·도별 총생산액

2023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 총생산이 전국의 53.3%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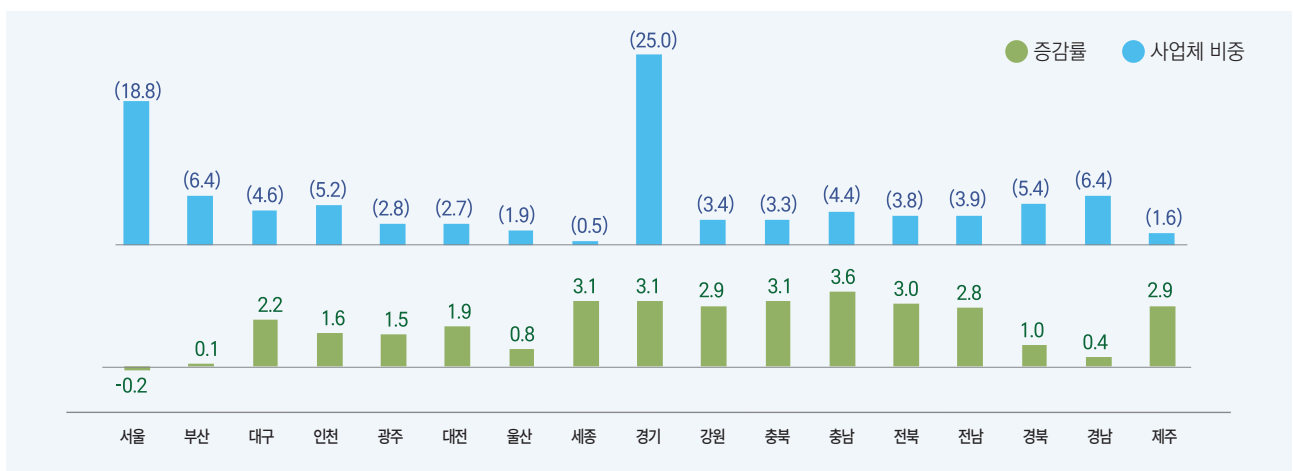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23년)

(단위: %)

시·도별 사업체 수

2023년 사업체 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49.0%로 집중되어 있고,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 24.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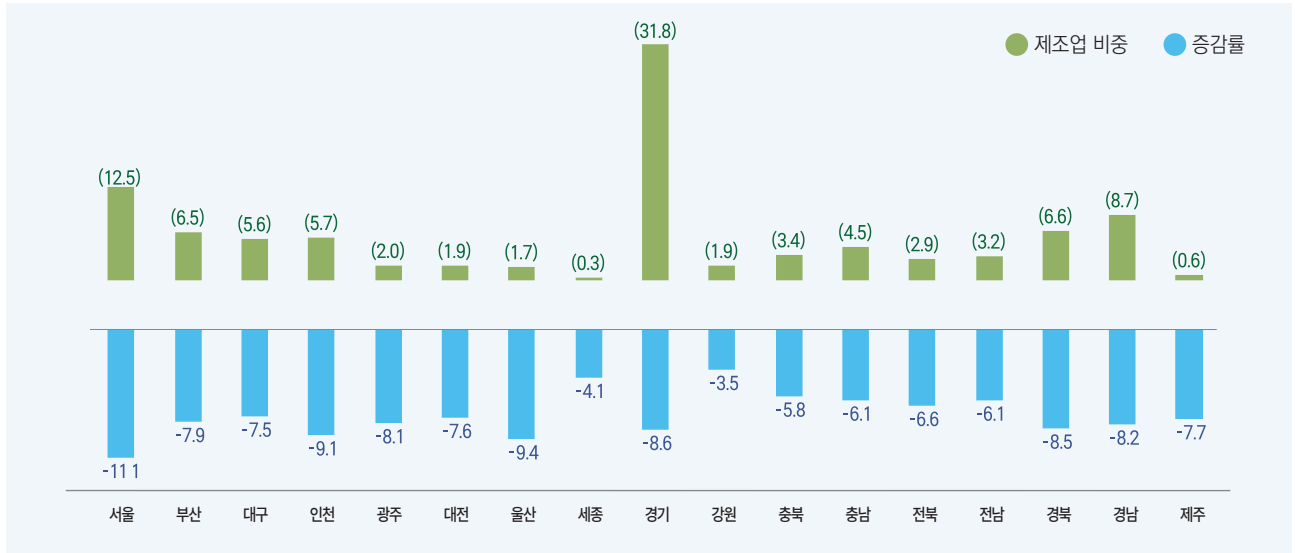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23년)

(단위: %)

시·도별 제조업 사업체 수

2023년 제조업 사업체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전체의 79.3%를 차지하고 있다.

- 제조업 사업체 증감률은 서울(-11.1%), 울산(-9.4%), 인천(-9.1%) 순이며, 17개 시도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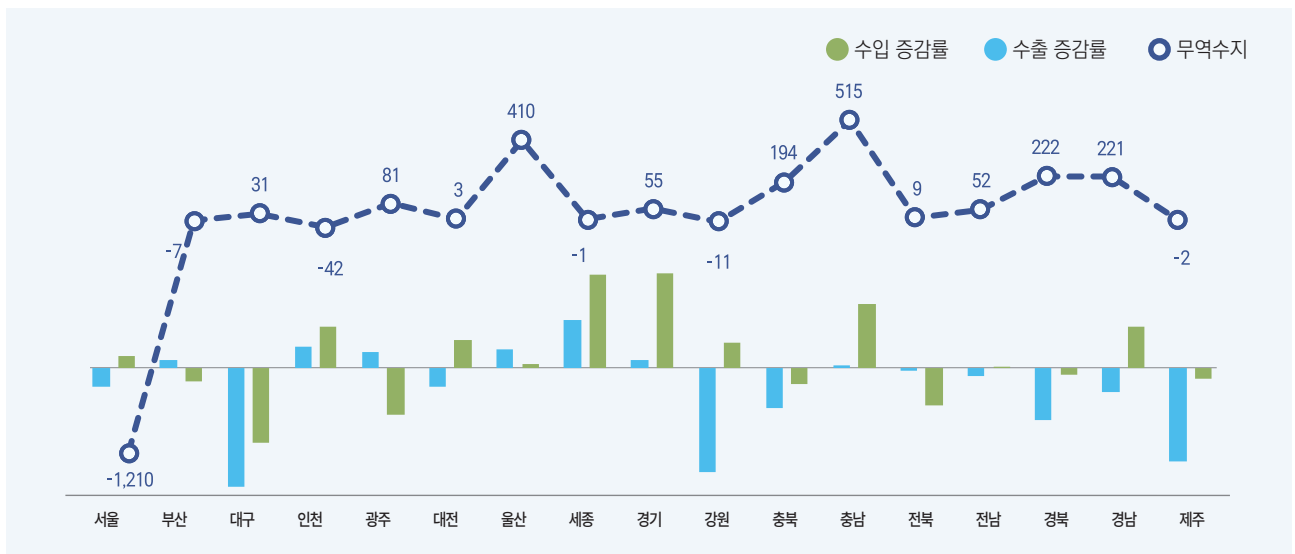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23년)

(단위: %)

시·도별 수출·입

2024년 무역수지는 서울, 인천, 강원 등 6개 시·도에서 적자로 나타난 반면, 충남, 울산 등 11개 시·도에서 흑자를 보여주었다.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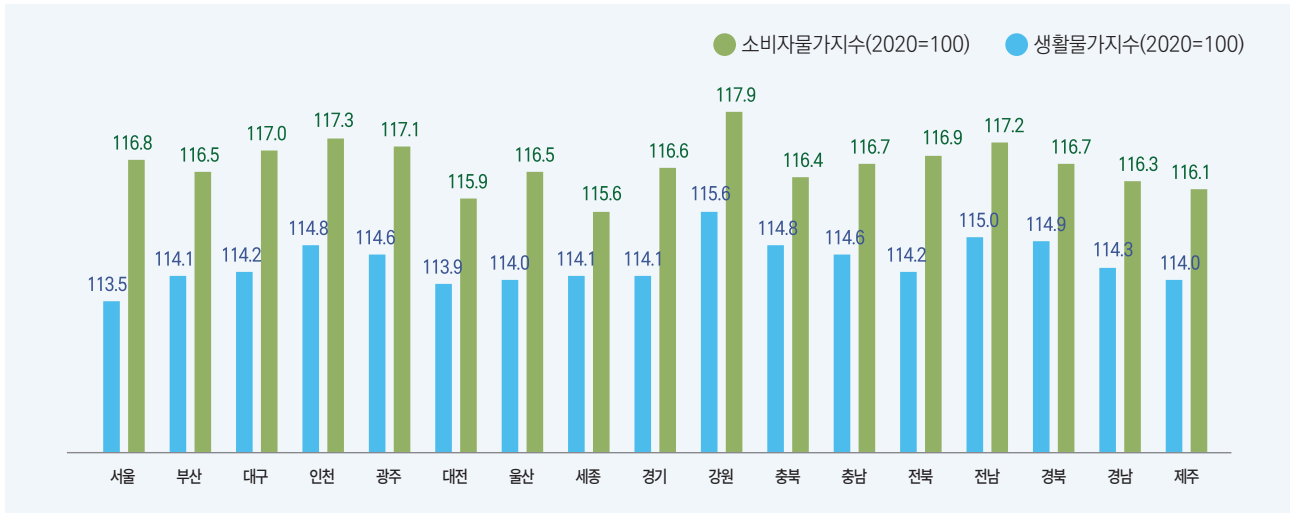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

시·도별 물가



2024년 시도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1.8~2.6%, 생활물가 2.0~3.1% 각각 상승

- 소비자물가는 강원이 117.9로 가장 높고, 세종이 115.6으로 가장 낮음
- 생활물가는 강원이 115.6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113.5로 가장 낮음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국	100.0	102.5	107.7	111.6	114.2	100.0	103.2	109.4	113.7	116.7
서울	100.0	102.1	106.7	110.9	113.5	100.0	102.6	108.4	113.6	116.8
부산	100.0	102.5	107.4	111.3	114.1	100.0	103.0	108.7	113.0	116.5
대구	100.0	102.6	108.0	111.8	114.2	100.0	103.5	109.9	114.2	117.0
인천	100.0	102.6	108.0	111.9	114.8	100.0	103.3	109.5	113.8	117.3
광주	100.0	102.6	107.8	111.8	114.6	100.0	103.5	110.0	114.2	117.1
대전	100.0	102.5	107.5	111.2	113.9	100.0	103.1	109.2	113.0	115.9
울산	100.0	102.5	107.6	111.4	114.0	100.0	103.3	109.4	113.6	116.5
세종	100.0	102.7	108.2	111.5	114.1	100.0	102.9	109.4	112.6	115.6
경기	100.0	102.6	107.7	111.6	114.1	100.0	103.4	109.4	113.6	116.6
강원	100.0	102.8	109.0	113.0	115.6	100.0	103.6	110.6	114.9	117.9
충북	100.0	102.7	108.5	112.4	114.8	100.0	103.5	110.1	113.9	116.4
충남	100.0	102.8	108.7	112.4	114.6	100.0	103.6	110.4	114.2	116.7
전북	100.0	102.6	108.1	111.6	114.2	100.0	103.4	109.9	113.9	116.9
전남	100.0	102.6	108.4	112.2	115.0	100.0	103.4	110.1	114.0	117.2
경북	100.0	102.7	108.7	112.4	114.9	100.0	103.5	110.3	114.1	116.7
경남	100.0	102.5	108.0	111.8	114.3	100.0	103.2	109.5	113.6	116.3
제주	100.0	102.6	108.7	112.0	114.0	100.0	103.5	110.1	113.8	116.1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2020=100),

(단위: p)

용어 정리

-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품목 458개를 대상으로 작성
-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 고용

- ① 노동력 현황
- ② 취업자 및 고용률
- ③ 실업자 현황
- ④ 비경제활동인구



1

노동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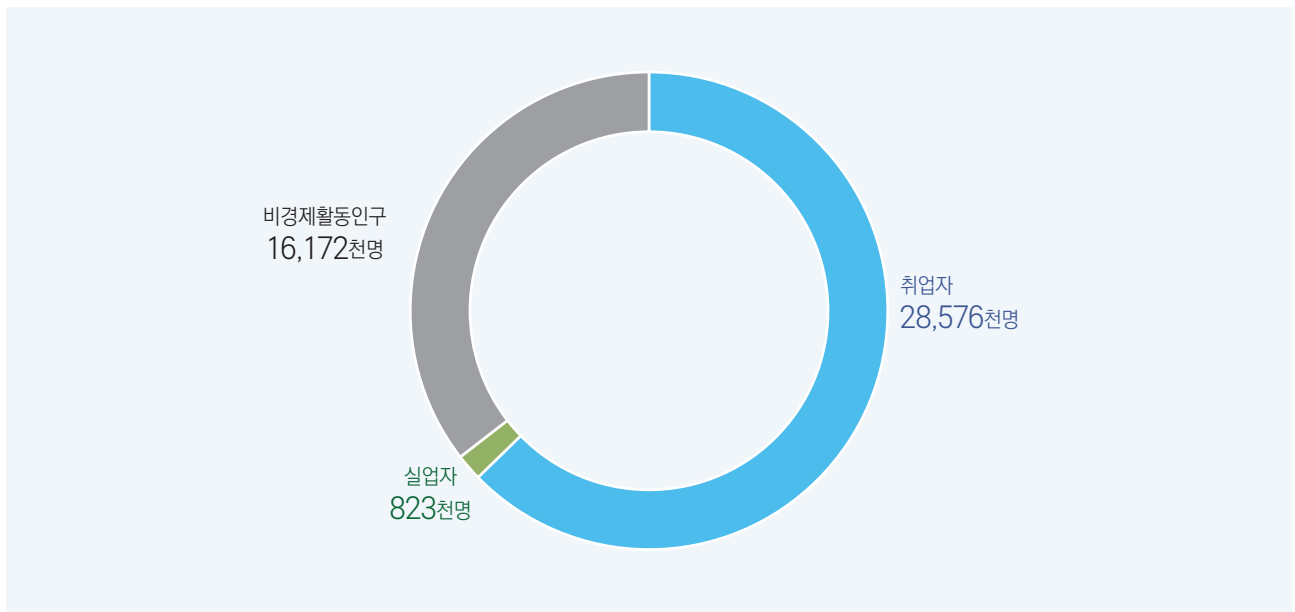
15세이상 인구



2024년 국내 15세이상 인구*는 4,557만명으로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2,940만명(64.5%)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만명이다.

- '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는 29,399천명으로 이 중 취업자 28,576천명, 실업자 823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6,172천명
- 고용률은 62.7%(15~64세 고용률은 69.5%)이며, 실업률은 2.8%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세이상 인구는 인구추계의 15세이상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숙박인구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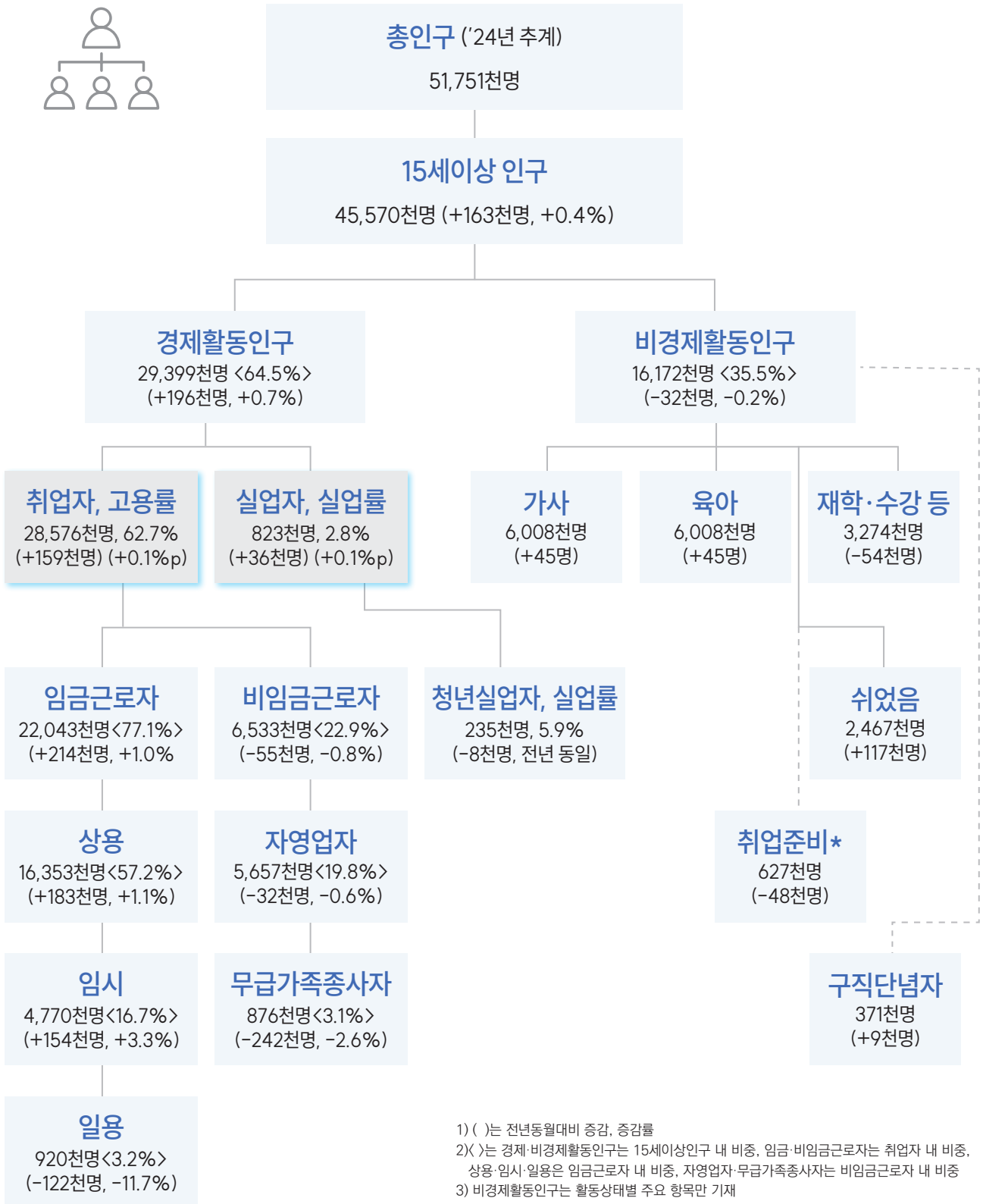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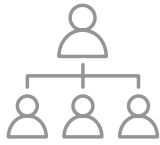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합계		남성		여성	
	인구 수	(%)	인구 수	(%)	인구 수	(%)
15세이상 인구	45,570	(35,618)	22,459	(18,061)	23,111	(17,557)
경제활동인구	29,399	(25,473)	16,375	(14,253)	13,023	(11,219)
취업자	28,576	(24,770)	15,924	(13,862)	12,652	(10,908)
실업자	823	(703)	452	(391)	371	(312)
비경제활동인구	16,172	(10,145)	6,084	(3,807)	10,088	(6,338)
경제활동참가율	64.5	(71.5)	72.9	(78.9)	56.3	(63.9)
실업률	2.8	(2.8)	2.8	(2.7)	2.9	(2.8)
고용률	62.7	(69.5)	70.9	(76.8)	54.7	(62.1)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는 15~64세 기준

(단위: 천명, %)

2024년 고용동향 (15세 이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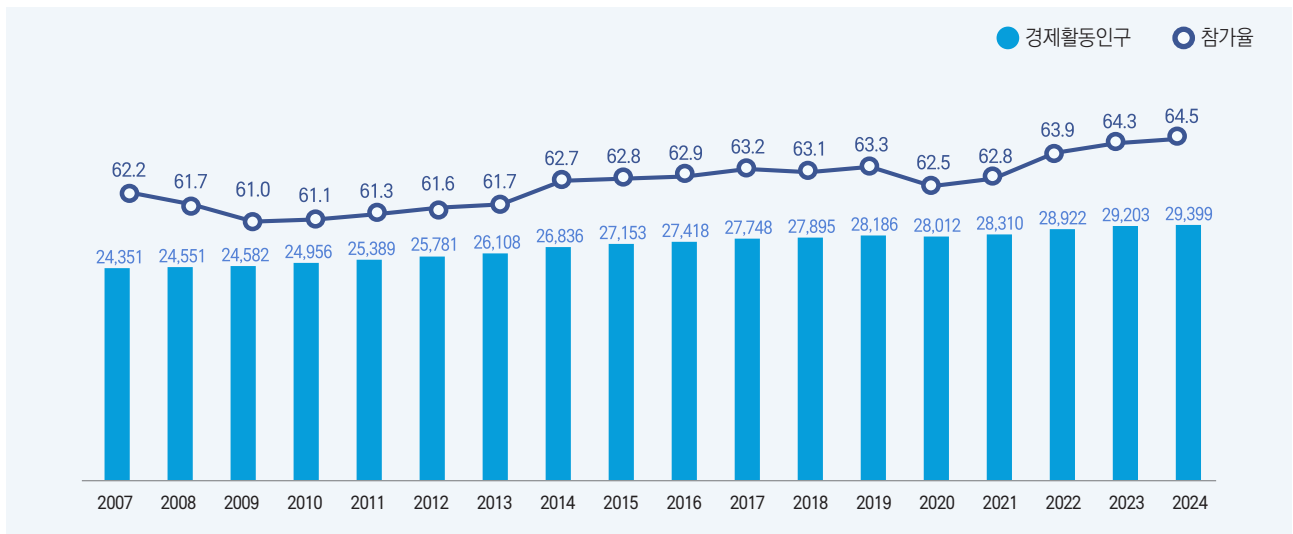
1)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2) < >는 경제·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인구 내 비중, 임금·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 내 비중, 상용·임시·일용은 임금근로자 내 비중,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 내 비중
 3)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상태별 주요 항목만 기재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과 그 외의 취업준비)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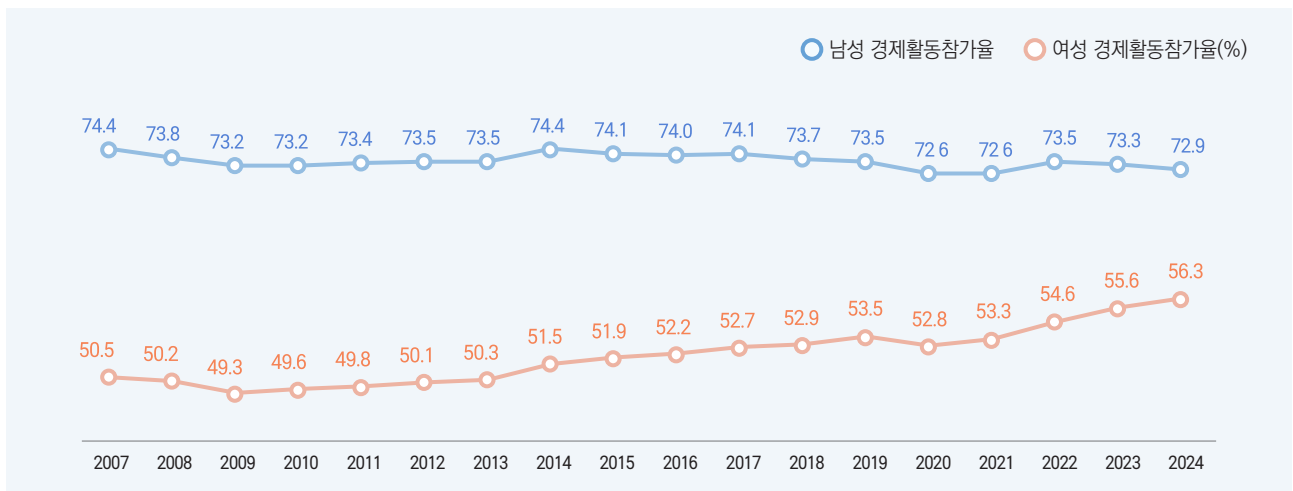
2024년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2년 큰 폭 증가(+1.1%p)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 2024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4.5%이고 이 중 남성은 72.9%, 여성은 56.3%
- 추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2009년부터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경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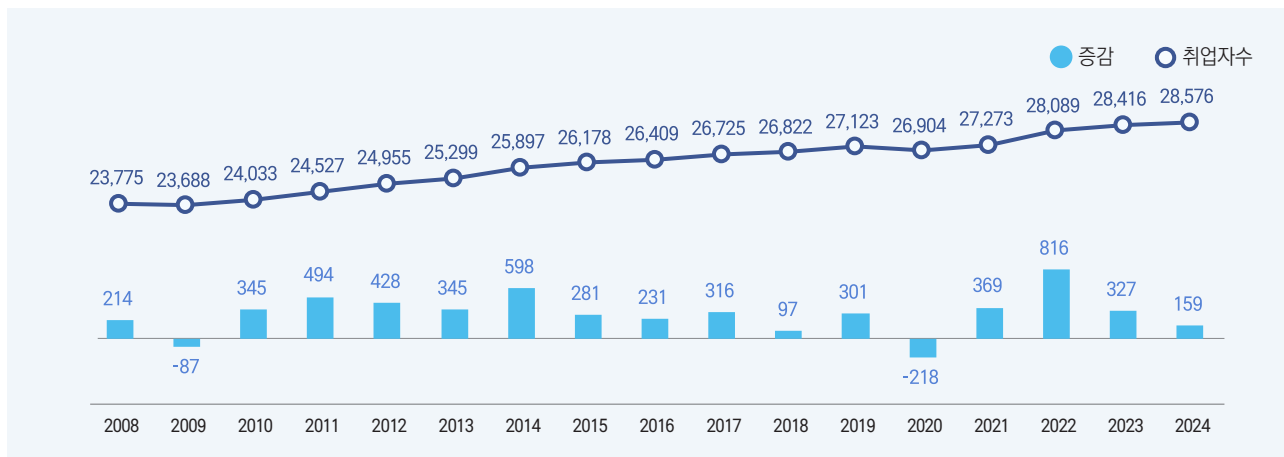
용어 정리

-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일을 즉시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됨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15세이상)

2024년 우리나라 15세이상 취업자는 2,858만명으로 전년대비 16만명(+0.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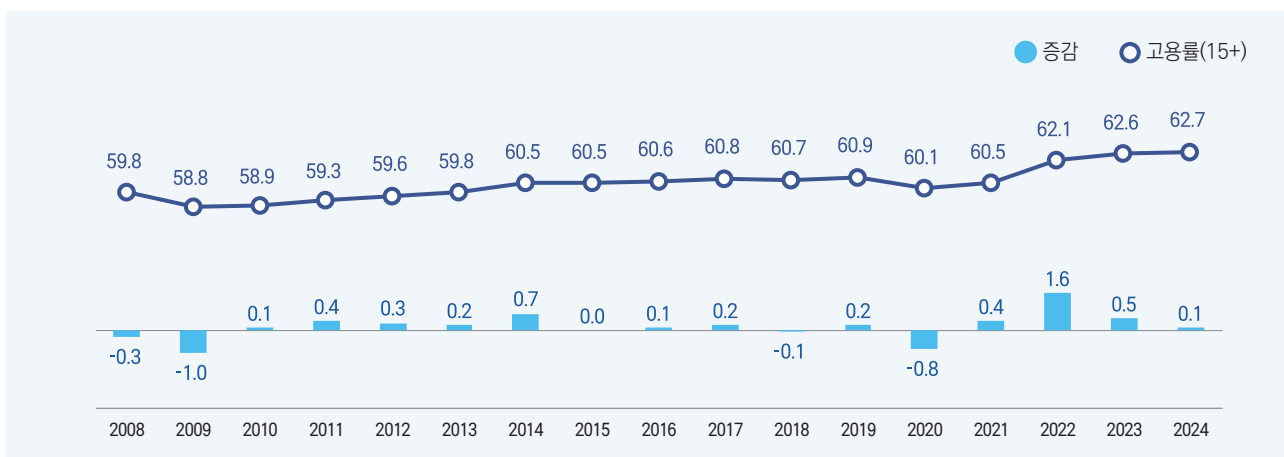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전년대비)

고용률(15세 이상)

2024년 우리나라 고용률은 62.7%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p,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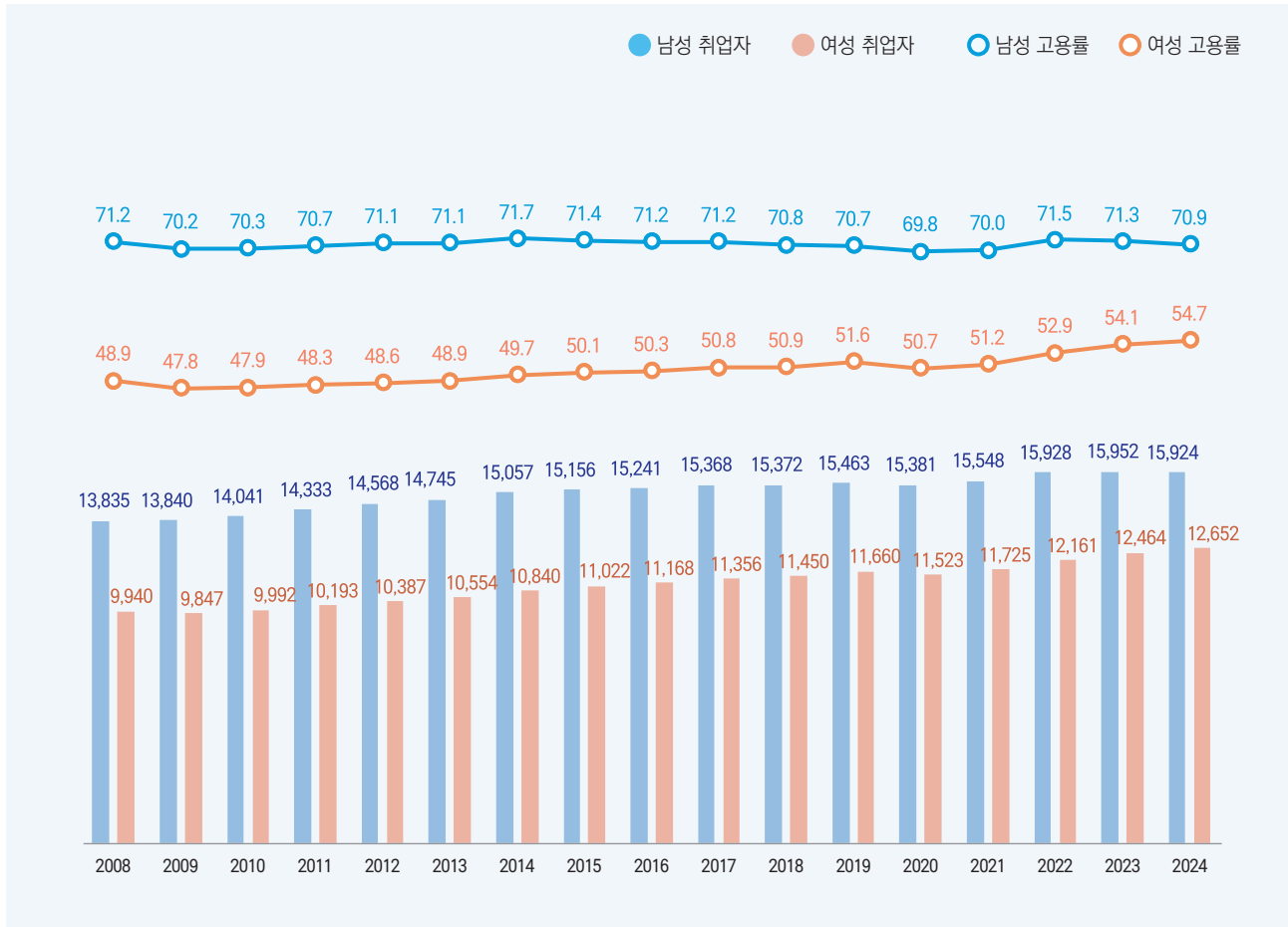
용어 정리

- **취업자**는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이상 인구 중 ①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냄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15세 이상)

2009년 이후 여성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4년 여성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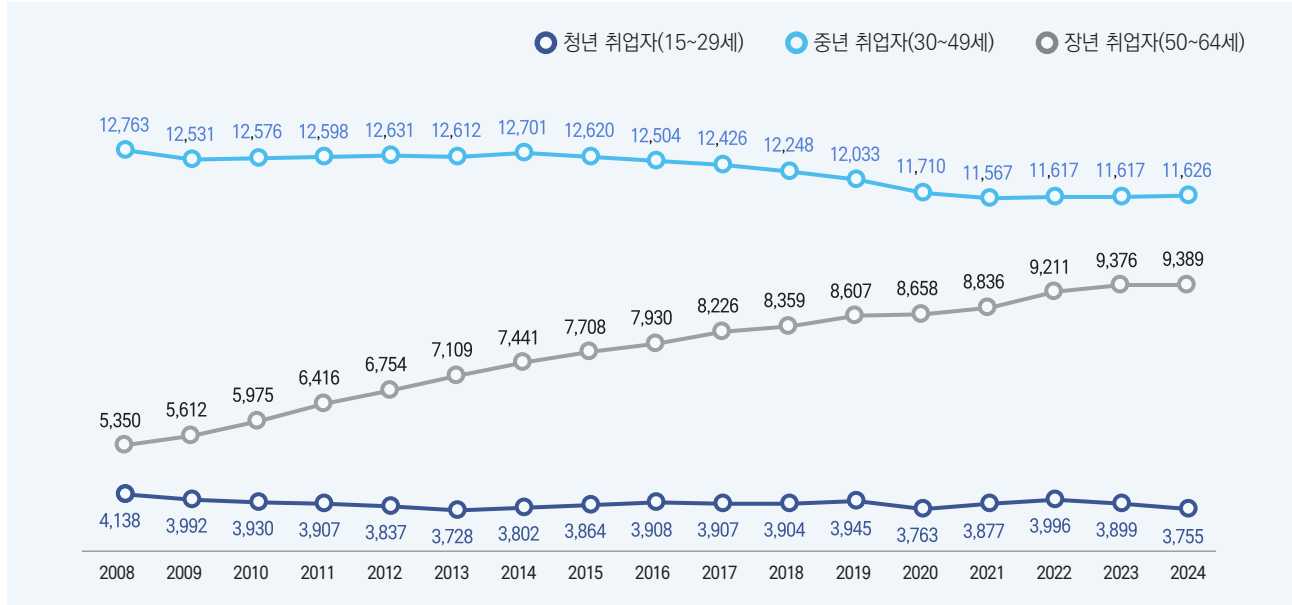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천명, %)



연령별 취업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장년(50~64세)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중년(30~49세)과 청년(15~29세)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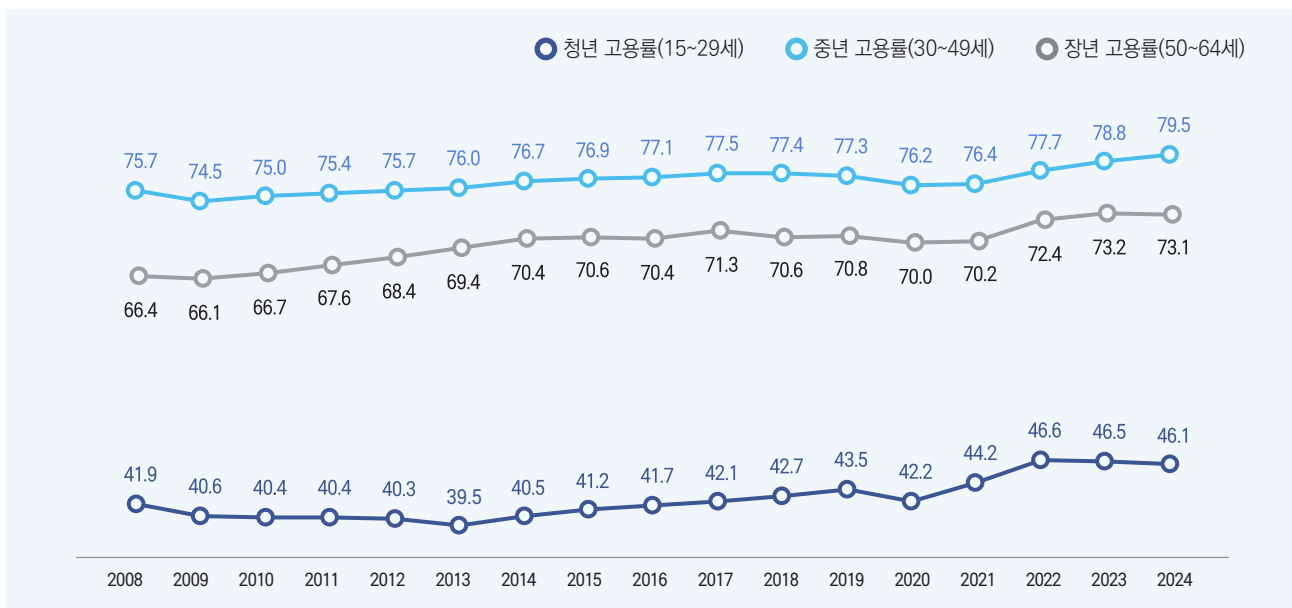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연령별 고용률

2024년 중년(30~49세) 고용률이 79.5%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며, 청년층과 장년(50~64세) 고용률은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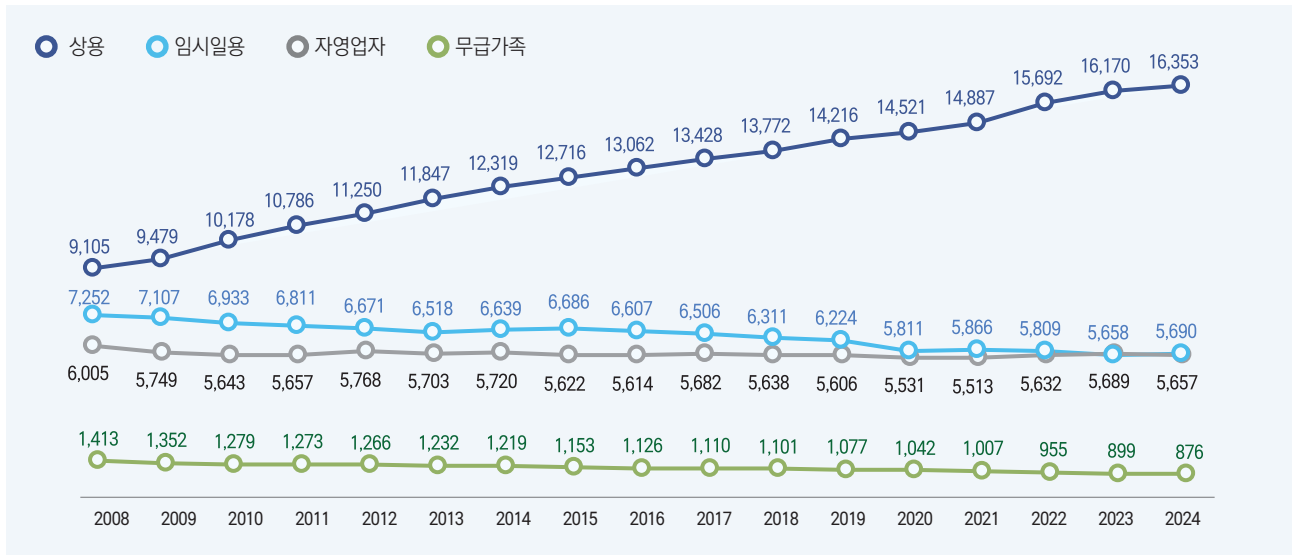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2024년 취업자 증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형태인 상용직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임시일용근로자도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자영업자는 소폭 감소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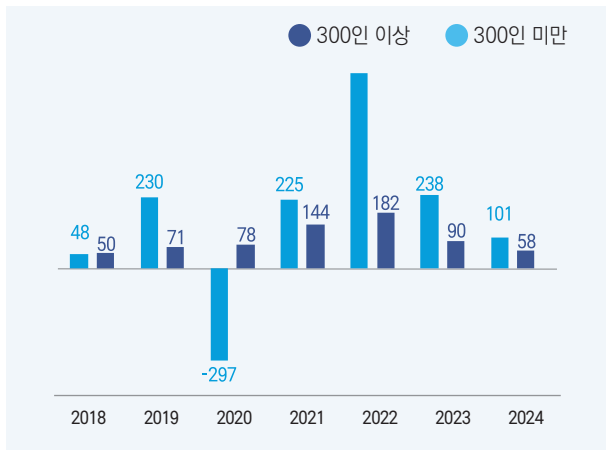
(단위: 천명)

규모별 취업자

2024년 전체 취업자 2,858만명 중 89.0%는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10.7%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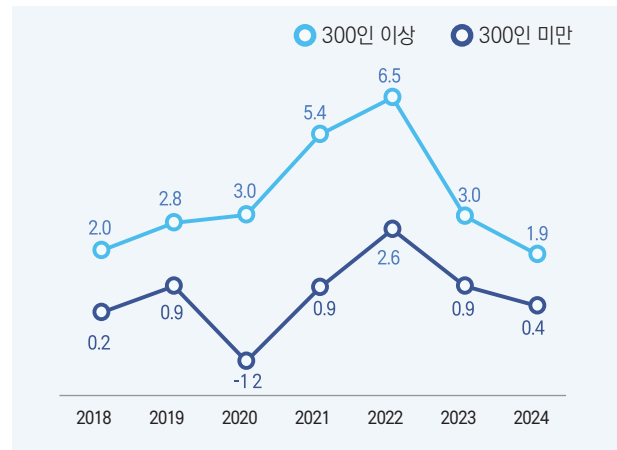
- 취업자 증감 규모는 2020년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300인 미만이 300인 이상보다 크게 나타남
- 증감률은 300인 이상이 300인 미만보다 높음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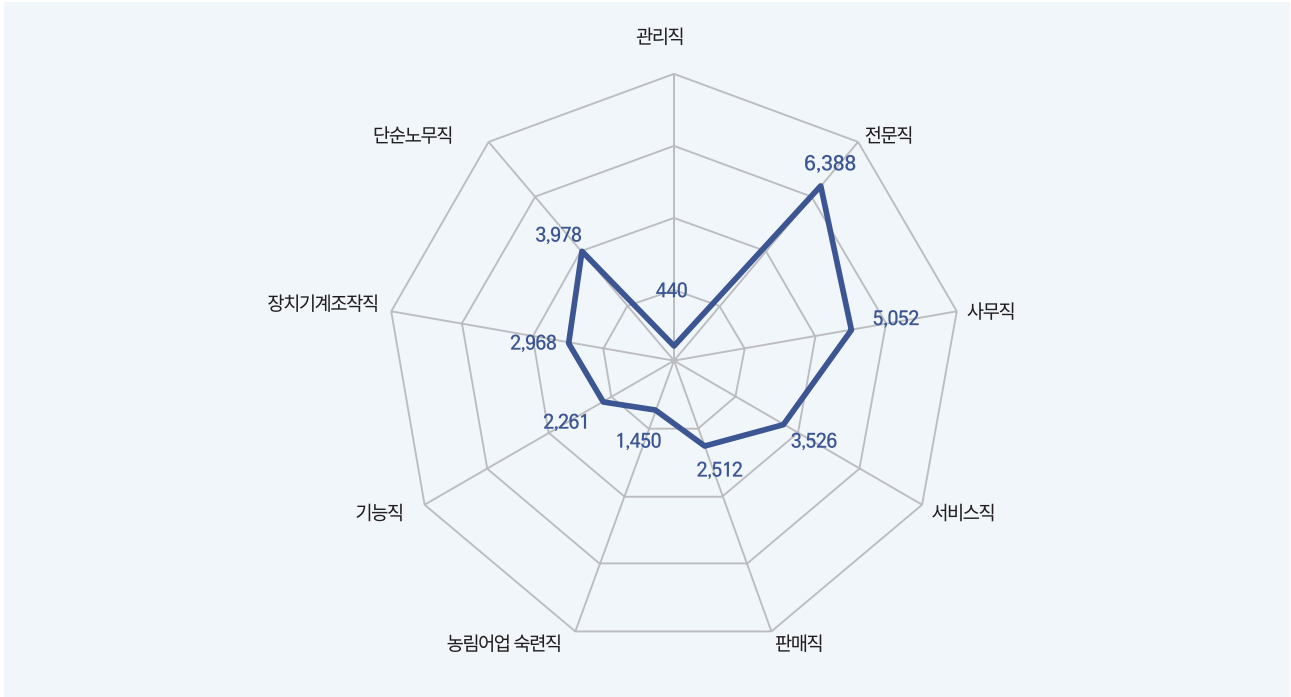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천명, %, 전년대비)

직종별 취업자

2024년 직종별로는 전문직(22.4%), 사무직(17.7%) 순으로 비중이 높다. 추세적으로 판매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20	'21	'22	'23	'24
전 직종	26,904 (100.0)	27,273 (100.0)	28,089 (100.0)	28,416 (100.0)	28,576 (100.0)
관리직	395 (1.5)	393 (1.4)	436 (1.6)	475 (1.7)	440 (1.5)
전문직	5,481 (20.4)	5,586 (20.5)	5,880 (20.9)	6,165 (21.7)	6,388 (22.4)
사무직	4,690 (17.4)	4,750 (17.4)	4,859 (17.3)	4,967 (17.5)	5,052 (17.7)
서비스직	3,046 (11.3)	3,073 (11.3)	3,269 (11.6)	3,465 (12.2)	3,526 (12.3)
판매직	2,897 (10.8)	2,766 (10.1)	2,681 (9.5)	2,621 (9.2)	2,512 (8.8)
농림어업 숙련직	1,383 (5.1)	1,396 (5.1)	1,463 (5.2)	1,481 (5.2)	1,450 (5.1)
기능직	2,336 (8.7)	2,406 (8.8)	2,403 (8.6)	2,311 (8.1)	2,261 (7.9)
장치기계조작직	2,951 (11.0)	2,965 (10.9)	3,039 (10.8)	2,988 (10.5)	2,968 (10.4)
단순노무직	3,725 (13.8)	3,938 (14.4)	4,060 (14.5)	3,942 (13.9)	3,978 (13.9)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산업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수는 제조업(446만명), 도소매업(322만명), 보건 및 사회복지업(294만명) 순으로 많다.

- 산업별 증가율은 정보통신업(+6.9%), 전문기술업(+4.8%), 운수창고업(+3.5%) 순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20	'21	'22	'23	'24
전 산업	26,904 (100.0)	27,273 (100.0)	28,089 (100.0)	28,416 (100.0)	28,576 (100.0)
농림어업	1,445 (5.4)	1,458 (5.3)	1,526 (5.4)	1,513 (5.3)	1,485 (5.2)
광업	13 (0.0)	12 (0.0)	9 (0.0)	8 (0.0)	8 (0.0)
제조업	4,376 (16.3)	4,368 (16.0)	4,503 (16.0)	4,461 (15.7)	4,455 (15.6)
전기가스증기업	74 (0.3)	71 (0.3)	80 (0.3)	89 (0.3)	92 (0.3)
수도하수폐기물업	153 (0.6)	169 (0.6)	154 (0.5)	147 (0.5)	142 (0.5)
건설업	2,016 (7.5)	2,090 (7.7)	2,123 (7.6)	2,114 (7.4)	2,065 (7.2)
도소매업	3,503 (13.0)	3,353 (12.3)	3,313 (11.8)	3,276 (11.5)	3,215 (11.2)
운수창고업	1,482 (5.5)	1,586 (5.8)	1,655 (5.9)	1,644 (5.8)	1,701 (6.0)
숙박음식업	2,144 (8.0)	2,098 (7.7)	2,182 (7.8)	2,296 (8.1)	2,322 (8.1)
정보통신업	847 (3.1)	901 (3.3)	981 (3.5)	1,037 (3.7)	1,109 (3.9)
금융보험업	744 (2.8)	759 (2.8)	728 (2.6)	751 (2.6)	767 (2.7)
부동산업	517 (1.9)	531 (1.9)	552 (2.0)	534 (1.9)	520 (1.8)
전문과학기술	1,164 (4.3)	1,219 (4.5)	1,288 (4.6)	1,357 (4.8)	1,422 (5.0)
사업시설관리지원	1,347 (5.0)	1,397 (5.1)	1,423 (5.1)	1,431 (5.0)	1,379 (4.8)
공공행정서비스업	1,146 (4.3)	1,184 (4.3)	1,259 (4.5)	1,270 (4.5)	1,308 (4.6)
교육서비스업	1,798 (6.7)	1,840 (6.7)	1,902 (6.8)	1,896 (6.7)	1,900 (6.7)
보건 및 사회복지업	2,336 (8.7)	2,534 (9.3)	2,714 (9.7)	2,858 (10.1)	2,941 (10.3)
예술·스포츠·여가	496 (1.8)	467 (1.7)	482 (1.7)	512 (1.8)	522 (1.8)
협회 및 기타 개인	1,189 (4.4)	1,135 (4.2)	1,119 (4.0)	1,130 (4.0)	1,131 (4.0)
가구내고용활동	98 (0.4)	87 (0.3)	80 (0.3)	77 (0.3)	79 (0.3)
국제외국기관	17 (0.1)	15 (0.1)	16 (0.1)	17 (0.1)	1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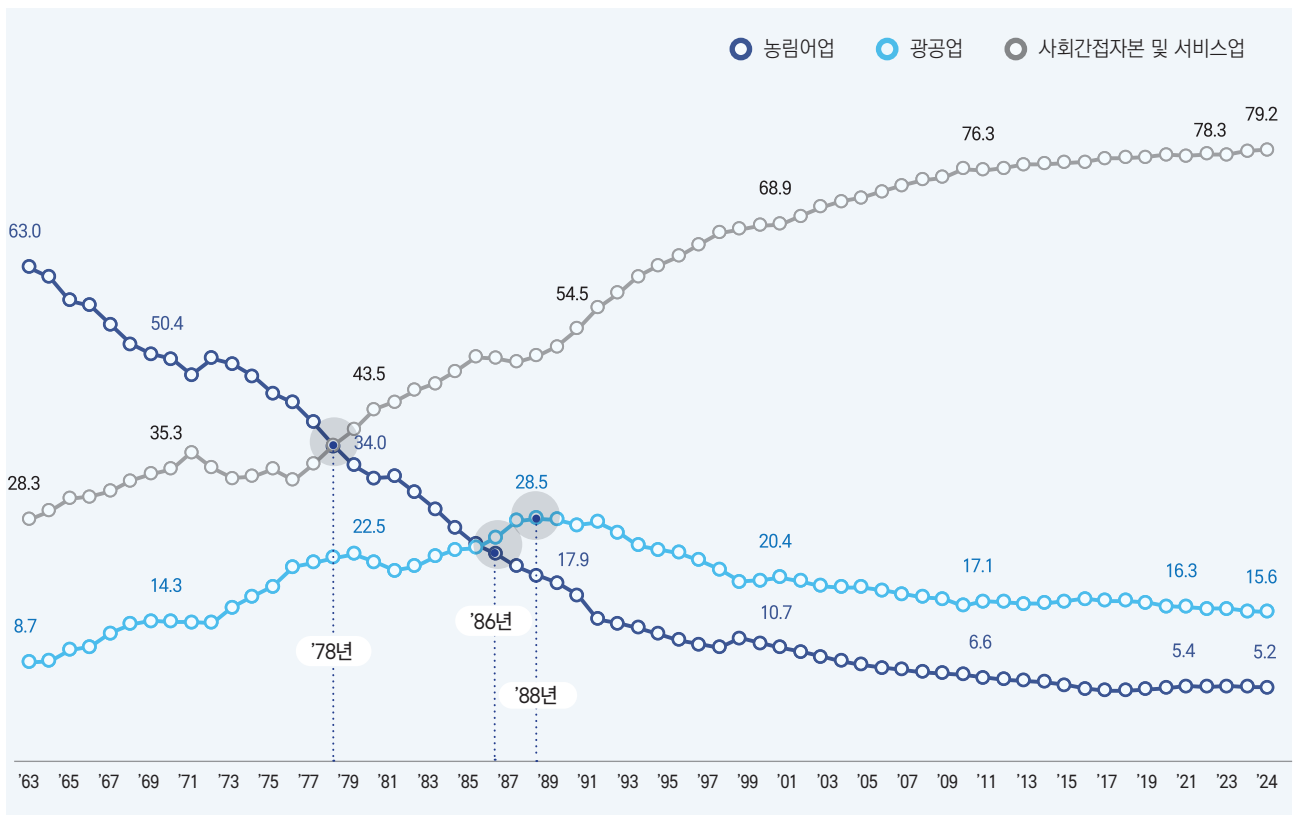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1960년대 이후 산업별 종사자 비중의 변화

1963년에는 취업자의 6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였다. 광공업은 '88년 28.5%까지 종사자 비중이 높아졌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 농림어업은 60년대 초반에는 취업자의 60% 이상이 종사했으나, '78년에 서비스업보다 비중이 낮아지고, '86년에는 다시 광공업보다 낮아지면서 '24년 5.2%까지 축소
- 서비스업(건설업 등 사회간접자본 포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기준 79.2%를 차지
- 광공업은 '88년 28.5%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4년 기준 15.6%의 비중을 차지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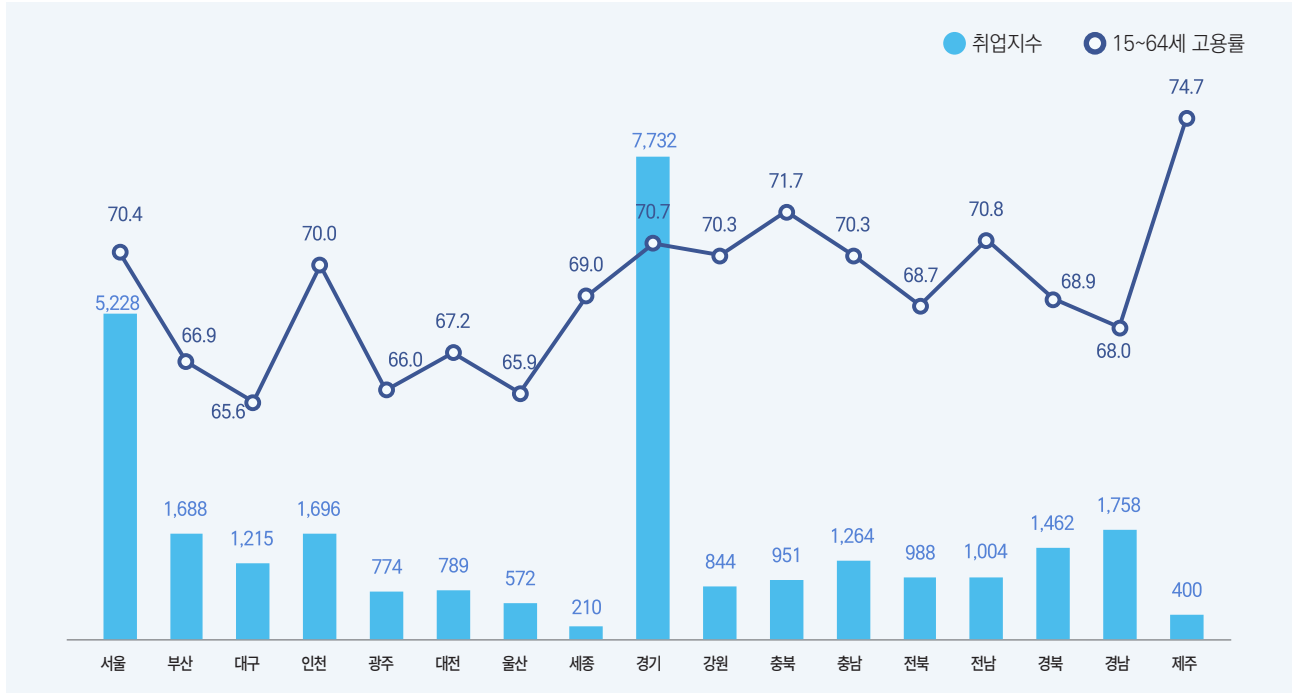
(단위: %)



지역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4년 취업자 수는 경기지역이 가장 많으며, 전체 취업자의 51.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15~64세 고용률은 제주가 74.7%로 가장 높고 대구가 65.6%로 가장 낮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취업자	합계	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국	28,576 (100.0)	3,755 (13.1)	11,626 (40.7)	9,389 (32.9)	3,806 (13.3)	1,485 (5.2)	4,463 (15.6)	2,065 (7.2)	20,563 (72.0)
서울특별시	5,228 (100.0)	862 (16.5)	2,310 (44.2)	1,548 (29.6)	508 (9.7)	4 (0.1)	466 (8.9)	325 (6.2)	4,434 (84.8)
부산광역시	1,688 (100.0)	226 (13.4)	665 (39.4)	554 (32.8)	243 (14.4)	19 (1.1)	232 (13.8)	131 (7.8)	1,305 (77.3)
대구광역시	1,215 (100.0)	137 (11.3)	481 (39.5)	443 (36.4)	155 (12.7)	12 (1.0)	236 (19.4)	96 (7.9)	871 (71.7)
인천광역시	1,696 (100.0)	223 (13.1)	722 (42.6)	560 (33.0)	191 (11.3)	3 (0.2)	315 (18.5)	141 (8.3)	1,238 (73.0)
광주광역시	774 (100.0)	98 (12.6)	316 (40.8)	265 (34.3)	96 (12.3)	22 (2.8)	107 (13.8)	69 (8.9)	577 (74.6)
대전광역시	789 (100.0)	119 (15.1)	331 (42.0)	253 (32.1)	85 (10.8)	11 (1.4)	82 (10.4)	67 (8.5)	629 (79.7)
울산광역시	572 (100.0)	63 (11.0)	239 (41.8)	208 (36.3)	62 (10.8)	4 (0.8)	179 (31.2)	45 (7.8)	345 (60.2)
세종자치시	210 (100.0)	24 (11.3)	112 (53.2)	57 (27.2)	18 (8.4)	8 (3.6)	33 (15.6)	9 (4.5)	161 (76.3)

취업자	합계	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경기도	7,732 (100.0)	1,088 (14.1)	3,365 (43.5)	2,513 (32.5)	767 (9.9)	160 (2.1)	1,364 (17.6)	597 (7.7)	5,612 (72.6)
강원도	844 (100.0)	101 (12.0)	282 (33.4)	292 (34.6)	169 (20.1)	82 (9.8)	63 (7.4)	77 (9.1)	622 (73.8)
충청북도	951 (100.0)	123 (13.0)	347 (36.5)	322 (33.8)	159 (16.7)	107 (11.3)	201 (21.1)	76 (8.0)	567 (59.6)
충청남도	1,264 (100.0)	153 (12.1)	494 (39.0)	402 (31.8)	216 (17.1)	162 (12.8)	274 (21.7)	81 (6.4)	747 (59.1)
전라북도	988 (100.0)	101 (10.2)	332 (33.7)	341 (34.5)	214 (21.7)	156 (15.7)	128 (13.0)	72 (7.2)	633 (64.1)
전라남도	1,004 (100.0)	93 (9.2)	312 (31.1)	351 (35.0)	248 (24.6)	210 (20.9)	106 (10.5)	81 (8.0)	608 (60.6)
경상북도	1,462 (100.0)	146 (10.0)	484 (33.1)	508 (34.7)	324 (22.2)	273 (18.6)	259 (17.7)	89 (6.1)	841 (57.6)
경상남도	1,758 (100.0)	159 (9.0)	672 (38.2)	635 (36.1)	292 (16.6)	204 (11.6)	406 (23.1)	80 (4.5)	1,068 (60.8)
제주도	400 (100.0)	42 (10.5)	162 (40.4)	137 (34.1)	60 (14.9)	50 (12.5)	13 (3.3)	31 (7.6)	307 (76.6)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 지역별 비중

(단위: 천명, %)

고용률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전 국	65.6	65.9	66.1	66.6	66.6	66.8	65.9	66.5	68.5	69.2	69.5
서울특별시	65.7	65.5	65.8	66.4	66.0	66.3	65.9	66.6	68.4	69.5	70.4
부산광역시	62.7	62.7	62.6	63.4	62.9	64.2	62.9	63.9	65.4	66.5	66.9
대구광역시	64.3	65.4	65.3	65.0	64.2	64.2	63.0	65.5	66.9	67.8	65.6
인천광역시	65.4	65.9	67.2	67.3	68.6	68.3	66.9	67.4	69.4	69.4	70.0
광주광역시	63.4	63.2	62.5	63.8	64.6	64.5	63.8	63.4	64.3	65.6	66.0
대전광역시	64.1	64.6	64.6	64.0	63.9	65.3	66.2	66.7	67.9	67.8	67.2
울산광역시	61.4	62.5	62.4	63.9	63.6	63.7	62.9	62.9	64.7	65.5	65.9
세종자치시	-	-	-	64.8	65.6	65.9	66.3	66.2	67.4	67.9	69.0
경기도	66.5	66.8	67.0	67.9	67.9	67.6	65.9	66.9	70.0	70.4	70.7
강원도	62.9	64.3	64.6	67.1	66.7	68.3	67.0	67.2	67.8	69.6	70.3
충청북도	67.5	68.3	68.2	69.1	69.1	68.3	69.0	69.9	71.1	71.4	71.7
충청남도	67.4	67.9	67.5	67.9	69.0	69.3	67.8	68.2	69.5	69.8	70.3
전라북도	63.5	64.6	65.5	64.4	63.9	64.4	64.6	66.1	66.8	67.8	68.7
전라남도	67.0	67.9	67.5	66.8	67.6	68.8	69.1	69.4	71.2	71.8	70.8
경상북도	68.2	67.6	67.5	67.9	66.9	67.4	66.4	65.7	68.2	68.4	68.9
경상남도	65.5	66.0	65.9	66.4	66.9	67.0	65.5	65.4	66.4	68.2	68.0
제주도	71.8	72.9	73.8	76.0	73.7	72.5	70.7	71.6	74.5	74.6	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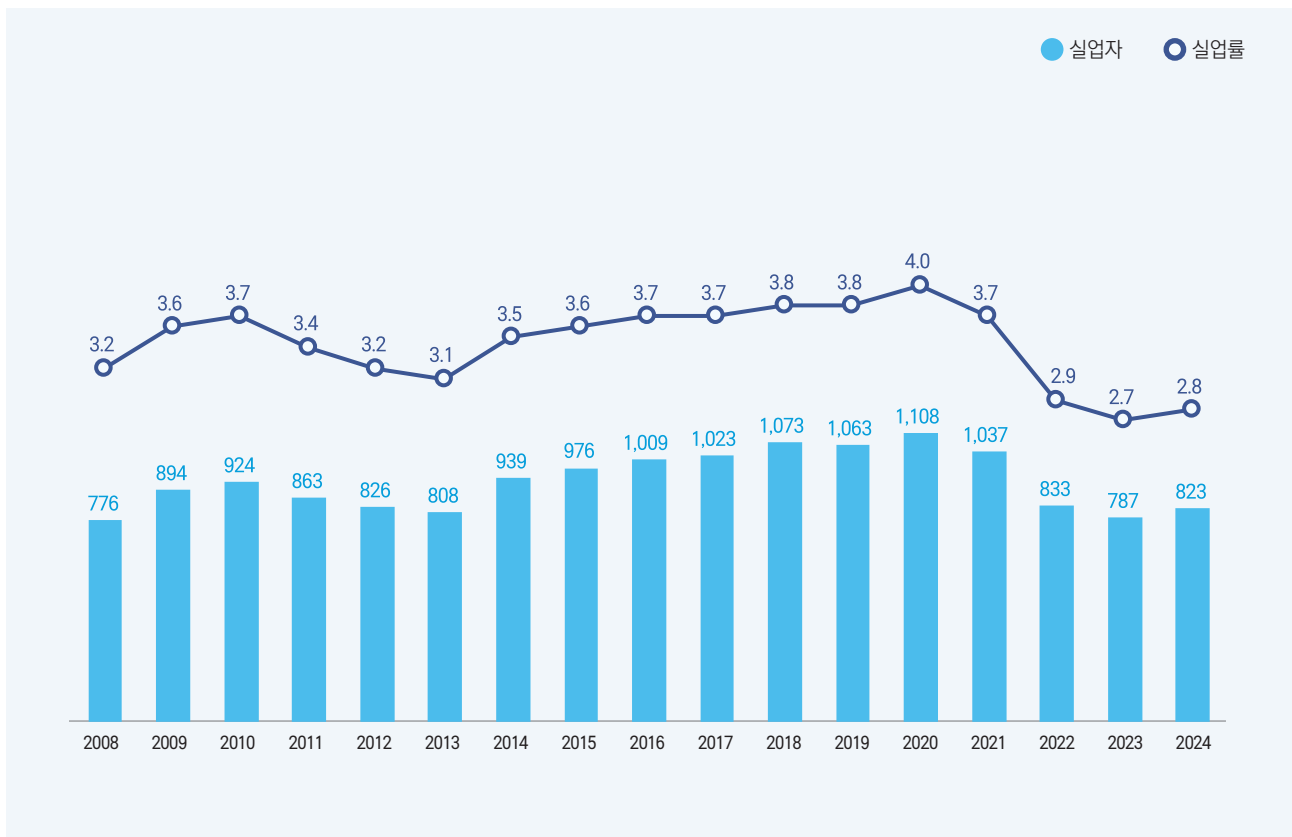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15~64세 기준), 세종자치시의 고용률은 '17년부터 발표

(단위: %)

실업자 현황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2024년 실업자는 82만명으로 전년보다 3.7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8%로 전년보다 0.1%p 상승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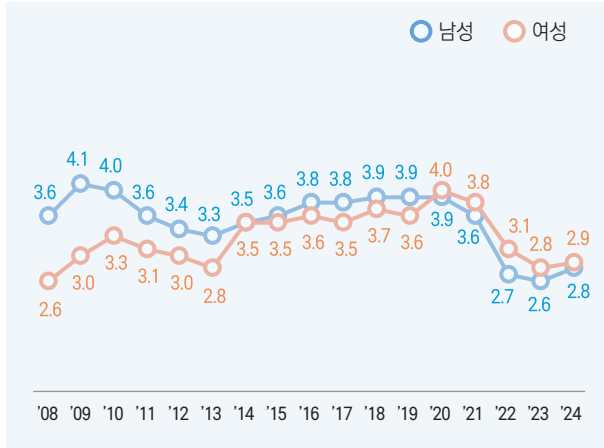


성별·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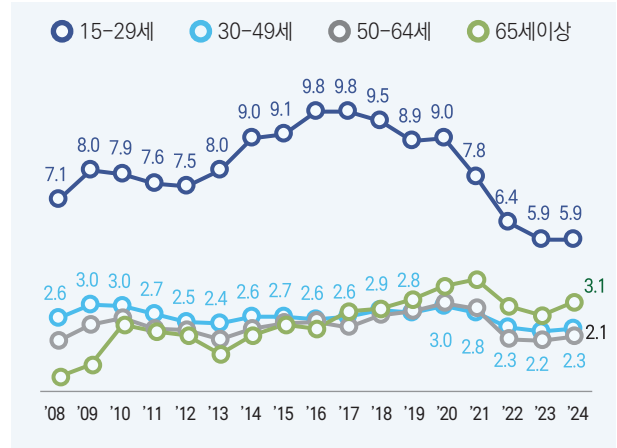
2024년 남성의 실업률은 2.8%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의 실업률 역시 2.9%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다.

- 2020년 이후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청년층 실업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성별 실업률



연령별 실업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고용보조지표

고용보조지표는 실업자를 포함해 취업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인원의 규모를 알기 위한 지표로써 '24년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8.8%이다.

구분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		
	시간관련추가 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구직자				
'22		5.8	836	7.9	1,570	85	1,485	10.6
	15~29세	9.1	118	16.5	518	-	-	19.0
'23		5.2	745	6.6	1,219	101	1,117	9.0
	15~29세	8.8	120	13.9	387	-	-	16.6
'24		5.4	776	6.3	1,091	108	983	8.8
	15~29세	8.8	118	12.9	321	-	-	15.6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5~29세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잠재구직자에는 구직단념자가 포함되어 있음

지표 용어

고용보조지표1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① + \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고용보조지표2 = $\frac{\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②}{\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고용보조지표3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①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 ②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 잠재취업가능자(취업가능성 없는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잠재구직자(취업가능성 있는 비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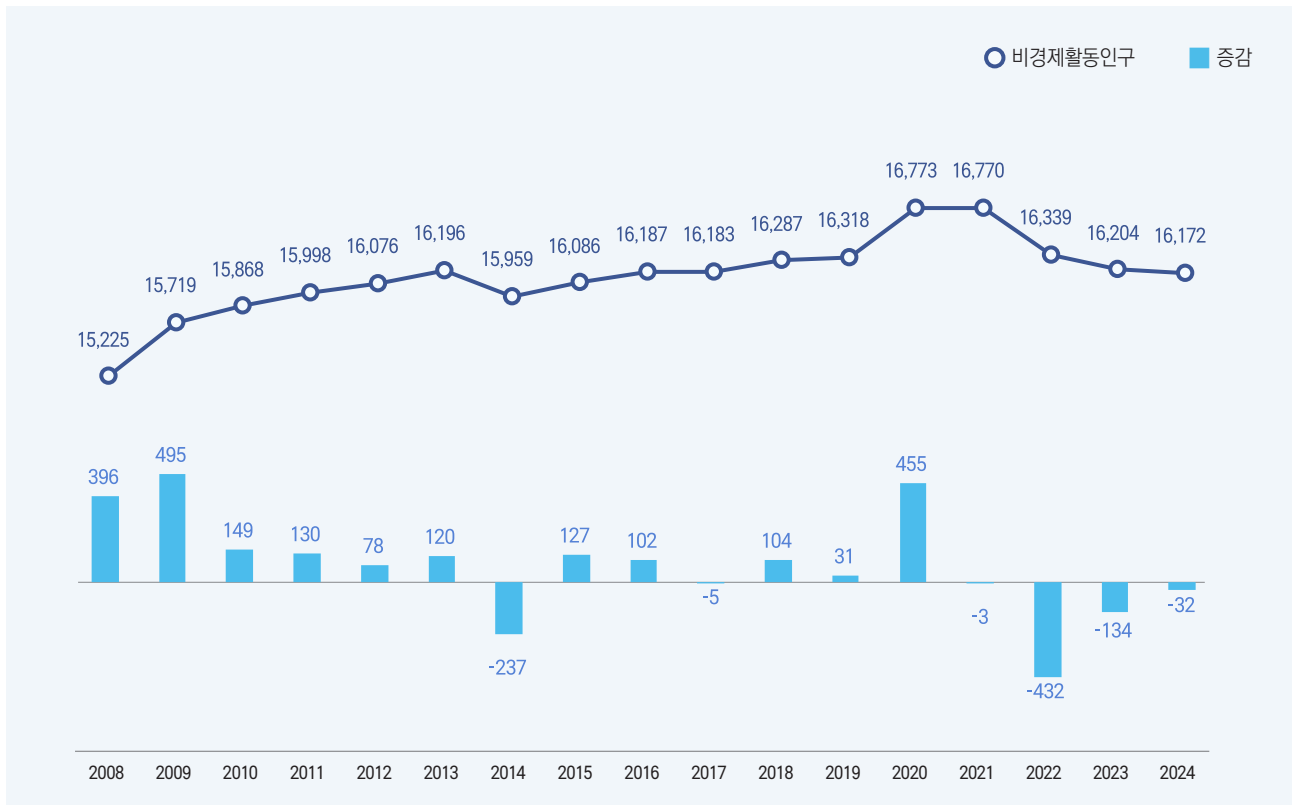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024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만명으로 전년대비 3.2만명 감소하였다.

- 비경제활동인구는 '05년부터 '1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 유지
- 특히, '09년 금융위기와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폭으로 증가
- '66년 통계작성 이후 '22년에 가장 크게 감소(43.2만명)하였고 점차 감소폭 둔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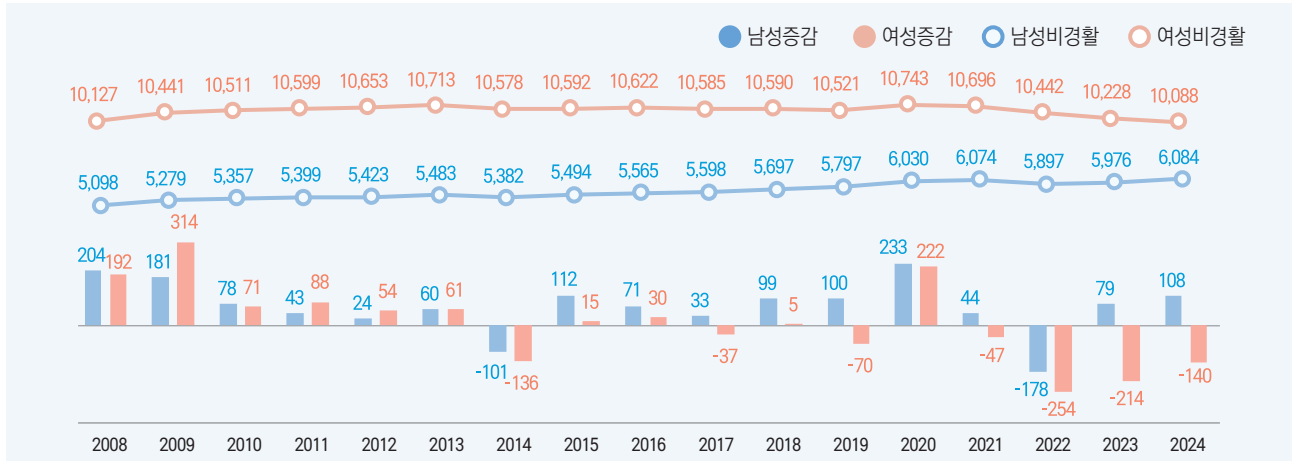
(단위: 천명)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2024년 성별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남성은 608만명, 여성은 1,009만명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차이는 400만명으로 이러한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009년 금융위기 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경제위기에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는 남녀 모두 비경활인구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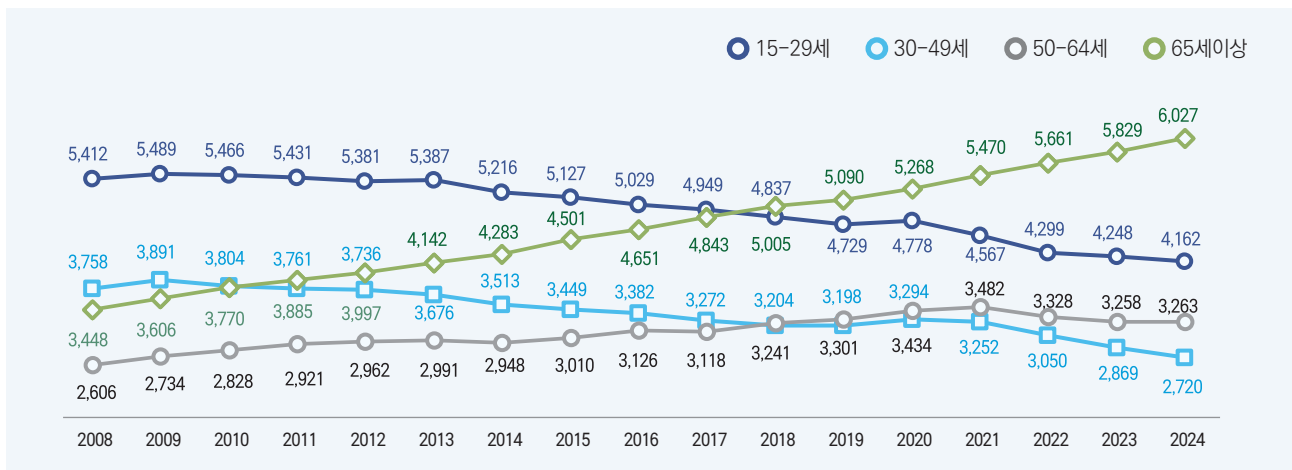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2024년 65세이상 고령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다.

- 청년(15~29세)과 중년(30~49세)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09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
- 장년(50~64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2년에 감소 전환
- 고령층(65세이상)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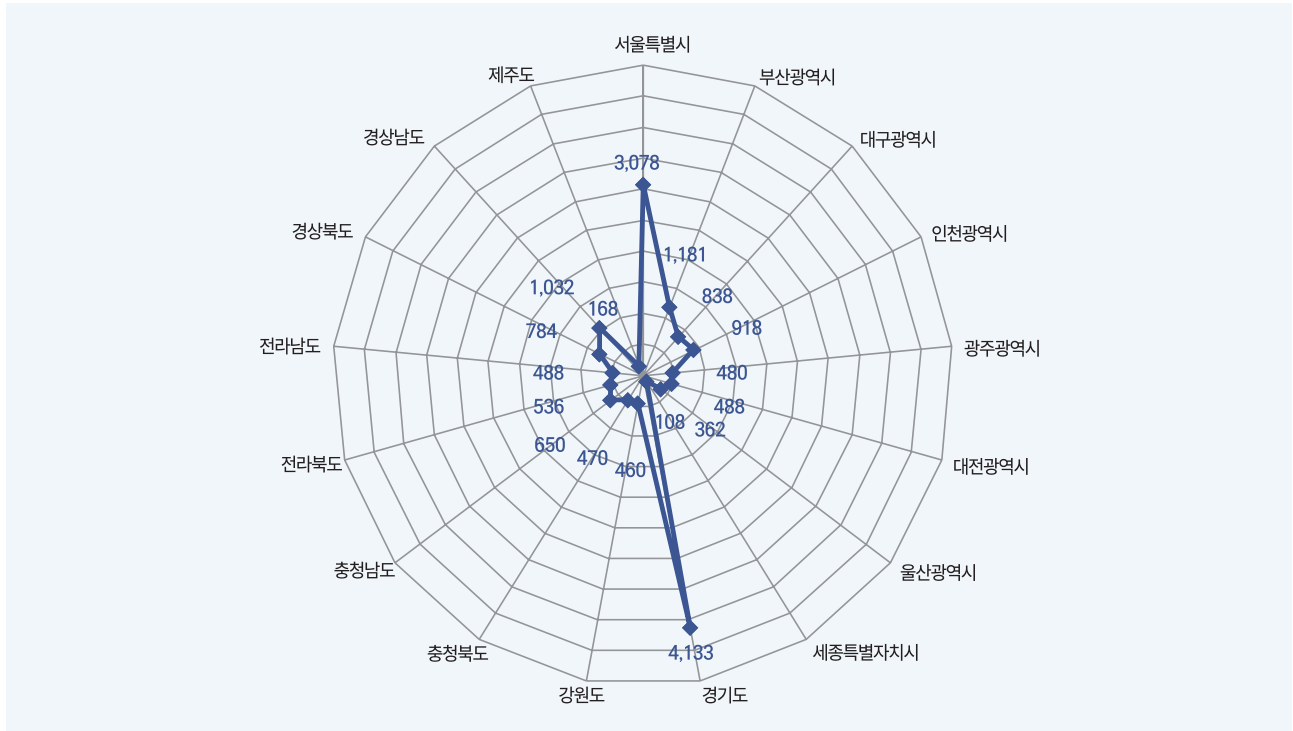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

2024년 비경제활동인구는 경기도가 413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0.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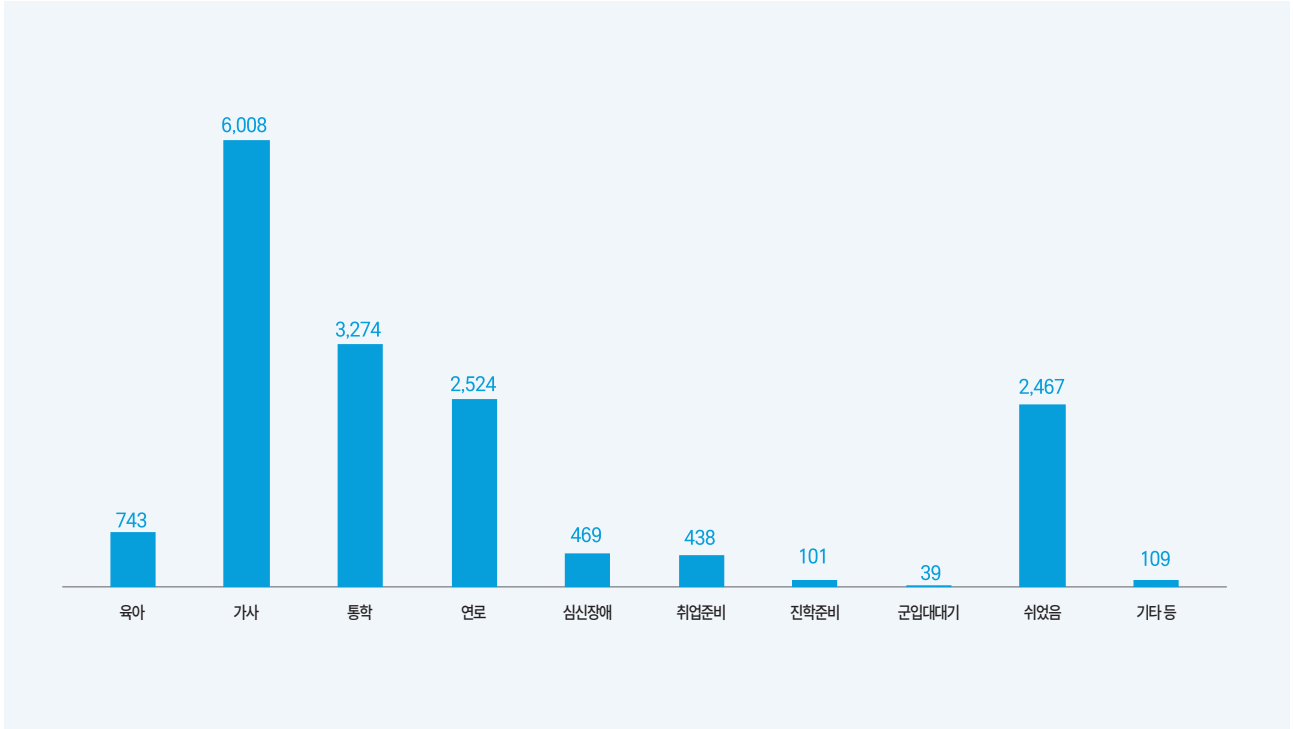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18	'19	'20	'21	'22	'23	'24
전 국	16,287	16,318	16,773	16,770	16,339	16,204	16,172
서울특별시	3,186	3,159	3,223	3,221	3,171	3,150	3,078
부산광역시	1,247	1,219	1,237	1,234	1,209	1,184	1,181
대구광역시	824	838	859	825	812	800	838
인천광역시	858	876	910	920	906	914	918
광주광역시	483	486	497	508	507	491	480
대전광역시	500	485	471	477	475	474	488
울산광역시	371	370	379	386	372	365	362
세종자치시	88	96	102	107	108	110	108
경기도	3,901	4,008	4,263	4,273	4,075	4,102	4,133
강원도	488	462	480	478	478	463	460
충청북도	487	492	489	496	478	474	470
충청남도	639	647	667	672	653	645	650
전라북도	629	610	600	582	564	545	536
전라남도	551	536	528	516	491	482	488
경상북도	828	830	842	855	826	802	784
경상남도	1,044	1,037	1,052	1,049	1,051	1,035	1,032
제주도	164	168	176	173	164	171	168

비경제활동 사유

2024년 비경제활동 사유는 가사와 통학이 전체의 5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쉬었음은 247만명으로 전년대비 11.6만명 증가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합계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 장애	기타	비중 (%)				
								취업 준비	진학 준비	군입대 대기	쉬었음	기타 등
'18	16,287 (100.0)	1,191 (7.3)	5,949 (36.5)	3,835 (23.5)	2,218 (13.6)	428 (2.6)	2,667 (16.4)	459 (2.8)	116 (0.7)	71 (0.4)	1,855 (11.4)	166 (1.0)
'19	16,318 (100.0)	1,175 (7.2)	5,812 (35.6)	3,708 (22.7)	2,221 (13.6)	427 (2.6)	2,976 (18.2)	484 (3.0)	106 (0.7)	66 (0.4)	2,092 (12.8)	228 (1.4)
'20	16,773 (100.0)	1,188 (7.1)	5,966 (35.6)	3,616 (21.6)	2,257 (13.5)	442 (2.6)	3,304 (19.7)	543 (3.2)	121 (0.7)	63 (0.4)	2,374 (14.2)	203 (1.2)
'21	16,770 (100.0)	1,120 (6.7)	6,018 (35.9)	3,452 (20.6)	2,388 (14.2)	448 (2.7)	3,345 (19.9)	608 (3.6)	97 (0.6)	57 (0.3)	2,398 (14.3)	186 (1.1)
'22	16,339 (100.0)	996 (6.1)	5,964 (36.5)	3,317 (20.3)	2,509 (15.4)	445 (2.7)	3,108 (19.0)	553 (3.4)	91 (0.6)	48 (0.3)	2,277 (13.9)	140 (0.9)
'23	16,204 (100.0)	856 (5.3)	5,963 (36.8)	3,328 (20.5)	2,477 (15.3)	474 (2.9)	3,107 (19.2)	488 (3.0)	100 (0.6)	42 (0.3)	2,351 (14.5)	126 (0.8)
'24	16,172 (100.0)	743 (4.6)	6,008 (37.2)	3,274 (20.2)	2,524 (15.6)	469 (2.9)	3,154 (19.5)	438 (2.7)	101 (0.6)	39 (0.2)	2,467 (15.3)	109 (0.7)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천명, ()는 비중)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4. 노동이동

- ① 입·이직 현황
- ② 고용24 구인·구직 현황
- ③ 미충원 인원
- ④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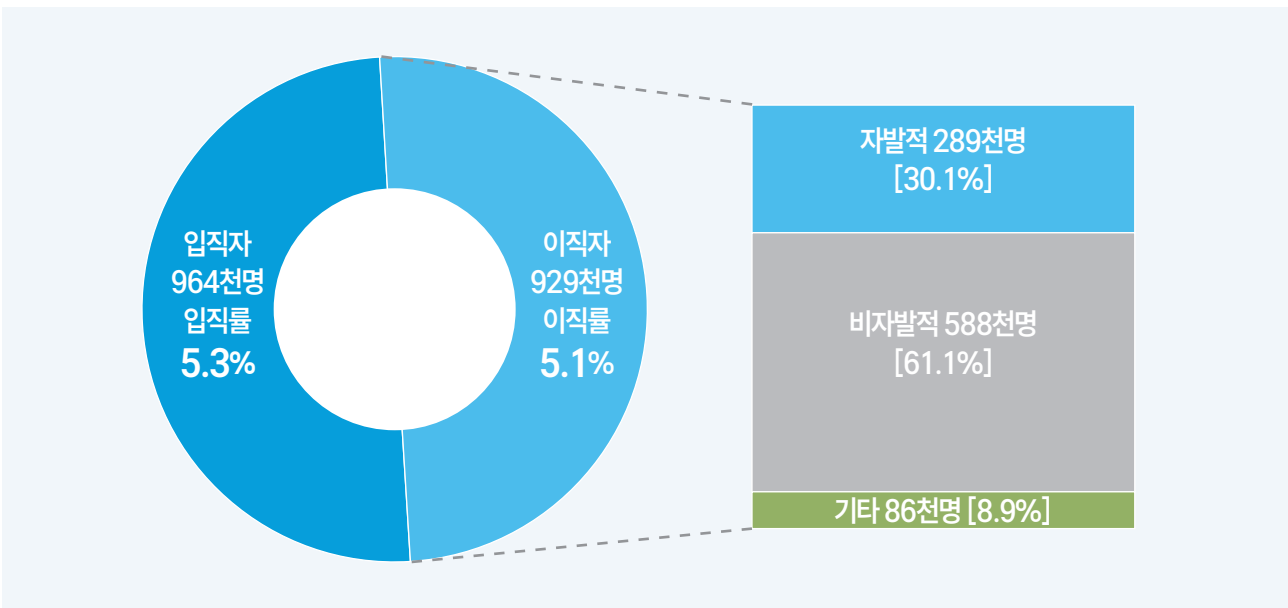
입·이직 현황

입·이직 및 자발성 여부

2024년 입직자는 96.4만명, 이직자는 96.3만명이다.
이직자 중 비자발적 이직이 61.1%로 나타났다.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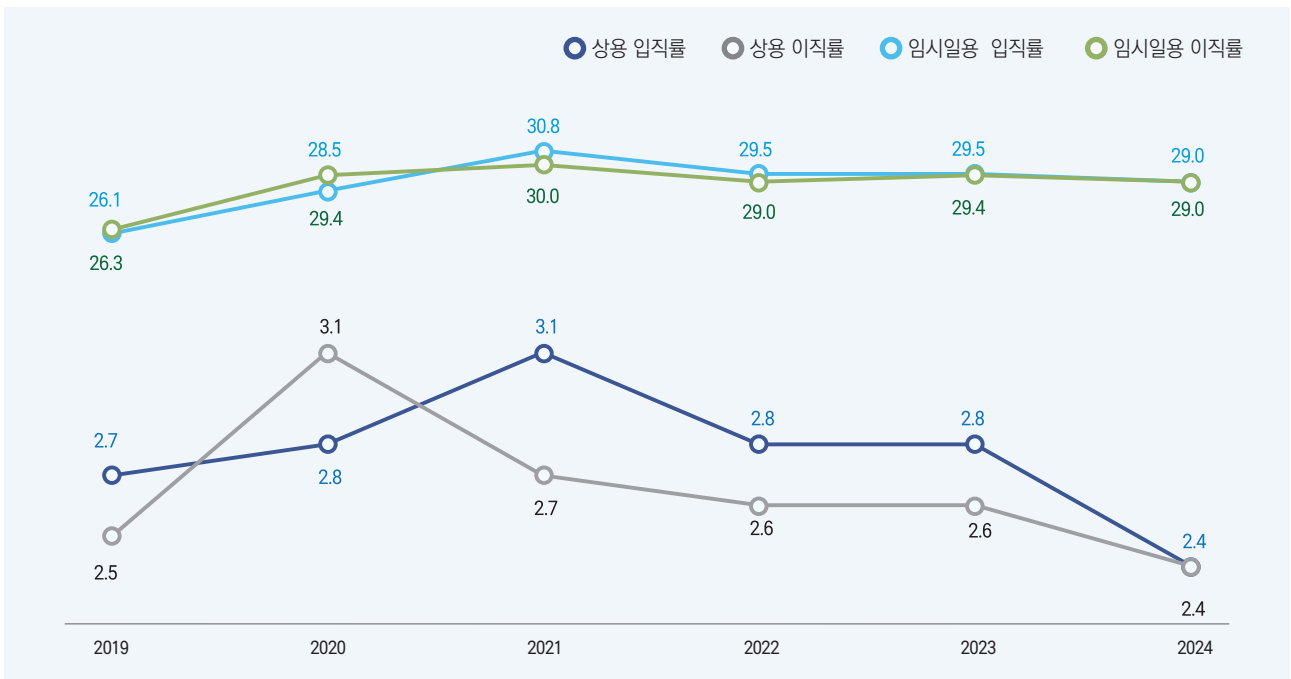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이직자 내 비율
주) 기타 이직은 본·지사간 전출, 정년퇴직, 사망,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직 등

종사상 지위별 입·이직

상용근로자의 입·이직률은 2~3% 수준인데 비해 임시·일용근로자는 30% 수준으로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4년 기준 상용근로자의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60.6%인 것에 반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이 91.1%를 차지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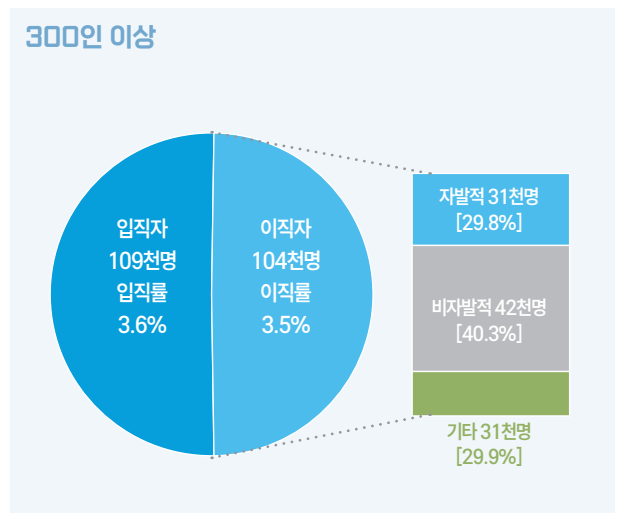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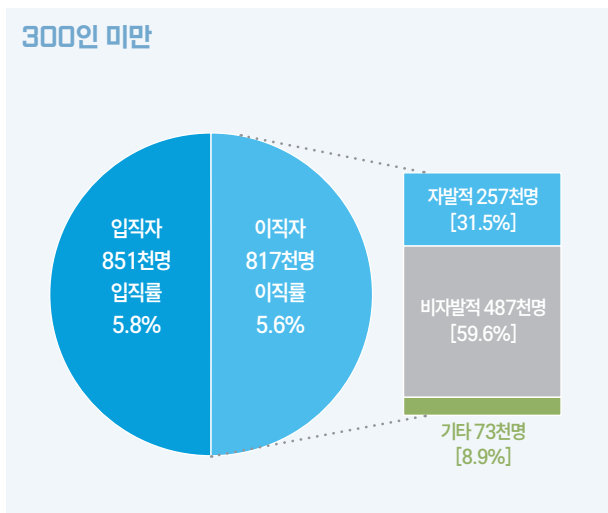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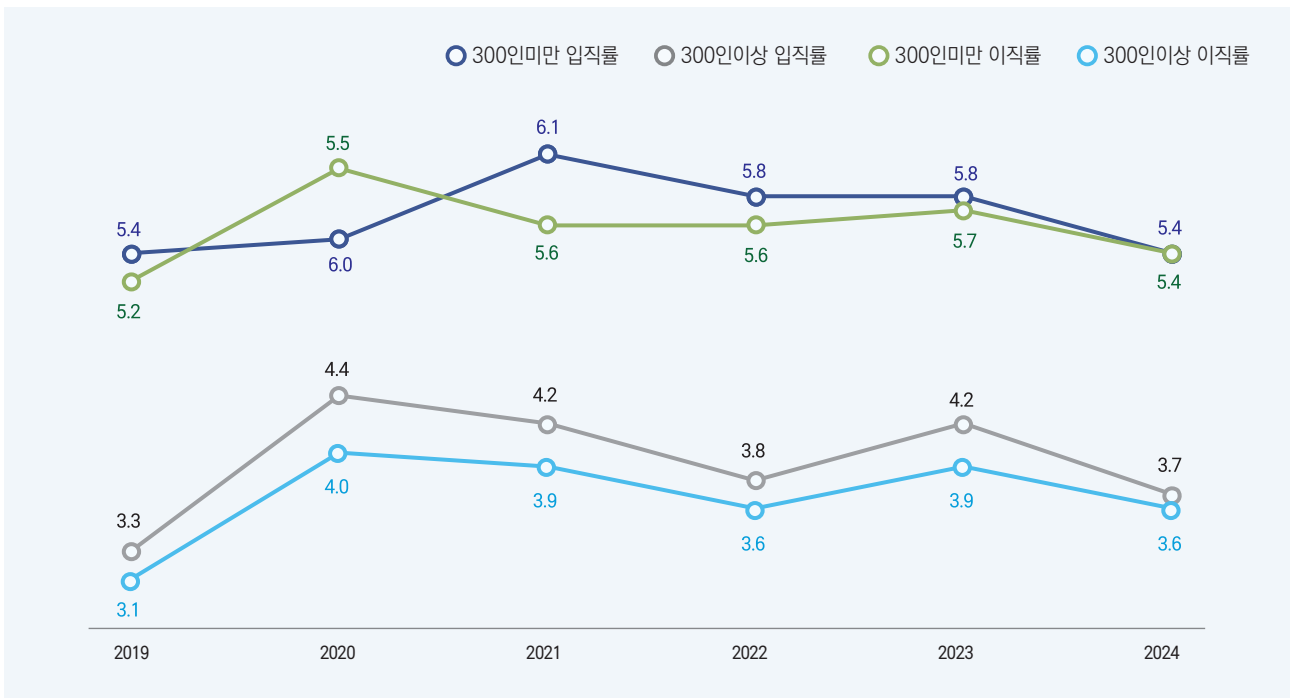
		'19	'20	'21	'22	'23	'24
상용	입직	430 (2.7)	441 (2.8)	489 (3.1)	460 (2.8)	474 (2.8)	409 (2.4)
	이직	388 (2.5)	482 (3.1)	422 (2.7)	426 (2.6)	445 (2.6)	408 (2.4)
	자발적	244 [62.9]	251 [52.1]	244 [57.8]	266 [62.5]	281 [63.3]	247 [60.6]
	비자발적	77 [19.9]	103 [21.3]	79 [18.8]	74 [17.3]	85 [19.0]	82 [20.1]
	기타	67 [17.2]	129 [26.6]	99 [23.5]	86 [20.3]	79 [17.7]	79 [19.3]
임시 일용	입직	458 (26.1)	476 (28.5)	522 (30.8)	541 (29.5)	561 (29.5)	555 (29.0)
	이직	461 (26.3)	491 (29.4)	507 (30.0)	532 (29.0)	559 (29.4)	555 (29.0)
	자발적	42 [9.0]	40 [8.2]	33 [6.6]	39 [7.4]	42 [7.5]	42 [7.6]
	비자발적	410 [89.0]	434 [88.5]	465 [91.6]	486 [91.3]	510 [91.2]	506 [91.1]
	기타	9 [1.9]	17 [3.4]	9 [1.8]	7 [1.3]	8 [1.3]	7 [1.3]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입직률, 이직률, [] 이직자 내 비율
주) 기타 이직은 본-지사간 전출, 정년퇴직, 사망,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직 등

(단위: 천명, %)

규모별 입·이직

300인 미만 사업체 이직자가 전체 이직자 중 87.9%이고,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59.6%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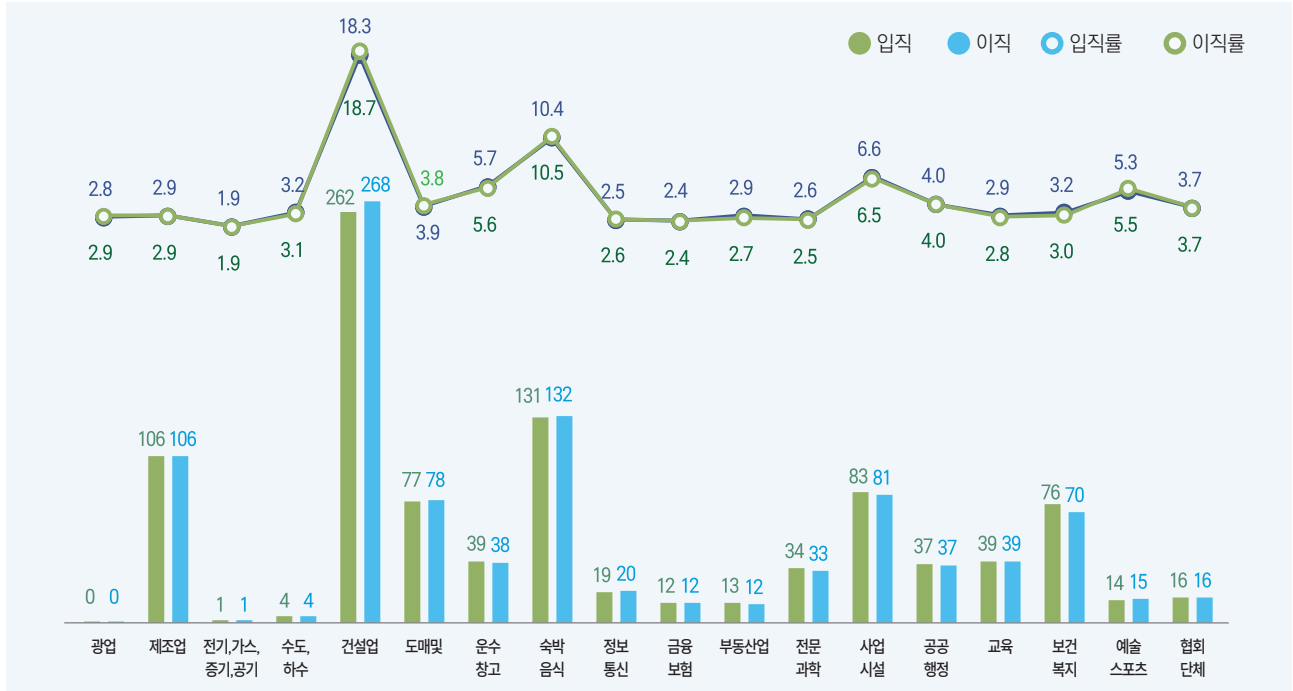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4년), [] 이직자 내 비율

산업별 입·이직

2024년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지원업 순으로 입·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 이직자의 자발성 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가 자발적 이직자보다 많음
- 업종별로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지원업 등에서 비자발적 이직이 많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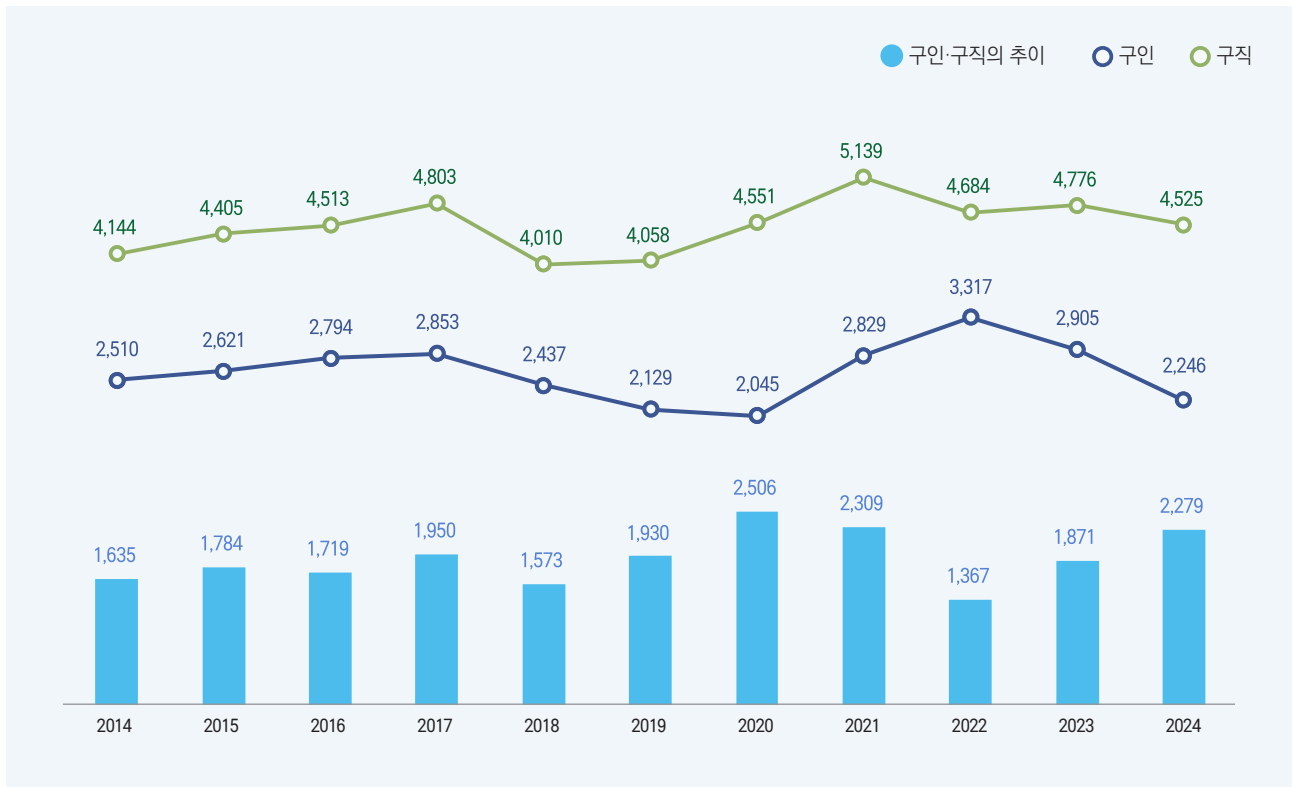
전 산업	입직		이직		자발적		비자발적		기타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전 산업	964	(5.1)	963	(5.1)	289	[30.1]	588	[61.1]	86	[8.9]
광업	0	(2.8)	0	(2.9)	0	[44.3]	0	[47.9]	0	[7.8]
제조업	106	(2.9)	106	(2.9)	49	[46.3]	46	[43.7]	11	[10.0]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1	(1.9)	1	(1.9)	0	[13.8]	0	[13.5]	1	[72.8]
수도,하수,폐기물,재생	4	(3.2)	4	(3.1)	1	[32.2]	2	[48.7]	1	[19.1]
건설업	262	(18.3)	268	(18.7)	17	[6.2]	250	[93.1]	2	[0.7]
도매및소매업	77	(3.8)	78	(3.9)	35	[45.6]	36	[45.8]	7	[8.6]
운수및창고업	39	(5.7)	38	(5.6)	9	[24.3]	25	[66.2]	4	[9.5]
숙박및음식점업	131	(10.4)	132	(10.5)	45	[34.3]	83	[62.5]	4	[3.2]
정보통신업	19	(2.5)	20	(2.6)	11	[53.8]	5	[25.3]	4	[20.9]
금융및보험업	12	(2.4)	12	(2.4)	3	[25.0]	2	[12.5]	8	[62.5]
부동산업	13	(2.9)	12	(2.7)	7	[58.0]	4	[34.4]	1	[7.6]
전문,과학,기술	34	(2.6)	33	(2.5)	15	[46.4]	12	[36.2]	6	[17.4]
사업시설관리지원업	83	(6.6)	81	(6.5)	29	[35.6]	49	[60.7]	3	[3.7]
공공,국방,행정	37	(4.0)	37	(4.0)	2	[5.6]	17	[47.0]	17	[47.3]
교육서비스	39	(2.9)	39	(2.8)	8	[21.2]	20	[51.9]	10	[26.9]
보건및사회복지	76	(3.2)	70	(3.0)	45	[63.5]	21	[29.5]	5	[7.0]
예술,스포츠,여가	14	(5.3)	15	(5.5)	5	[36.7]	8	[52.9]	2	[10.4]
협회,단체,수리,개인	16	(3.7)	16	(3.7)	7	[40.7]	8	[51.7]	1	[7.6]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4년), () 입직률, 이직률, [] 이직자내 비율

고용24 구인·구직 현황

구인·구직 추이

2024년 워크넷 신규구인인원은 225만명으로 전년대비 65.9만명 감소하였고, 신규구직건수는 453만건으로 25.1만건 감소하여 구인·구직이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4년)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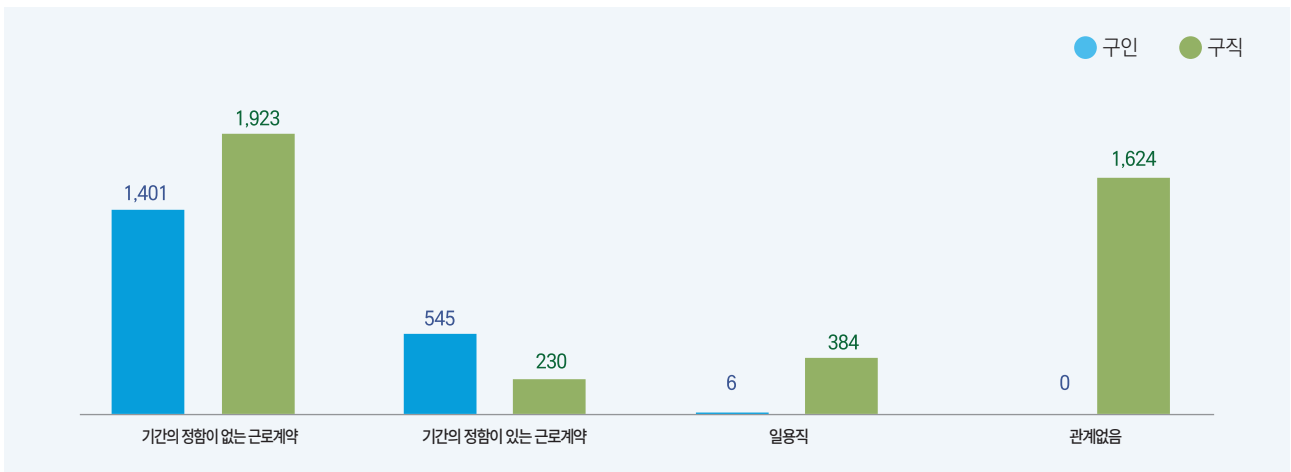


용어 정리

- **신규구인인원**은 구인인증일자 기준 한달 동안 등록된 구인신청 건에서 모집하는 인원수로 신청취소는 제외, 구인을 원하는 일자리를 의미
 - **신규구직건수**는 구직인증일자 기준 한달 동안 등록된 구직신청건수(신청취소 제외), 구직을 원하는 인원을 의미
- ☞ 구인·구직 현황은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 상황만을 포함하므로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구인·구직 유형

2024년 구인과 구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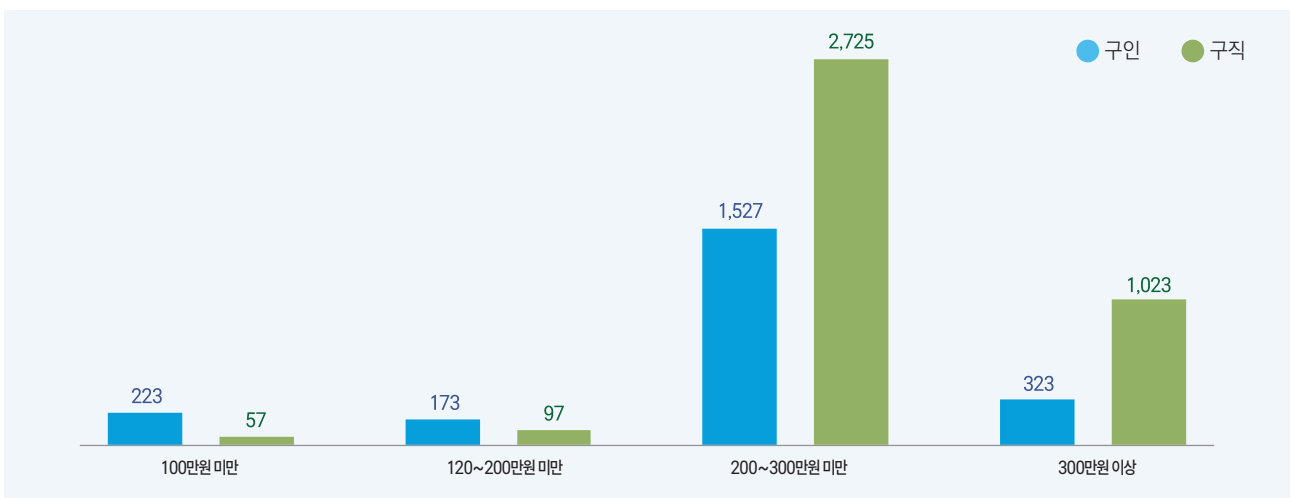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4년)

(단위: 천명)

구인·구직자의 희망 임금

2024년 희망임금은 구인과 구직 모두 200~300만원 구간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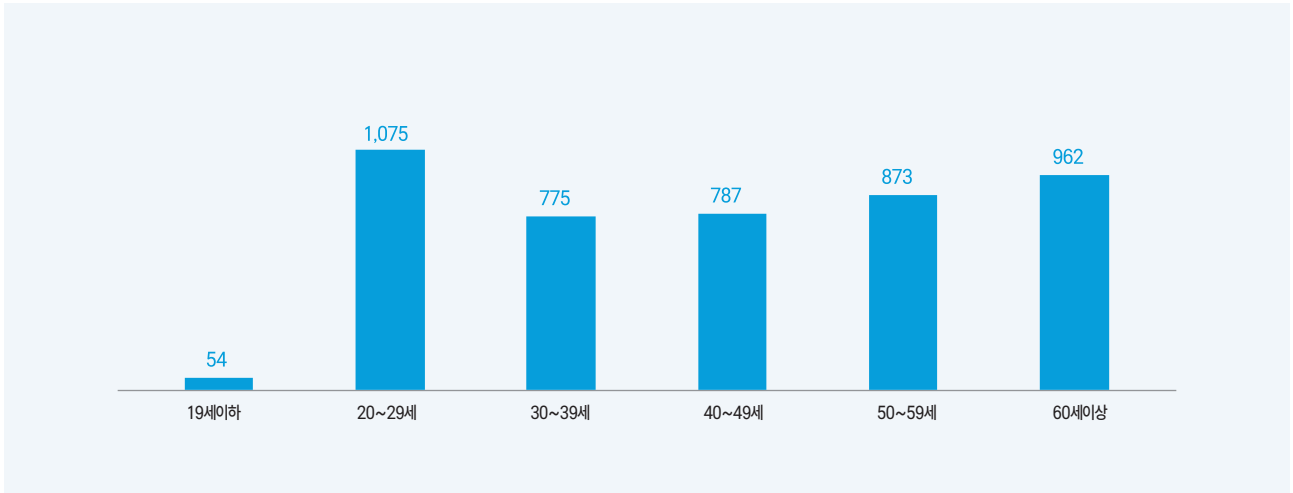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4년)

(단위: 천명)

연령별 구직건수

2024년 20대의 구직건수가 107.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세 이상의 구직건수가 96.2만건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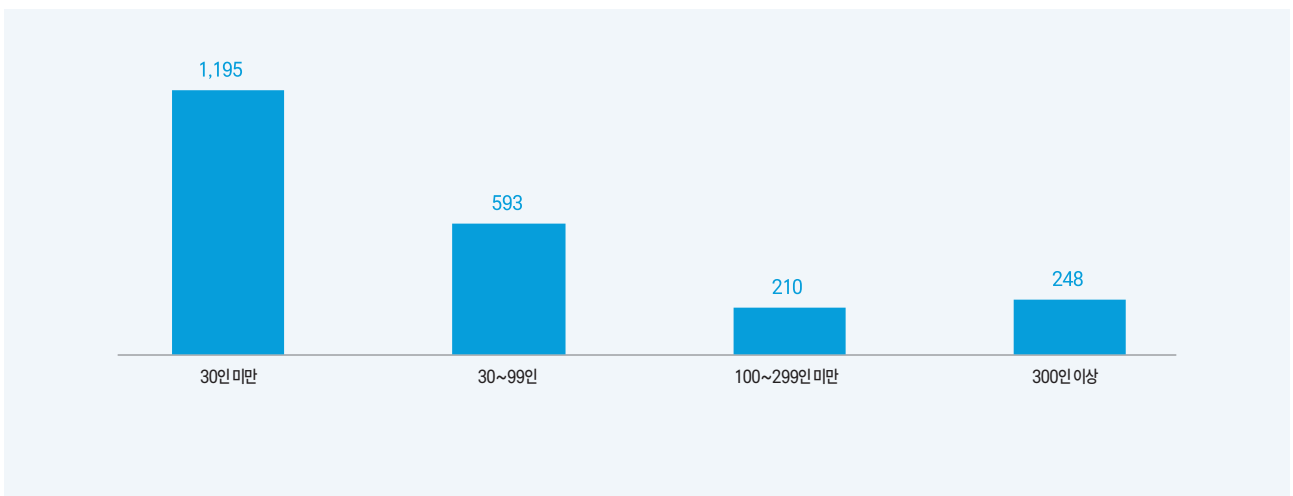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4년)

(단위: 천건)

규모별 구인인원

2024년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구인인원이 119.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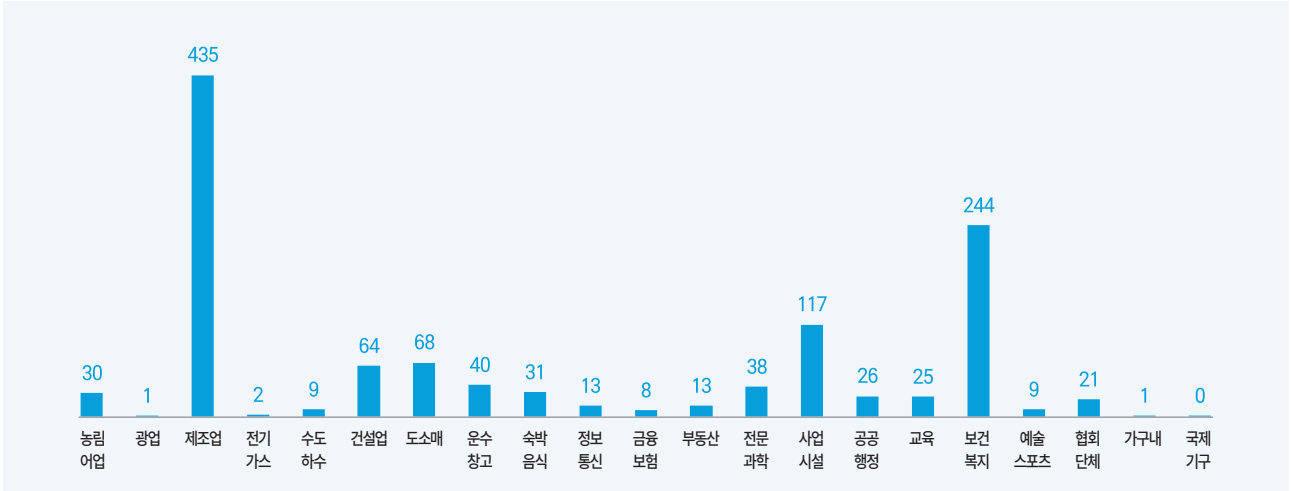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4년)

(단위: 천명)

산업별 구인인원

2024년 산업별 구인인원은 제조업, 보건복지, 사업시설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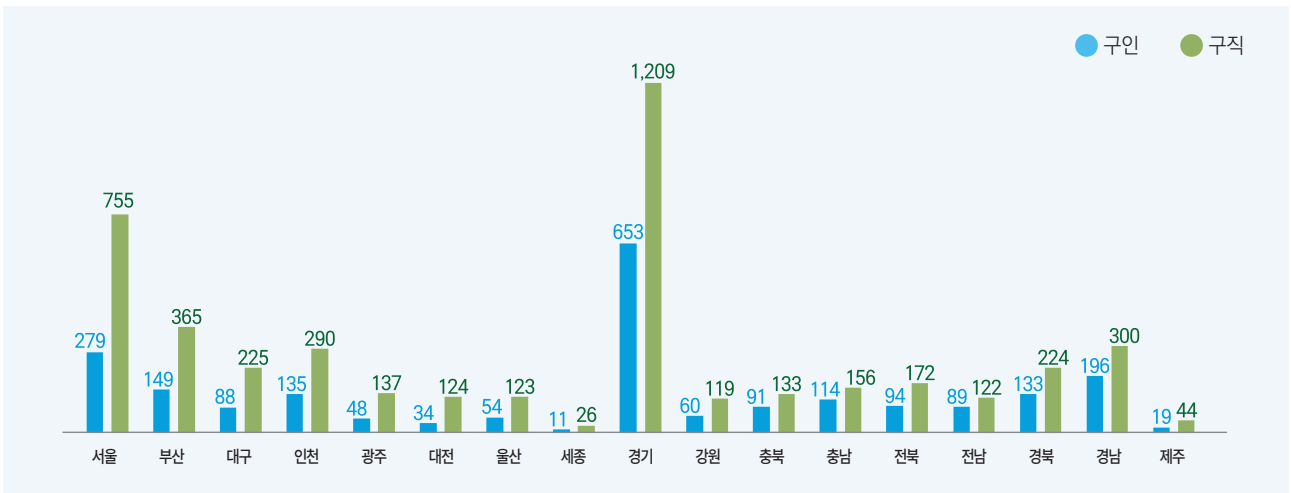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4년)

(단위: 천명)

지역별 구인·구직

2024년 지역별 구인인원과 구직건수는 경기도에서 각각 65.3만명, 120.9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 17개 시도 모두 구인인원보다 구직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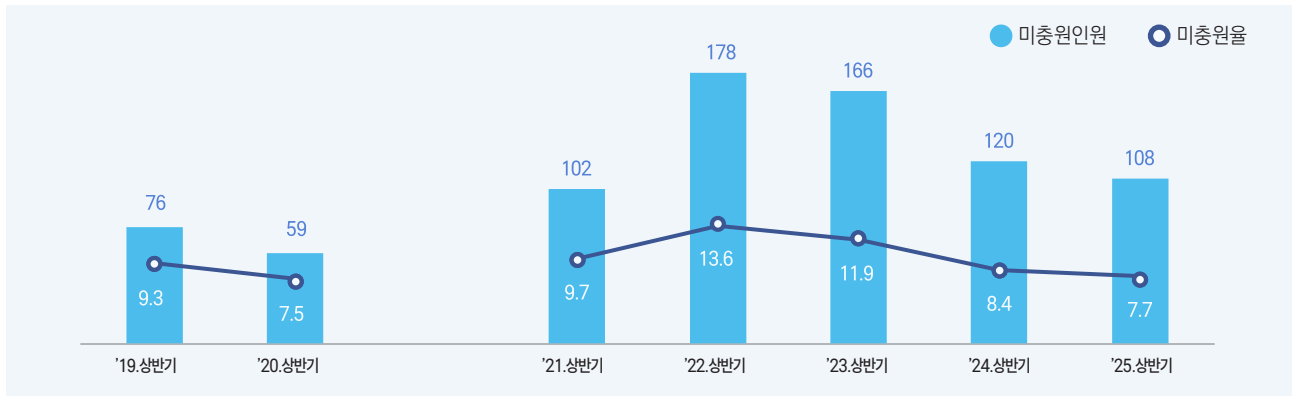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4년)

(단위: 천명, 천건)

미충원 인원

미충원 인원 추이

2025년 상반기 기준 1~3월 3개월간 구인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10.8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1만명 감소하였고, 미충원율은 7.7%로 전년동기 대비 0.7%p 하락하였다.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 이상)
주) '24.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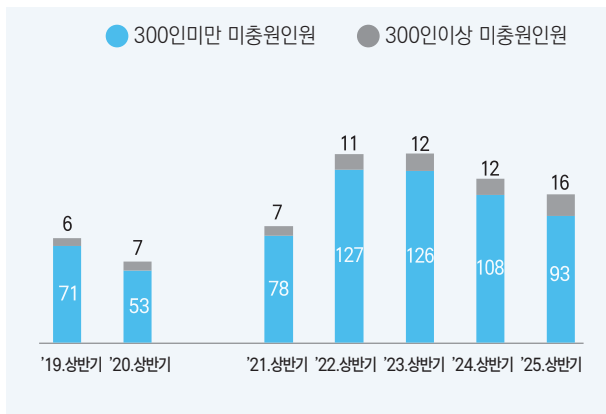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규모별 미충원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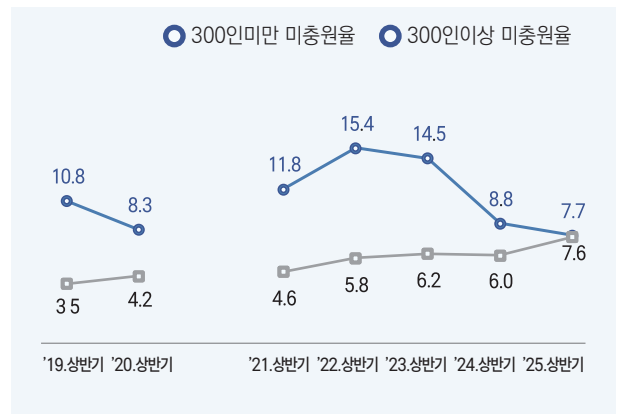
2025년 상반기 기준 규모별 미충원인원과 미충원율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 2025년 상반기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미충원율은 7.6%로 역대 최고 수준

규모별 미충원인원



규모별 미충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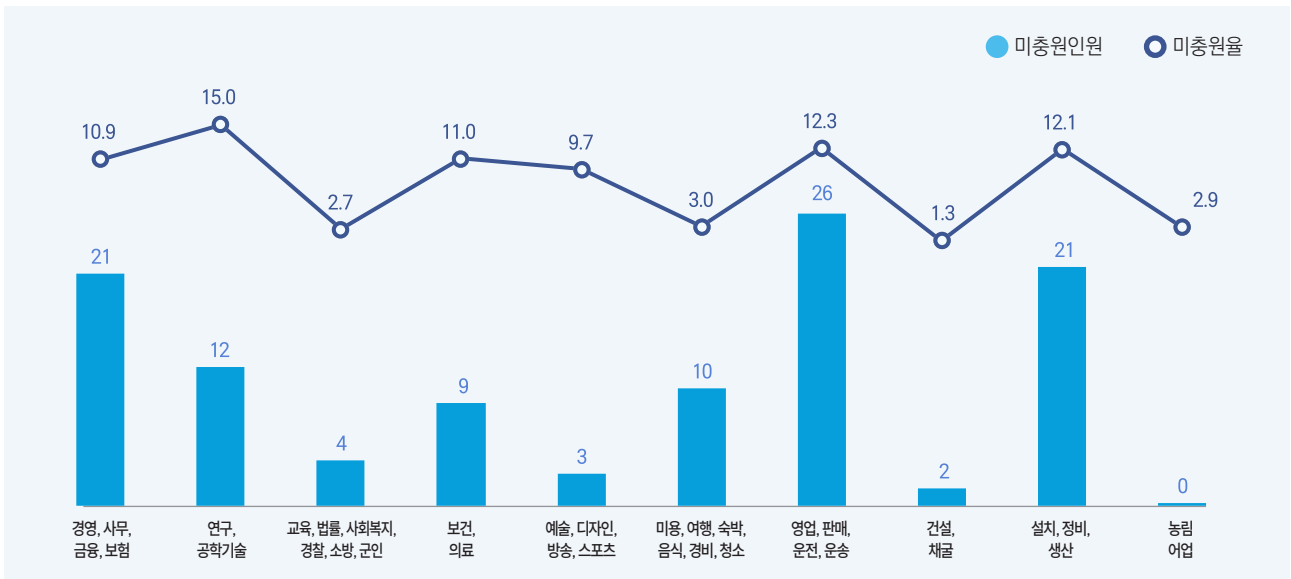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 이상)

(단위: 천명, %)

직종별 미충원 인원

직종별로 볼 때, 2025년 상반기 기준 미충원율은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15.0%), 영업,판매, 운전, 운송직(1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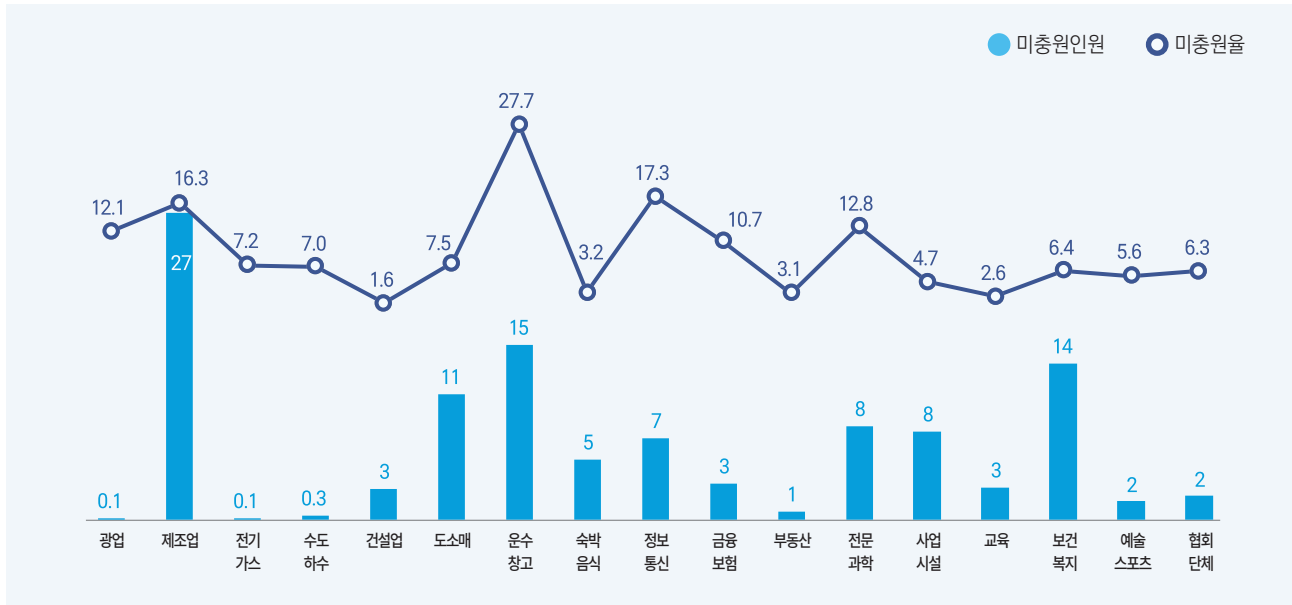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전 직종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직종	108	93	16	7.7	7.7	7.6
경영, 사무, 금융, 보험	21	16	4	10.9	10.7	11.9
연구, 공학기술	12	10	2	15.0	16.2	11.3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 군인	4	3	1	2.7	2.6	3.2
보건, 의료	9	5	4	11.0	9.0	15.5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	3	2	0	9.7	9.3	14.6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	10	9	2	3.0	3.0	2.8
영업, 판매, 운전, 운송	26	25	1	12.3	13.2	4.8
건설, 채굴	2	1	0	1.3	1.2	7.1
설치, 정비, 생산	21	20	1	12.1	13.0	5.7
농림어업	0	0	0	2.9	2.4	10.2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4.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산업별 미충원 인원

2025년 상반기 기준 산업별 미충원율은 운수창고업(27.7%), 정보통신업(17.3%), 제조업(1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천명, %)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산업	108	93	16	7.7	7.7	7.6
광업	0.1	0.1	0.0	12.1	12.1	-
제조업	27	25	2	16.3	17.6	7.6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0.1	0.0	0.0	7.2	9.3	3.5
수도, 하수·폐기물, 재생	0.3	0.3	0.0	7.0	7.0	0.0
건설업	3	3	0	1.6	1.6	2.3
도매및소매업	11	10	1	7.5	7.4	12.2
운수창고업	15	15	0	27.7	31.2	5.6
숙박및음식점	5	5	0	3.2	3.1	13.7
정보통신업	7	6	1	17.3	16.9	19.2
금융및보험업	3	2	1	10.7	9.3	17.8
부동산업	1	1	0	3.1	3.2	1.6
전문, 과학, 기술	8	7	1	12.8	14.3	8.0
사업시설관리및지원	8	3	4	4.7	4.3	5.1
교육서비스	3	2	1	2.6	2.5	3.0
보건, 사회복지	14	9	4	6.4	5.1	14.4
예술, 스포츠, 여가	2	1	0	5.6	5.7	4.8
협회, 단체, 수리, 개인	2	2	0	6.3	6.2	36.4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4.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지역별 미충원 인원

2025년 상반기 기준 미충원인원은 서울(3.3만명)과 경기(2.6만명)에서 많고, 미충원율은 충북(11.5%), 경남(1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 이상)
주) '24.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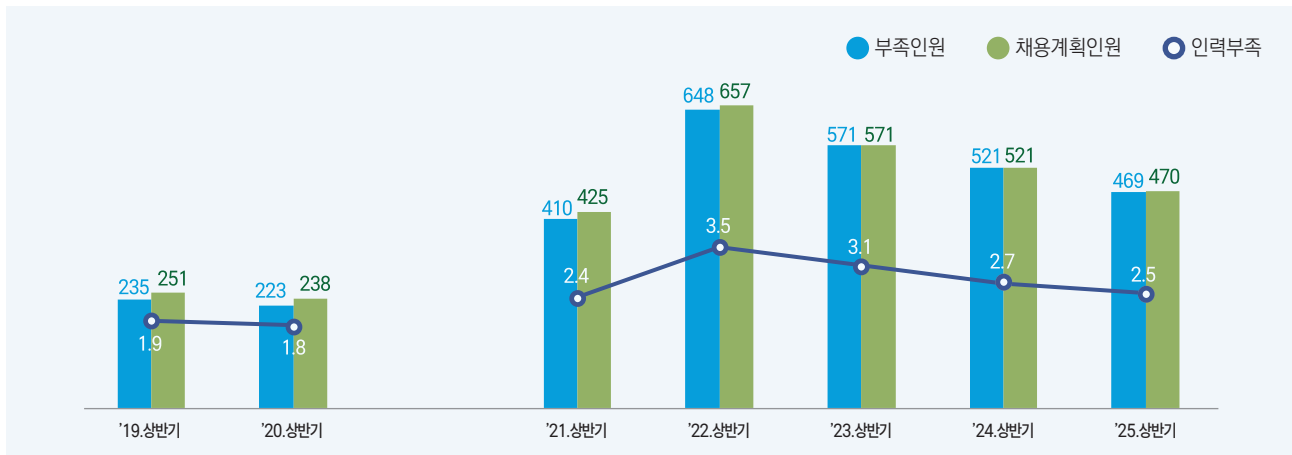
(단위: 천명, %)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추이

2025년 4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46.9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2만명 감소하였고, 인력부족률은 2.5%로 전년동기 대비 0.2%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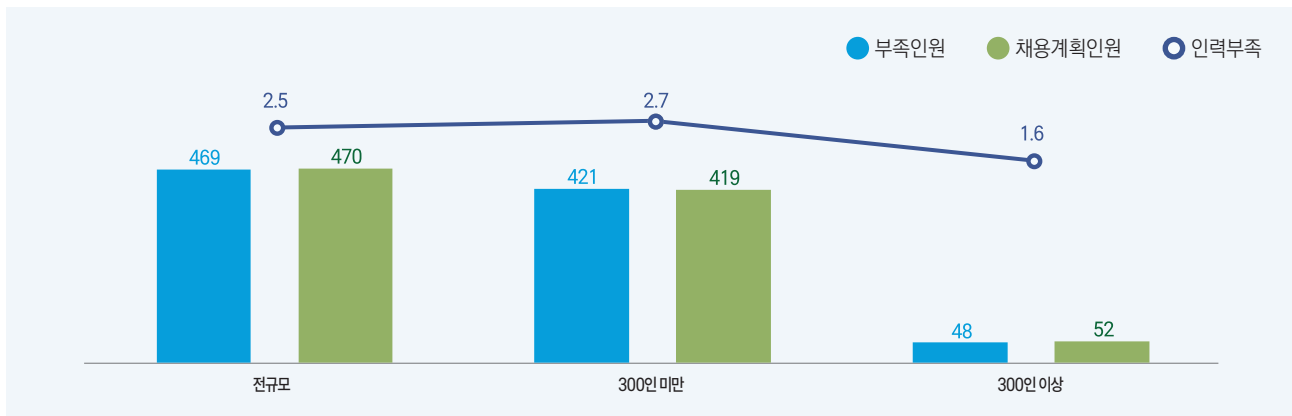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단위: 천명, %)
 주) '24.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규모별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2025년 4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300인 미만에서 42.1만명, 300인이상에서 4.8만명으로 300인 미만의 부족인원이 월등히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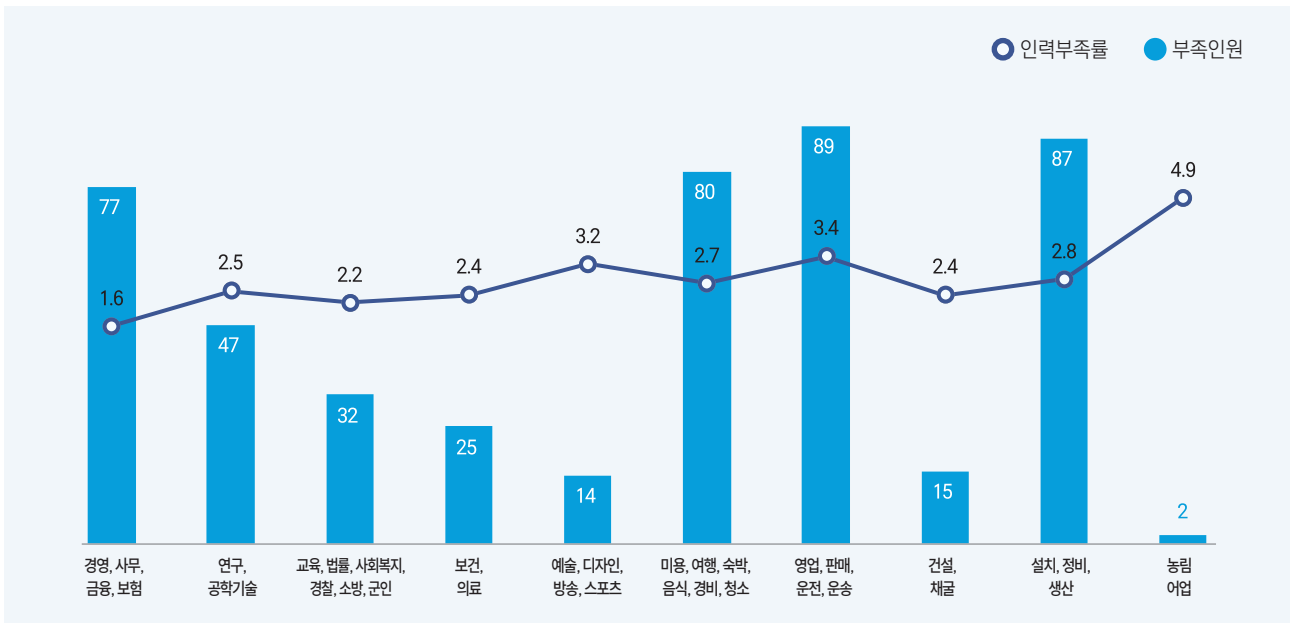
● 인력부족률은 300인미만이 2.7%, 300인이상이 1.6%로 나타남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단위: 천명, %)
 주) '24.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직종별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2025년 4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영업·판매·운전·운송직이 8.9만명으로 가장 많고, 인력부족률은 농림어업직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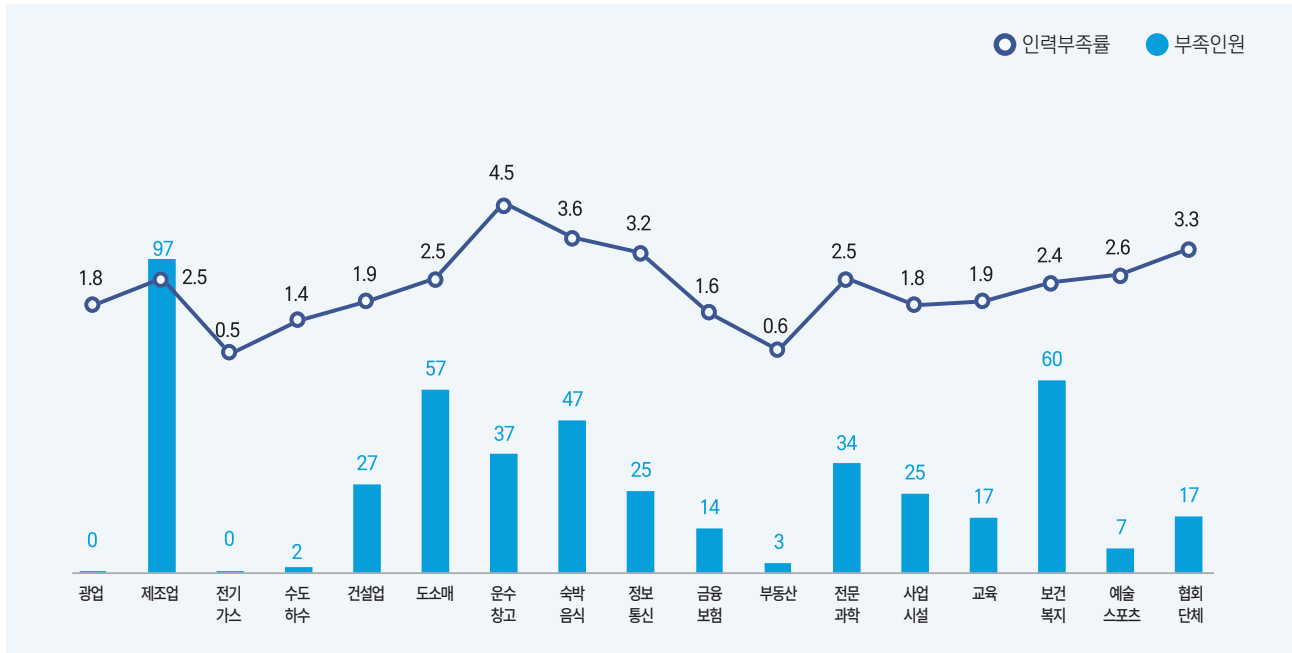
전 직종	부족 인원		인력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직종	469	48	2.5	2.7	1.6	470	52	
경영, 사무, 금융, 보험	77	13	1.6	1.6	1.8	75	14	
연구, 공학기술	47	8	2.5	3.1	1.3	45	8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 군인	32	1	2.2	2.4	0.8	33	2	
보건, 의료	25	8	2.4	2.4	2.5	24	7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	14	1	3.2	3.3	2.4	15	1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	80	5	2.7	2.9	1.4	82	6	
영업, 판매, 운전, 운송	89	7	3.4	3.5	2.8	89	7	
건설, 채굴	15	0	2.4	2.5	0.5	18	0	
설치, 정비, 생산	87	5	2.8	3.2	1.0	87	5	
농림어업	2	0	4.9	5.1	2.4	2	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 이상)
주) '24.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통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단위: 천명, %)

산업별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2025년 4월 1일 기준 산업별 부족인원은 제조업(9.7만명), 보건복지업(6.0만명), 도소매업(5.7만명) 순으로 가장 많고, 인력부족률은 운수 및 창고업에서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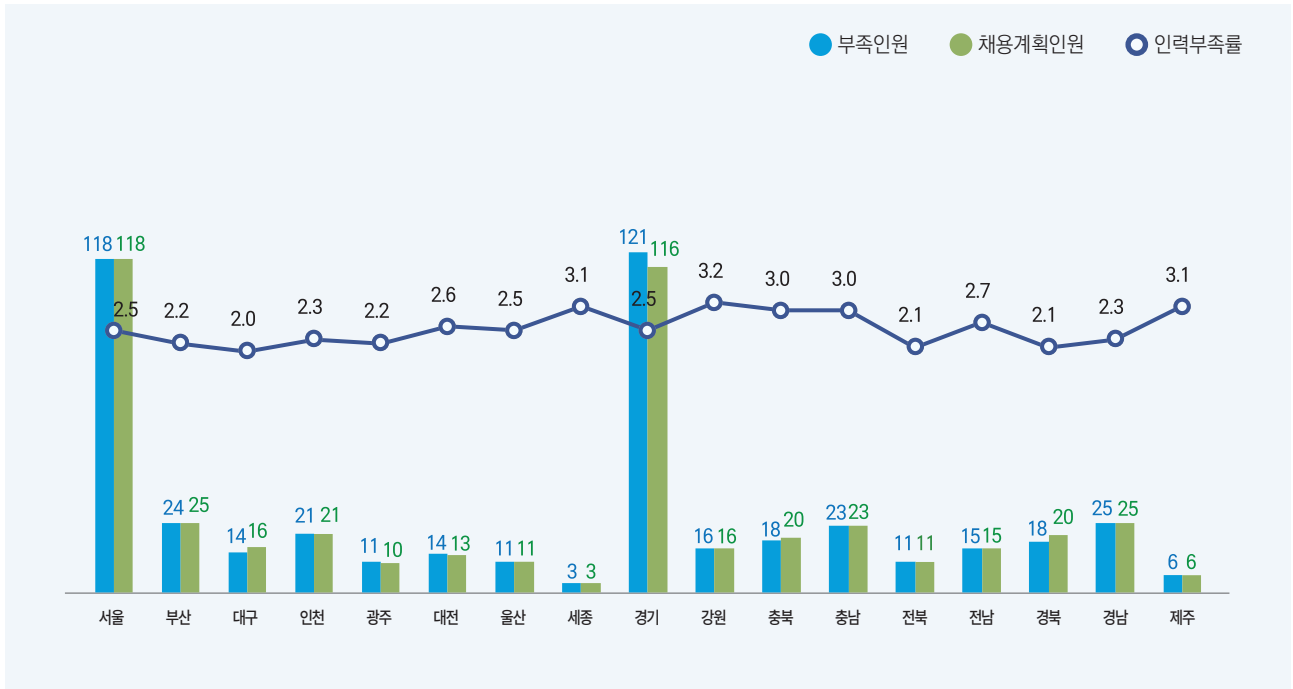
전 산업	부족 인원			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합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합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합계
전 산업	469	421	48	2.5	2.7	1.6	470	419	52
광업	0	0	0	1.8	2.1	0.0	0	0	0
제조업	97	91	6	2.5	3.0	0.8	95	89	6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0	0	0	0.5	0.6	0.3	1	0	0
수도, 하수·폐기물, 재생	2	2	0	1.4	1.4	0.3	2	2	0
건설업	27	27	0	1.9	2.0	0.6	30	29	1
도매및소매업	57	55	2	2.5	2.5	1.7	54	52	2
운수및창고업	37	32	5	4.5	4.7	3.4	37	32	5
숙박및음식점	47	47	0	3.6	3.6	2.3	47	46	0
정보통신업	25	21	4	3.2	3.6	2.2	26	21	4
금융및보험업	14	11	3	1.6	1.5	2.1	13	10	3
부동산업	3	3	0	0.6	0.6	1.0	3	3	0
전문, 과학, 기술	34	28	6	2.5	2.9	1.4	33	26	6
사업시설관리및지원	25	14	10	1.8	1.8	1.9	27	16	11
교육서비스	17	16	2	1.9	2.1	0.9	19	16	3
보건, 사회복지	60	51	9	2.4	2.4	2.3	61	53	8
예술, 스포츠, 여가	7	7	1	2.6	2.5	3.8	7	6	1
협회, 단체, 수리, 개인	17	17	0	3.3	3.3	3.3	17	17	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4.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단위: 천명, %)

지역별 부족인원 및 채용 계획인원

2025년 4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경기(12.1만명), 서울(11.8만명)순으로 많고, 인력부족률은 강원(3.2%), 제주(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4.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단위: 천명,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용어정리 및 기준]

용어 정리

- **부족인원**은 매년 당해 사업체에서 조사기준일(상반기: 4월 1일, 하반기: 10월 1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수를 의미

$$\text{인력부족률} = \frac{\text{부족인원}}{(\text{현원} + \text{부족인원})} \times 100$$

- **구인·채용·미충원인원(미충원율)**: '25.1/4분기
- **채용계획인원**: '25.2/4분기~3/4분기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5. 직업훈련

- ① 직업훈련 현황
- ② 수료자 취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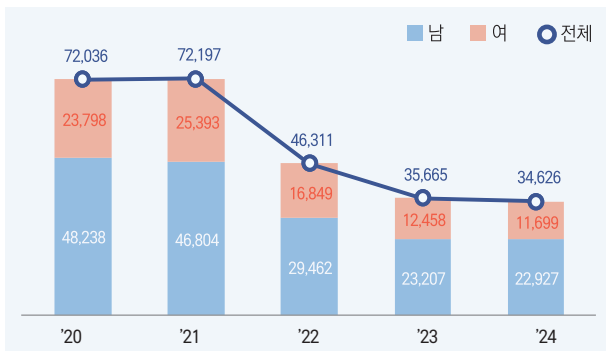
직업훈련 현황

훈련별 성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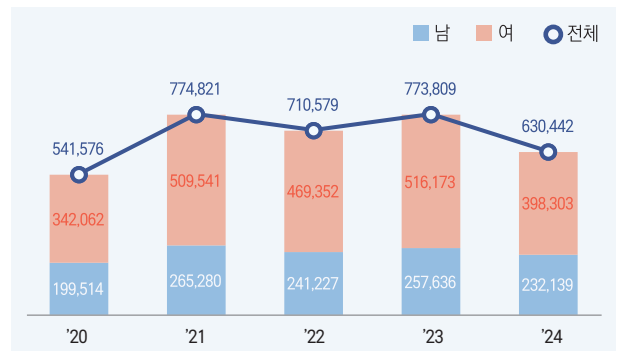
2024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 인원은 남성 비율이 높고,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은 여성 비율이 높다.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은 34,626명이며, 남성이 여성의 약 2.0배 수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은 630,442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1.7배 수준

성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성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EIS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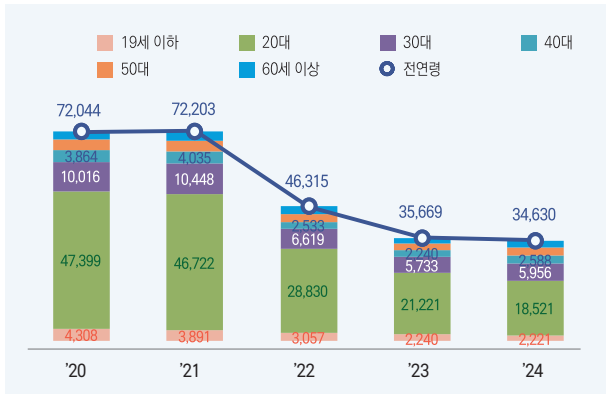
주1) 직업훈련은 실업자 훈련기준 작성한 것이며, 재직자 훈련은 마지막 부분에 별도 제시
 주2)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훈련별 연령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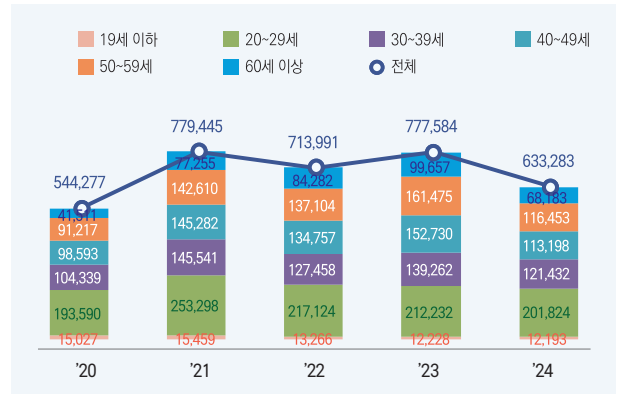
2024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주 참여연령은 20대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20대가 가장 많고, 타연령대는 유사한 비중이다.

-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에서 20대 비율은 53.5%로 가장 많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은 전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연령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연령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E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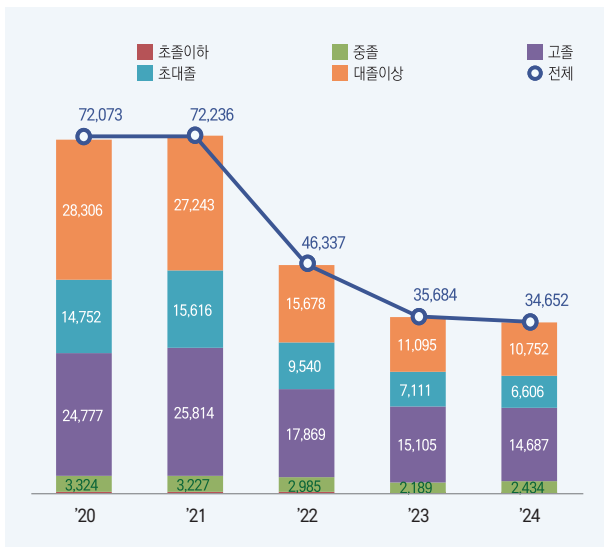
주1) 직업훈련은 실업자 훈련기준 작성한 것이며, 재직자 훈련은 마지막 부분에 별도 제시
 주2)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훈련별 학력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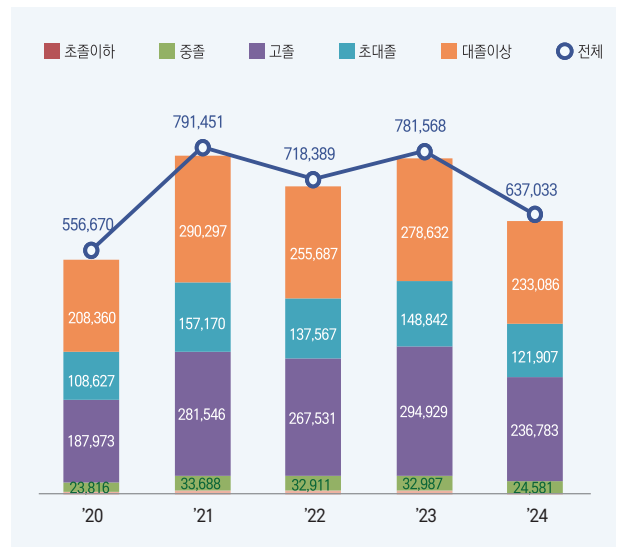
2024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은 모두 고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모두 고졸, 대졸, 초대졸 순으로 많음

학력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학력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EIS, 각 연도별 학력미분류자는 막대그래프에 미포함, 전체에는 포함

주1) 직업훈련은 실업자 훈련기준 작성한 것이며, 재직자 훈련은 마지막 부분에 별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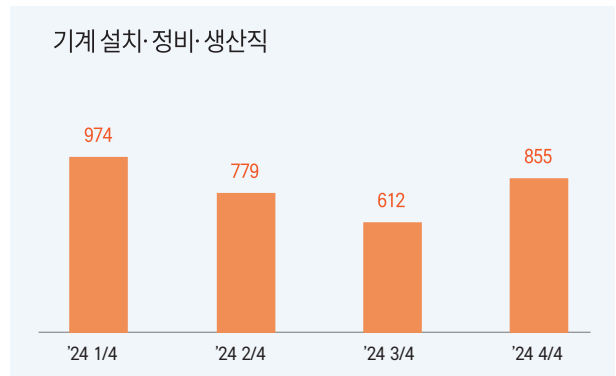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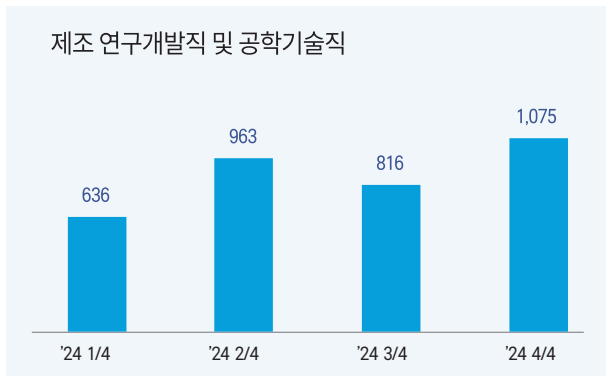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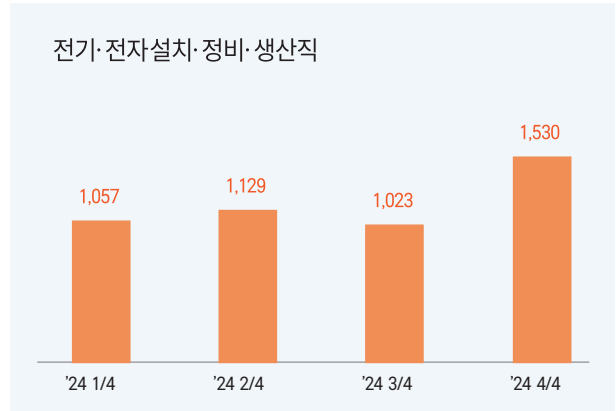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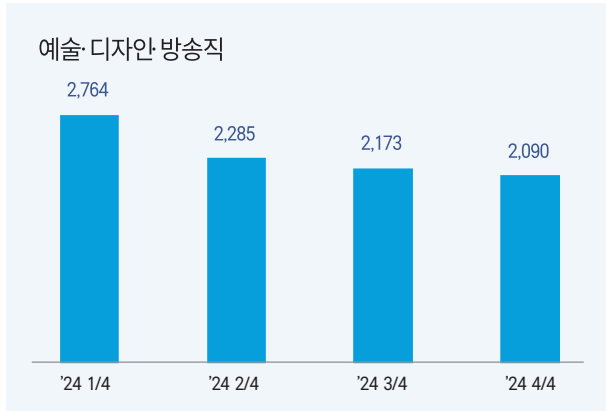
2)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직종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2024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실시인원에는 예술·디자인·방송직,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순으로 많다.

주요 직종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실시인원



	'24.1/4	'24.2/4	'24.3/4	'24.4/4
전 직종	9,244 (100.0)	8,659 (100.0)	7,738 (100.0)	9,098 (100.0)
경영·행정·사무직	458 (5.0)	515 (5.9)	483 (6.2)	589 (6.5)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2 (0.3)	20 (0.2)	39 (0.5)	32 (0.4)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69 (18.1)	1,242 (14.3)	983 (12.7)	732 (8.0)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15 (5.6)	523 (6.0)	439 (5.7)	710 (7.8)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36 (6.9)	963 (11.1)	816 (10.5)	1,075 (11.8)
예술·디자인·방송직	2,764 (29.9)	2,285 (26.4)	2,173 (28.1)	2,090 (23.0)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36 (0.4)	22 (0.3)	37 (0.5)	28 (0.3)
건설·채굴직	621 (6.7)	512 (5.9)	621 (8.0)	743 (8.2)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974 (10.5)	779 (9.0)	612 (7.9)	855 (9.4)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290 (3.1)	430 (5.0)	311 (4.0)	473 (5.2)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057 (11.4)	1,129 (13.0)	1,023 (13.2)	1,530 (16.8)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0 (0.0)	24 (0.3)	0 (0.0)	26 (0.3)
섬유·의복 생산직	6 (0.1)	39 (0.5)	0 (0.0)	32 (0.4)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86 (2.0)	164 (1.9)	201 (2.6)	170 (1.9)
농림어업직	0 (0.0)	12 (0.1)	0 (0.0)	1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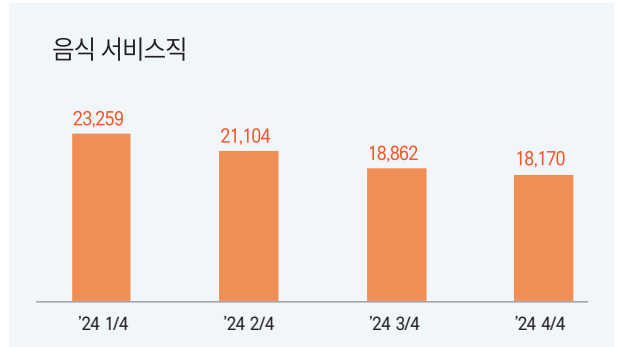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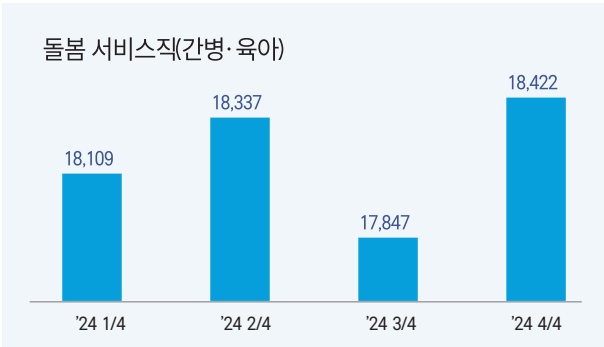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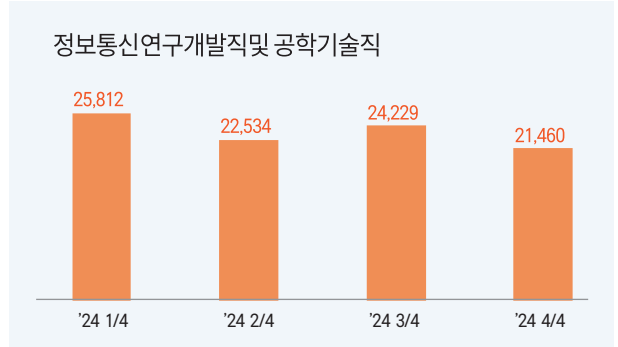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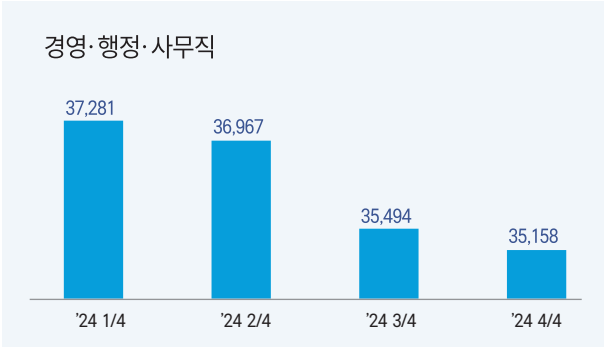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IS, () 전 직종대비 비중,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단위: 명, %)

직종별 국민내일배움카드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에는 경영·행정·사무직,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돌봄 서비스직, 음식서비스직 순으로 많다.

주요 직종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



	'24.1/4	'24.2/4	'24.3/4	'24.4/4
전 직종	209,118 (100.0)	190,882 (100.0)	184,302 (100.0)	177,021 (100.0)
관리직(임원·부서장)	914 (0.4)	714 (0.4)	677 (0.4)	690 (0.4)
경영·행정·사무직	37,281 (17.8)	36,967 (19.4)	35,494 (19.3)	35,158 (19.9)
금융·보험직	1,435 (0.7)	835 (0.4)	778 (0.4)	1,083 (0.6)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588 (0.3)	497 (0.3)	576 (0.3)	292 (0.2)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5,812 (12.3)	22,534 (11.8)	24,229 (13.1)	21,460 (12.1)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240 (2.5)	4,801 (2.5)	4,495 (2.4)	4,519 (2.6)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273 (4.4)	7,843 (4.1)	8,617 (4.7)	7,691 (4.3)
교육직	308 (0.1)	264 (0.1)	129 (0.1)	122 (0.1)
법률직	2,806 (1.3)	2,215 (1.2)	2,256 (1.2)	2,605 (1.5)
사회복지·종교직	2,274 (1.1)	2,136 (1.1)	1,987 (1.1)	2,036 (1.2)
경찰·소방·교도직	280 (0.1)	205 (0.1)	181 (0.1)	199 (0.1)
보건·의료직	6,928 (3.3)	5,016 (2.6)	4,466 (2.4)	4,524 (2.6)
예술·디자인·방송직	16,312 (7.8)	13,625 (7.1)	13,392 (7.3)	11,817 (6.7)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6 (0.0)	54 (0.0)	73 (0.0)	54 (0.0)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10,136 (4.8)	8,281 (4.3)	7,976 (4.3)	7,400 (4.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414 (0.2)	459 (0.2)	373 (0.2)	372 (0.2)
음식 서비스직	23,259 (11.1)	21,104 (11.1)	18,862 (10.2)	18,170 (10.3)
경호·경비직	309 (0.1)	246 (0.1)	289 (0.2)	225 (0.1)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8,109 (8.7)	18,337 (9.6)	17,847 (9.7)	18,422 (10.4)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905 (0.9)	1,626 (0.9)	1,652 (0.9)	1,684 (1.0)
영업·판매직	1,771 (0.8)	1,635 (0.9)	1,395 (0.8)	1,455 (0.8)
운전·운송직	6,476 (3.1)	6,651 (3.5)	6,476 (3.5)	6,997 (4.0)
건설·채굴직	7,535 (3.6)	6,900 (3.6)	6,847 (3.7)	6,667 (3.8)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3,512 (1.7)	2,975 (1.6)	3,010 (1.6)	3,257 (1.8)
금속 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787 (0.9)	1,963 (1.0)	1,723 (0.9)	1,672 (0.9)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7,185 (3.4)	6,773 (3.5)	6,625 (3.6)	5,822 (3.3)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40 (0.0)	30 (0.0)	16 (0.0)	29 (0.0)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42 (0.0)	46 (0.0)	28 (0.0)	52 (0.0)
섬유·의복 생산직	1,454 (0.7)	1,555 (0.8)	1,360 (0.7)	1,297 (0.7)
식품 가공 생산직	10,326 (4.9)	9,560 (5.0)	7,909 (4.3)	7,636 (4.3)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364 (2.1)	4,308 (2.3)	3,774 (2.0)	3,058 (1.7)
농림어업직	985 (0.5)	715 (0.4)	778 (0.4)	54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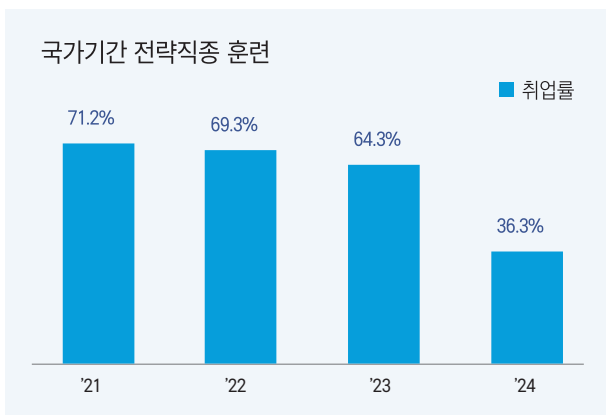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IS, () 전 직종대비 비중,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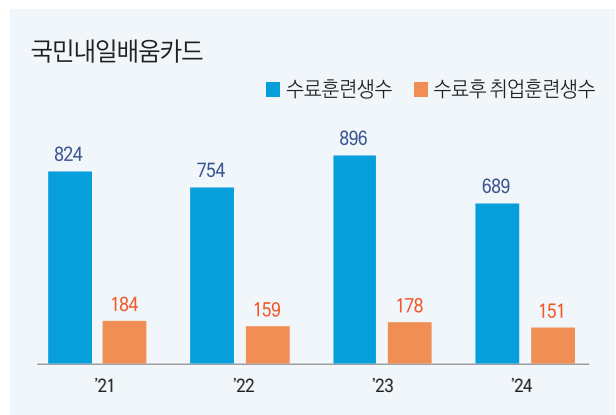
수료자 취업현황

훈련별 수료자 취업

2024년 훈련 수료 후 취업률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이 36.3%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료훈련생수는 689천명, 수료후 취업훈련생수는 151천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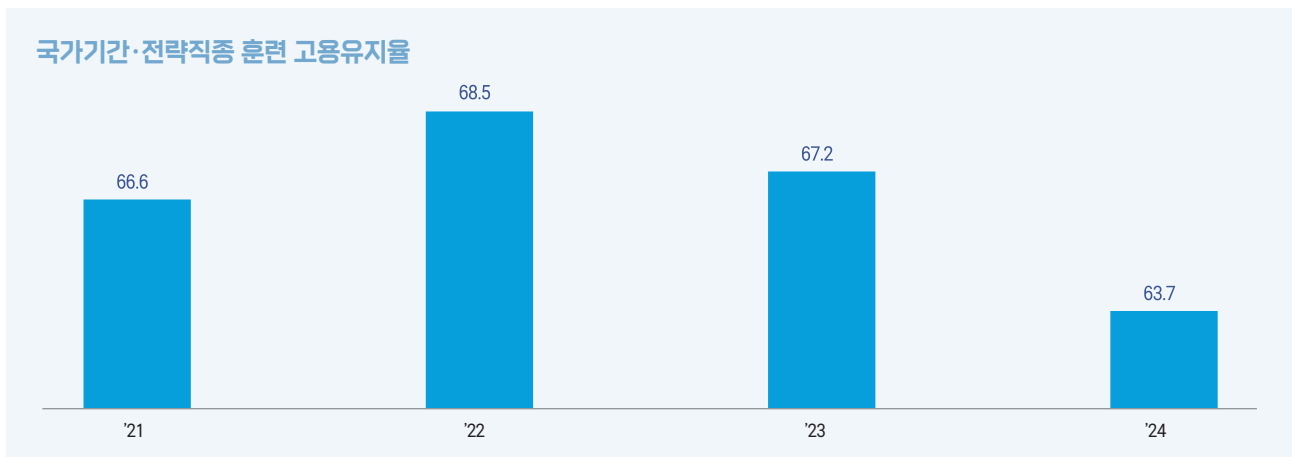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IS



(단위: 천명)

훈련별 취업자 고용유지율

2024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종료 및 취업되어 6개월 이상 고용된 인원들의 고용유지율은 63.7%로 나타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E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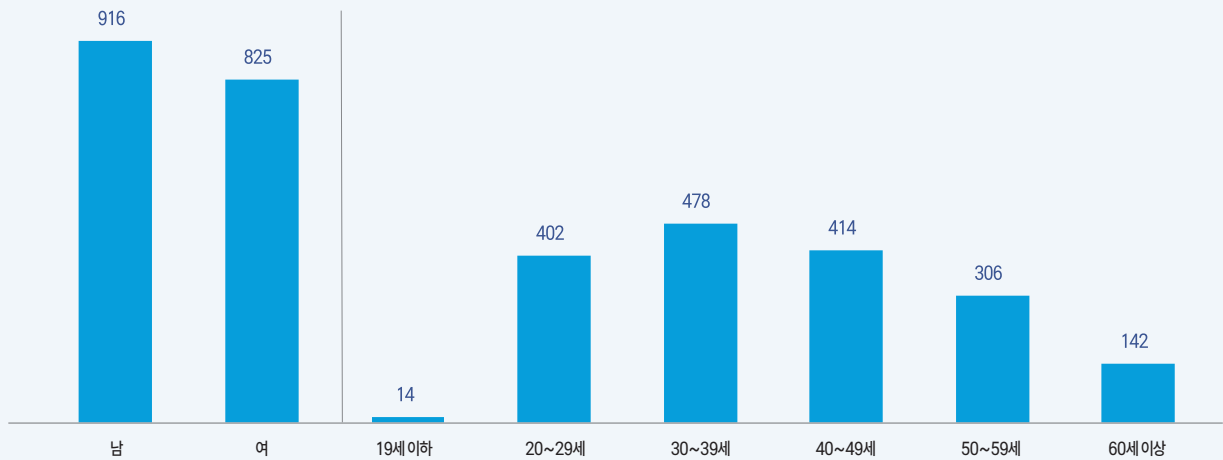
주) 고용유지율: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동일사업장 근속 비율

(단위: %)

재직자 훈련

2024년 재직자 훈련 실시인원은 20~40대, 경영·행정·사무직 중심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연령별 재직자 훈련 실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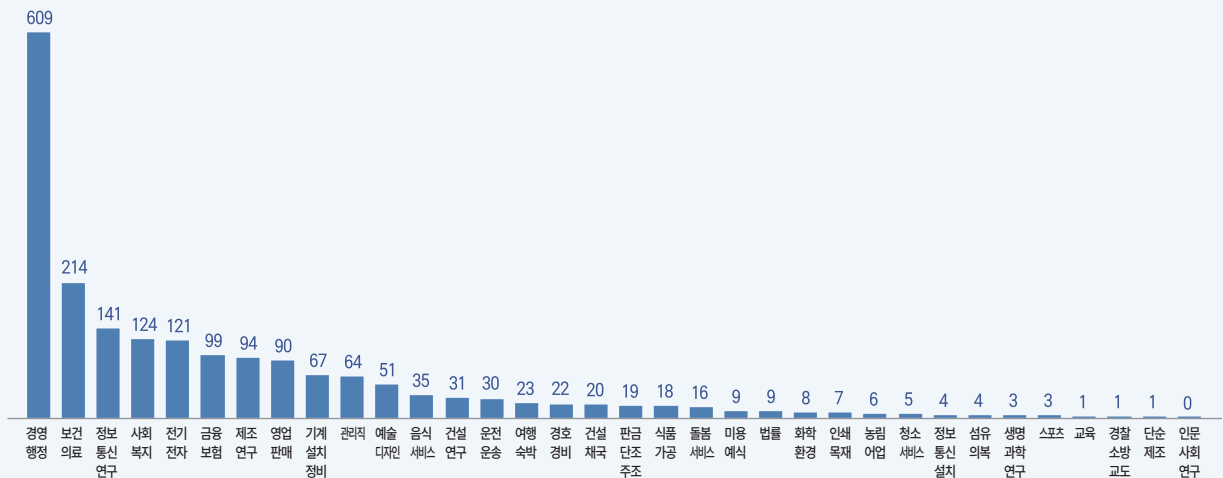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IS('24년)

(단위: 천명)

주) 대상훈련은 사업주지원금훈련, 통합심사과정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역산업맞춤형,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K-디지털기초역량훈련,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IPP(4년제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제), 유니테크

직종별 재직자 훈련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EIS('24년)

(단위: 천명)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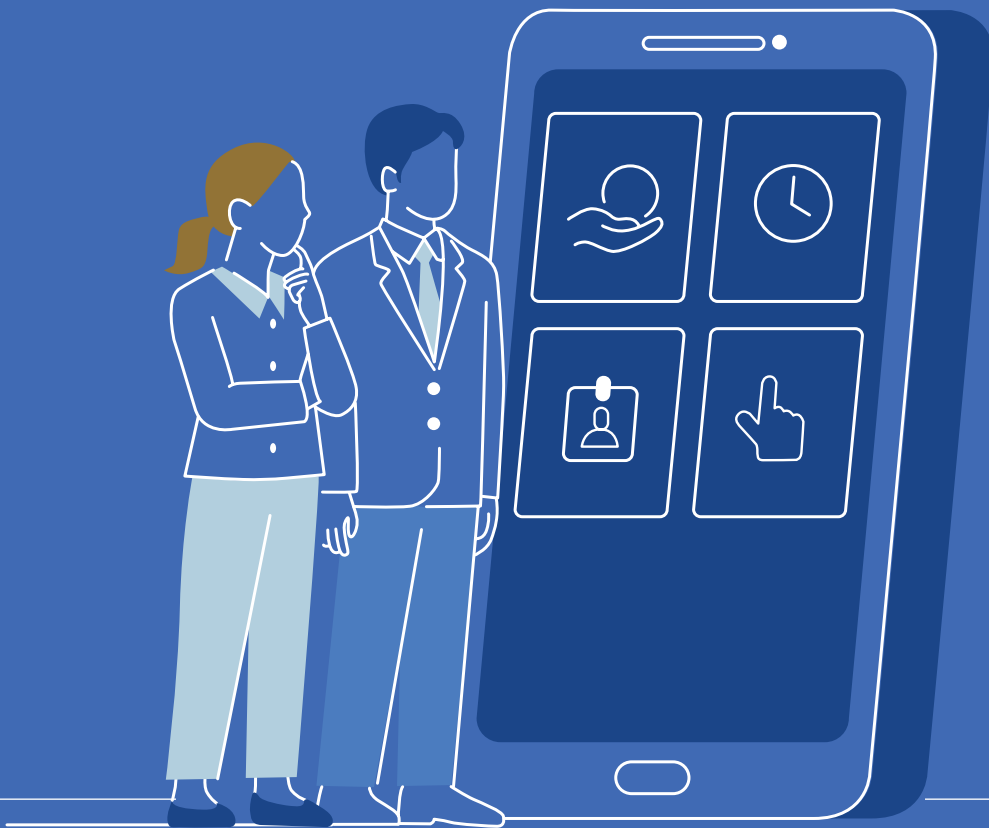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6. 근로조건

- ①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 ②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 ③ 사회보험 가입율(고용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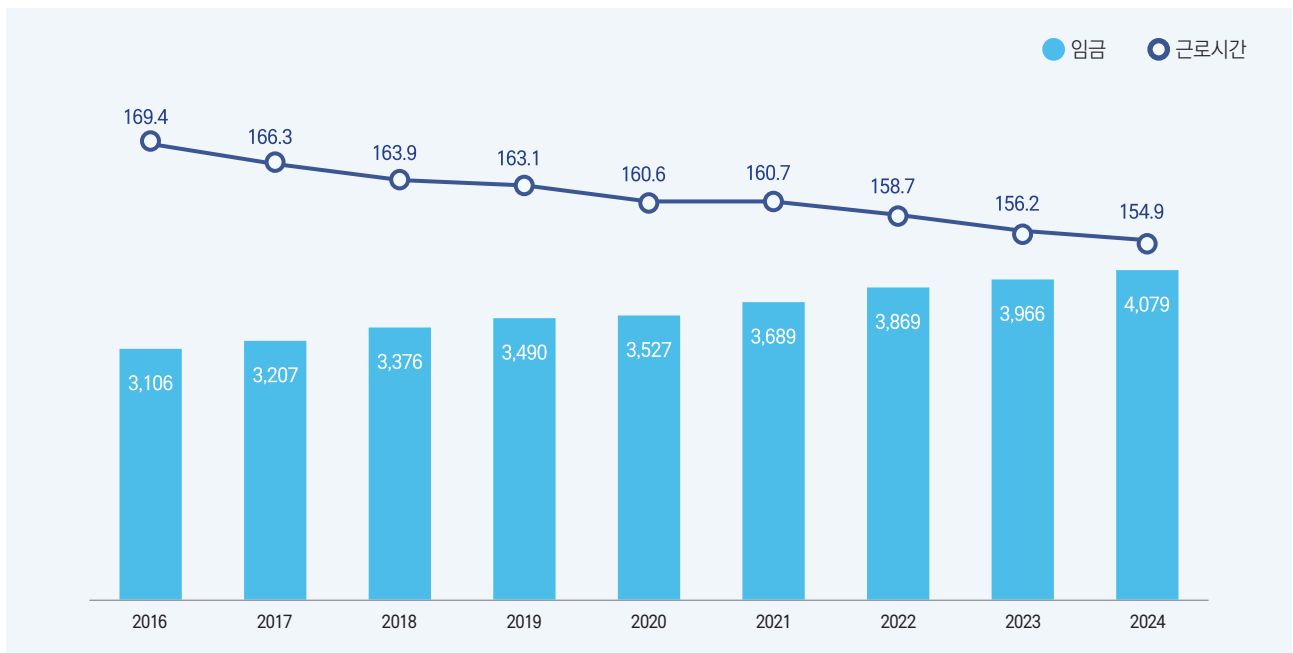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명목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2024년 상용 1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407.9만원으로 전년대비 11.3만원 증가하였고, 월 평균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대비 1.3시간 감소하였다.

- 연도별로 보면, 임금은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18	'19	'20	'21	'22	'23	'24
임금	전체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3,869 (4.9)	3,966 (2.5)	4,079 (2.9)
	상용	3,592 (5.1)	3,702 (3.1)	3,719 (0.4)	3,893 (4.7)	4,095 (5.2)	4,211 (2.8)	4,338 (3.0)
	정액	2,891 (4.6)	3,010 (4.1)	3,077 (2.2)	3,181 (3.4)	3,319 (4.3)	3,444 (3.8)	3,555 (3.2)
	초과	197 (3.7)	202 (2.7)	200 (-0.9)	208 (3.7)	220 (5.7)	227 (3.3)	240 (5.8)
	특별	504 (8.5)	490 (-2.8)	441 (-9.9)	504 (14.3)	556 (10.4)	540 (-2.9)	542 (0.4)
	임시·일용	1,428 (5.5)	1,517 (6.2)	1,636 (7.8)	1,700 (3.9)	1,747 (2.8)	1,785 (2.2)	1,809 (1.4)
근로시간	전체	163.9 (-1.4)	163.1 (-0.5)	160.6 (-1.5)	160.7 (0.1)	158.7 (-1.2)	156.2 (-1.6)	154.9 (-0.8)
	상용	171.2 (-1.2)	170.3 (-0.5)	166.9 (-2.0)	167.0 (0.1)	165.1 (-1.1)	163.6 (-0.9)	162.7 (-0.6)
	소정	161.6 (-1.0)	161.3 (-0.2)	158.6 (-1.7)	158.7 (0.1)	156.8 (-1.2)	155.6 (-0.8)	154.6 (-0.6)
	초과	9.5 (-5.9)	9.1 (-4.2)	8.3 (-8.8)	8.3 (0.0)	8.3 (0.0)	8.0 (-3.6)	8.1 (1.3)
	임시·일용	98.6 (-5.8)	96.0 (-2.6)	97.6 (1.7)	99.0 (1.4)	98.1 (-0.9)	90.0 (-8.3)	86.0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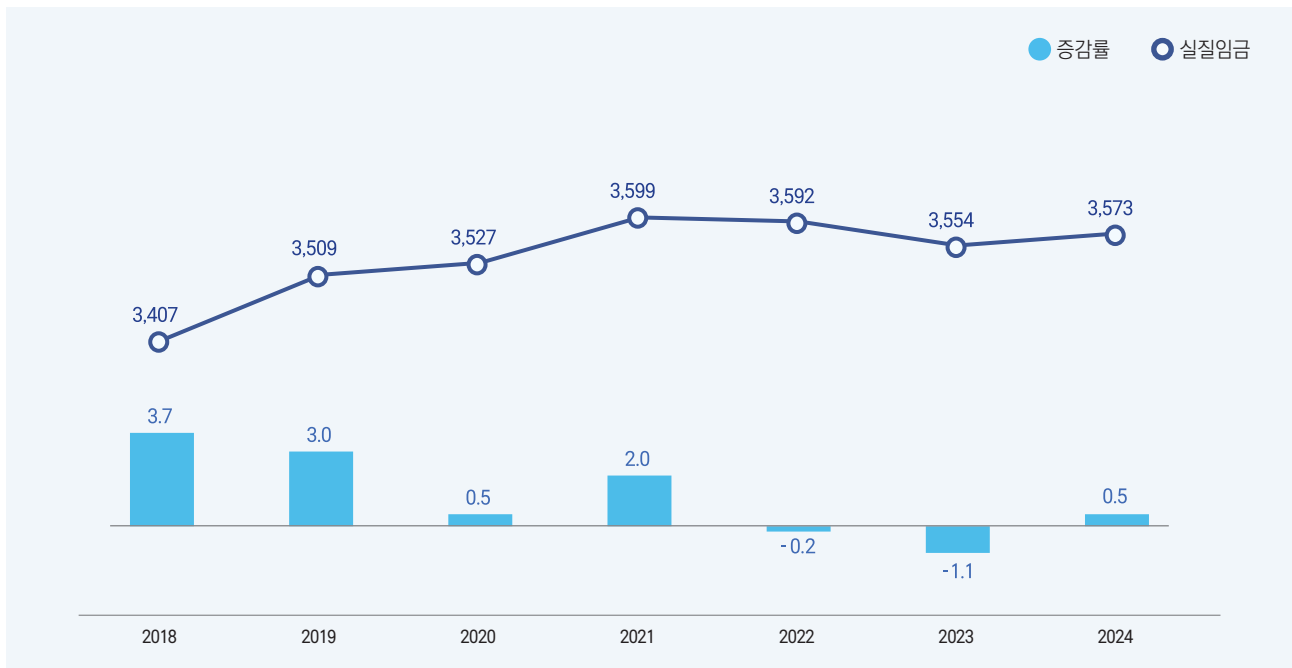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대상(임시일용 포함) (단위: 천원, 시간, %)
 주)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한 분석(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단위의 임금 및 근로시간 총량을 조사하며,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이 가능)

실질임금



2024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57.3만원으로 전년보다 0.5% 상승했다.

● '22년과 '23년 2년 연속 월평균 실질임금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24년은 소폭 상승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조사

(단위: 천원, %)

주 1) 명목임금: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월평균 임금

2) 실질임금: 명목임금에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를 반영하여 실질화한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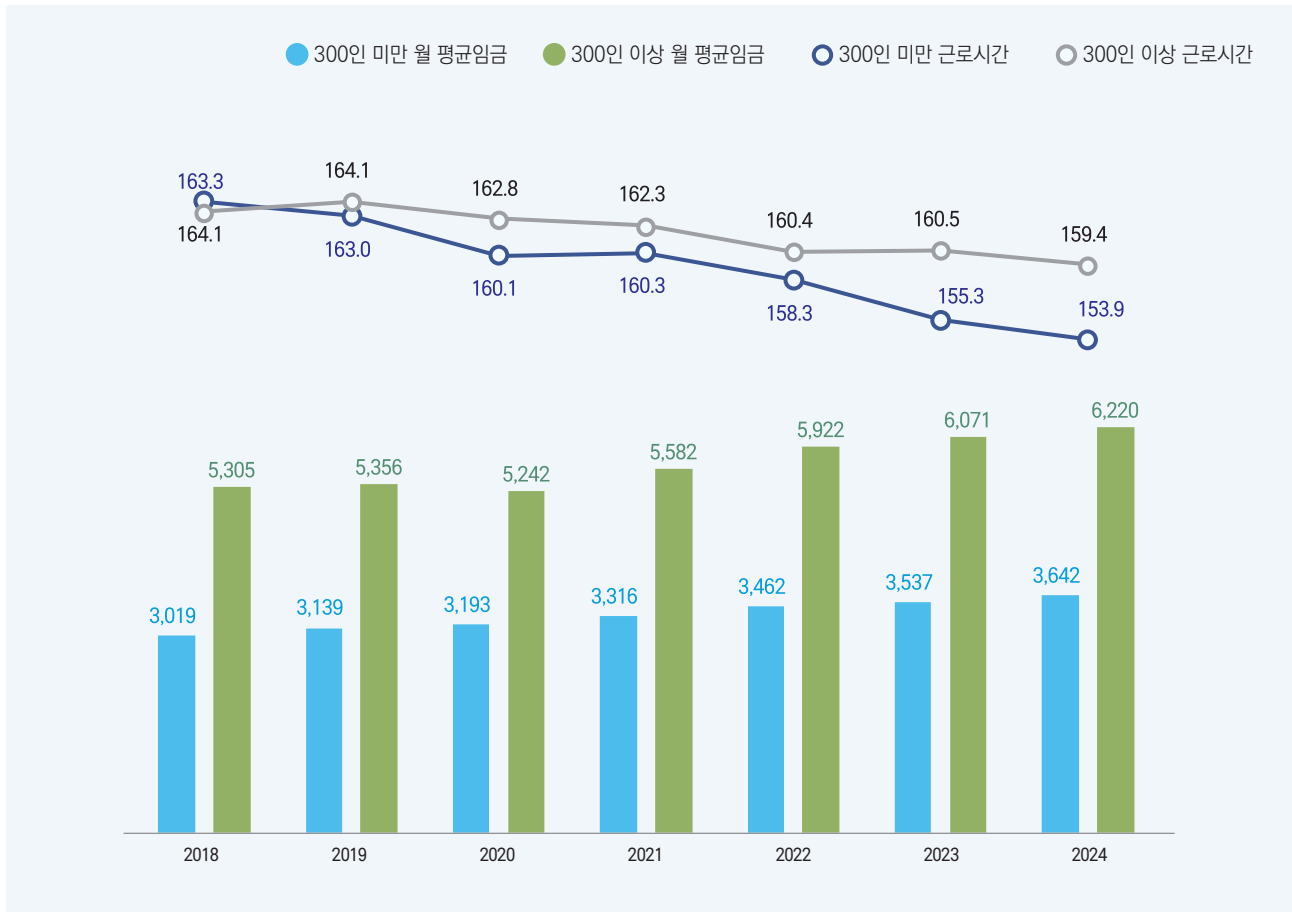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임금수준은 58.5%로 규모별 임금 차이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 '24년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총액은 364.2만원이고, 300인 이상은 622만원으로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임금 수준은 58.5%
- 1~30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근로자 1인당 월 근로시간은 153.9시간이고, 300인 이상은 159.4시간으로 300인 이상의 근로시간이 5.5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단위: 천원,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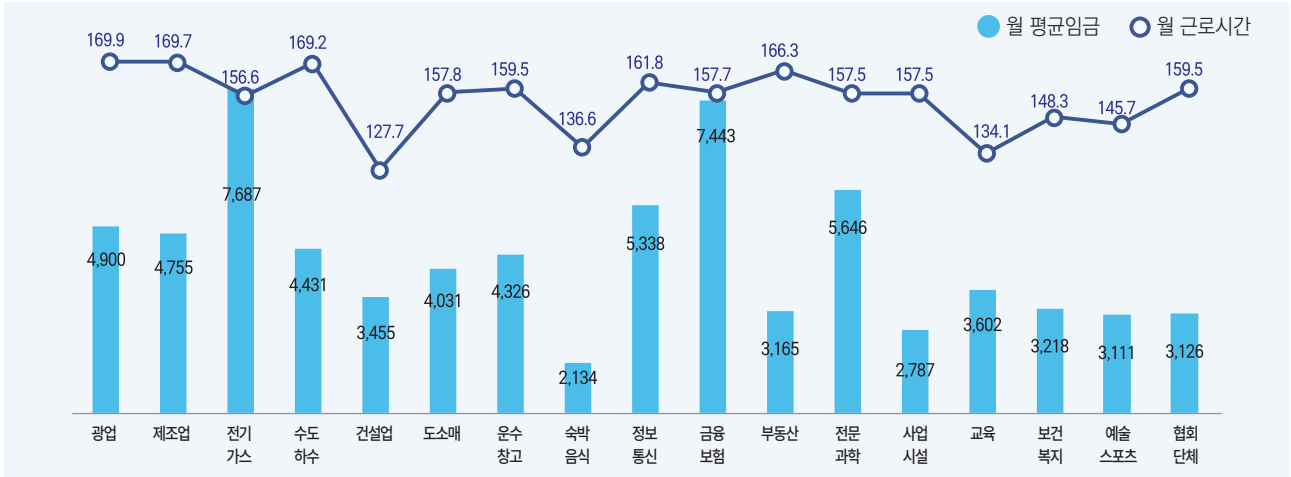
	월 평균임금							월 근로시간						
	'18	'19	'20	'21	'22	'23	'24	'18	'19	'20	'21	'22	'23	'24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비율	56.9	58.6	60.9	59.4	58.5	58.3	58.5	100.5	99.3	98.3	98.8	98.7	96.8	96.5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단위: %)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금융보험업이고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업이다. 근로시간은 광업(169.9시간), 제조업(169.7시간)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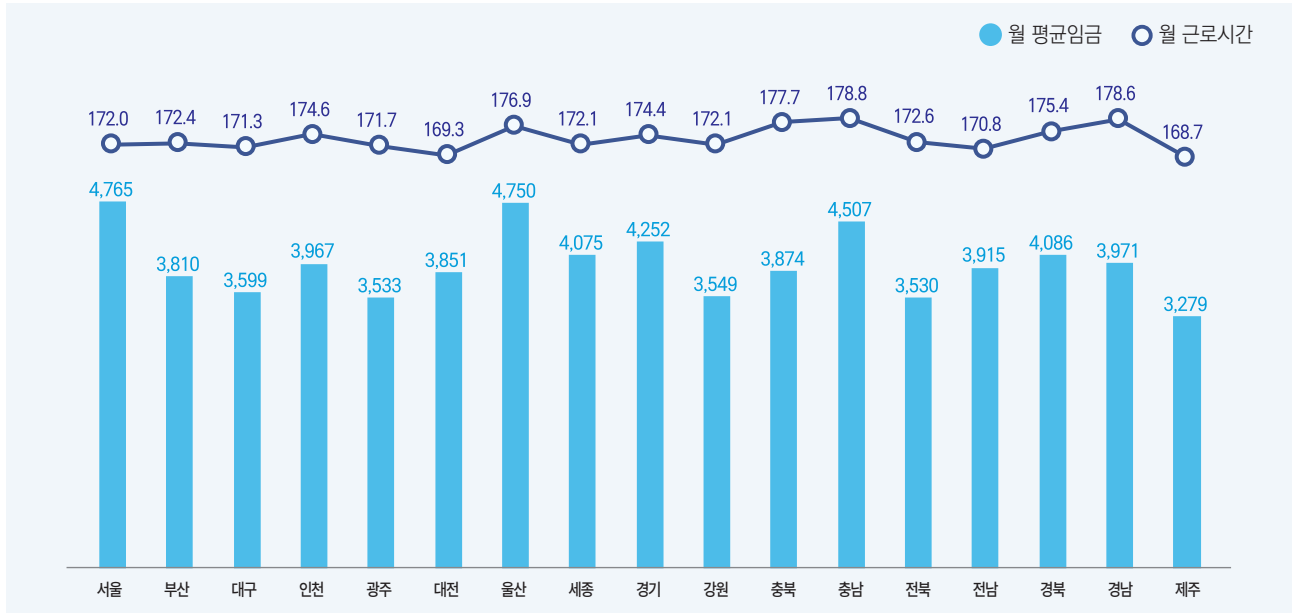


	월 평균임금				월 근로시간			
	'21	'22	'23	'24	'21	'22	'23	'24
전 산업	3,689 (4.6)	3,869 (4.9)	3,966 (2.5)	4,079 (2.9)	160.7 (0.1)	158.7 (-1.2)	156.2 (-1.6)	154.9 (-0.8)
광업	4,415 (2.1)	4,608 (4.4)	4,636 (0.6)	4,900 (5.7)	179.9 (-0.7)	174.8 (-2.8)	168.5 (-3.6)	169.9 (0.8)
제조업	4,239 (6.2)	4,484 (5.8)	4,633 (3.3)	4,755 (2.6)	173.5 (0.5)	171.1 (-1.4)	170.5 (-0.4)	169.7 (-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753 (0.3)	6,907 (2.3)	7,188 (4.1)	7,687 (6.9)	161.6 (-1.3)	158.6 (-1.9)	160.0 (0.9)	156.6 (-2.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4,094 (5.3)	4,168 (1.8)	4,297 (3.1)	4,431 (3.1)	176.9 (0.2)	174.4 (-1.4)	170.0 (-2.5)	169.2 (-0.5)
건설업	3,106 (2.4)	3,229 (4.0)	3,359 (4.0)	3,455 (2.9)	135.9 (-0.7)	134.3 (-1.2)	128.7 (-4.2)	127.7 (-0.8)
도매 및 소매업	3,551 (3.7)	3,773 (6.3)	3,921 (3.9)	4,031 (2.8)	163.8 (0.0)	162.3 (-0.9)	159.2 (-1.9)	157.8 (-0.9)
운수 및 창고업	3,795 (7.5)	4,040 (6.5)	4,185 (3.6)	4,326 (3.4)	160.2 (0.8)	160.6 (0.2)	160.6 (0.0)	159.5 (-0.7)
숙박 및 음식점업	1,905 (1.4)	2,004 (5.2)	2,097 (4.7)	2,134 (1.8)	148.4 (-0.9)	146.5 (-1.3)	138.8 (-5.3)	136.6 (-1.6)
정보통신업	4,796 (4.0)	4,999 (4.2)	5,120 (2.4)	5,338 (4.2)	164.1 (0.2)	162.7 (-0.9)	162.2 (-0.3)	161.8 (-0.2)
금융 및 보험업	6,963 (6.7)	7,324 (5.2)	7,338 (0.2)	7,443 (1.4)	161.9 (-0.1)	159.8 (-1.3)	159.3 (-0.3)	157.7 (-1.0)
부동산업	2,954 (3.7)	3,086 (4.5)	3,117 (1.0)	3,165 (1.5)	171.8 (-0.8)	169.4 (-1.4)	167.5 (-1.1)	166.3 (-0.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106 (4.8)	5,376 (5.3)	5,464 (1.6)	5,646 (3.3)	161.6 (-0.1)	160.3 (-0.8)	158.8 (-0.9)	157.5 (-0.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92 (3.4)	2,584 (3.7)	2,687 (4.0)	2,787 (3.7)	162.1 (0.2)	159.8 (-1.4)	158.2 (-1.0)	157.5 (-0.4)
교육서비스업	3,355 (-0.3)	3,435 (2.4)	3,508 (2.1)	3,602 (2.7)	137.2 (0.4)	136.1 (-0.8)	135.9 (-0.1)	134.1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14 (2.5)	3,122 (3.6)	3,132 (0.3)	3,218 (2.7)	158.3 (-0.2)	155.3 (-1.9)	150.7 (-3.0)	148.3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994 (4.2)	3,077 (2.8)	3,058 (-0.6)	3,111 (1.7)	152.7 (2.0)	150.8 (-1.2)	148.2 (-1.7)	145.7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00 (5.4)	2,832 (4.9)	3,009 (6.2)	3,126 (3.9)	162.4 (1.3)	160.3 (-1.3)	160.3 (0.0)	159.5 (-0.5)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단위: 천원, 시간, %)
 주)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하여야 함

지역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4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서울(477만원), 울산(475만원) 순으로 높고, 월 평균근로시간은 충남(178.8시간), 경남(178.6시간)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시도	월 평균임금				근로시간			
	'24.4월		'25.4월		'24.4월		'25.4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국(1인이상)	4,100	(4.4)	4,215	(2.8)	167.7	(3.6)	174.2	(3.9)
서울	4,599	(3.6)	4,765	(3.6)	165.5	(3.6)	172.0	(3.9)
부산	3,681	(4.0)	3,810	(3.5)	165.6	(4.2)	172.4	(4.1)
대구	3,462	(5.4)	3,599	(4.0)	167.0	(4.4)	171.3	(2.6)
인천	3,751	(5.1)	3,967	(5.8)	168.5	(2.8)	174.6	(3.6)
광주	3,481	(1.4)	3,533	(1.5)	165.3	(4.0)	171.7	(3.9)
대전	3,721	(3.0)	3,851	(3.5)	164.1	(4.7)	169.3	(3.2)
울산	4,548	(2.9)	4,750	(4.5)	171.8	(3.9)	176.9	(3.0)
세종	3,979	(5.9)	4,075	(2.4)	168.2	(4.0)	172.1	(2.3)
경기	4,099	(5.6)	4,252	(3.7)	167.6	(3.3)	174.4	(4.1)
강원	3,406	(3.7)	3,549	(4.2)	163.8	(2.9)	172.1	(5.1)
충북	3,754	(3.0)	3,874	(3.2)	170.6	(3.6)	177.7	(4.2)
충남	4,385	(14.8)	4,507	(2.8)	171.7	(3.5)	178.8	(4.1)
전북	3,457	(3.4)	3,530	(2.1)	165.8	(3.2)	172.6	(4.1)
전남	3,704	(1.9)	3,915	(5.7)	164.8	(2.2)	170.8	(3.6)
경북	3,904	(5.7)	4,086	(4.7)	168.8	(3.1)	175.4	(3.9)
경남	3,820	(4.5)	3,971	(4.0)	172.0	(3.9)	178.6	(3.8)
제주	3,228	(3.9)	3,279	(1.6)	165.2	(4.0)	168.7	(2.1)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단위: 천원,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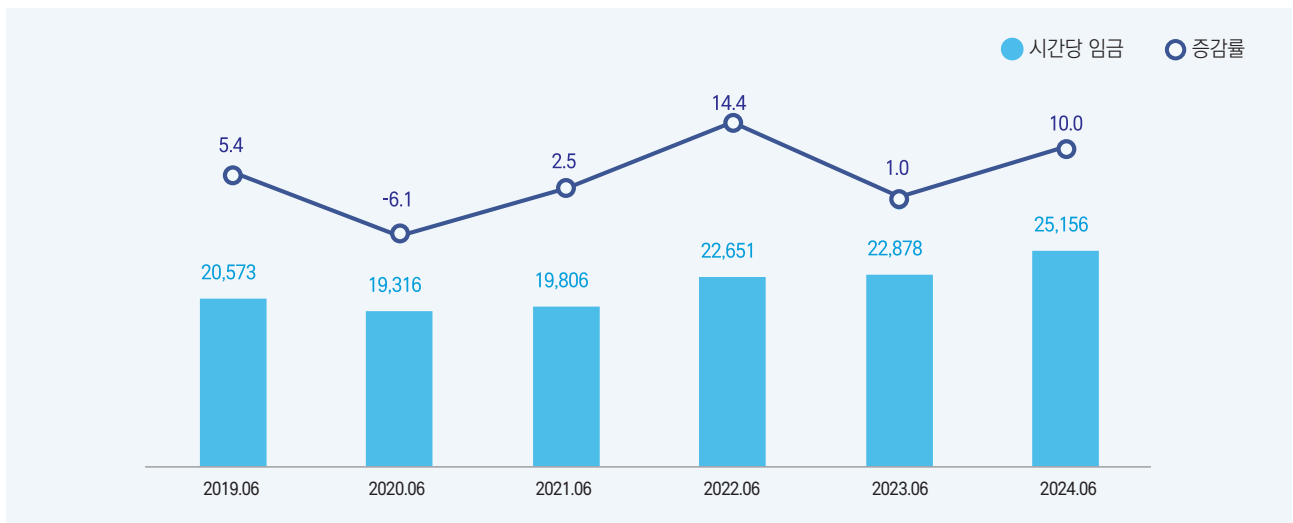
참고

- 매월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4월 기준으로 연 1회 시도 단위의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를 생산하는데 이 통계는 2023년부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만을 대상(2023년 이전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으로 한 것임. 또한 월 평균임금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되는데, 통상적으로 특별급여는 연초, 연말 또는 명절 전후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월 단위로는 변동성이 큼. 그러나 이 통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4월의 임금(정액, 초과, 특별급여)을 조사한 것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2024년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25,156원이고, 월 근로시간은 146.8시간이다.



(단위: 원,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시간,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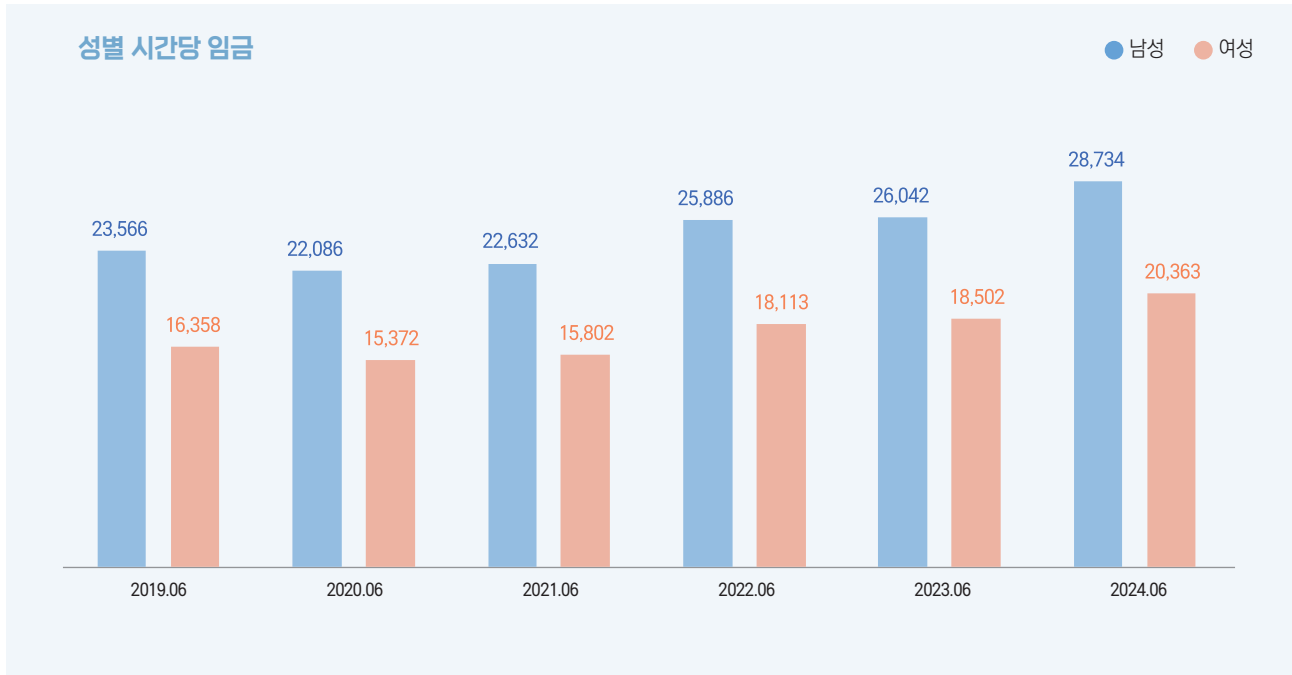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연 1회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며, 직종·고용형태·연령 등 개인 특성별 분석 가능

※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 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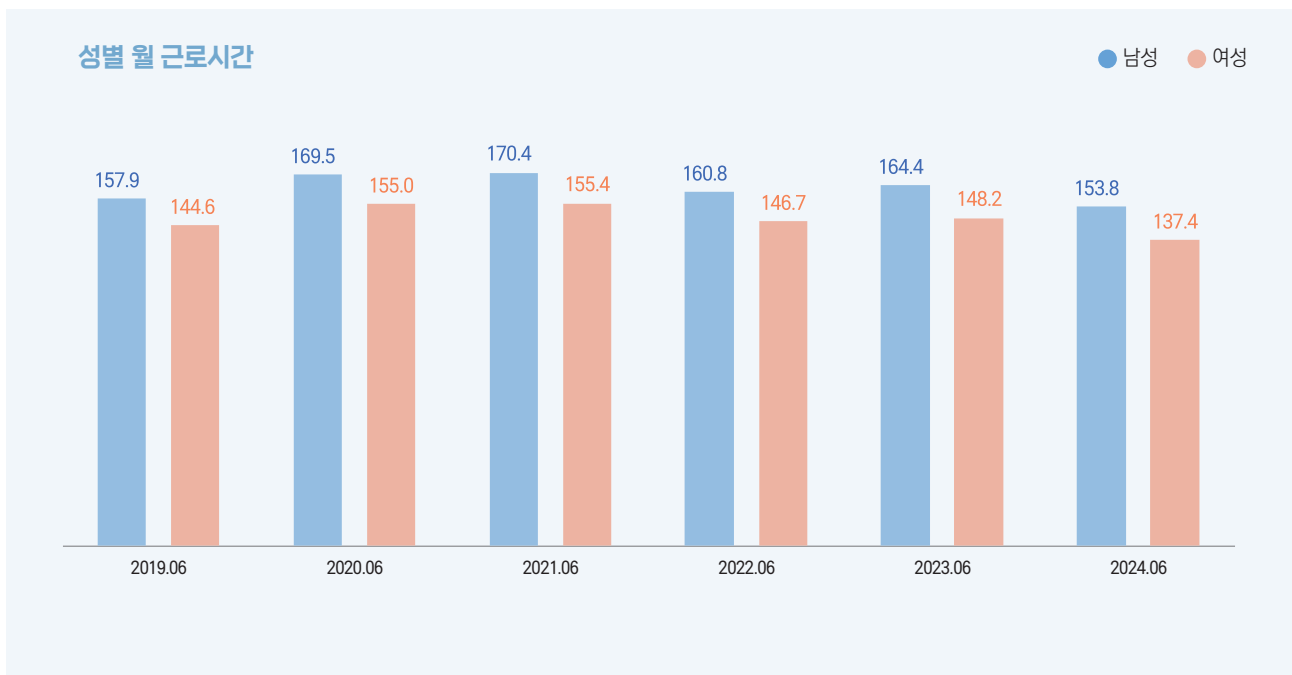
성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363원으로 남성(28,734원)의 70.9%, 여성의 근로시간은 137.4시간으로 남성(153.8시간)의 89.3% 수준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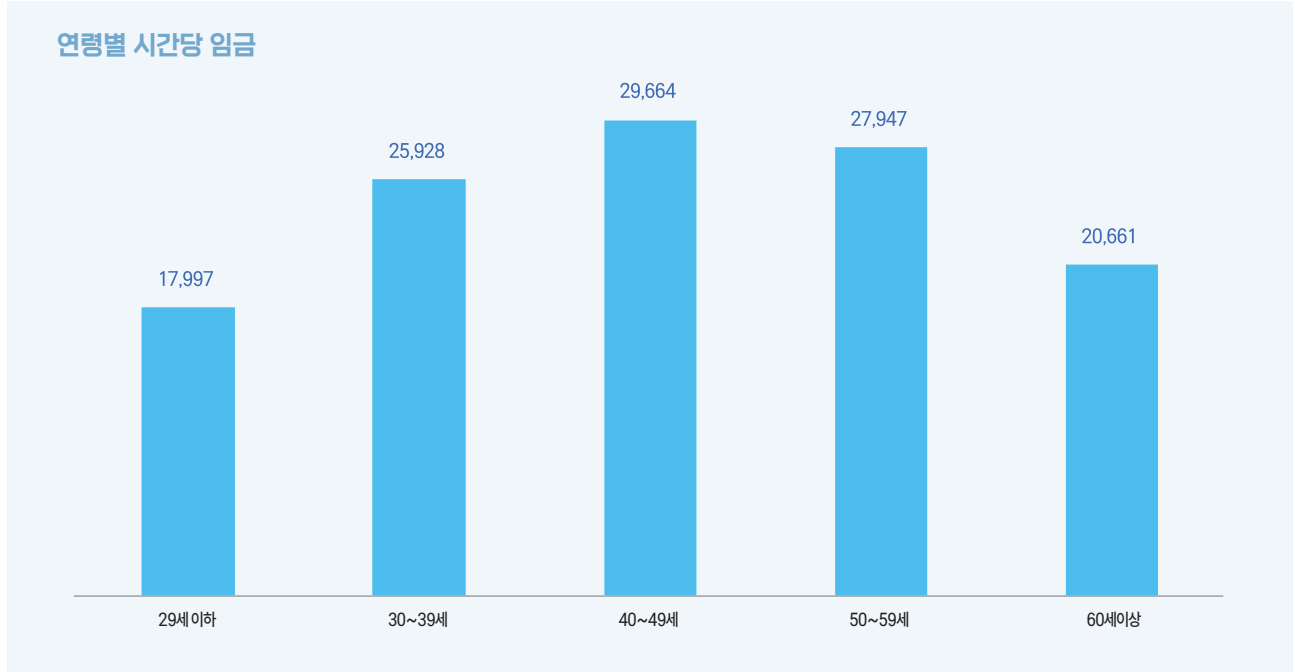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시간)

연령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시간당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낮아지며, 근로시간은 30대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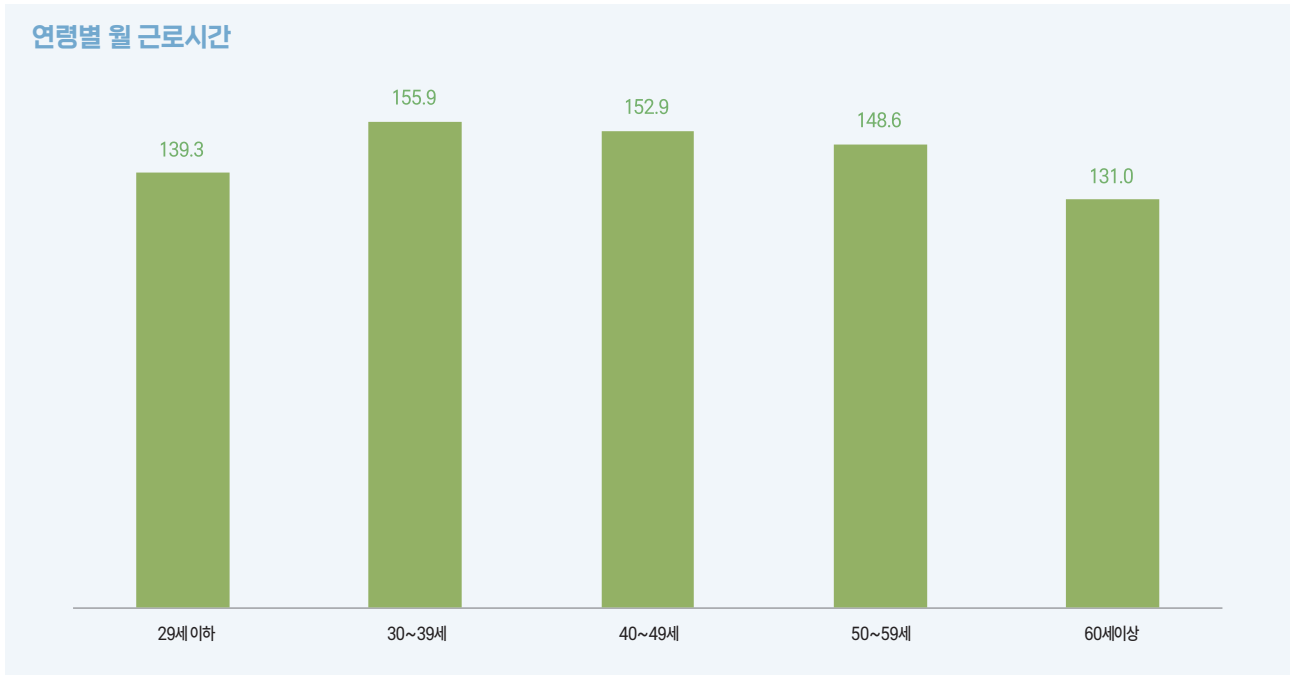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	'19.6	'20.6	'21.6	'22.6	'23.6	'24.6
전 체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29세 이하	14,917 (7.0)	13,899 (-6.8)	14,230 (2.4)	16,248 (14.2)	16,625 (2.3)	17,997 (8.3)
30~39세	21,451 (4.5)	19,708 (-8.1)	20,185 (2.4)	22,986 (13.9)	23,580 (2.6)	25,928 (10.0)
40~49세	23,750 (4.5)	22,278 (-6.2)	22,699 (1.9)	26,272 (15.7)	26,818 (2.1)	29,664 (10.6)
50~59세	22,410 (6.5)	21,312 (-4.9)	21,952 (3.0)	25,135 (14.5)	25,374 (1.0)	27,947 (10.1)
60세이상	16,760 (7.8)	16,419 (-2.0)	17,073 (4.0)	18,901 (10.7)	18,876 (-0.1)	20,661 (9.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원, %)





월 근로시간	'19.6	'20.6	'21.6	'22.6	'23.6	'24.6
전 체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29세 이하	145.3 (-2.5)	155.7 (7.2)	155.0 (-0.4)	147.8 (-4.6)	150.3 (1.7)	139.3 (-7.3)
30~39세	158.9 (-2.2)	173.4 (9.1)	174.3 (0.5)	163.2 (-6.4)	168.2 (3.1)	155.9 (-7.3)
40~49세	156.1 (-1.9)	168.8 (8.1)	169.9 (0.7)	160.0 (-5.8)	164.3 (2.7)	152.9 (-6.9)
50~59세	152.8 (-2.7)	162.0 (6.0)	163.7 (1.0)	155.1 (-5.3)	158.7 (2.3)	148.6 (-6.4)
60세이상	140.9 (-3.6)	148.4 (5.3)	149.1 (0.5)	141.6 (-5.0)	139.0 (-1.8)	131.0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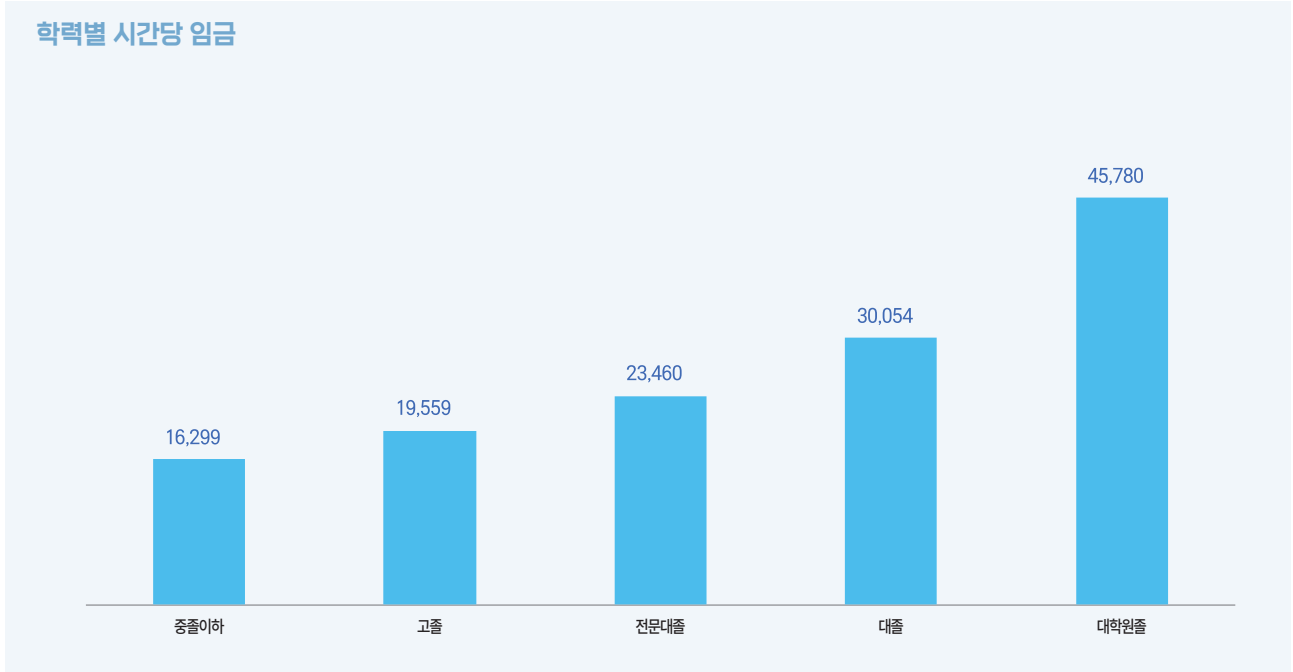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학력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은 고학력일수록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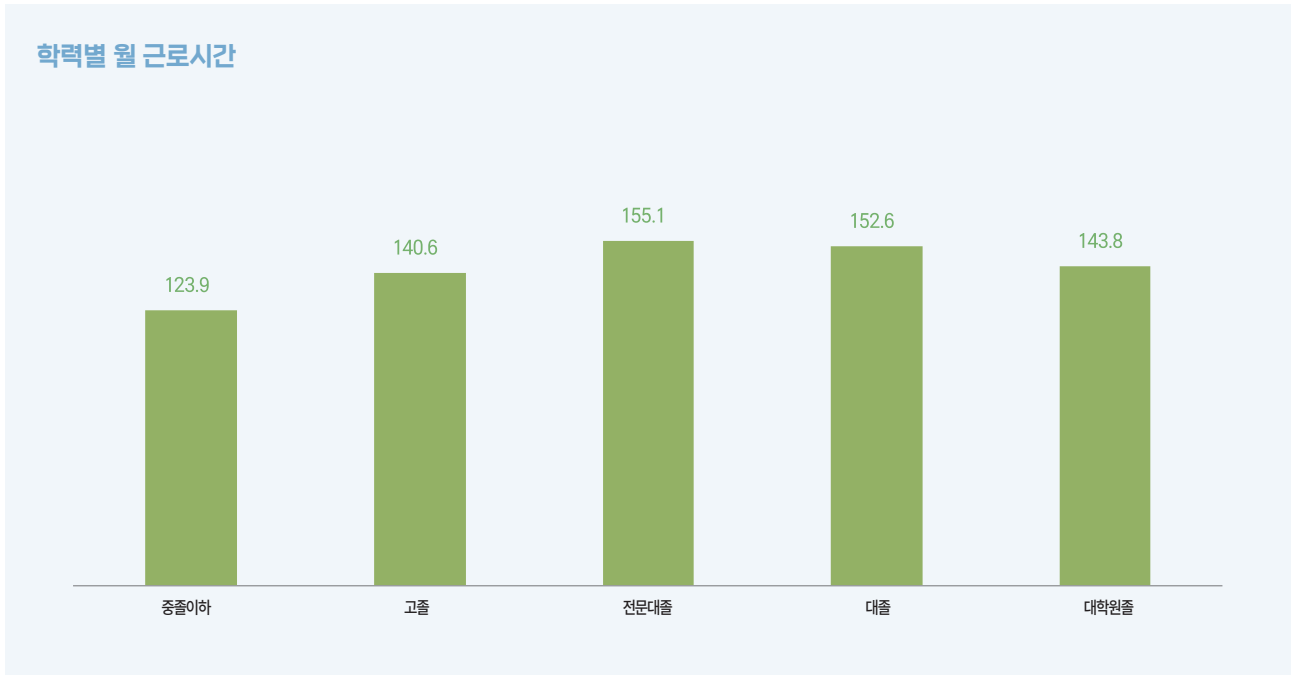
- 고졸의 시간당 임금은 19,559원으로 대졸(30,054원)의 65.1% 수준
- 근로시간은 전문대졸(초대졸)이 155.1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시간당 임금	'19.6	'20.6	'21.6	'22.6	'23.6	'24.6
전 학력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중졸이하	13,670 (5.8)	13,443 (-1.7)	13,637 (1.4)	15,473 (13.5)	15,379 (-0.6)	16,299 (6.0)
고졸	16,368 (6.5)	15,720 (-4.0)	16,010 (1.8)	17,870 (11.6)	18,142 (1.5)	19,559 (7.8)
전문대졸	18,988 (5.7)	17,511 (-7.8)	18,009 (2.8)	20,417 (13.4)	21,100 (3.3)	23,460 (11.2)
대졸	24,974 (4.2)	22,900 (-8.3)	23,293 (1.7)	26,816 (15.1)	26,980 (0.6)	30,054 (11.4)
대학원졸	38,313 (2.4)	36,268 (-5.3)	37,240 (2.7)	41,993 (12.8)	42,609 (1.5)	45,780 (7.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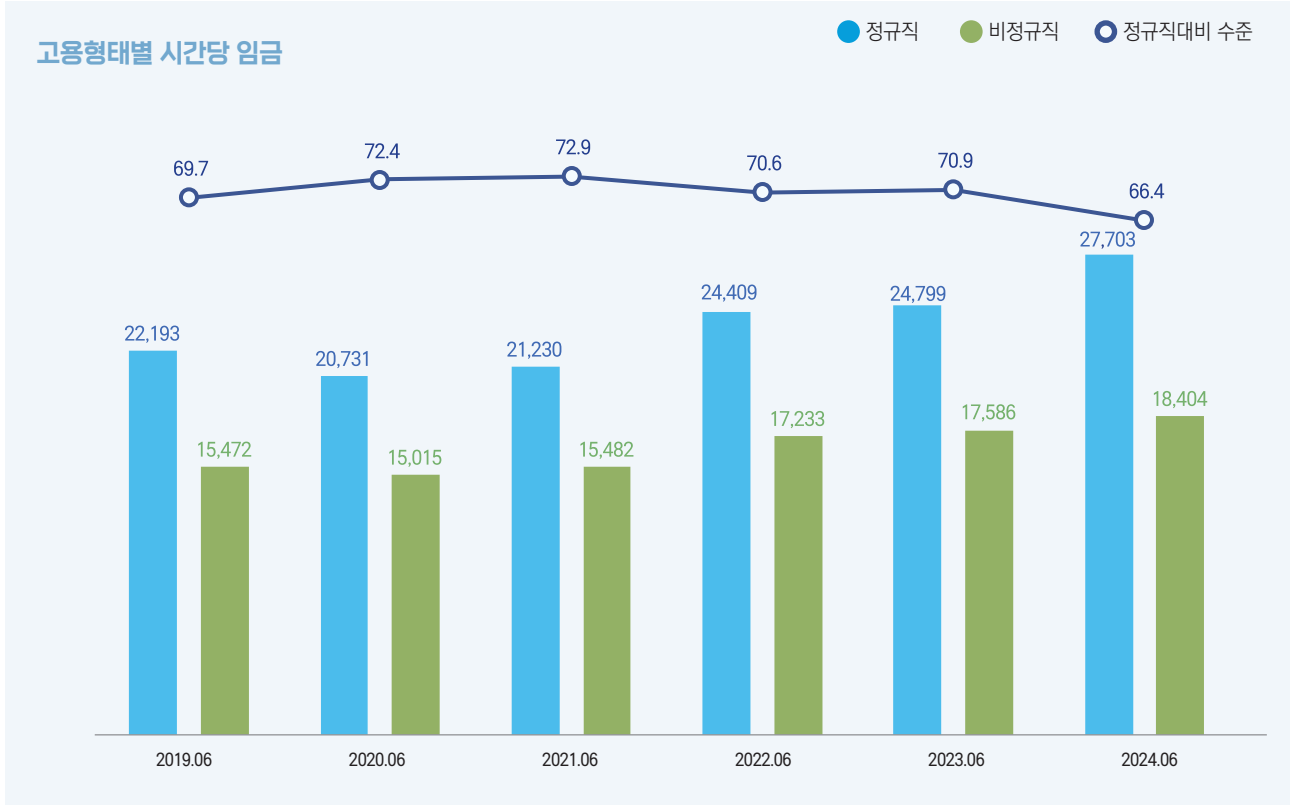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19.6	'20.6	'21.6	'22.6	'23.6	'24.6
전 학력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중졸이하	141.0 (-1.8)	139.7 (-0.9)	142.4 (1.9)	134.0 (-5.9)	131.1 (-2.2)	123.9 (-5.5)
고졸	149.6 (-3.7)	155.6 (4.0)	156.4 (0.5)	149.7 (-4.3)	149.9 (0.1)	140.6 (-6.2)
전문대졸	158.5 (-2.5)	171.8 (8.4)	171.3 (-0.3)	161.4 (-5.8)	165.7 (2.7)	155.1 (-6.4)
대졸	155.3 (-1.5)	172.1 (10.8)	172.6 (0.3)	160.7 (-6.9)	165.5 (3.0)	152.6 (-7.8)
대학원졸	147.6 (-0.3)	165.3 (12.0)	163.1 (-1.3)	150.2 (-7.9)	155.5 (3.5)	143.8 (-7.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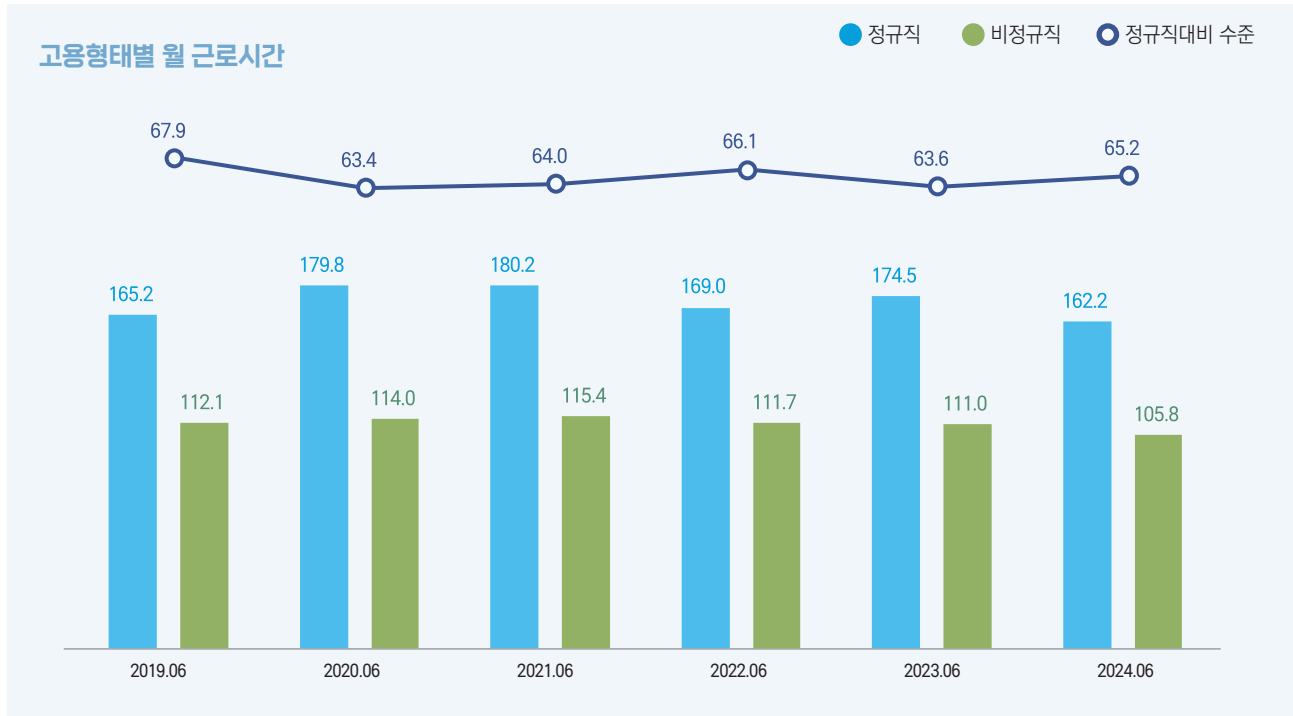
2024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8,404원으로 정규직(27,703원)의 66.4%,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105.8시간으로 정규직(162.2시간)의 65.2%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	'19.6	'20.6	'21.6	'22.6	'23.6	'24.6
전 체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정 규 직	22,193 (4.7)	20,731 (-6.6)	21,230 (2.4)	24,409 (15.0)	24,799 (1.6)	27,703 (11.7)
비 정 규 직	15,472 (6.8)	15,015 (-3.0)	15,482 (3.1)	17,233 (11.3)	17,586 (2.0)	18,404 (4.7)
재택/가내 근로자	14,288 (12.6)	13,744 (-3.8)	12,945 (-5.8)	13,762 (6.3)	14,523 (5.5)	14,917 (2.7)
파견/용역 근로자	12,809 (6.6)	12,338 (-3.7)	12,421 (0.7)	13,558 (9.2)	13,952 (2.9)	15,414 (10.5)
일일 근로자	18,297 (6.5)	18,499 (1.1)	19,283 (4.2)	21,416 (11.1)	21,907 (2.3)	23,292 (6.3)
단시간 근로자	14,423 (7.6)	13,594 (-5.7)	14,220 (4.6)	15,515 (9.1)	15,741 (1.5)	15,883 (0.9)
기간제 근로자	15,501 (5.6)	14,719 (-5.0)	15,069 (2.4)	17,517 (16.2)	17,972 (2.6)	19,588 (9.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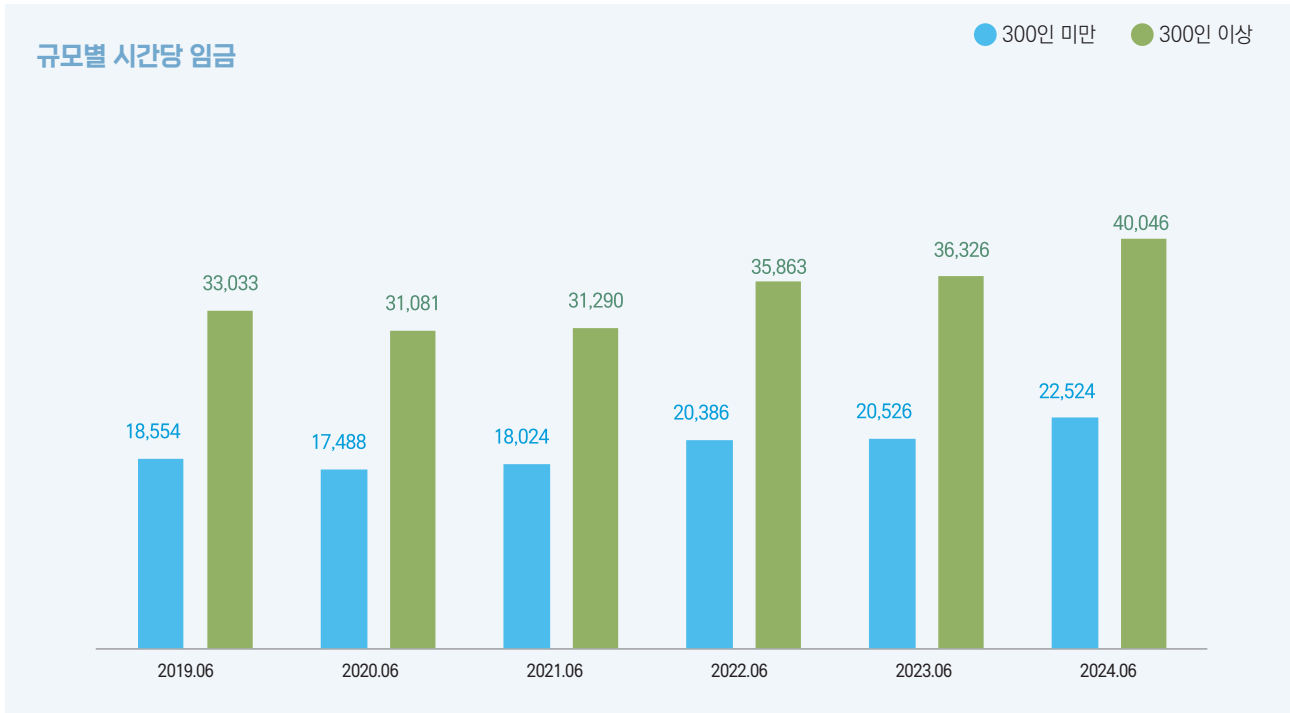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19.6	'20.6	'21.6	'22.6	'23.6	'24.6
전 체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정 규 직	165.2 (-2.7)	179.8 (8.8)	180.2 (0.2)	169.0 (-6.2)	174.5 (3.3)	162.2 (-7.0)
비 정 규 직	112.1 (-3.6)	114.0 (1.7)	115.4 (1.2)	111.7 (-3.2)	111.0 (-0.6)	105.8 (-4.7)
재택/가내 근로자	112.5 (-8.7)	116.7 (3.7)	117.2 (0.4)	113.0 (-3.6)	114.7 (1.5)	112.1 (-2.3)
파견/용역 근로자	163.7 (-1.0)	173.5 (6.0)	173.3 (-0.1)	167.1 (-3.6)	170.9 (2.3)	164.4 (-3.8)
일일 근로자	85.0 (-6.4)	79.6 (-6.4)	80.2 (0.8)	79.9 (-0.4)	80.0 (0.1)	79.0 (-1.3)
단시간 근로자	76.0 (-4.0)	79.4 (4.5)	78.6 (-1.0)	76.1 (-3.2)	74.0 (-2.8)	71.9 (-2.8)
기간제 근로자	160.6 (-5.7)	172.7 (7.5)	175.7 (1.7)	167.1 (-4.9)	169.7 (1.6)	159.4 (-6.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규모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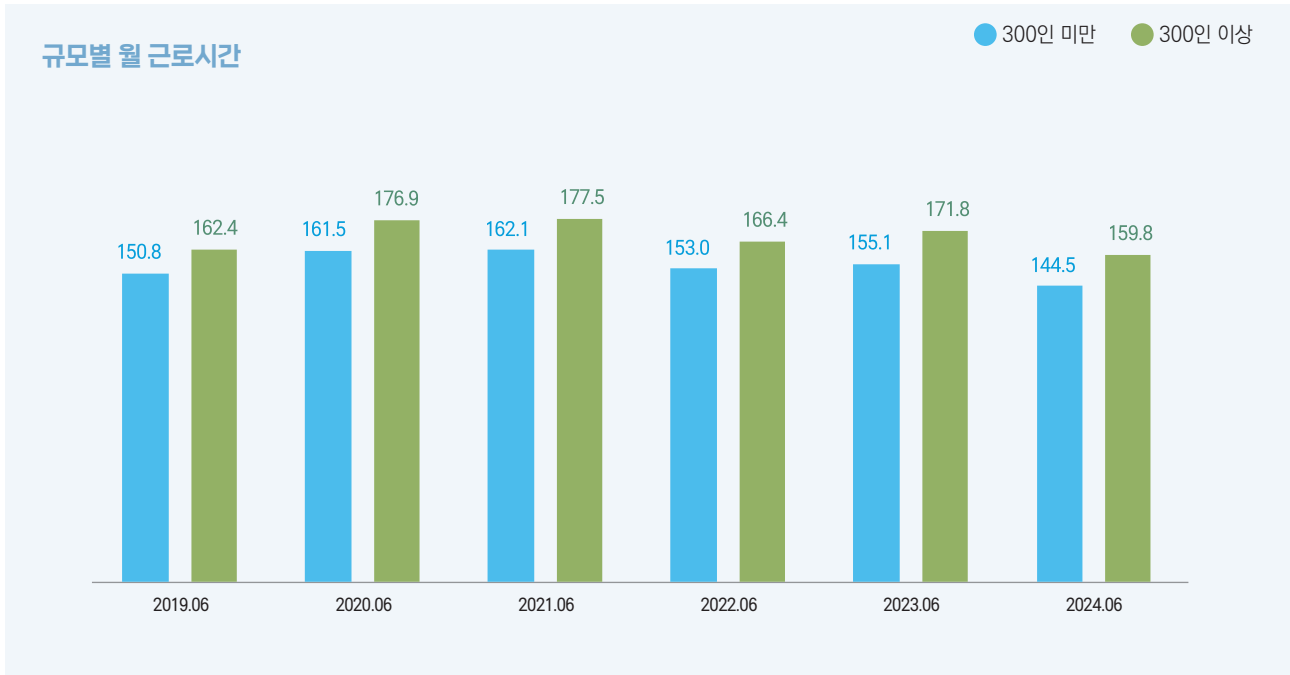
2024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40,046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22,524원)의 1.8배, 월 근로시간은 300인 이상이 159.8시간으로 300인 미만(144.5시간)의 1.1배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	'19.6	'20.6	'21.6	'22.6	'23.6	'24.6
전 규모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300인 미만	18,554 (5.8)	17,488 (-5.7)	18,024 (3.1)	20,386 (13.1)	20,526 (0.7)	22,524 (9.7)
5인 미만	14,319 (7.1)	13,851 (-3.3)	14,331 (3.5)	15,908 (11.0)	16,406 (3.1)	17,798 (8.5)
5-29인	19,281 (6.3)	18,282 (-5.2)	18,776 (2.7)	21,049 (12.1)	20,884 (-0.8)	23,102 (10.6)
30-299인	21,637 (4.3)	19,951 (-7.8)	20,626 (3.4)	22,999 (11.5)	23,463 (2.0)	25,561 (8.9)
300인 이상	33,033 (5.1)	31,081 (-5.9)	31,290 (0.7)	35,863 (14.6)	36,326 (1.3)	40,046 (10.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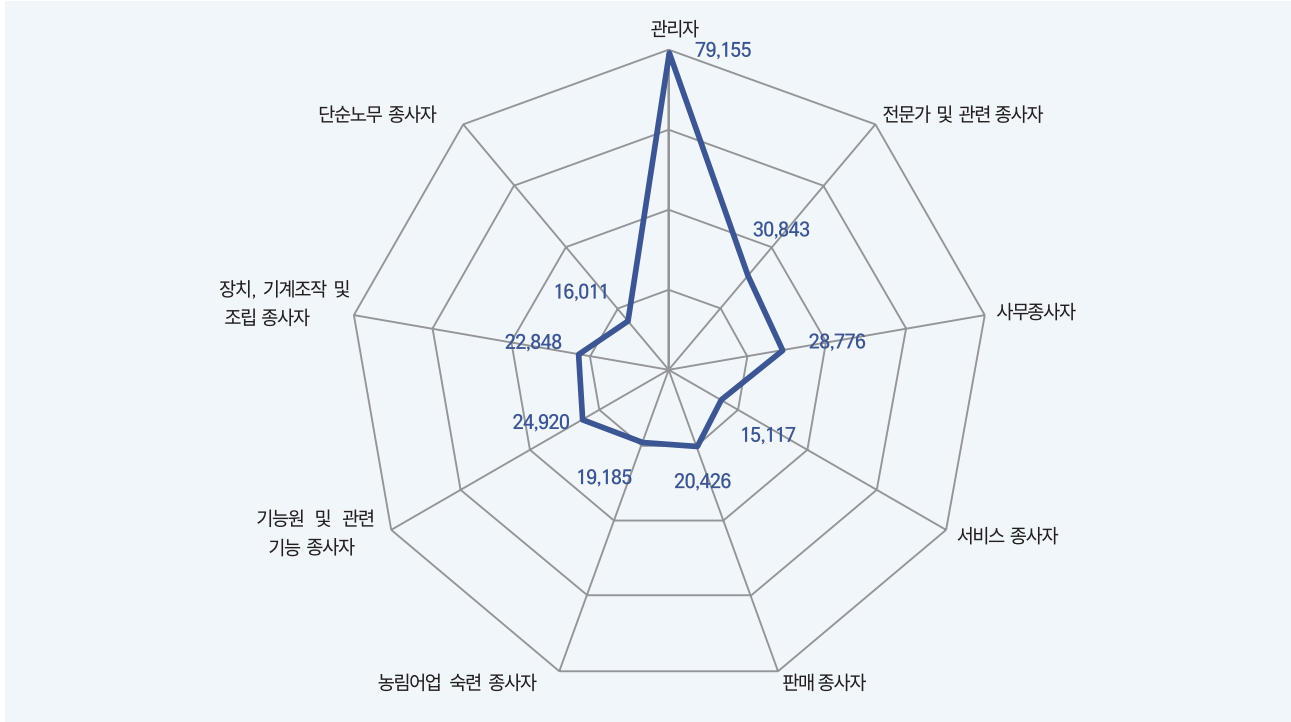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19.6	'20.6	'21.6	'22.6	'23.6	'24.6
전 규모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300인 미만	150.8 (-2.9)	161.5 (7.1)	162.1 (0.4)	153.0 (-5.6)	155.1 (1.4)	144.5 (-6.8)
5인 미만	136.1 (-3.1)	143.2 (5.2)	143.6 (0.3)	136.2 (-5.2)	135.4 (-0.6)	126.7 (-6.4)
5-29인	152.0 (-3.0)	165.1 (8.6)	165.0 (-0.1)	153.6 (-6.9)	157.2 (2.3)	146.2 (-7.0)
30-299인	163.0 (-2.7)	174.2 (6.9)	176.1 (1.1)	164.9 (-6.4)	168.7 (2.3)	156.3 (-7.4)
300인 이상	162.4 (-0.2)	176.9 (8.9)	177.5 (0.3)	166.4 (-6.3)	171.8 (3.2)	159.8 (-7.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직종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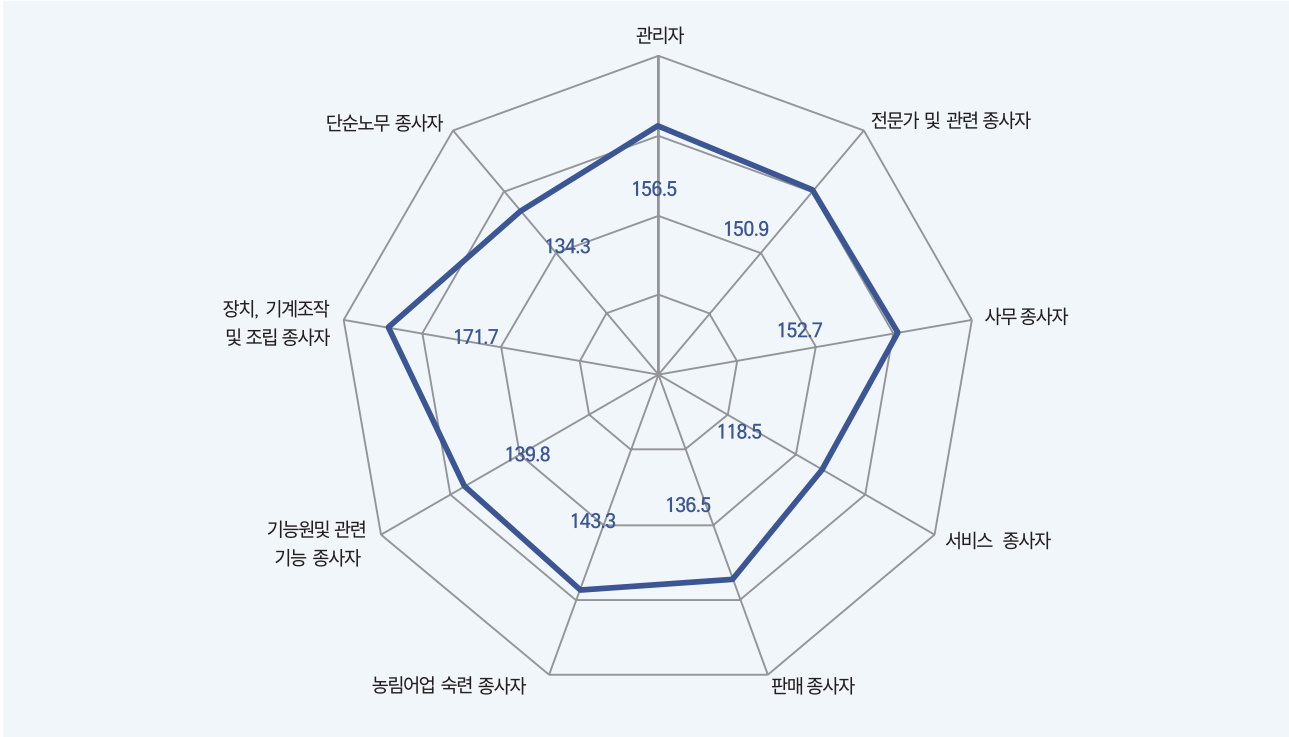
2024년 6월 직종별 시간당 임금은 관리자가 79,155원으로 가장 높고, 월 근로시간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71.7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	'19.6	'20.6	'21.6	'22.6	'23.6	'24.6
전 직종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관리자	62,734 (12.7)	59,024 ...	62,043 (5.1)	73,158 (17.9)	71,349 (-2.5)	79,155 (10.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5,128 (4.3)	23,446 ...	23,898 (1.9)	27,328 (14.4)	28,006 (2.5)	30,843 (10.1)
사무종사자	23,824 (5.0)	21,777 ...	22,441 (3.0)	25,786 (14.9)	25,677 (-0.4)	28,776 (12.1)
서비스종사자	12,011 (8.8)	11,837 ...	12,295 (3.9)	13,378 (8.8)	13,929 (4.1)	15,117 (8.5)
판매종사자	16,813 (7.4)	16,131 ...	16,398 (1.7)	18,625 (13.6)	18,512 (-0.6)	20,426 (10.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6,212 (12.5)	15,447 ...	15,962 (3.3)	16,875 (5.7)	16,816 (-0.3)	19,185 (14.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9,849 (4.7)	19,495 ...	20,226 (3.7)	22,345 (10.5)	22,634 (1.3)	24,920 (10.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8,639 (6.5)	17,904 ...	18,074 (0.9)	20,322 (12.4)	20,937 (3.0)	22,848 (9.1)
단순노무종사자	13,259 (5.2)	13,131 ...	13,074 (-0.4)	14,530 (11.1)	15,433 (6.2)	16,011 (3.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원, %)
 주) 2020년 자료부터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6차 직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유의

직종별 월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19.6	'20.6	'21.6	'22.6	'23.6	'24.6
전 직종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관리자	159.2 (-1.5)	176.9	178.1 (0.7)	164.2 (-7.8)	170.3 (3.7)	156.5 (-8.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52.8 (-1.2)	170.3	169.4 (-0.5)	158.0 (-6.7)	163.7 (3.6)	150.9 (-7.8)
사무종사자	156.8 (-1.7)	173.4	173.5 (0.1)	161.0 (-7.2)	166.2 (3.2)	152.7 (-8.1)
서비스종사자	132.5 (-2.7)	132.6	133.1 (0.4)	127.3 (-4.4)	124.8 (-2.0)	118.5 (-5.0)
판매종사자	147.3 (-2.5)	154.8	152.5 (-1.5)	145.9 (-4.3)	147.8 (1.3)	136.5 (-7.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7.2 (-5.4)	153.8	145.5 (-5.4)	151.8 (4.3)	154.2 (1.6)	143.3 (-7.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46.5 (-3.9)	151.3	151.1 (-0.1)	141.7 (-6.2)	149.2 (5.3)	139.8 (-6.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3.7 (-3.9)	183.5	187.5 (2.2)	178.6 (-4.7)	182.1 (2.0)	171.7 (-5.7)
단순노무종사자	139.3 (-3.9)	144.6	147.6 (2.1)	143.4 (-2.8)	139.5 (-2.7)	134.3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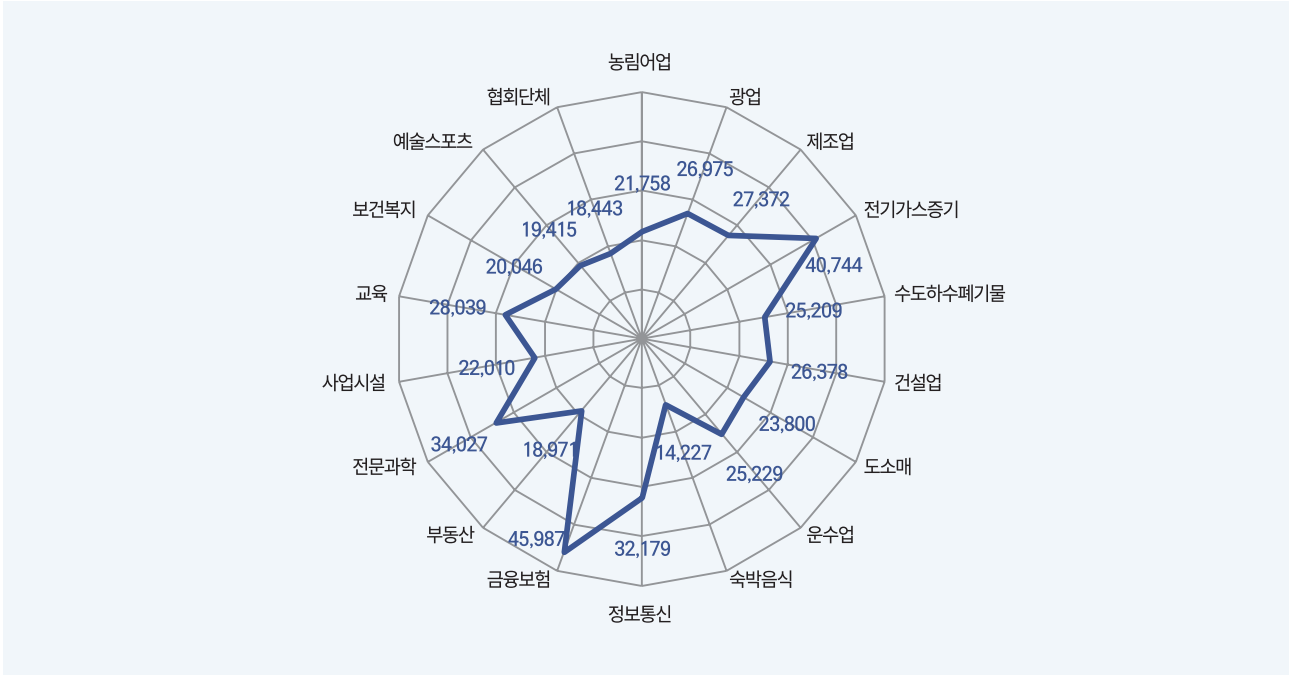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주) 2020년 자료부터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6차 직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산업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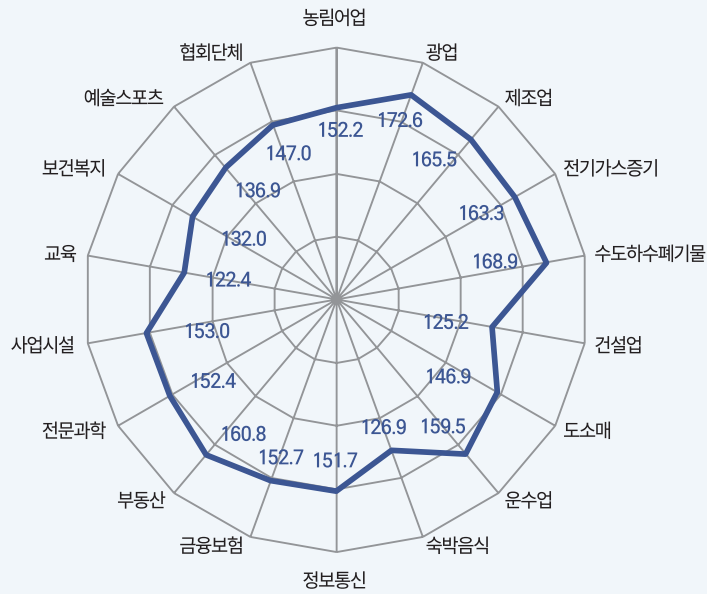
2024년 6월 산업별 시간당 임금은 금융보험업이 45,987원으로 가장 많고, 월 근로시간은 광업이 172.6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	'19.6	'20.6	'21.6	'22.6	'23.6	'24.6
전 산업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농림어업	19,784 (3.6)	18,321 ...	19,128 (4.4)	20,469 (7.0)	19,711 (-3.7)	21,758 (10.4)
광업	23,365 (2.4)	21,561 ...	22,027 (2.2)	24,662 (12.0)	24,751 (0.4)	26,975 (9.0)
제조업	22,011 (5.0)	20,358 ...	20,796 (2.2)	23,929 (15.1)	24,645 (3.0)	27,372 (11.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59 (0.8)	34,879 ...	35,421 (1.6)	37,468 (5.8)	37,577 (0.3)	40,744 (8.4)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1,507 (7.6)	19,800 ...	20,643 (4.3)	22,568 (9.3)	22,643 (0.3)	25,209 (11.3)
건설업	21,404 (3.5)	20,944 ...	21,773 (4.0)	24,261 (11.4)	24,674 (1.7)	26,378 (6.9)
도매 및 소매업	18,635 (8.3)	17,903 ...	18,322 (2.3)	21,563 (17.7)	21,232 (-1.5)	23,800 (12.1)
운수 및 창고업	19,867 (5.5)	18,908 ...	20,019 (5.9)	21,911 (9.5)	22,347 (2.0)	25,229 (12.9)
숙박 및 음식점업	11,306 (8.7)	11,435 ...	11,746 (2.7)	12,811 (9.1)	13,119 (2.4)	14,227 (8.4)
정보통신업	27,219 (5.4)	24,735 ...	24,681 (-0.2)	28,557 (15.7)	28,830 (1.0)	32,179 (11.6)
금융 및 보험업	36,699 (4.4)	33,370 ...	34,395 (3.1)	39,968 (16.2)	40,593 (1.6)	45,987 (13.3)
부동산업	15,850 (2.9)	15,199 ...	15,265 (0.4)	16,844 (10.3)	17,420 (3.4)	18,971 (8.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683 (4.0)	26,078 ...	25,981 (-0.4)	30,091 (15.8)	30,013 (-0.3)	34,027 (1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8,532 (7.4)	17,164 ...	17,575 (2.4)	19,366 (10.2)	19,636 (1.4)	22,010 (12.1)
교육서비스업	26,447 (4.9)	23,505 ...	24,335 (3.5)	26,502 (8.9)	26,271 (-0.9)	28,039 (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251 (6.7)	16,036 ...	16,211 (1.1)	18,254 (12.6)	18,792 (2.9)	20,046 (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354 (7.0)	14,872 ...	15,189 (2.1)	17,069 (12.4)	17,608 (3.2)	19,415 (1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545 (7.7)	15,062 ...	15,472 (2.7)	17,315 (11.9)	17,168 (-0.8)	18,443 (7.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원, %) 주)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직종별 월 근로시간



참고

우리나라 통계조사별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 우리나라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는 대표 통계는 총 3종
- ①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총임금 및 총근로시간을 매월 조사하며, 산업별 규모별 분석 가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근로자에 대한 분석 결과)
- ②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 1인 이상 표본사업체의 근로자별 월임금 및 월근로시간을 연간 1회 조사하여, 개인 특성별 분석이 가능하며(성, 연령 근속년수 등), 시간당 임금 산출이 가능
- ③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가구를 방문하여 각 근로자별 3개월 평균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을 연간 1회 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2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4.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4.8월)
임금	월평균 4,079천원	월 3,717천원 (시간당 25,156원)	월 3,128천원
근로시간	월평균 154.9시간	월 154.9시간	주당 평균 32.4시간

자료: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경찰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월 근로시간	'19.6	'20.6	'21.6	'22.6	'23.6	'24.6
전 산업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농림어업	151.1 (-3.3)	164.0 ...	164.3 (0.2)	153.7 (-6.5)	160.5 (4.4)	152.2 (-5.2)
광업	182.1 (-0.8)	194.4 ...	191.7 (-1.4)	180.0 (-6.1)	184.4 (2.4)	172.6 (-6.4)
제조업	170.3 (-2.8)	182.0 ...	185.3 (1.8)	174.1 (-6.0)	177.5 (2.0)	165.5 (-6.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63.9 (-2.1)	178.7 ...	177.8 (-0.5)	168.8 (-5.1)	173.7 (2.9)	163.3 (-6.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67.8 (-3.1)	185.7 ...	185.3 (-0.2)	177.0 (-4.5)	179.3 (1.3)	168.9 (-5.8)
건설업	130.3 (-2.1)	134.1 ...	135.2 (0.8)	128.8 (-4.7)	130.5 (1.3)	125.2 (-4.1)
도매 및 소매업	154.0 (-3.1)	164.2 ...	163.4 (-0.5)	155.9 (-4.6)	157.7 (1.2)	146.9 (-6.8)
운수 및 창고업	158.1 (-2.8)	170.0 ...	169.1 (-0.5)	164.4 (-2.8)	169.8 (3.3)	159.5 (-6.1)
숙박 및 음식점업	134.3 (-3.3)	135.2 ...	133.0 (-1.6)	130.1 (-2.2)	131.1 (0.8)	126.9 (-3.2)
정보통신업	153.6 (-0.8)	175.8 ...	175.0 (-0.5)	160.7 (-8.2)	165.5 (3.0)	151.7 (-8.3)
금융 및 보험업	152.2 (-1.1)	176.3 ...	176.2 (-0.1)	161.1 (-8.6)	168.2 (4.4)	152.7 (-9.2)
부동산업	162.9 (-2.3)	174.6 ...	173.2 (-0.8)	166.9 (-3.6)	169.9 (1.8)	160.8 (-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4.3 (-0.5)	173.9 ...	173.8 (-0.1)	159.6 (-8.2)	166.0 (4.0)	152.4 (-8.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2.5 (-2.5)	166.6 ...	168.4 (1.1)	157.6 (-6.4)	164.6 (4.4)	153.0 (-7.0)
교육서비스업	124.3 (-3.0)	139.9 ...	138.7 (-0.9)	128.5 (-7.4)	132.4 (3.0)	122.4 (-7.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0.0 (-2.7)	157.7 ...	157.1 (-0.4)	145.9 (-7.1)	143.9 (-1.4)	132.0 (-8.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7.4 (-1.4)	148.3 ...	149.3 (0.7)	144.5 (-3.2)	144.6 (0.1)	136.9 (-5.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6.3 (-1.1)	161.6 ...	162.8 (0.7)	155.2 (-4.7)	156.5 (0.8)	147.0 (-6.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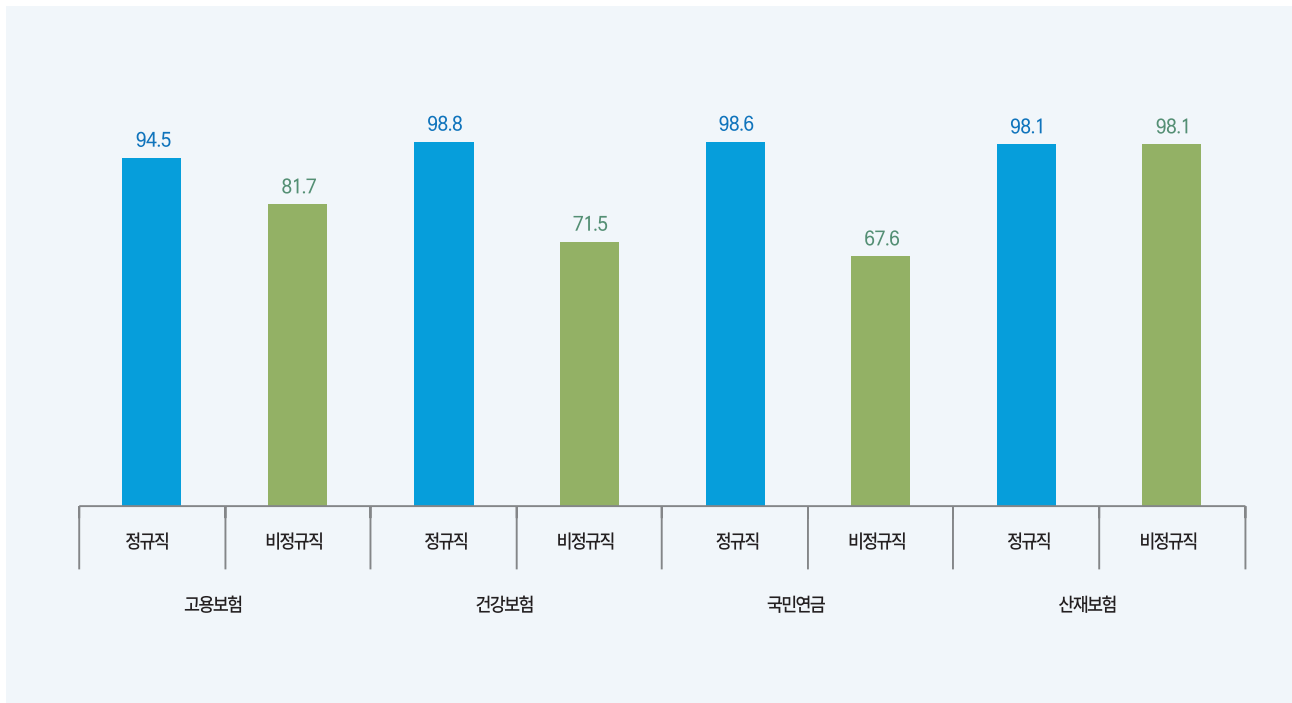
(단위: 원, %)

주)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사회보험 가입율(고용형태별)

고용형태별 4대 보험 가입률

2024년 6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4.5%를 상회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81.7%, 건강보험 71.5%, 국민연금 67.6% 등 정규직보다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19.6	'20.6	'21.6	'22.6	'23.6	'24.6
고용 보험	전체	90.3 (0.8)	90.3 (0.0)	90.5 (0.2)	91.8 (1.3)	91.7 (-0.1)	91.8 (0.1)
	정규직	94.4 (-0.2)	94.4 (0.0)	94.2 (-0.2)	94.6 (0.4)	94.5 (-0.1)	94.5 (0.0)
	비정규직	74.0 (4.5)	74.4 (0.4)	76.1 (1.7)	80.7 (4.6)	81.4 (0.7)	81.7 (0.3)
건강 보험	전체	90.9 (1.7)	91.1 (0.2)	91.5 (0.4)	92.5 (1.0)	92.5 (0.0)	92.4 (-0.1)
	정규직	98.2 (0.1)	98.5 (0.3)	98.5 (0.0)	98.6 (0.1)	98.8 (0.2)	98.8 (0.0)
	비정규직	64.2 (7.9)	64.9 (0.7)	66.4 (1.5)	70.3 (3.9)	71.7 (1.4)	71.5 (-0.2)
국민 연금	전체	91.1 (1.6)	91.3 (0.2)	91.7 (0.4)	93.0 (1.3)	92.9 (-0.1)	92.6 (-0.3)
	정규직	98.0 (0.1)	98.3 (0.3)	98.3 (0.0)	98.5 (0.2)	98.6 (0.1)	98.6 (0.0)
	비정규직	61.0 (8.0)	61.7 (0.7)	63.0 (1.3)	67.5 (4.5)	68.5 (1.0)	67.6 (-0.9)
산재 보험	전체	97.7 (0.3)	97.8 (0.1)	97.8 (0.0)	98.2 (0.4)	98.1 (-0.1)	98.1 (0.0)
	정규직	97.8 (0.3)	97.9 (0.1)	97.8 (-0.1)	98.1 (0.3)	98.1 (0.0)	98.1 (0.0)
	비정규직	97.3 (0.6)	97.5 (0.2)	97.6 (0.1)	98.4 (0.8)	98.2 (-0.2)	98.1 (-0.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 (단위: %, %p)
 주: 가입률 = 가입근로자수 ÷ 가입대상 근로자수 × 100.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참고

우리나라 통계조사별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

- 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보험별로 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모수 (분모)에서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5세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2)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3)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4)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 ②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사회보험별로 가입대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임금근로자를 모수(분모)로 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1)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 2)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만 집계하였으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포함
 - 3)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만 집계

구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4.6월)	91.8	92.4	92.6	98.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4.8월)	77.0	78.6	68.8	-

자료: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7. 노사협력

- ① 노동조합
- ② 노사분규
- ③ 노사분쟁 사건
- ④ 근로개선 지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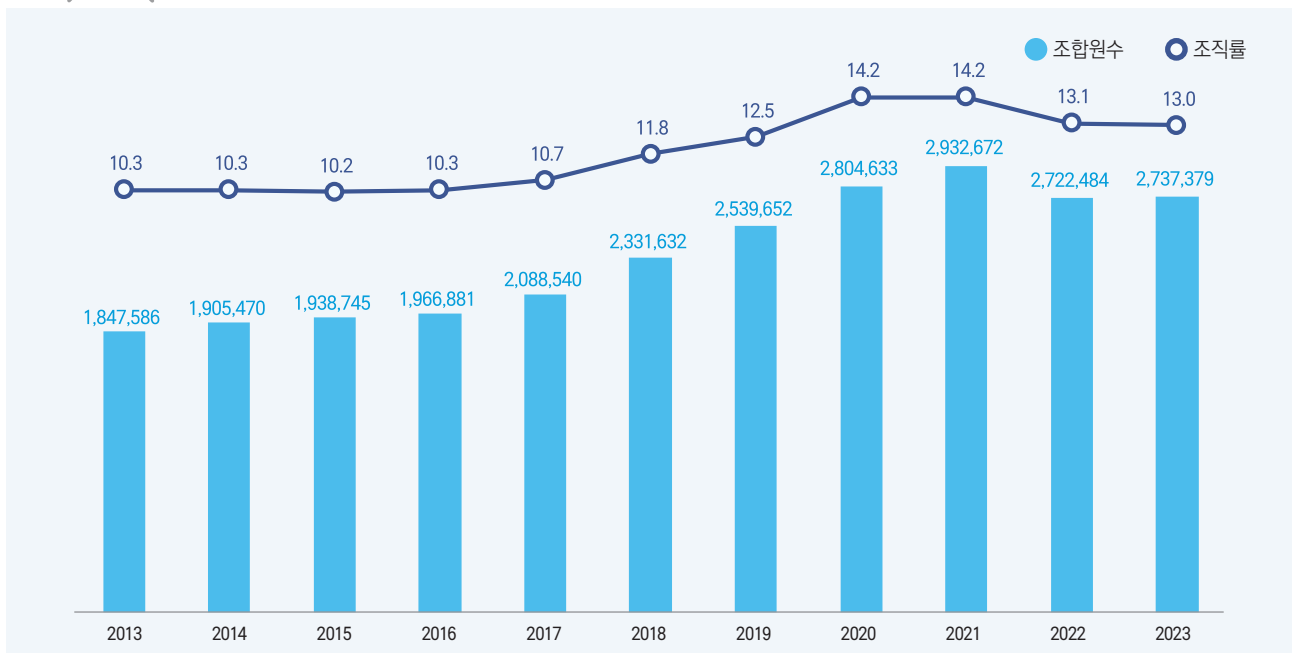
1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황



2023년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274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5만명 감소하였고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에 비해 0.1%p 하락하였다.



연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률
	연합단체	단위노조	합계	남성	여성	합계	
'15	5,794 (6.4)	5,736 (6.5)	58 (-1.7)	1,938,745 (1.7)	1,456,255 (0.3)	482,490 (6.5)	10.2 [-0.1]
'16	6,164 (6.4)	6,103 (6.4)	61 (5.2)	1,966,881 (1.5)	1,525,322 (4.7)	441,559 (-8.5)	10.3 [0.1]
'17	6,239 (1.2)	6,177 (1.2)	62 (1.6)	2,088,540 (6.2)	1,600,226 (4.9)	488,314 (10.6)	10.7 [0.4]
'18	5,868 (-5.9)	5,802 (-6.1)	66 (6.5)	2,331,632 (11.6)	1,806,706 (12.9)	524,926 (7.5)	11.8 [1.1]
'19	6,156 (4.9)	6,090 (5.0)	66 (0.0)	2,539,652 (8.9)	1,948,237 (7.8)	591,415 (12.7)	12.5 [0.7]
'20	6,564 (6.6)	6,497 (6.7)	67 (1.5)	2,804,633 (10.4)	2,128,425 (9.2)	676,208 (14.3)	14.2 [1.7]
'21	7,105 (8.2)	7,034 (8.3)	71 (6.0)	2,932,672 (4.6)	2,173,783 (2.1)	758,889 (12.2)	14.2 [0.0]
'22	6,005 (-15.5)	6,005 (-15.5)	74 (4.2)	2,722,484 (-7.2)	1,969,566 (-9.4)	752,918 (-0.8)	13.1 [-1.1]
'23	6,169 (2.7)	6,169 (2.7)	74 (0.0)	2,737,379 (0.5)	1,786,416 (-9.3)	950,963 (26.3)	13.0 [-0.1]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전년대비 증감률, [] 전년대비 증감

(단위: 개소, 명, %, %p)

주 1) 노조조직률(%) = (전체 조합원수 ÷ 조직대상 근로자수) × 100

2) '22년부터 노동조합 실제 여부 확인 및 휴면노조 해산 등 통계정비가 엄격해 지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노조나 허위 신고된 조합원은 통계 집계 제외되었음

상급단체별 노동조합 현황

2023년 기준 노동조합 가입인원의 상급단체별 비중은 한국노총 42.4%, 민주노총 39.7%, 미가입 17.5% 순이다.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입	공공노총	그 외
'15	1,938,745 (100.0)	843,442 (43.5)	636,249 (32.8)	445,603 (23.0)	0 (0.0)	0 (0.0)
'16	1,966,881 (100.0)	841,717 (42.8)	649,327 (33.0)	442,318 (22.5)	20,068 (1.0)	0 (0.0)
'17	2,088,540 (100.0)	872,923 (41.8)	711,143 (34.0)	446,612 (21.4)	25,091 (1.2)	0 (0.0)
'18	2,331,632 (100.0)	932,991 (40.0)	968,035 (41.5)	373,844 (16.0)	35,202 (1.5)	0 (0.0)
'19	2,539,652 (100.0)	1,027,229 (40.4)	1,044,910 (41.1)	386,138 (15.2)	47,516 (1.9)	18,816 (0.7)
'20	2,804,633 (100.0)	1,153,863 (41.1)	1,134,056 (40.4)	416,663 (14.9)	77,422 (2.8)	15,648 (0.6)
'21	2,932,672 (100.0)	1,237,878 (42.2)	1,212,539 (41.3)	476,986 (16.3)	0 (0.0)	631 (0.0)
'22	2,722,484 (100.0)	1,121,819 (41.2)	1,099,805 (40.4)	482,582 (17.7)	0 (0.0)	14,486 (0.5)
'23	2,737,379 (100.0)	1,160,162 (42.4)	1,086,618 (39.7)	479,758 (17.5)	0 (0.0)	9,40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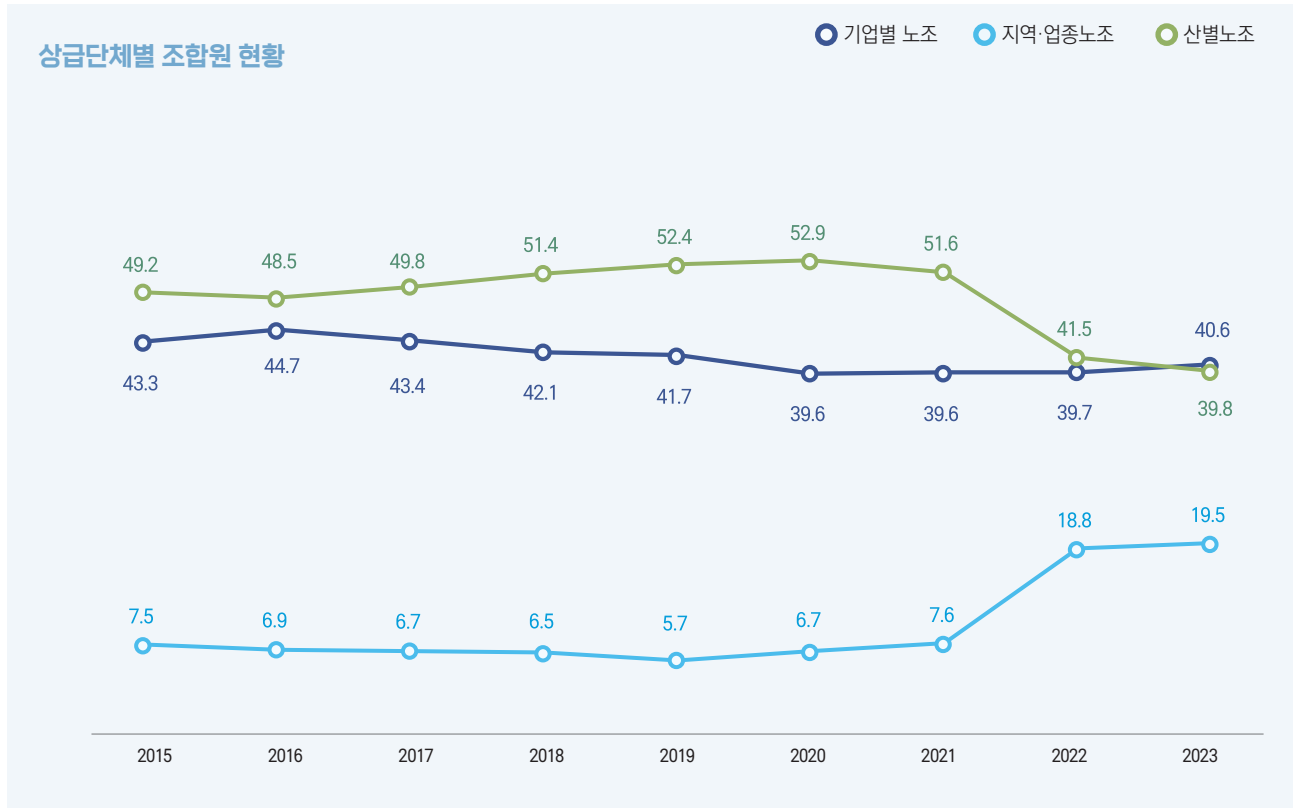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단위: 명, %)

주 1) 그 외의 자료는 '11년~'13년은 국민노총('11.11.1. 출범~'14.12.3. 한국노총과 통합), '15년~'16년은 전국노총('15.9.25. 출범), 공공노총('21.4.28. 한국노총과 통합)

조직형태별 노동조합 현황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 40.6%의 비중을 차지하며, '21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도	조합원수		기업별 노조		초기업 노조		산별노조	
	명	(%)	명	(%)	명	(%)	명	(%)
'15	1,938,745	(100.0)	839,725	(43.3)	144,938	(7.5)	954,082	(49.2)
'16	1,966,881	(100.0)	878,531	(44.7)	135,275	(6.9)	953,075	(48.5)
'17	2,088,540	(100.0)	907,007	(43.4)	140,941	(6.7)	1,040,592	(49.8)
'18	2,331,632	(100.0)	982,261	(42.1)	151,516	(6.5)	1,197,855	(51.4)
'19	2,539,652	(100.0)	1,058,273	(41.7)	144,076	(5.7)	1,330,755	(52.4)
'20	2,804,633	(100.0)	1,109,480	(39.6)	187,920	(6.7)	1,483,634	(52.9)
'21	2,932,672	(100.0)	1,162,032	(39.6)	223,121	(7.6)	1,512,946	(51.6)
'22	2,722,484	(100.0)	1,081,190	(39.7)	511,575	(18.8)	1,129,719	(41.5)
'23	2,737,379	(100.0)	1,112,062	(40.6)	532,745	(19.5)	1,090,843	(39.8)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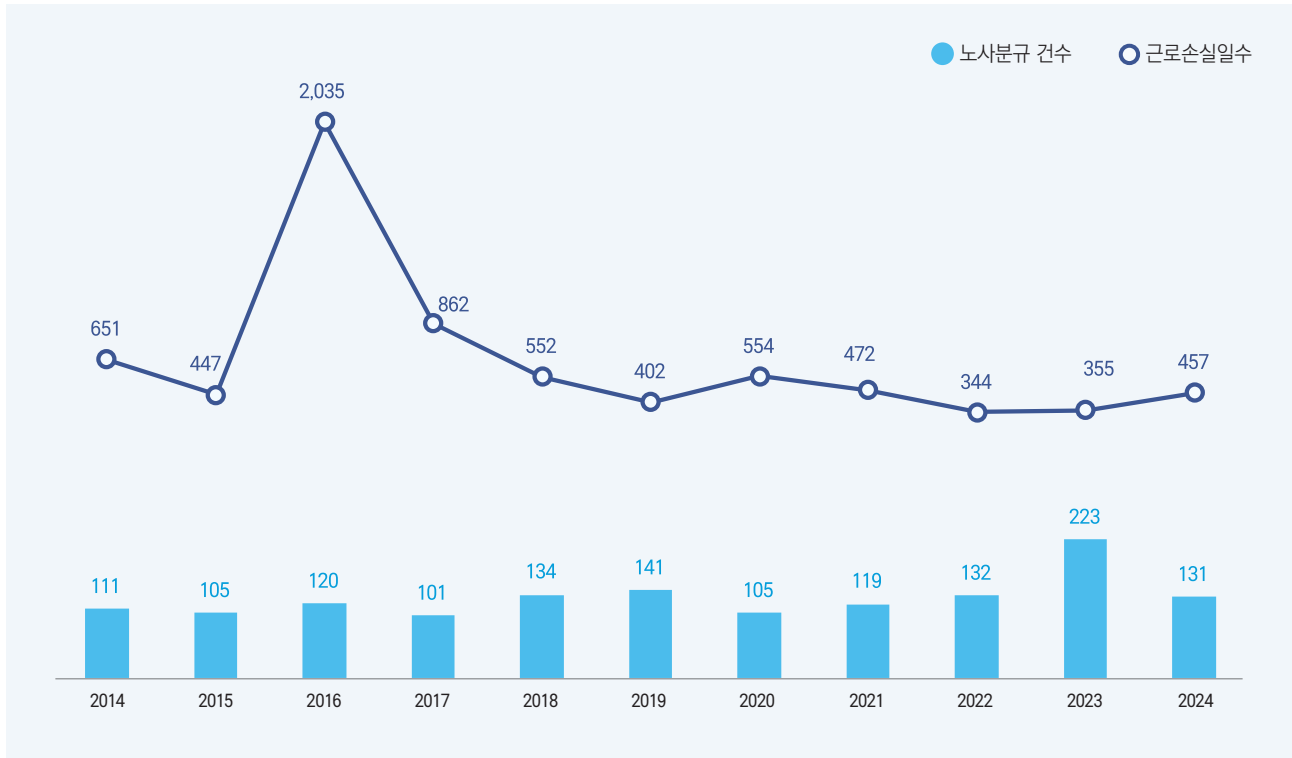
(단위: 명, %)

노사분규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24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31건으로 전년대비 41.3%(-92건) 감소,
근로손실일수는 457천일로 전년대비 28.7%(+102천일) 증가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단위: 건, 천일)

참고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다만,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 등은 노사분규 발생건수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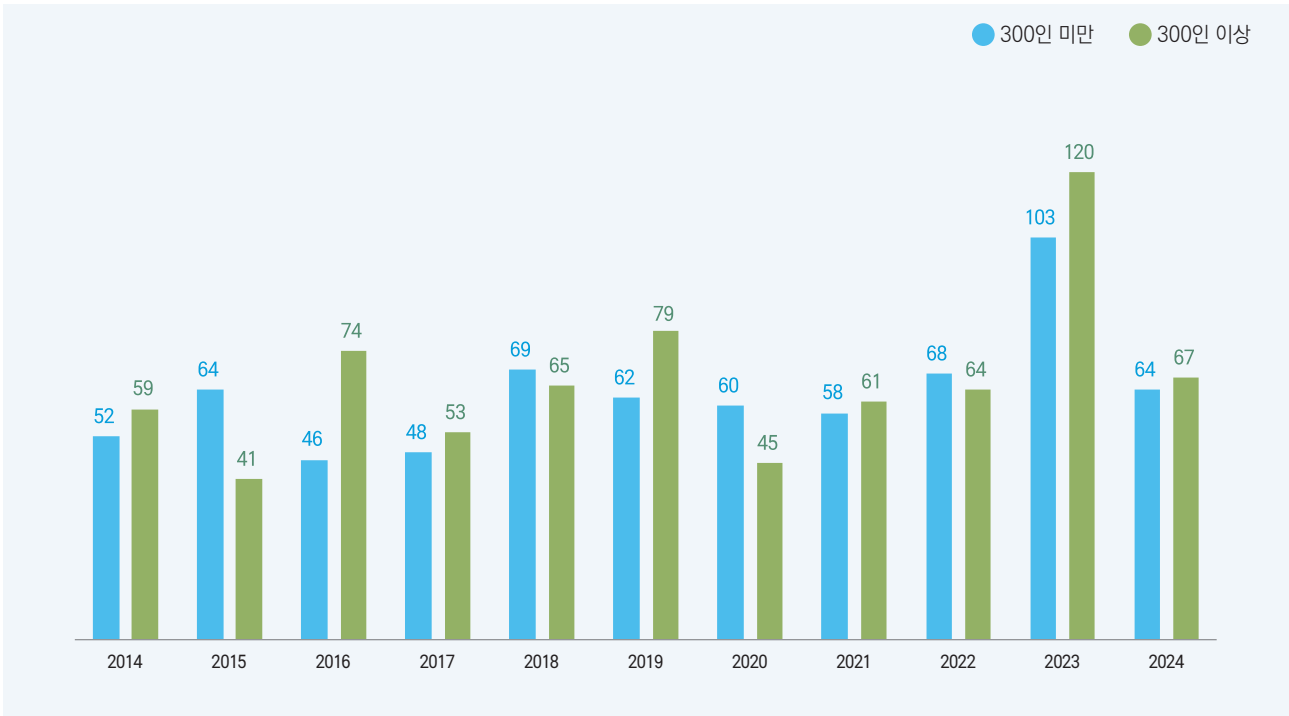
-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연도별 비교를 통해 노사관계안정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함은 물론 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2024년 노사분규 중 51.1%가 300인 이상 사업장(67건)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전년대비 44.2%(53건) 감소했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전년대비 28.8%(19건) 감소했다.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 계	111	105	120	101	134	141	105	119	132	223	131
300인 미만	52	64	46	48	69	62	60	58	68	103	64
50인 미만	11	16	16	18	15	18	20	21	25	29	31
50~99인	17	14	11	8	23	17	16	6	14	19	12
100~299인	24	34	19	22	31	27	24	31	29	55	21
300인 이상	59	41	74	53	65	79	45	61	64	120	67
300~499인	7	5	14	14	18	13	13	12	16	33	10
500~999인	13	10	13	10	21	20	5	13	19	21	10
1000인 이상	39	26	47	29	26	46	27	36	29	66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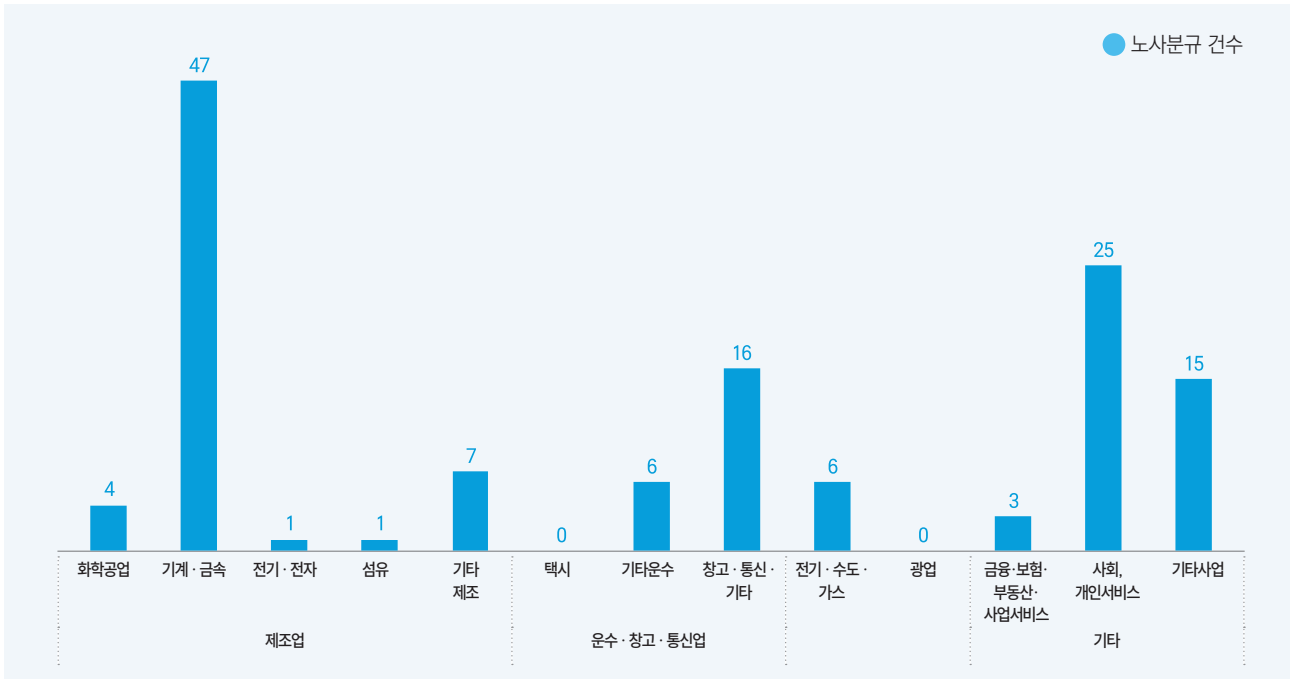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단위: 건)

업종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2024년 업종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기계·금속업(47건)과 사회·개인 서비스업(25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대부분의 업종에서 노사분규가 감소하였으나, 창고·통신업(+3건)과 기계·금속업(+3건)은 증가하였다.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전 산업	111	105	120	101	134	141	105	119	132	223	131
제조업	45	47	40	45	55	52	40	51	52	59	60
화학공업	4	6	1	5	1	1	4	3	5	6	4
기계·금속	28	27	33	26	43	32	28	38	38	44	47
전기·전자	3	2	2	0	0	2	3	3	1	3	1
섬유	0	0	0	0	0	0	1	0	0	0	1
기타제조	10	12	4	14	11	17	4	7	8	6	7
운수·창고·통신업	10	10	16	15	24	22	14	14	16	23	22
택시	1	0	2	1	0	1	0	1	1	0	0
기타운수	9	10	14	7	24	12	10	5	13	10	6
창고·통신·기타	0	-	0	7	0	9	4	8	2	13	16
전기·수도·가스	0	0	1	0	0	1	0	0	2	7	6
광업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55	66	51	54	62	134	43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6	2	12	2	0	4	0	5	4	8	3
사회, 개인서비스	39	36	39	20	44	48	39	39	46	107	25
기타사업	11	10	12	19	11	14	12	10	12	19	15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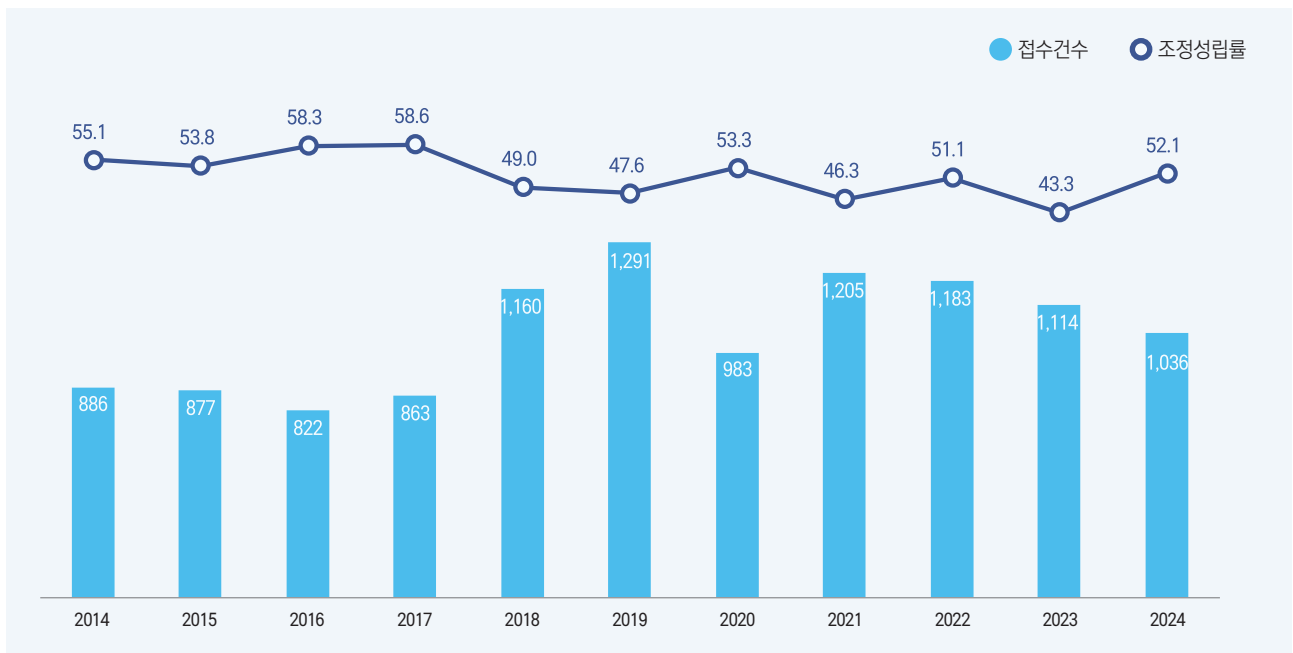
(단위: 건)

노사분쟁 사건

조정사건



2024년 조정사건 접수수는 1,036건으로 전년대비 7.0%(-78건) 감소하였고, 조정성립률은 52.1%로 전년대비 8.8%p 상승하였다.



연도	접수	처리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14	886	864	401	169	232	327	43	284	45	91	0	22	55.1
'15	877	858	382	148	234	328	51	277	42	106	0	19	53.8
'16	822	796	410	161	249	293	32	261	14	79	0	26	58.3
'17	863	839	443	188	255	313	47	266	16	67	0	24	58.6
'18	1,160	1,130	503	209	294	524	37	487	17	86	0	30	49.0
'19	1,291	1,244	527	198	329	581	39	542	27	109	0	42	47.6
'20	983	957	454	170	284	397	19	378	14	92	0	26	53.3
'21	1,205	1,169	482	198	284	559	33	526	18	110	0	33	46.3
'22	1,183	1,150	506	217	289	485	29	456	18	141	0	30	51.1
'23	1,114	1,056	403	185	218	527	42	485	18	108	0	29	43.3
'24	1,036	996	449	240	209	412	37	375	26	109	0	32	52.1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의 합계 (단위: 건, %)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건수 / (조정성립건수 + 조정불성립건수) × 100,
 성립건수 = 조정안수락건수 + 지도합의건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사건]

연도	접수	처리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14	107	103	27	8	19	62	10	52	3	11	0	4	30.3
'15	119	116	41	14	27	53	10	43	5	17	0	3	43.6
'16	110	110	35	17	18	67	10	57	3	5	0	0	34.3
'17	98	97	40	18	22	47	8	39	3	7	0	1	46.0
'18	134	131	44	16	28	75	6	69	2	10	0	3	37.0
'19	165	162	49	24	25	95	4	91	7	11	0	3	34.0
'20	109	103	34	15	19	52	2	50	4	13	0	6	39.5
'21	168	161	34	21	13	103	8	95	4	20	0	7	24.8
'22	177	171	42	15	27	104	15	89	3	22	0	6	28.8
'23	175	160	38	20	18	100	16	84	6	16	0	8	27.5
'24	166	156	62	31	31	78	14	64	4	12	0	8	44.3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사건(지방노동위원회 제외)

(단위: 건, %)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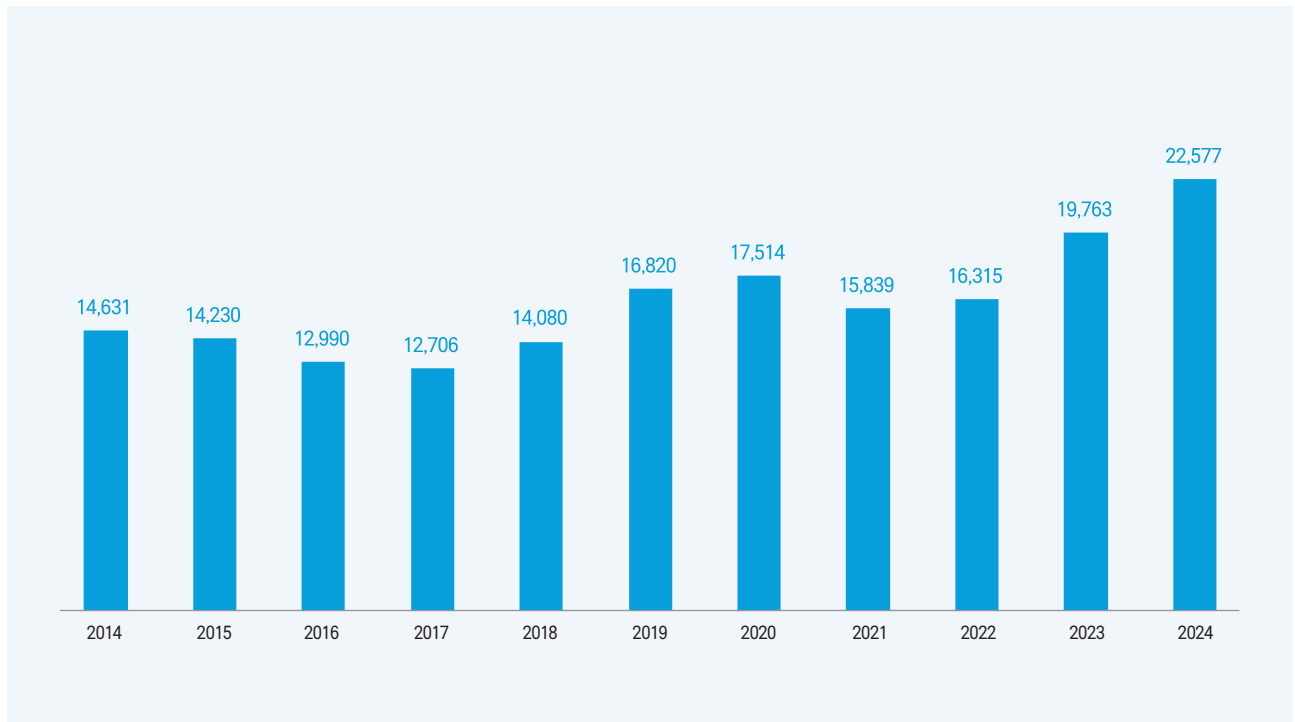
연도	접수	처리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14	779	761	374	161	213	265	33	232	42	80	0	18	58.5
'15	758	742	341	134	207	275	41	234	37	89	0	16	55.4
'16	712	686	375	144	231	226	22	204	11	74	0	26	62.4
'17	765	742	403	170	233	266	39	227	13	60	0	23	60.2
'18	1,026	999	459	193	266	449	31	418	15	76	0	27	50.6
'19	1,126	1,082	478	174	304	486	35	451	20	98	0	39	49.6
'20	874	854	420	155	265	345	17	328	10	79	0	20	54.9
'21	1,037	1,008	448	177	271	456	25	431	14	90	0	26	49.6
'22	1,006	979	464	202	262	381	14	367	15	119	0	24	54.9
'23	939	896	365	165	200	427	26	401	12	92	0	21	46.1
'24	870	840	387	209	178	334	23	311	22	97	0	24	53.7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단위: 건, %)

심판사건

2024년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22,577건으로 전년대비 14.2%(2,814건) 증가하였다.



(단위: 건)

연도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4	14,631	13,068	1,172	255	2,130	756	5,185	3,570	1,563
'15	14,230	12,489	1,347	233	2,005	844	4,923	3,137	1,741
'16	12,990	11,381	1,453	232	1,984	792	4,229	2,691	1,609
'17	12,706	11,104	1,248	193	1,919	760	3,916	3,068	1,602
'18	14,080	12,205	1,388	214	2,098	823	4,075	3,607	1,874
'19	16,820	14,816	1,783	175	2,770	920	5,197	3,971	2,041
'20	17,514	15,243	1,678	215	3,113	855	5,348	4,034	2,246
'21	15,839	13,960	1,723	239	3,087	746	4,509	3,656	1,885
'22	16,315	14,343	1,592	237	3,416	326	4,628	4,144	1,974
'23	19,763	17,161	1,847	259	3,936	407	5,475	5,237	2,581
'24	22,577	19,799	1,690	234	4,732	434	6,841	5,868	2,780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합계

(단위: 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연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감하	취하	화해	
'14	1,969	1,562	309	81	571	128	363	110	407
'15	2,089	1,636	371	100	533	182	358	92	453
'16	2,167	1,748	421	86	513	178	410	140	419
'17	1,967	1,636	358	81	591	193	277	136	331
'18	2,039	1,575	317	71	583	189	257	158	464
'19	2,497	2,034	449	58	801	188	324	214	464
'20	2,731	2,165	435	75	960	167	334	194	561
'21	2,583	2,184	521	94	967	144	274	184	399
'22	2,427	1,990	473	85	1,026	62	187	157	435
'23	2,673	2,117	485	90	1,054	71	209	208	558
'24	3,026	2,314	459	90	1,264	52	264	185	710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지방노동위원회 제외)

(단위: 건)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연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감하	취하	화해	
'14	12,662	11,506	863	174	1,559	628	4,822	3,460	1,156
'15	12,141	10,853	976	133	1,472	662	4,565	3,045	1,288
'16	10,823	9,633	1,032	146	1,471	614	3,819	2,551	1,190
'17	10,739	9,468	890	112	1,328	567	3,639	2,932	1,271
'18	12,041	10,630	1,071	143	1,515	634	3,818	3,449	1,410
'19	14,323	12,782	1,334	117	1,969	732	4,873	3,757	1,577
'20	14,783	13,078	1,243	140	2,153	688	5,014	3,840	1,685
'21	13,256	11,776	1,202	145	2,120	602	4,235	3,472	1,486
'22	13,888	12,353	1,119	152	2,390	264	4,441	3,987	1,539
'23	17,090	15,044	1,362	169	2,882	336	5,266	5,029	2,023
'24	19,551	17,485	1,231	144	3,468	382	6,577	5,683	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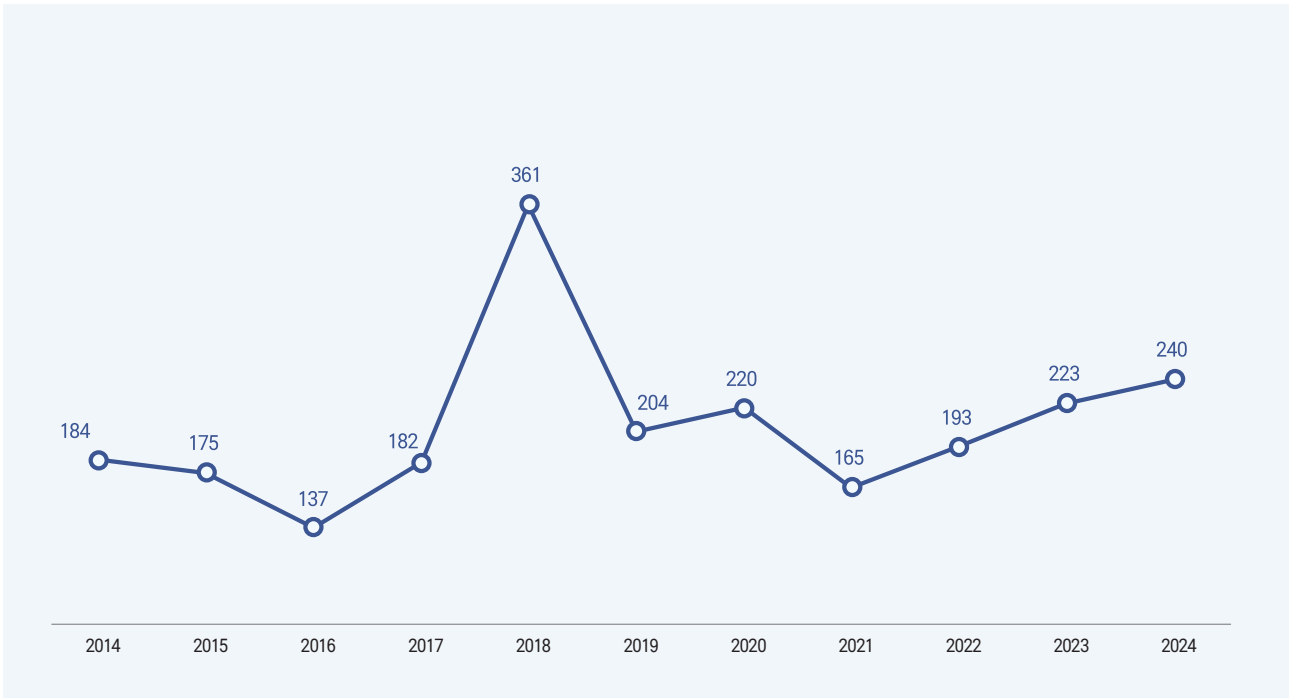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단위: 건)

차별시정사건



2024년 차별시정 접수건수는 240건으로 전년대비 7.6%(17건) 증가하였다.



연도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총계	전부시정	일부시정	기각	각하	조정성립	중재결정	취하	
'14	184	161	4	2	33	10	11	0	101	23
'15	175	138	19	18	26	3	18	0	54	37
'16	137	115	8	27	17	10	12	0	41	22
'17	182	155	12	53	13	13	18	0	46	27
'18	361	321	12	22	46	12	133	0	96	39
'19	204	170	10	30	30	20	32	0	49	33
'20	220	162	8	19	29	11	60	0	35	33
'21	165	122	9	26	20	7	13	0	47	42
'22	193	156	13	19	64	4	12	0	44	37
'23	223	178	10	48	39	3	27	0	51	46
'24	240	208	17	18	53	6	29	0	85	33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의 합계

(단위: 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연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총계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14	15	11	1	1	4	0	4	0	1	4
'15	49	33	12	3	3	0	8	0	7	16
'16	39	32	3	15	6	3	1	0	4	7
'17	48	37	5	22	5	2	2	0	1	11
'18	64	46	7	6	16	5	0	0	12	17
'19	47	41	4	17	11	3	0	0	6	6
'20	41	23	2	8	6	4	0	0	3	15
'21	28	22	6	6	7	2	0	0	1	5
'22	42	31	4	9	14	2	0	0	2	11
'23	44	34	4	13	10	1	0	0	6	10
'24	51	39	7	6	20	2	1	0	3	12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지방노동위원회 제외)

(단위: 건)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연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총계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14	169	150	3	1	29	10	7	0	100	19
'15	126	105	7	15	23	3	10	0	47	21
'16	98	83	5	12	11	7	11	0	37	15
'17	134	118	7	31	8	11	16	0	45	16
'18	297	275	5	16	30	7	133	0	84	22
'19	157	129	6	13	19	17	32	0	43	27
'20	179	139	6	11	23	7	60	0	32	18
'21	137	100	3	20	13	5	13	0	46	37
'22	151	125	9	10	50	2	12	0	42	26
'23	179	144	6	35	29	2	27	0	45	36
'24	189	169	10	12	33	4	28	0	82	21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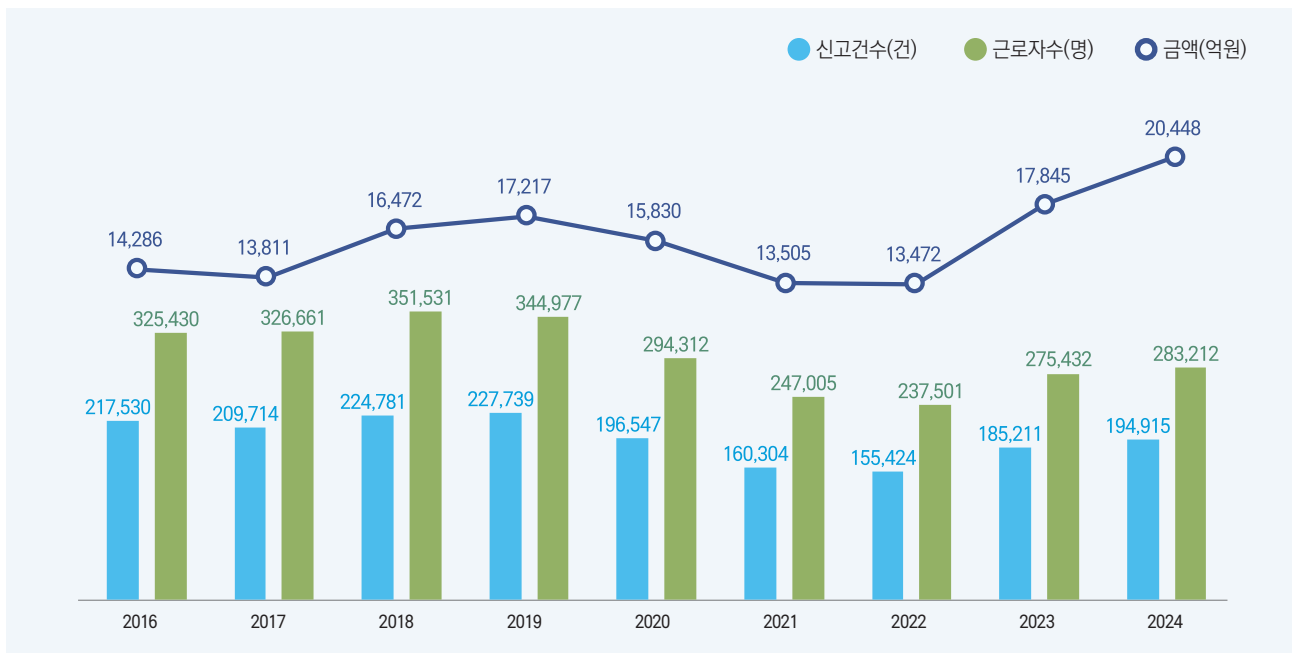
근로개선 지도 현황

체불임금 현황



체불임금 신고건수와 체불금액 모두 2022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였다.

2024년 체불임금 신고건수는 19.5만건, 근로자수는 28.3만명, 체불금액은 2조원 수준이다.



체불임금 신고건수	처리						처리 중
	합 계		지도 해결		사법 처리		
'16	217,530	211,241 (100.0)	152,290 (72.1)		58,951 (27.9)		6,289
'17	209,714	202,215 (100.0)	149,464 (73.9)		52,751 (26.1)		7,499
'18	224,781	217,958 (100.0)	151,504 (69.5)		66,454 (30.5)		6,823
'19	227,739	222,618 (100.0)	150,798 (67.7)		71,820 (32.3)		5,121
'20	196,547	192,813 (100.0)	134,170 (69.6)		58,643 (30.4)		3,734
'21	160,304	157,864 (100.0)	111,001 (70.3)		46,863 (29.7)		2,440
'22	155,424	153,342 (100.0)	114,318 (74.6)		39,024 (25.4)		2,082
'23	185,211	182,487 (100.0)	141,275 (77.4)		41,212 (22.6)		2,724
'24	194,915	190,200 (100.0)	150,687 (79.2)		39,513 (20.8)		4,715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단위: 건, %)

주)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중결(합의) + 송치중결(합의), ()는 처리대비 비중

체불임금 근로자수	처리						처리종	
	합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6	325,430	312,654	(100.0)	198,392	(63.5)	114,262	(36.5)	12,776
'17	326,661	312,338	(100.0)	203,902	(65.3)	108,436	(34.7)	14,323
'18	351,531	336,857	(100.0)	203,243	(60.3)	133,614	(39.7)	14,674
'19	344,977	336,019	(100.0)	203,374	(60.5)	132,645	(39.5)	8,958
'20	294,312	287,976	(100.0)	181,113	(62.9)	106,863	(37.1)	6,336
'21	247,005	242,541	(100.0)	157,782	(65.1)	84,759	(34.9)	4,464
'22	237,501	233,458	(100.0)	161,193	(69.0)	72,265	(31.0)	4,043
'23	275,432	270,074	(100.0)	196,866	(72.9)	73,208	(27.1)	5,358
'24	283,212	275,947	(100.0)	206,959	(75.0)	68,988	(25.0)	7,265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단위: 명, %)

주)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는 처리대비 비중

체불임금 금액	처리						처리종	
	합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6	14,286	13,489	(100.0)	6,866	(50.9)	6,623	(49.1)	797
'17	13,811	12,890	(100.0)	6,751	(52.4)	6,139	(47.6)	921
'18	16,472	15,509	(100.0)	7,292	(47.0)	8,217	(53.0)	963
'19	17,217	16,561	(100.0)	8,260	(49.9)	8,301	(50.1)	656
'20	15,830	15,374	(100.0)	8,307	(54.0)	7,067	(46.0)	456
'21	13,505	13,141	(100.0)	7,403	(56.3)	5,738	(43.7)	364
'22	13,472	13,101	(100.0)	8,060	(61.5)	5,041	(38.5)	371
'23	17,845	17,267	(100.0)	11,385	(65.9)	5,882	(34.1)	579
'24	20,448	19,425	(100.0)	13,300	(68.5)	6,125	(31.5)	1,024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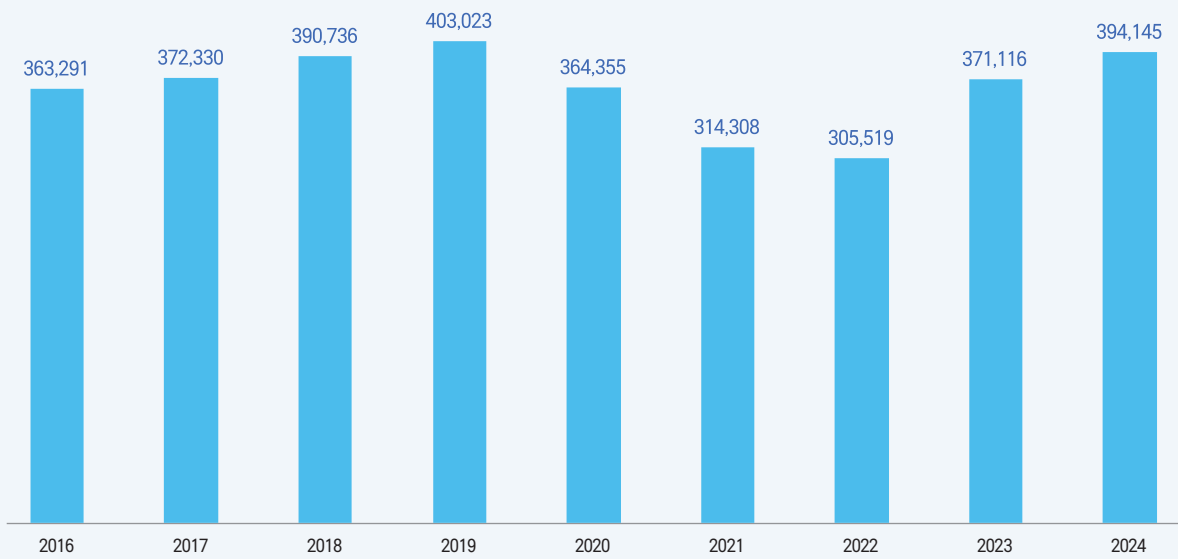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주)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는 처리대비 비중

신고사건 현황

노동법위반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였다.
 2024년 신고사건 건수는 39.4만건으로 전년대비 6.2%(2.3만건) 증가하였다.

체불임금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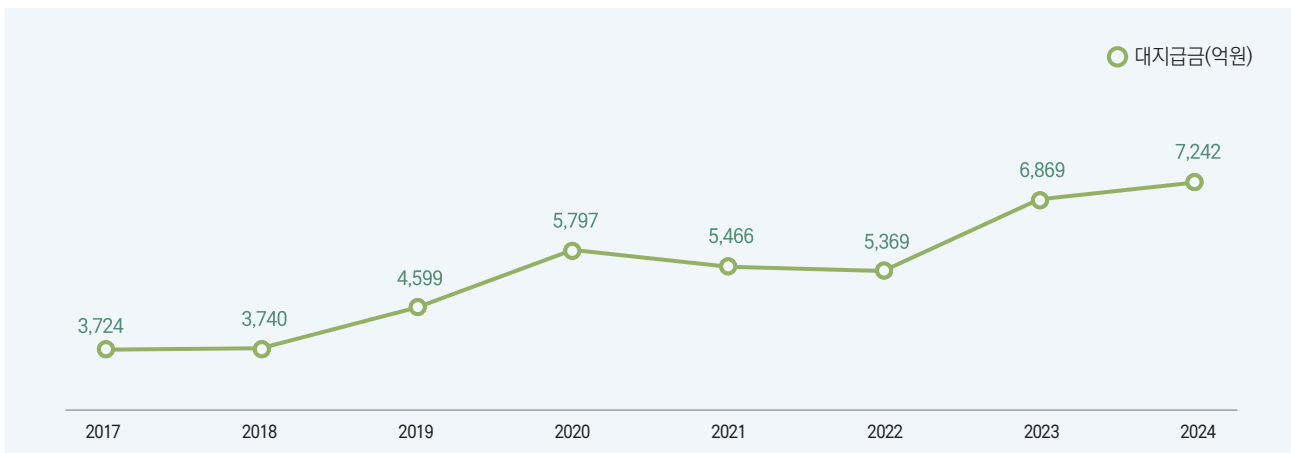
	접수	처리	행정종결		사법처리	
'16	363,291	334,584	279,698	(76.3)	86,663	(23.7)
'17	372,330	374,006	294,525	(78.7)	79,481	(21.3)
'18	390,736	399,207	318,153	(79.7)	81,054	(20.3)
'19	403,023	417,708	335,764	(80.4)	81,944	(19.6)
'20	364,355	380,138	313,462	(82.5)	66,676	(17.5)
'21	314,308	322,994	271,119	(83.9)	51,875	(16.1)
'22	305,519	310,805	267,987	(86.2)	42,818	(13.8)
'23	371,116	370,653	326,805	(88.2)	43,848	(11.8)
'24	394,145	398,041	341,907	(85.9)	56,134	(14.1)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는 처리 대비 비중

(단위: 건)

대지급금

2024년 대지급금 대상 근로자는 12.9만명이고, 대지급금 금액은 7천2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근로자	금액
'16	17,933	96,182	3,687
'17	18,068	92,929	3,724
'18	19,441	92,631	3,740
'19	21,894	100,409	4,599
'20	24,975	110,610	5,797
'21	24,071	107,431	5,466
'22	22,271	108,284	5,369
'23	24,183	132,079	6,869
'24	24,327	128,638	7,242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단위: 개소, 명, 억원)

주)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8. 산업안전

- ① 산업재해
- ② 경제적 손실
- ③ 산재보험



산업재해

산업재해 추이

2023년 재해자수는 13만7천명, 재해율은 0.66%이고 사망자는 2,016명이다. 전년에 비해 사망만인률은 하락했으나 재해율, 강도율, 도수율은 상승했다.



	대상근로자	재해자	재해율	사망자	사망 만인율	강도율	도수율
'12	15,548,423 (8.3)	92,256 (-1.1)	0.59	1,864 (0.2)	1.20	1.68	2.81
'13	15,449,228 (-0.6)	91,824 (-0.5)	0.59	1,929 (3.5)	1.25	1.65	2.85
'14	17,062,308 (10.4)	90,909 (-1.0)	0.53	1,850 (-4.1)	1.08	1.38	2.57
'15	17,968,931 (5.3)	90,129 (-0.9)	0.50	1,810 (-2.2)	1.01	1.28	2.40
'16	18,431,716 (2.6)	90,656 (0.6)	0.49	1,777 (-1.8)	0.96	1.24	2.38
'17	18,560,142 (0.7)	89,848 (-0.9)	0.48	1,957 (10.1)	1.05	1.27	2.38
'18	19,073,438 (2.8)	102,305 (13.9)	0.54	2,142 (9.5)	1.12	1.33	2.56
'19	18,725,160 (-1.8)	109,242 (6.8)	0.58	2,020 (-5.7)	1.08	1.49	2.96
'20	18,974,513 (1.3)	108,379 (-0.8)	0.57	2,062 (2.1)	1.09	1.51	2.94
'21	19,378,565 (2.1)	122,713 (13.2)	0.63	2,080 (0.9)	1.07	1.62	3.26
'22	20,173,615 (4.1)	130,348 (6.2)	0.65	2,223 (6.9)	1.10	1.58	3.36
'23	20,637,107 (2.3)	136,796 (4.9)	0.66	2,016 (-9.3)	0.98	1.65	3.52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단위: 명, %, ‰)
 주) 재해율(%): 재해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사망만인율(‰): 연간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비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도수율: 재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
 강도율: 재해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규모별 산업재해



2023년 사업장의 재해율은 5인미만 규모에서 1.11%로 가장 높고, 사망만인율 역시 5인미만 규모에서 1.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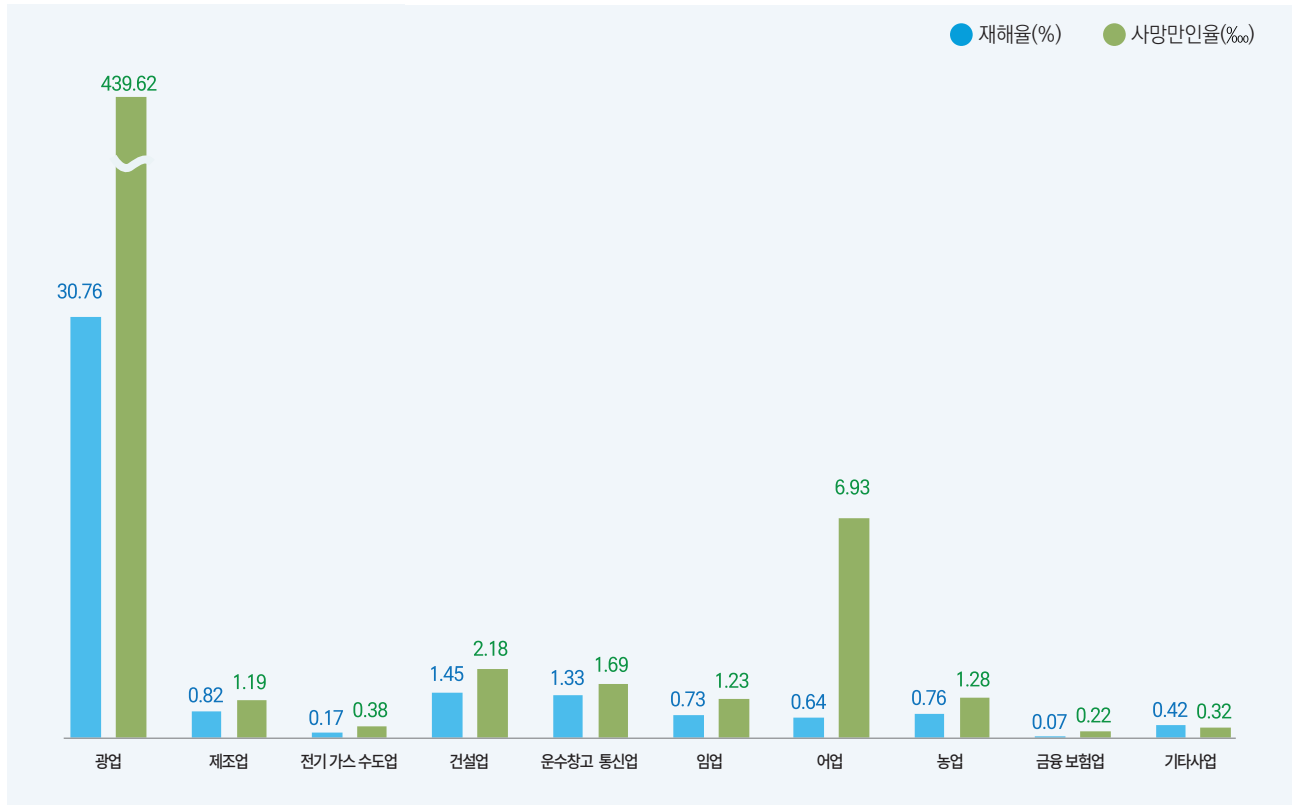
	대상 사업장수	대상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전 규모	2,945,136	20,637,107	136,796 (100.0)	0.66	2,016 (100.0)	0.98
300인 미만	2,940,670	17,123,483	119,626 (87.4)	0.70	1,678 (83.2)	0.98
5인미만	2,178,996	3,455,239	38,480 (28.1)	1.11	486 (24.1)	1.41
5~9인	383,332	2,490,660	16,834 (12.3)	0.68	255 (12.6)	1.02
10~19인	209,073	2,774,872	18,576 (13.6)	0.67	217 (10.8)	0.78
20~29인	69,583	1,651,367	10,375 (7.6)	0.63	136 (6.7)	0.82
30~49인	51,624	1,934,621	10,729 (7.8)	0.55	147 (7.3)	0.76
50~99인	31,364	2,130,269	10,696 (7.8)	0.50	173 (8.6)	0.81
100~299인	16,698	2,686,455	13,936 (10.2)	0.52	264 (13.1)	0.98
300인 이상	4,466	3,513,624	17,170 (12.6)	0.49	338 (16.8)	0.96
300~499인	2,485	938,918	4,984 (3.6)	0.53	126 (6.3)	1.34
500~999인	1,332	902,300	3,459 (2.5)	0.38	102 (5.1)	1.13
1,000인 이상	649	1,672,406	8,727 (6.4)	0.52	110 (5.5)	0.66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23년), () 비중

(단위: 개소, 명, %, ‰)

산업별 산업재해

2023년 광업과 건설업의 재해율이 각각 30.76%, 1.45%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사망만인율은 광업(439.62‰), 어업(6.93‰), 건설업(2.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전 산업	2,945,136	20,637,107	136,796 (100.0)	0.66	2,016 (100.0)	0.98
광업	1,026	9,713	2,988 (2.2)	30.76	427 (21.2)	439.62
제조업	412,474	4,006,893	32,967 (24.1)	0.82	476 (23.6)	1.19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3,651	79,956	134 (0.1)	0.17	3 (0.1)	0.38
건설업	321,949	2,233,184	32,353 (23.7)	1.45	486 (24.1)	2.18
운수·창고 및 통신업	102,185	1,120,705	14,937 (10.9)	1.33	189 (9.4)	1.69
임업	17,948	137,826	1,000 (0.7)	0.73	17 (0.8)	1.23
어업	2,129	5,775	37 (0.0)	0.64	4 (0.2)	6.93
농업	25,693	93,504	706 (0.5)	0.76	12 (0.6)	1.28
금융·보험업	44,137	853,734	605 (0.4)	0.07	19 (0.9)	0.22
기타사업	2,013,944	12,095,817	51,069 (37.3)	0.42	383 (19.0)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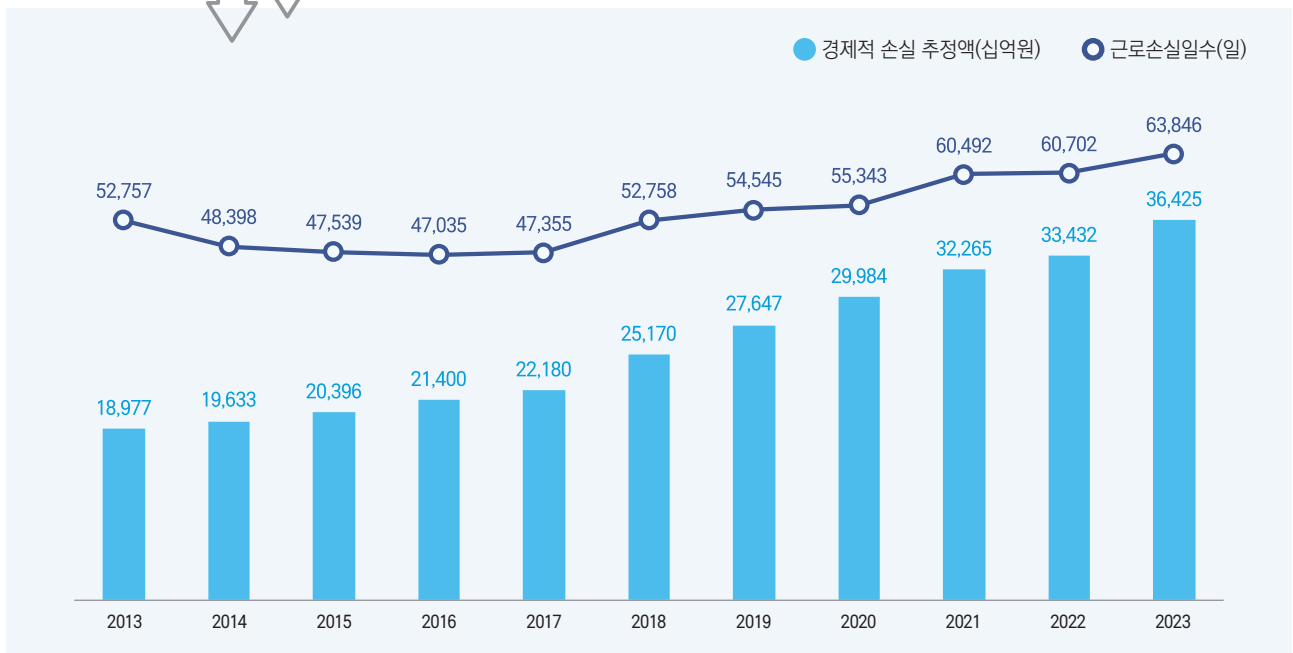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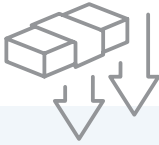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23년), () 비중

(단위: 명, %, ‰)

경제적 손실

경제적 손실액 및 손실일수

2023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36조원으로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손실일수는 '17년부터 증가 추세이다.



연도	경제적 손실액			근로 손실일수
	총액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	
'13	18,977,170	3,795,434	15,181,736	52,757,034
'14	19,632,795	3,926,559	15,706,236	48,398,387
'15	20,395,540	4,079,108	16,316,432	47,538,877
'16	21,400,275	4,280,055	17,120,220	47,035,222
'17	22,180,190	4,436,038	17,744,152	47,355,044
'18	25,169,507	5,033,901	20,135,606	52,757,858
'19	27,646,799	5,529,360	22,117,440	54,544,623
'20	29,984,095	5,996,819	23,987,276	55,343,490
'21	32,264,700	6,452,940	25,811,760	60,492,479
'22	33,432,430	6,686,486	26,745,944	60,701,773
'23	36,424,705	7,284,941	29,139,764	63,845,877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23년), () 비중

(단위: 백만원, 일)

주) 경제적 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 간접손실액

간접손실액: 산재보상금 이외에 재해로 인한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차질액 등 재해로 인해 회사가 입는 유·무형의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 총액

근로손실일수 = 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못한 일수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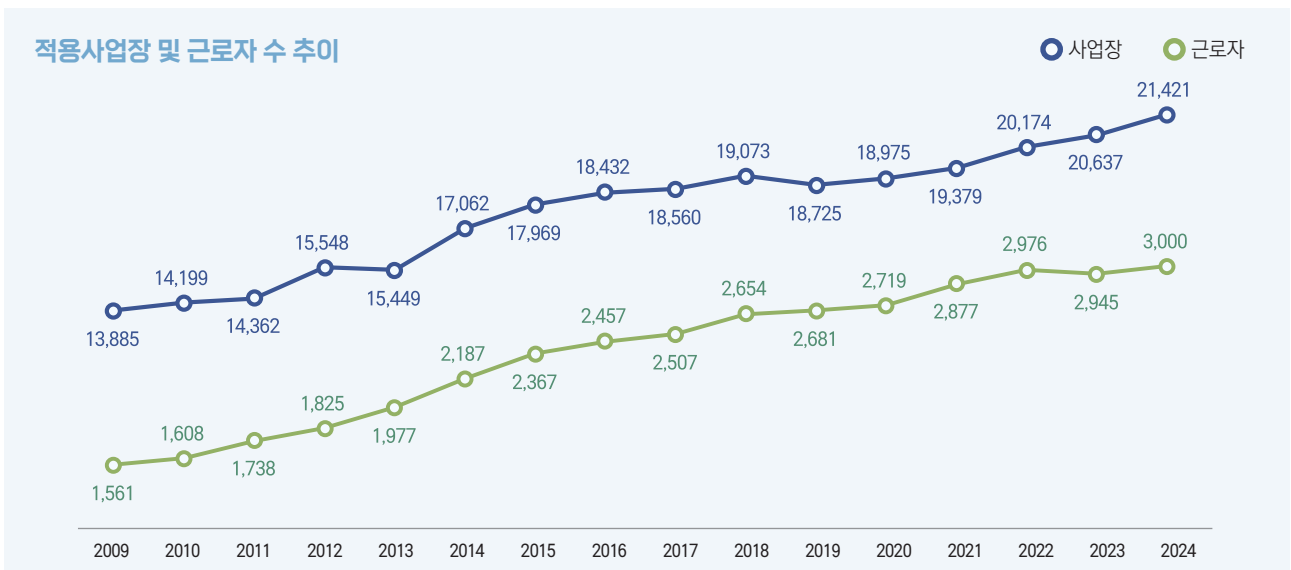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사업장수	2,719,308	2,876,635	2,976,026	2,945,136
(전년대비, %)	(1.4)	(5.8)	(3.5)	(-1.0)
근로자수	18,974,513	19,378,565	20,173,615	20,637,107
(전년대비, %)	(1.3)	(2.1)	(4.1)	(2.3)
재해자수	108,379	122,713	130,348	136,796
(전년대비, %)	(-0.8)	(13.2)	(6.2)	(4.9)
사망자수	2,062	2,080	2,223	2,016
(전년대비, %)	(2.1)	(0.9)	(6.9)	(-9.3)
부상자수	91,237	101,182	106,038	112,373
(전년대비, %)	(-1.8)	(10.9)	(4.8)	(6.0)
업무상질병요양자수	14,816	19,183	21,785	22,127
(전년대비, %)	(5.6)	(29.5)	(13.6)	(1.6)
재해율(%)	0.57	0.63	0.65	0.66
(전년대비, %p)	(-0.01)	(0.06)	(0.02)	(0.01)
사망만인율(‰)	1.09	1.07	1.1	0.98
(전년대비, ‰p)	(0.01)	(-0.02)	(0.03)	(-0.12)
경제적 손실액	29조 9,841억원	32조 2,647억원	33조 4,324억원	36조 4,247억원
(전년대비, %)	(8.5)	(7.6)	(3.6)	(9.0)
근로손실 일수(천일)	55,345	60,492	60,702	63,846
(전년대비, %)	(1.5)	(9.3)	(0.3)	(5.2)
도수율	2.94	3.26	3.36	3.52
(전년대비, p)	(-0.02)	(0.32)	(0.10)	(0.16)
강도율	1.51	1.62	1.58	1.65
(전년대비, p)	(0.02)	(0.11)	(-0.04)	(0.07)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 증감 및 증감율 (단위: 명, %, ‰)
 주) 사망자수는 사고사망자수와 재해사망자를 포함하며,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산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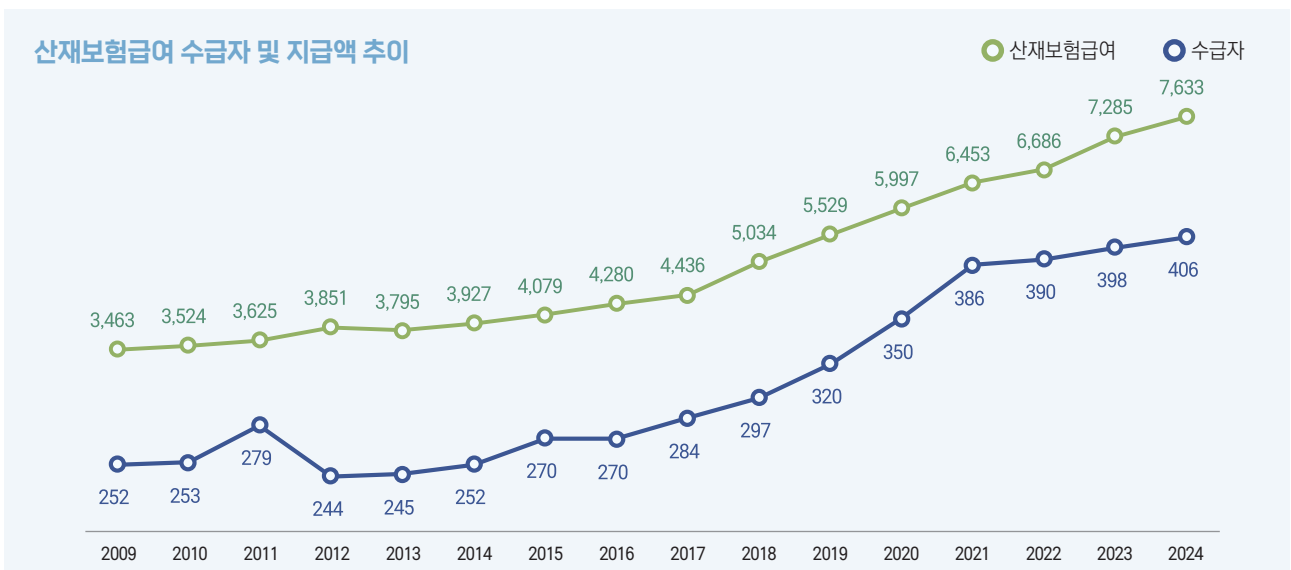
적용사업장 및 근로자 등 추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와 근로자수,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단위: 천개소,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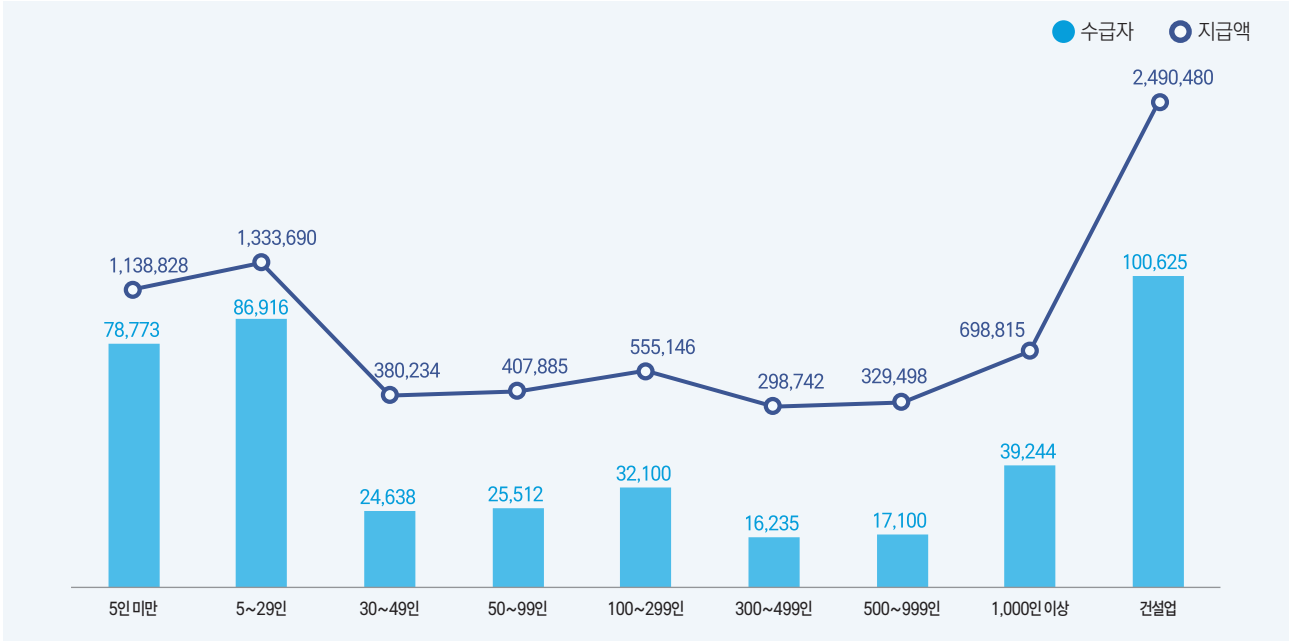


자료: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단위: 십억원, 천명)

규모별 보험급여 지급

5~29인 규모 사업체의 산재보험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단위: 명, 백만원)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	지급건수	지급액
합계	3,000,421 (1.9)	21,420,560 (3.8)	405,539 (1.8)	4,952,475 (-1.6)	7,633,319 (4.8)
5인 미만	1,950,234 (1.5)	3,223,680 (3.4)	78,773 (3.4)	809,213 (3.4)	1,138,828 (7.2)
5~29인	634,427 (4.2)	6,622,661 (4.6)	86,916 (-1.9)	1,021,964 (-4.8)	1,333,690 (0.7)
30~49인	49,404 (4.0)	1,848,718 (3.9)	24,638 (1.9)	271,705 (-2.2)	380,234 (4.6)
50~99인	29,762 (4.9)	2,017,518 (4.9)	25,512 (2.3)	290,794 (-1.6)	407,885 (2.4)
100~299인	14,534 (3.0)	2,304,426 (2.7)	32,100 (0.2)	376,998 (-5.4)	555,146 (-1.4)
300~499인	1,994 (4.2)	755,234 (4.1)	16,235 (4.0)	166,351 (7.8)	298,742 (11.2)
500~999인	1,139 (3.9)	774,629 (3.3)	17,100 (-2.5)	185,660 (3.9)	329,498 (11.9)
1,000인 이상	623 (6.9)	1,789,602 (16.7)	39,244 (-0.5)	517,787 (-6.7)	698,815 (-0.3)
건설업	318,304 (-1.1)	2,084,092 (-6.7)	100,625 (4.3)	1,312,003 (-1.1)	2,490,480 (7.8)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개소, 명, 건, 백만원,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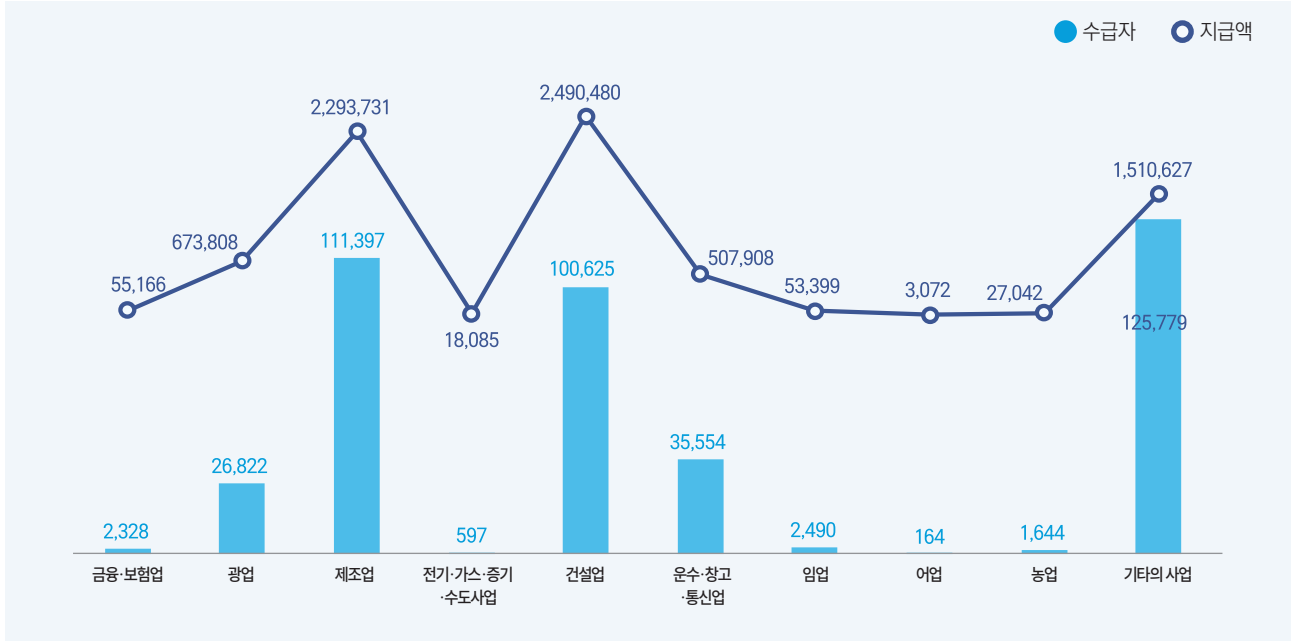
'24년 기준 산재보험 건설업 적용 사업장은 전체의 10.6%, 지급액은 32.6% 차지

- 건설업은 개별 현장별로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져 각 공사 현장을 기준으로 별도의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며, 각 현장에서 고용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됨

※ 즉, 건설업은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현장으로 나누어져 각각 보험 적용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집계되고 근로자 수도 집계 대상에 포함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

2024년 산재보험 적용 사용장, 근로자수, 수급자수, 지급건수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지급액은 건설업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단위: 명, 백만원)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	지급건수	지급액
합계	3,000,421 (1.9)	21,420,560 (3.8)	405,539 (1.8)	4,871,566 (-1.6)	7,633,319 (4.8)
금융·보험업	44,482 (0.8)	836,884 (-2.0)	2,328 (1.9)	27,474 (2.7)	55,166 (8.2)
광업	994 (-3.1)	9,222 (-5.1)	26,822 (-3.9)	319,164 (2.4)	673,808 (3.7)
제조업	412,938 (0.1)	4,081,069 (1.9)	111,397 (-1.2)	1,399,872 (-5.2)	2,293,731 (1.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3,750 (2.7)	80,811 (1.1)	597 (-4.8)	6,661 (-12.6)	18,085 (2.1)
건설업	318,304 (-1.1)	2,084,092 (-6.7)	100,625 (4.3)	1,297,533 (-1.1)	2,490,480 (7.8)
운수·창고·통신업	112,680 (10.3)	1,400,399 (25.0)	35,554 (9.5)	411,527 (8.1)	507,908 (12.6)
임업	19,691 (9.7)	146,942 (6.6)	2,490 (-6.3)	32,582 (-7.3)	53,399 (1.2)
어업	2,144 (0.7)	5,872 (1.7)	164 (-3.5)	1,957 (-3.5)	3,072 (-26.0)
농업	30,721 (19.6)	110,024 (17.7)	1,644 (-2.3)	18,293 (-6.7)	27,042 (1.0)
기타의 사업	2,054,717 (2.0)	12,665,245 (4.7)	125,779 (2.7)	1,356,503 (-1.7)	1,510,627 (3.4)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개소, 명, 건, 백만원, %)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9. 시도별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비교

- ① 지역별 인구 현황
- ② 인구 이동 현황
- ③ 지역내총생산(GRDP)
- ④ 산업단지 분포 현황
- ⑤ 고용률
- ⑥ 취업자 수
- ⑦ 실업률
- ⑧ 비경제활동인구
- ⑨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 ⑩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1

지역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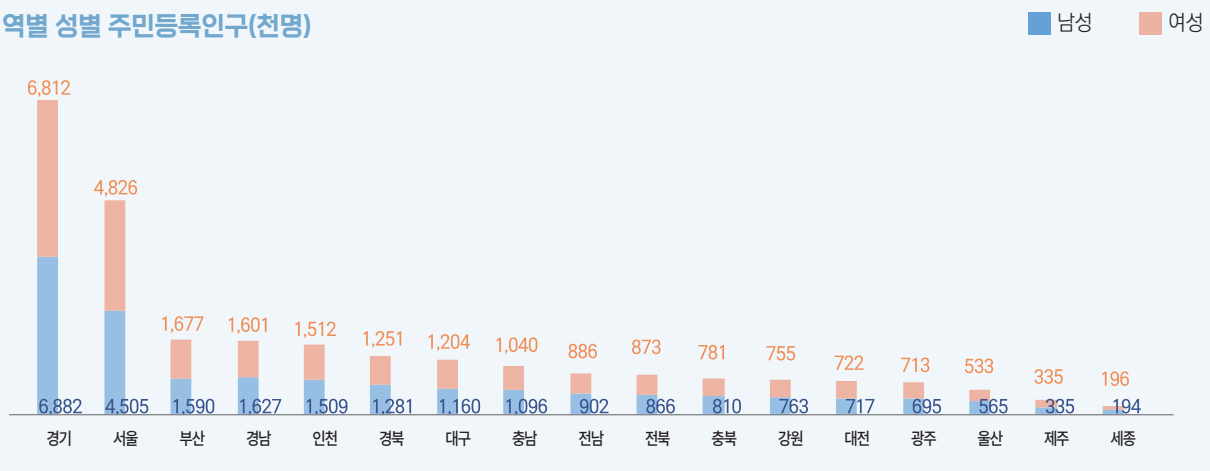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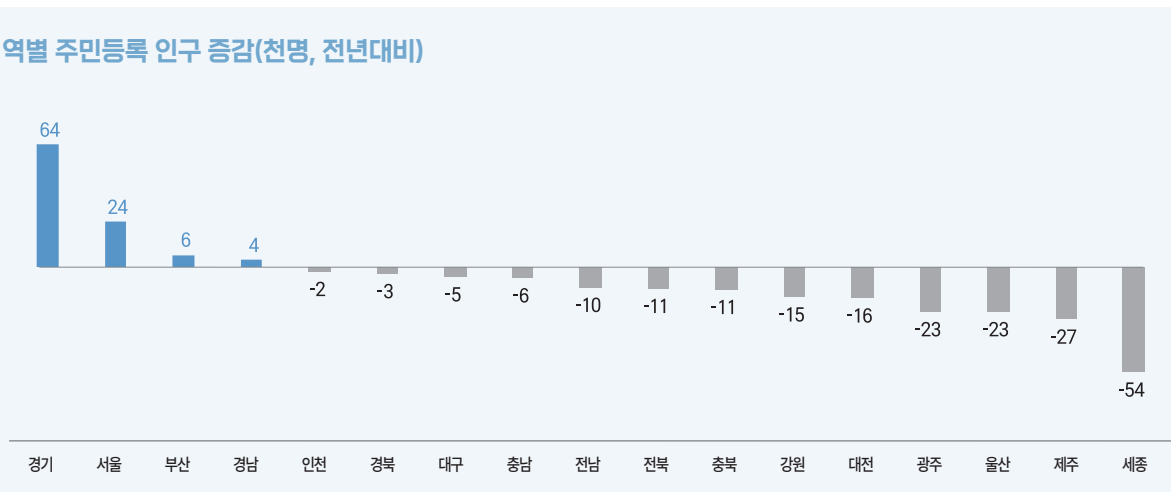
'24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22만명으로 최초 통계 작성연도인 1992년 이후 증가하다가 '20년을 인구 정점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이다.

- 경기, 인천, 충남,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 인구가 전년대비 감소
- 여성인구 비율은 서울(51.7%), 부산(51.3%), 대구(50.9%), 광주(50.6%), 대전(50.2%) 순으로 높음, 울산은 여성인구 비율(48.6%)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청년인구 비율은 대전(18.2%), 광주(18.1%) 순으로 높고, 60대이상 인구 비율은 전남(36.4%), 경북(35.5%)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별 주민등록인구(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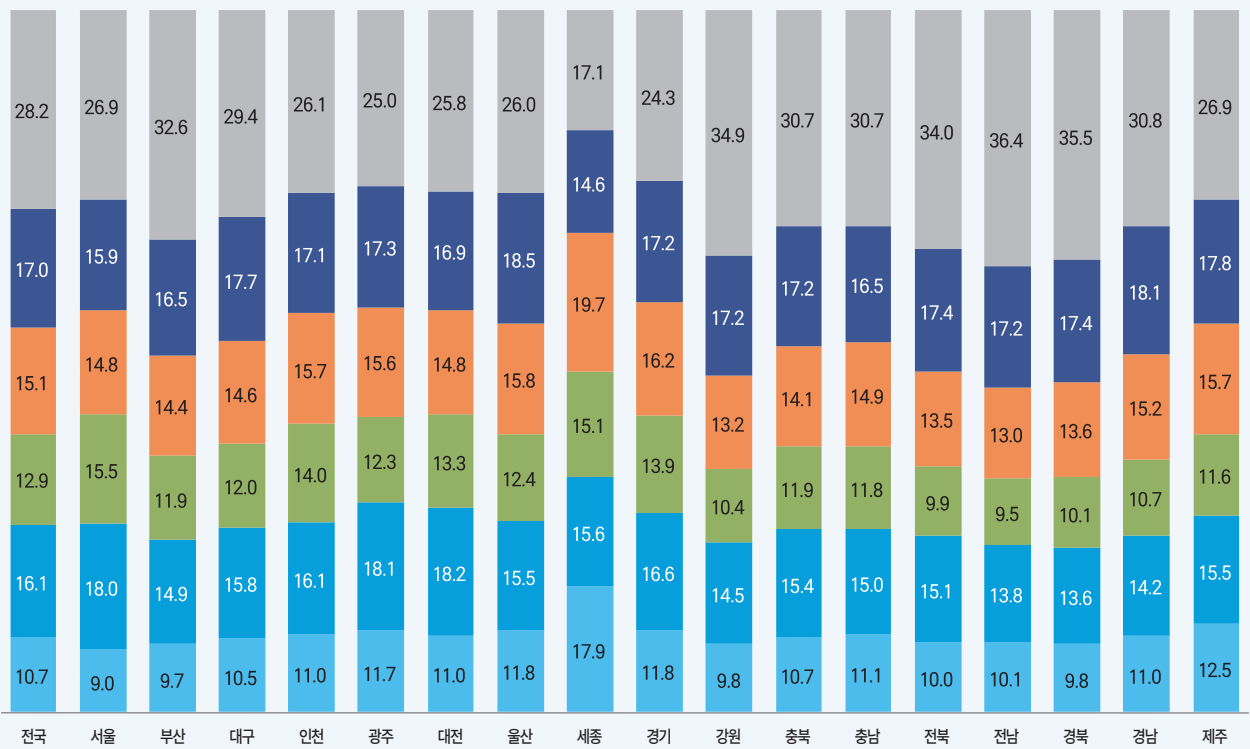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 증감(천명,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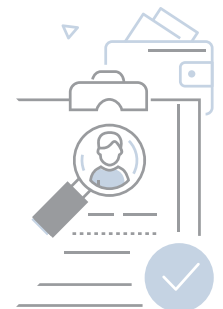


지역 내 인구의 연령별 비율(%)

● 14세이하 ● 15-29세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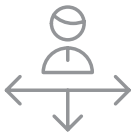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4년)



인구 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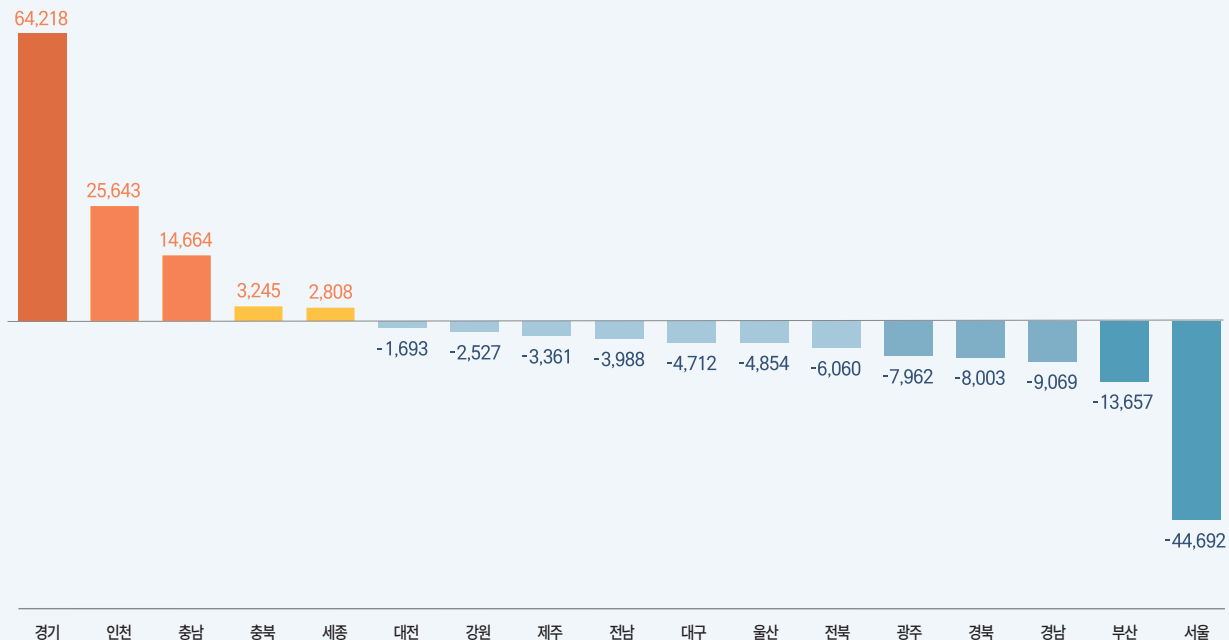
국내인구이동통계



'24년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세종은 순유입(전입 > 전출)이 발생했고, 서울, 부산, 경남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이 발생했다.

- 순유출이 가장 많은 서울(-4.5만명)은 주거, 직장 등을 이유로 인천, 경기, 충남 순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
- 순이동율은 세종이 +0.7%로 가장 높으나, '15년 +29.0% 이후 하락 추세

지역별 순이동자수(전입-전출) 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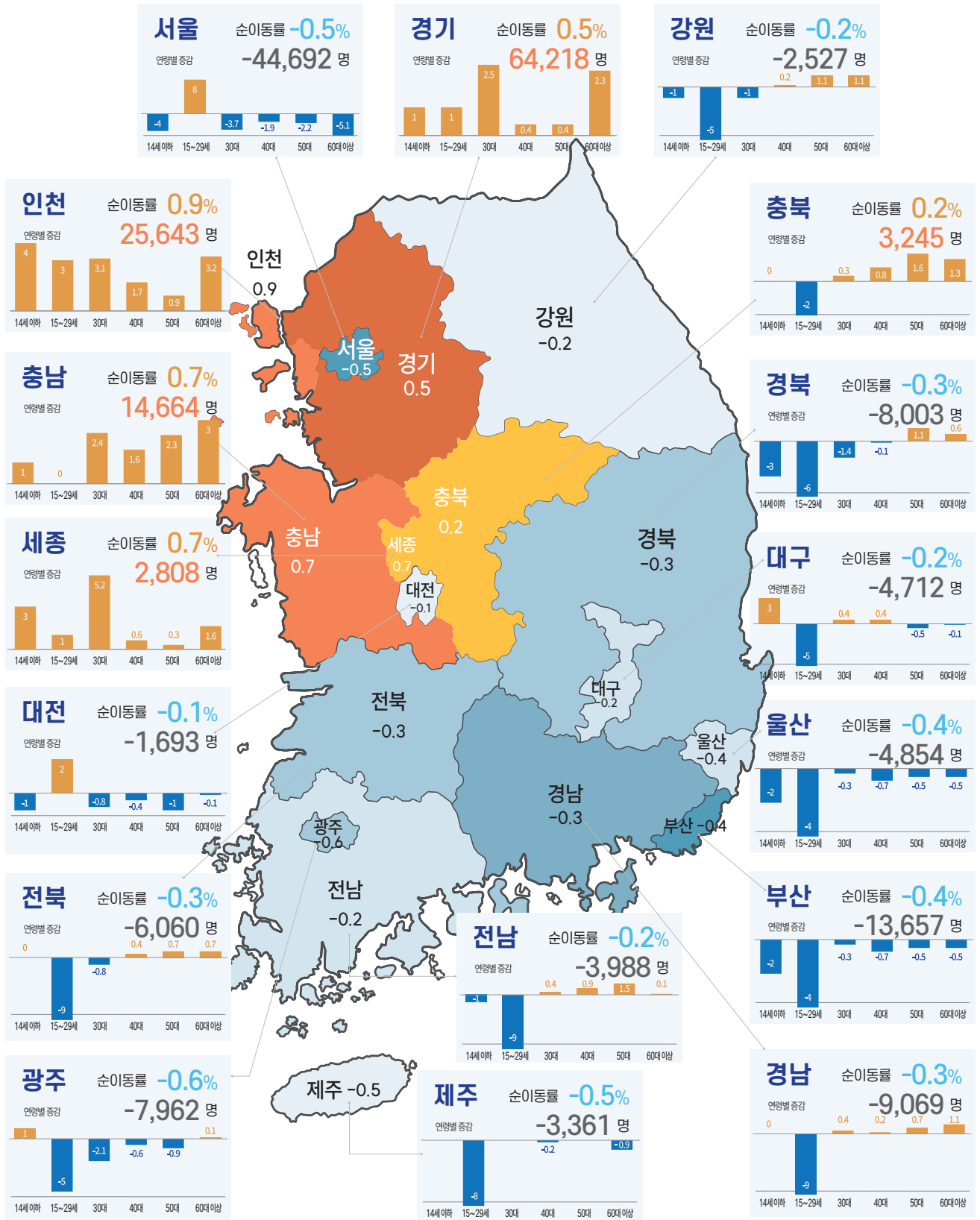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24년)

시도별 인구 이동 현황

경기·인천과 세종·충북·충남 5개 시도는 순이동률이 (+)로 나타나 순유입, 나머지 12개 시도는 순유출

지역별 순이동률 (%), 순이동률=순이동인구÷연앙인구×100



지역내총생산(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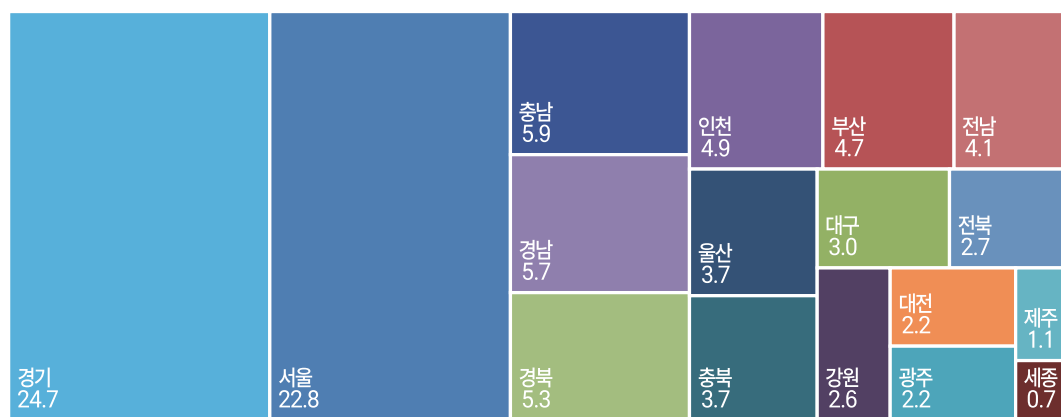
지역소득



'23년 전국 총생산은 2,404조원으로 경기(594조)와 서울(548조)이 전체 총생산의 47.5%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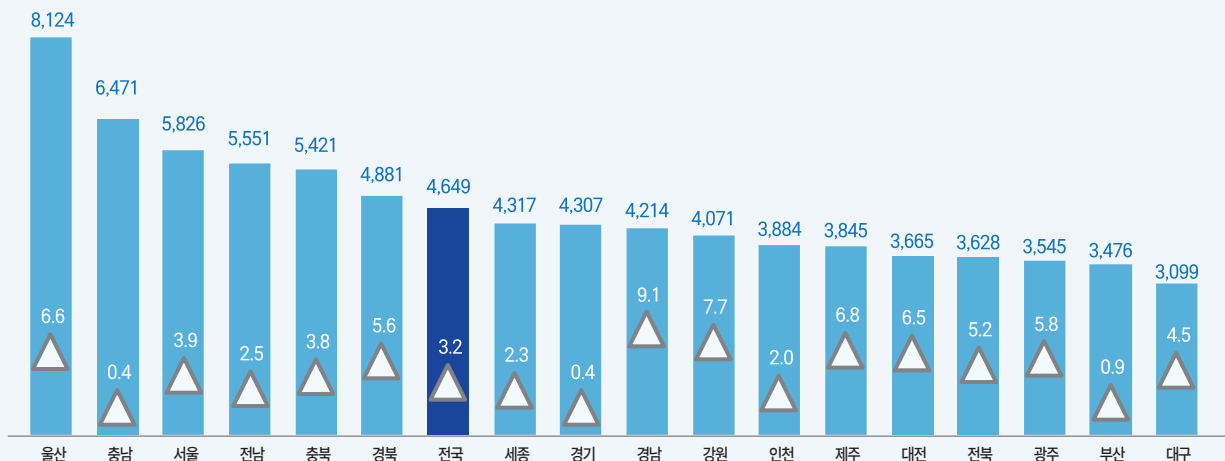
- 전년대비 총생산 성장률은 3.3%로 2년 연속 둔화 ('20년 1.0% > '21년 7.8% > '22년 4.6% > '23년 3.3%)
-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생산액 증가
- 울산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8,124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6.6% 증가
-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평균 4,649만원보다 많은 지역은 울산(8,124만원), 충남(6,471만원), 서울(5,826만원), 전남(5,551만원), 충북(5,421만원), 경북(4,881만원) 6개 지역임

지역별 총생산액 비율(% , 명목, 시장가격)



지역별 1인당 지역내 총생산(만원)

● 1인당 지역내총생산(만원)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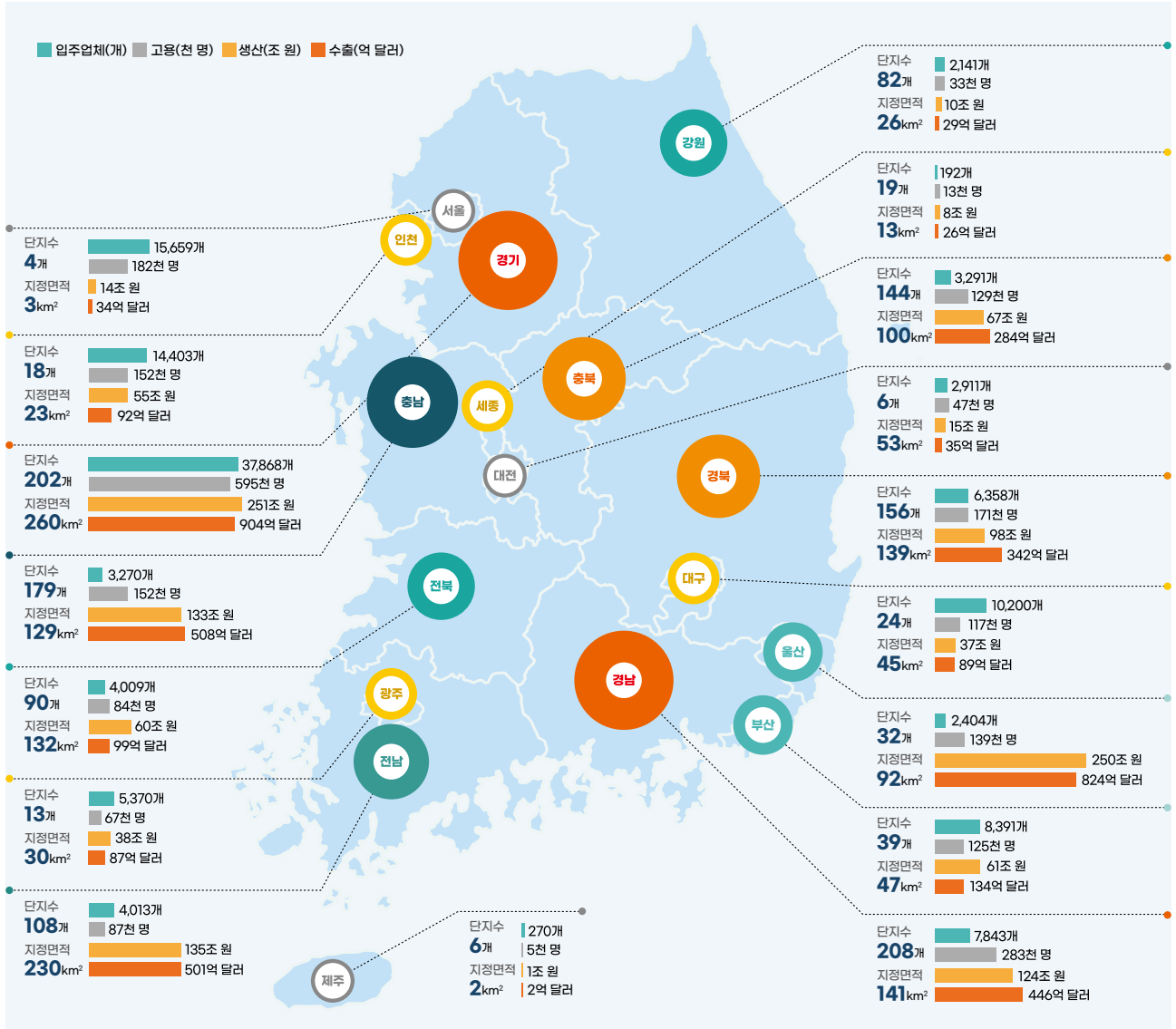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23년)

산업단지 분포 현황

산업단지 현황

'24년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총 1,330개로 12만9천개 사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총 고용 규모는 237만 9천명이다.



출처: 2025년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전국산업단지(대상년도: 2024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일러두기

- 산업단지 수, 지정면적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국토연구원 운영) 자료를 이용하였고, 입주업체 수, 고용, 생산, 수출은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입주업체 수, 고용, 생산, 수출 항목의 경우 각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기업체 대상으로 조사하여 취합한 자료로, 타 기관의 통계와 조사 방법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통계 수치는 자료 발간 당시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 산업단지 유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
 - 지정면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된 면적임
 - 입주업체: 산업집적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 고용: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생산: 단가*생산량
 - 수출: 수출신고필증상(F.O.B) 기준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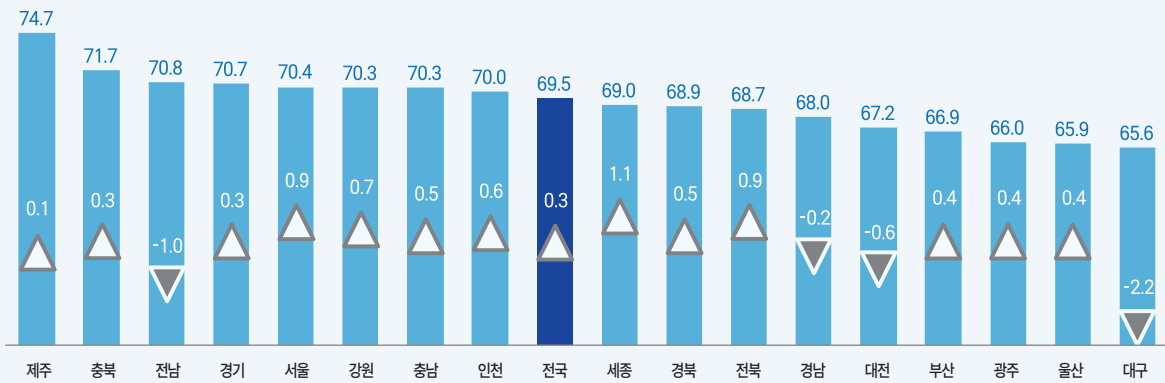


'24년 전국의 평균 고용률(15~64세)은 69.5%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 제주의 고용률이 74.7%로 가장 높고, 충청권(충남, 충북)과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년대비 대구, 전남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3개 지역의 고용률 상승
- 여성고용률은 제주, 전남, 강원 등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도지역에서 높은 반면, 청년고용률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별 15~64세 고용률(%) 및 전년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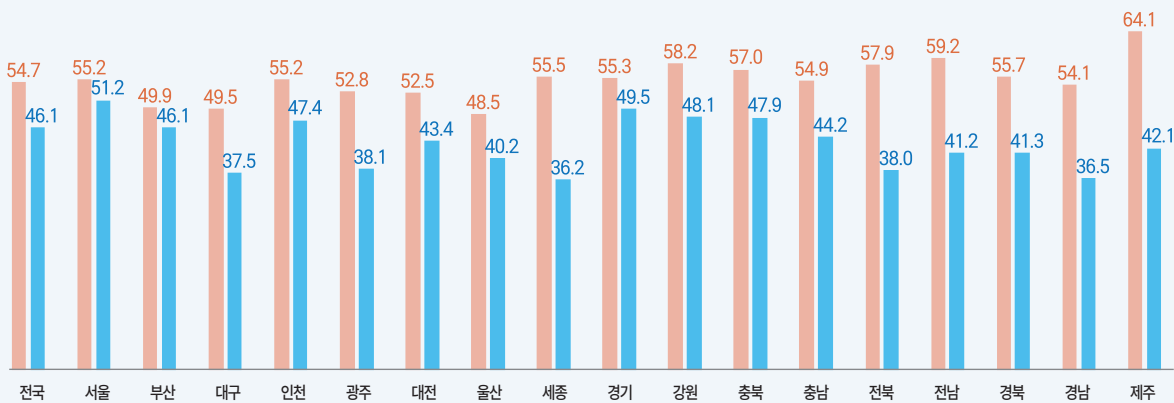
● 15~64세 고용률 △ 전년대비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지역별 여성 및 청년고용률(%)

● 여성 고용률(%) ● 청년 고용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취업자 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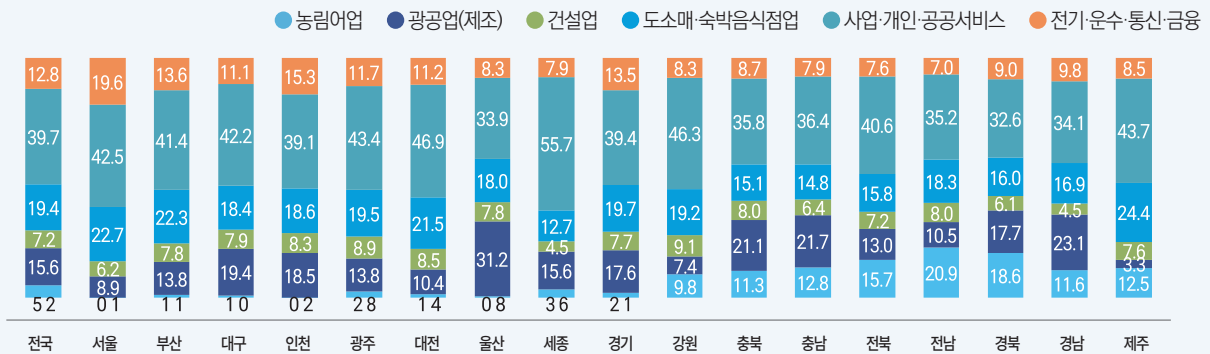
'24년 취업자 수는 2,858만명으로 전년보다 15.9만명 증가하였다.

- 경기(+7.9만명), 서울(+5.5만명), 인천(+4.1만명) 등 수도권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대구(-3.1만명), 전남(-1.5만명) 등 6개 지역에서 취업자가 감소
- 광공업(제조) 취업자 비율은 울산(31.2%), 경남(23.1%), 충남(21.7%), 충북(21.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상용직은 세종(71.6%), 서울(63.3%), 경기(60.6%), 임시·일용직은 부산(23.8%), 인천(21.9%), 전남(21.9%)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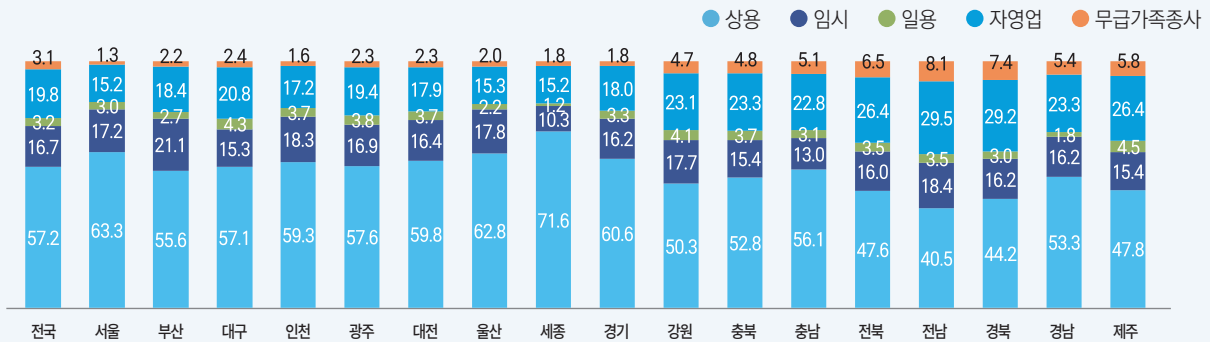
지역별 취업자 수 및 증감(천명)



지역별 취업자의 산업별 비율(%)



지역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터,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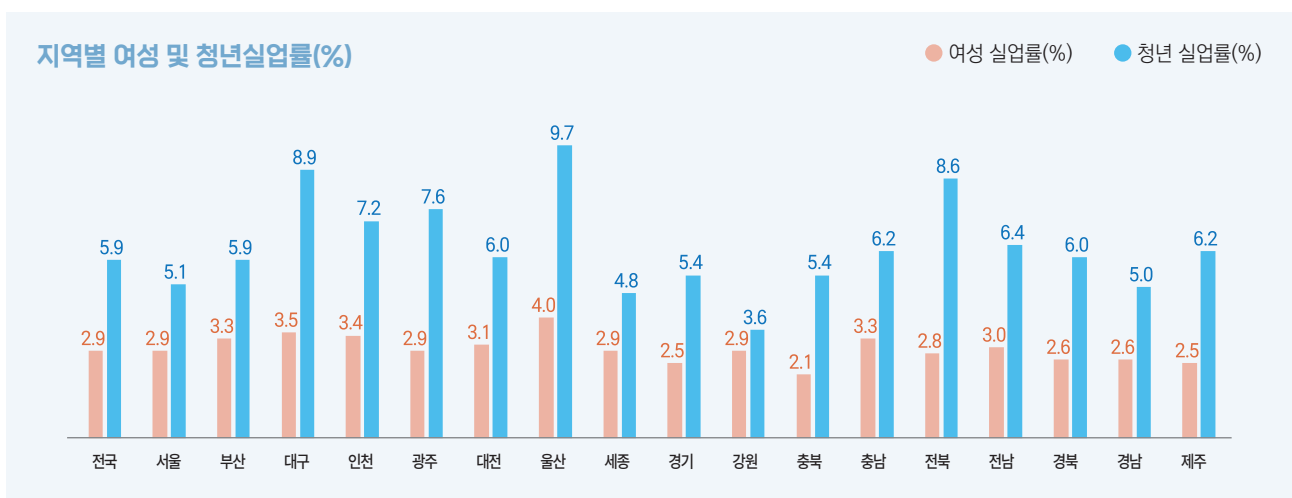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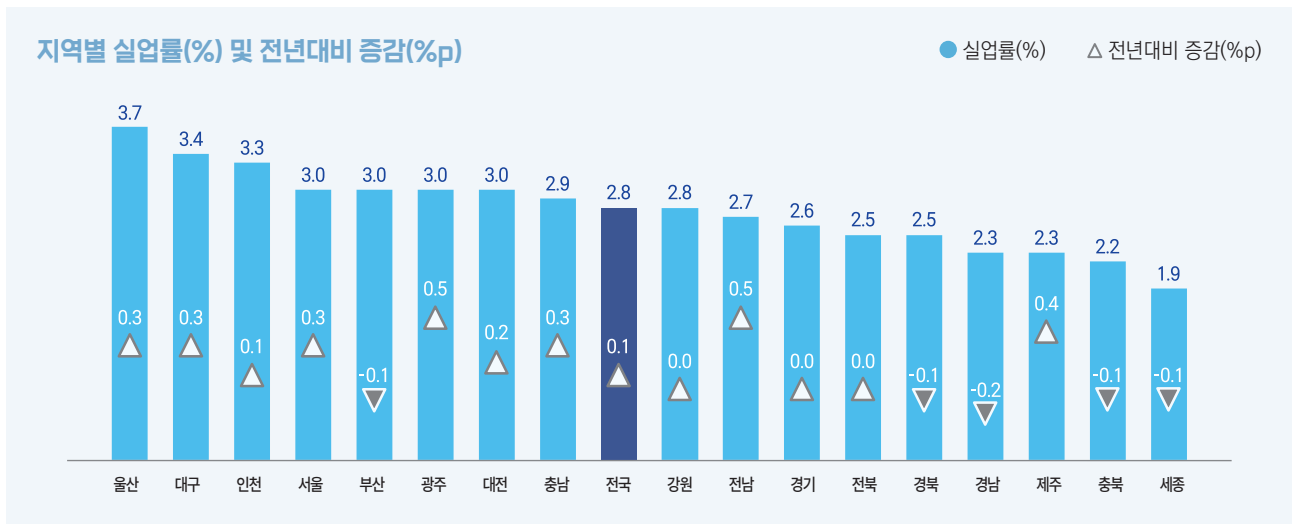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24년 전국평균 실업률은 2.8%로 '23년(2.7%)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다.

- 실업률은 도지역보다 광역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남(-0.2%p), 부산·경북·충북·세종(-0.1%p) 지역은 실업률 하락
- 울산은 여성실업률(4.0%)과 청년실업률(9.7%) 모두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참고

- 고용률은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실업률**은 취업의사가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식 실업률이 실업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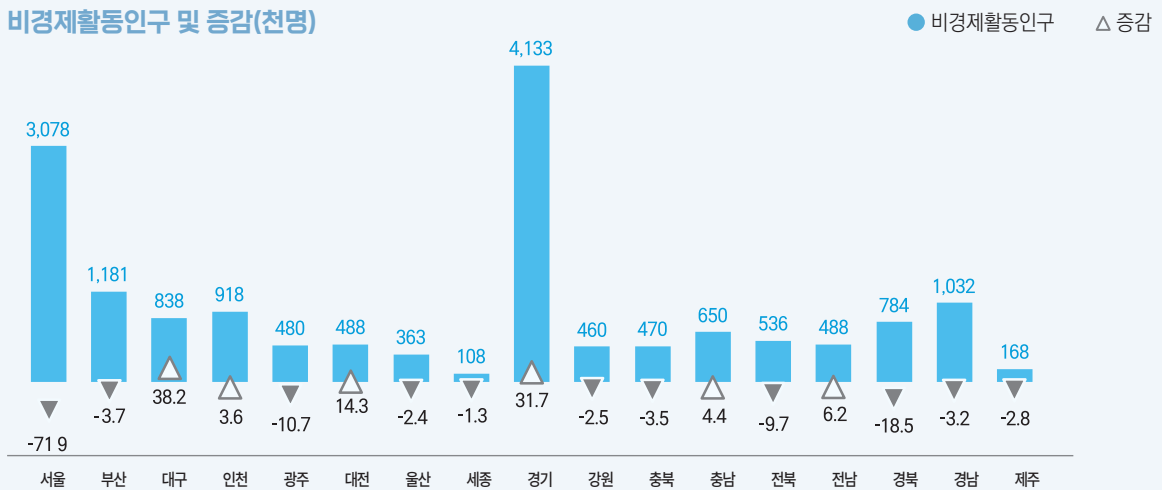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



'24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2천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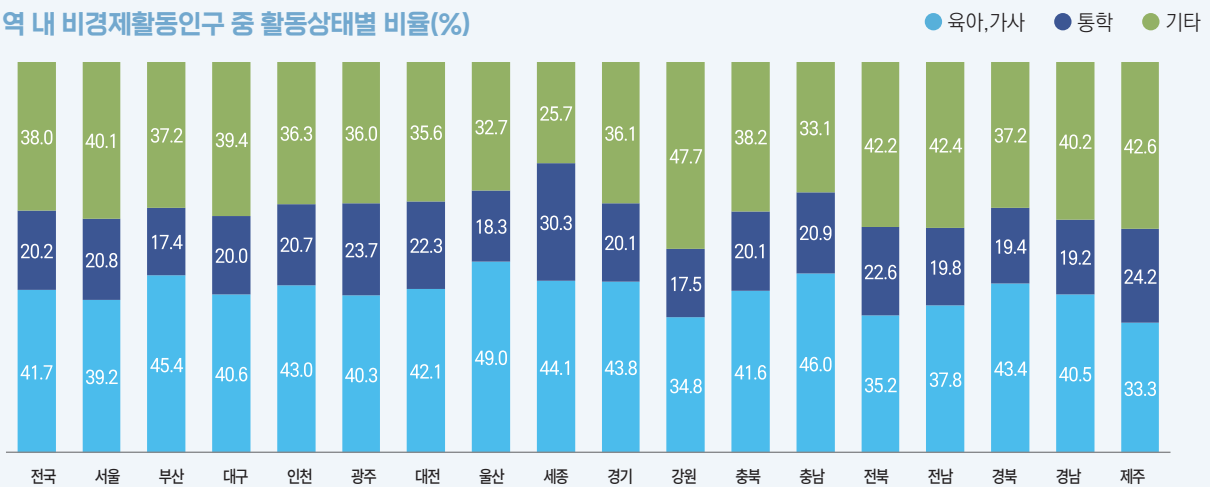
- 서울(-7.2만명)과 경북(-1.9만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대구(+3.8만명), 경기(+3.2만명) 등 6개 지역에서 증가
- 대부분 지역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 비율은 40%를 상회하나, 제주(33.3%), 강원(34.8%), 전북(35.2%), 전남(37.8%)의 육아·가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 및 증감(천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지역 내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상태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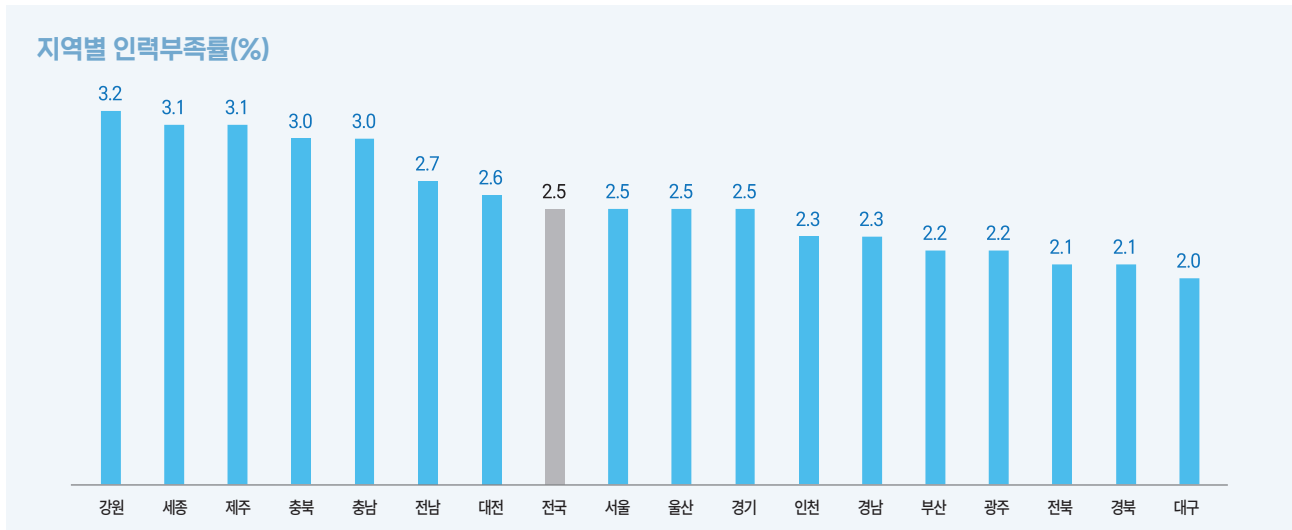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25.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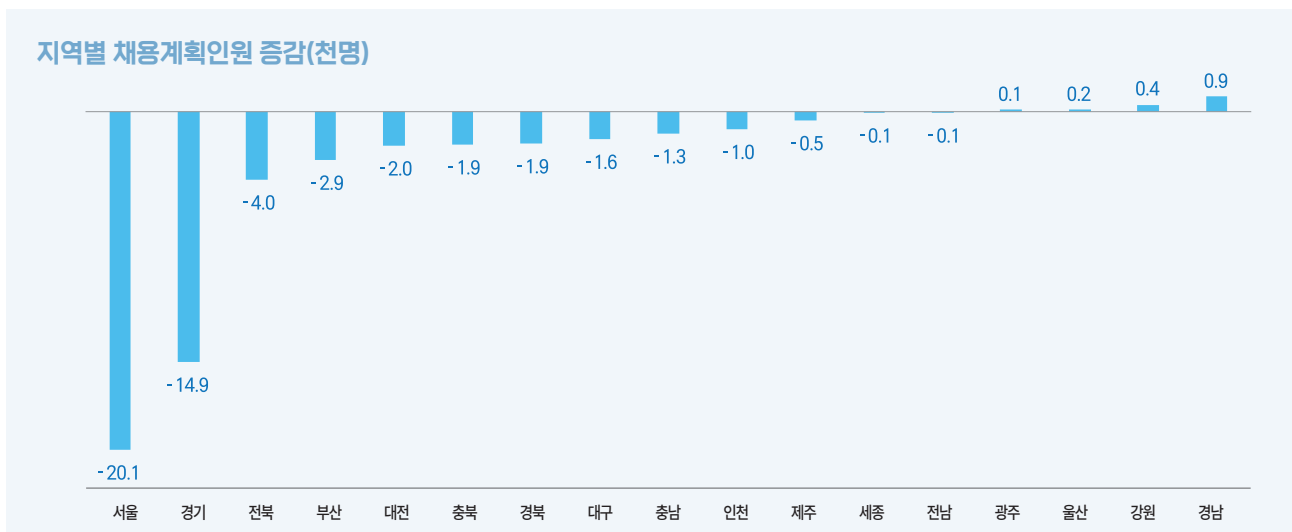
’25년 상반기(4.1.기준) 부족인원은 46만9천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만2천명 감소하였고, 인력부족률은 2.5%로 0.2%p 하락했다.

한편, 채용계획인원은 47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만명 감소했다.

- 지역별 채용계획인원은 서울(11.8만)과 경기(11.6만)가 전국의 49.8%를 차지, 이어 경남·부산(2.5만), 충남(2.3만) 순으로 많음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부족인원 + 현원)] × 100



* 채용계획인원 = [부족인원÷(부족인원 + 현원)] × 100, '25.4.1.~9.30.(6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5.상반기)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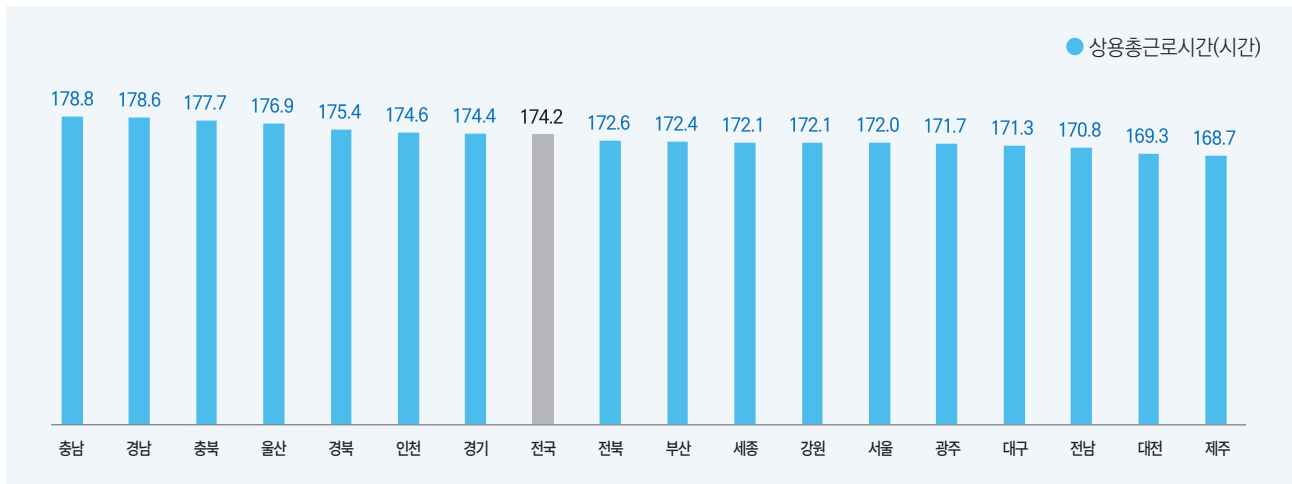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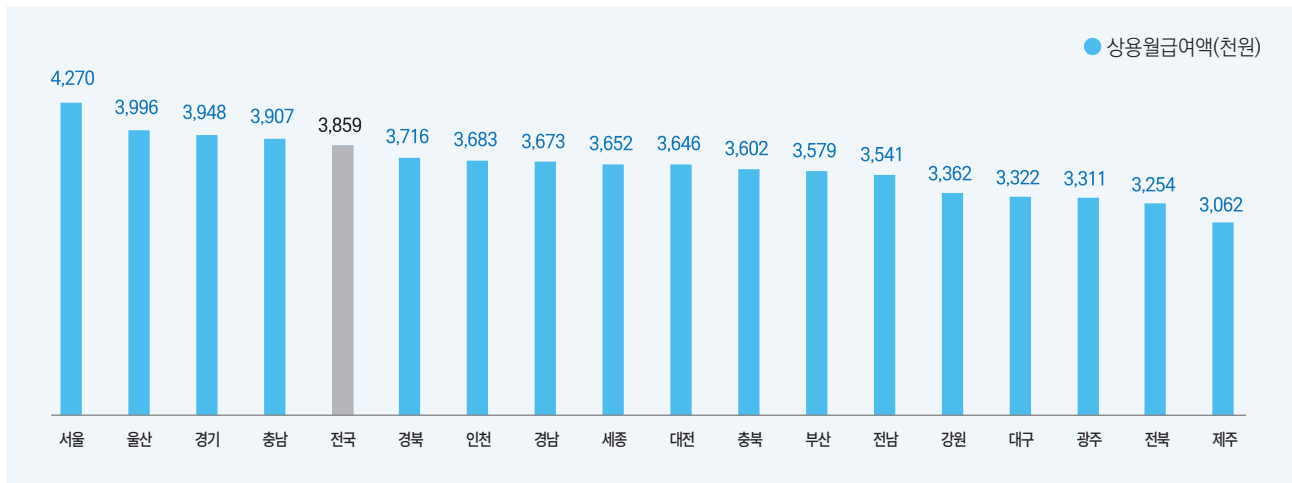
사업체노동력조사



'25년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6만원이며, 근로시간은 174.2시간이다.

* 전국의 임금총액 및 근로시간은 '25.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시도별 평균치 아님)

- 고임금 업종인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집중된 서울과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된 울산의 임금이 높은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는 임금이 낮게 나타남
- 경남과 울산의 근로시간이 긴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 반면, 강원, 대전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시간이 짧음



자료: 고용노동부,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25.4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Part 2

대상별 현황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1.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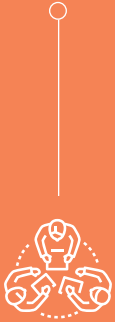
2. 여성

3. 장년(50세 이상)

4.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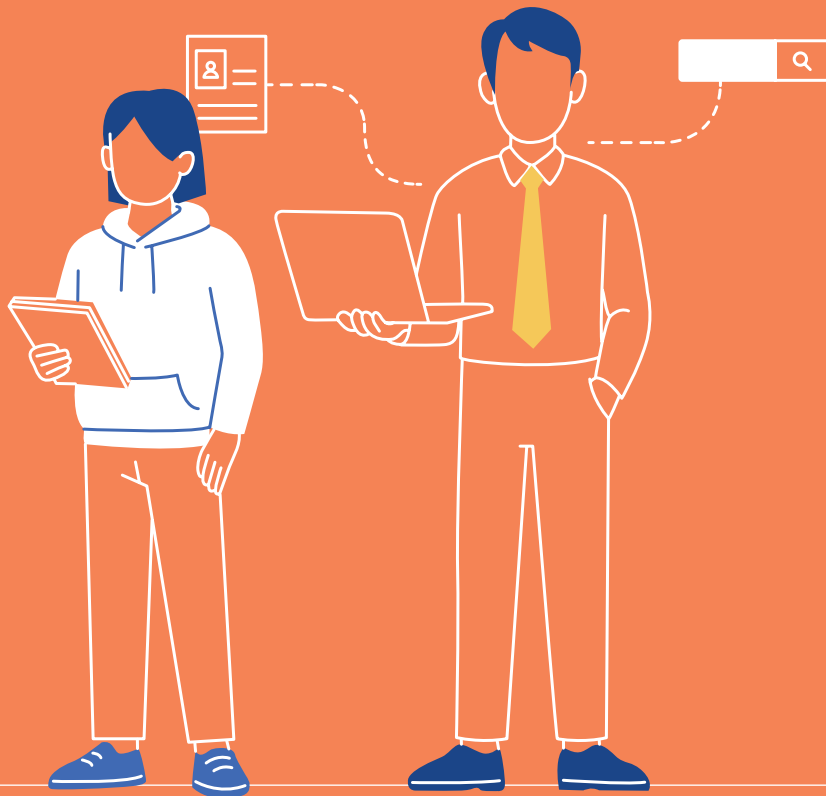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1. 청년

- ① 인구 및 노동력 현황
- ②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 ③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 ④ 청년 근로조건
- ⑤ 취업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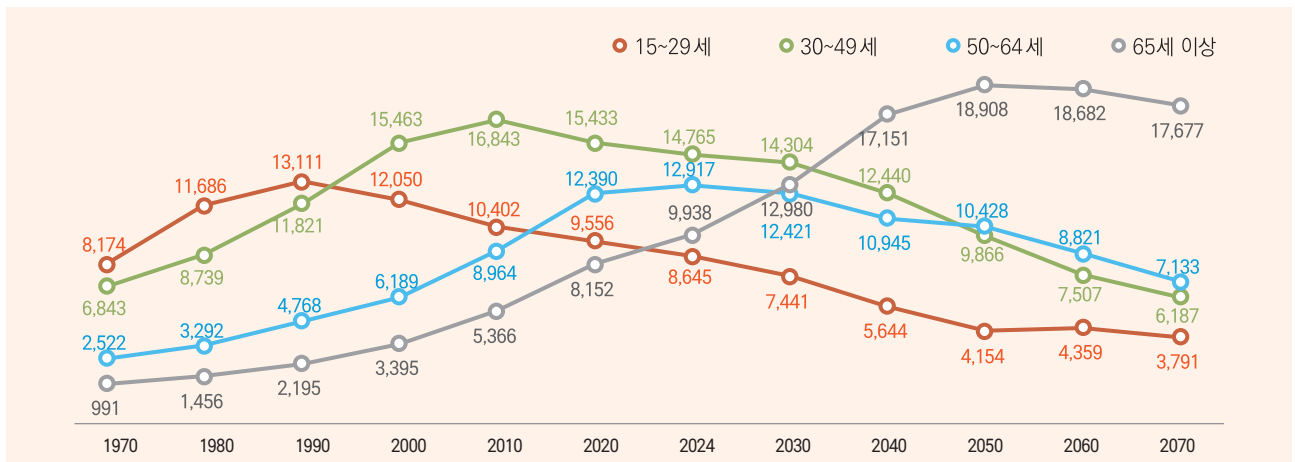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청년 인구

국가데이터처 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15~29세)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990년 청년인구(1,311만명)를 기준으로 2024년(865만명)은 65.9% 수준이고, 2070년(379만명)에는 28.9%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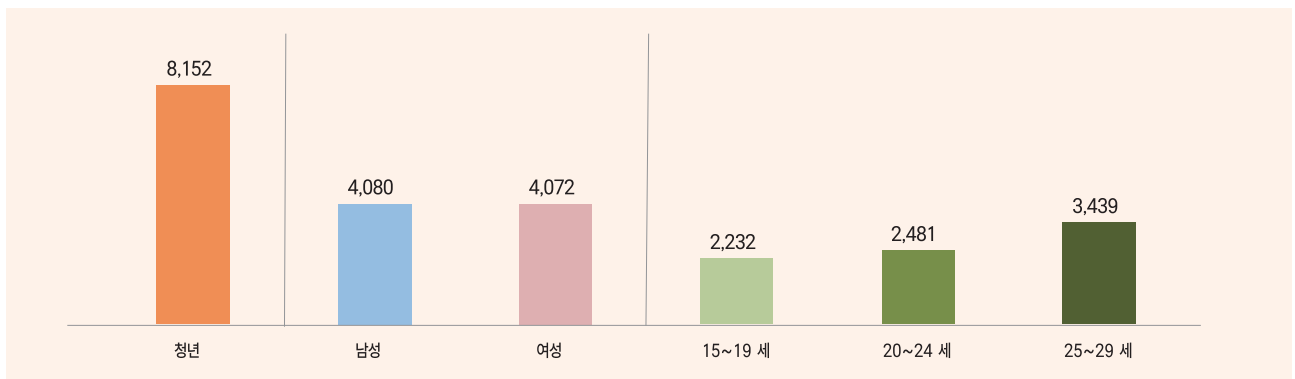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단위: 천명)

청년 노동력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인구는 815만명이고, 남녀 비율을 동일, 연령별로 15~19세가 가장 적고, 20~24세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합 계		남성	여성	15~19세	20~24세	25~29세	
15~29세	인구 수	8,567	4,283	4,284	2,245	2,732	3,591
	변동률	[-203]	[-106]	[-97]	[-67]	[-96]	[-40]
	비율 (%)	(100.0)	(50.0)	(50.0)	(26.2)	(31.9)	(41.9)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 전년대비 증감, ()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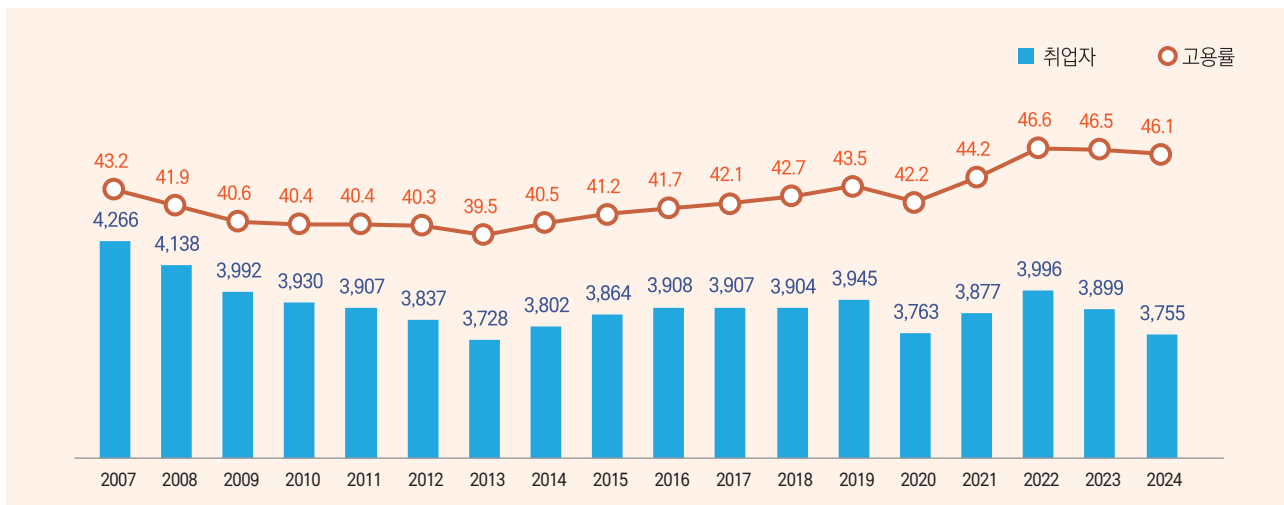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2024년 청년인구 중 취업자는 375.5만명이고 고용률은 46.1%이다.

- 연도별로 청년고용률은 2013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 전환)하다 2022년부터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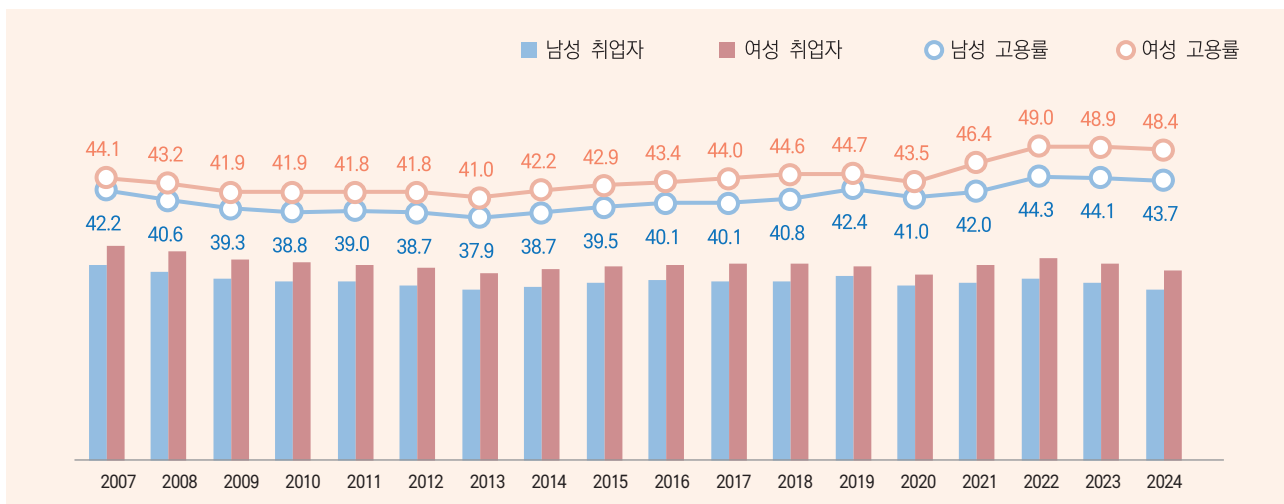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4년 청년층 남성 취업자는 178만명, 고용률은 43.7%이고, 청년층 여성 취업자는 197만명, 고용률은 48.4%이다.

- 청년층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남성 취업자보다 많고, 여성고용률이 남성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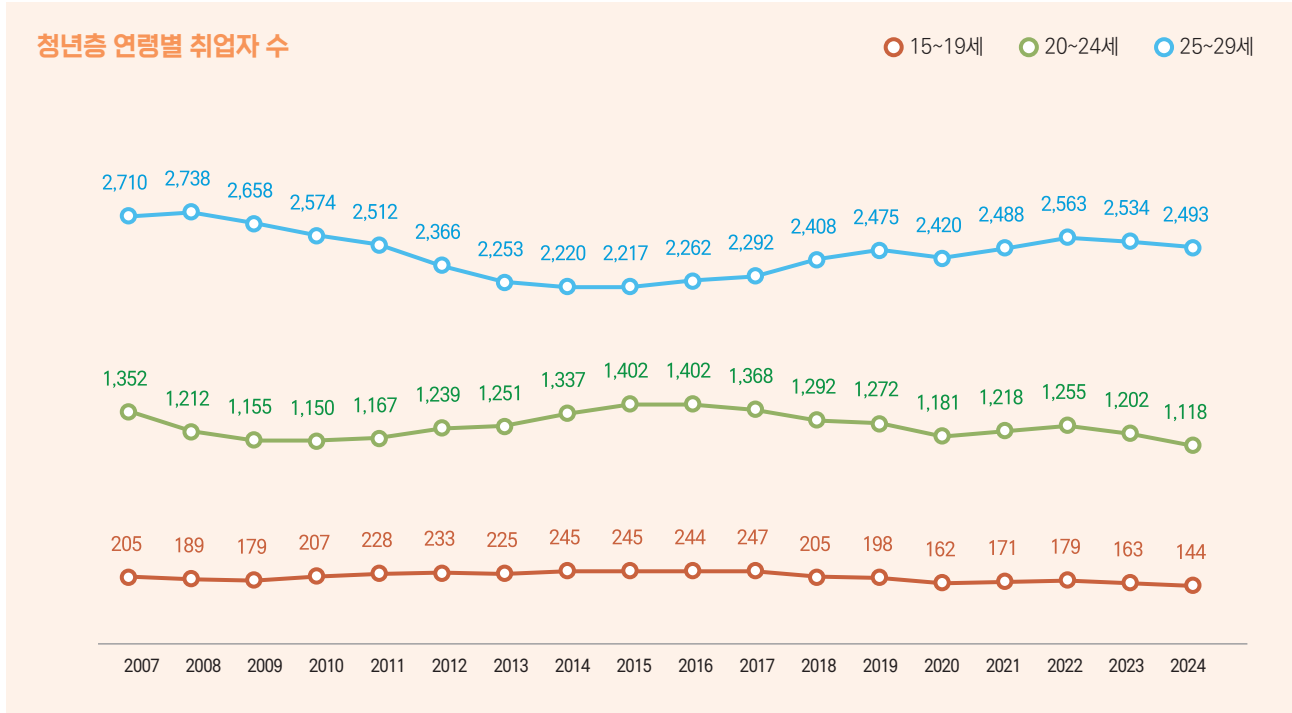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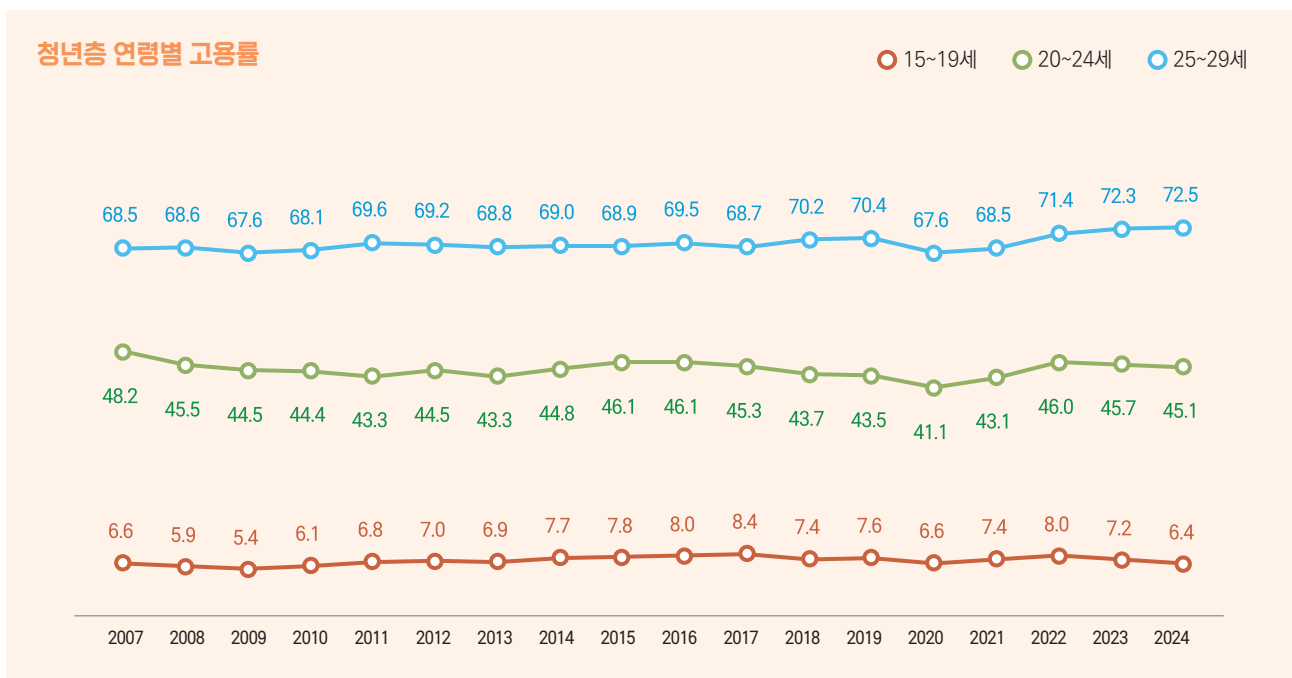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부터 세부 연령대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인다.

-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20년부터 상승하여 '24년 72.5%로 최고 수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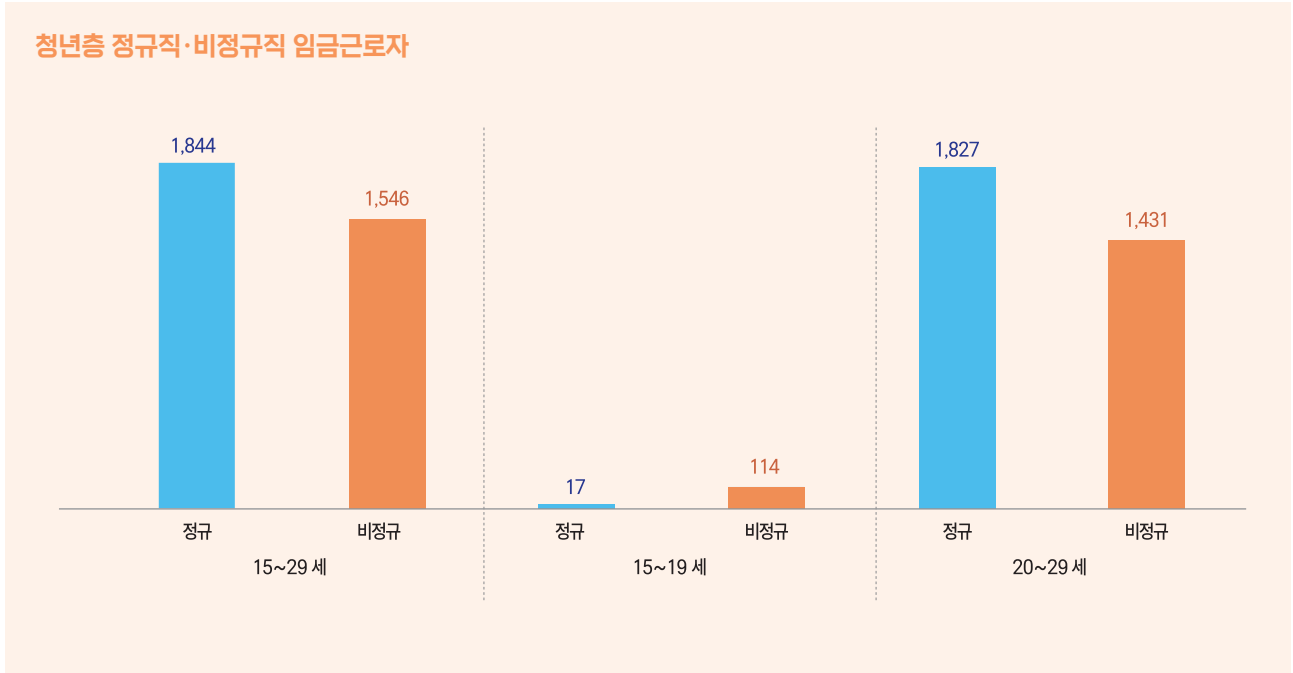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청년층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2024년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54.8%, 비정규직은 45.2%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10대 후반의 비정규직 비율은 87.2%로 20대 비정규직 비율 43.9%보다 현저히 높는데 그 이유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때문
-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21년이후 상승세를 보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청년층 정규직·비정규직 수 및 비중

		'18.8	'19.8	'20.8	'21.8	'22.8	'23.8	'24.8
15~29세	임금근로자	3,749	3,562	3,711	3,796	3,701	3,549	3,389
	정규	2,236	2,142	2,149	2,224	2,124	1,945	1,844
	비정규	1,513 (40.4)	1,421 (39.9)	1,561 (42.1)	1,573 (41.4)	1,577 (42.6)	1,604 (45.2)	1,546 (45.6)
15~19세	임금근로자	194	164	174	184	173	159	131
	정규	42	25	26	25	19	16	17
	비정규	151 (78.0)	138 (84.5)	148 (85.1)	159 (86.4)	154 (88.9)	143 (90.0)	114 (87.2)
20~29세	임금근로자	3,555	3,399	3,537	3,613	3,528	3,389	3,258
	정규	2,194	2,116	2,124	2,199	2,105	1,929	1,827
	비정규	1,362 (38.3)	1,283 (37.7)	1,414 (40.0)	1,414 (39.1)	1,423 (40.3)	1,461 (43.1)	1,431 (43.9)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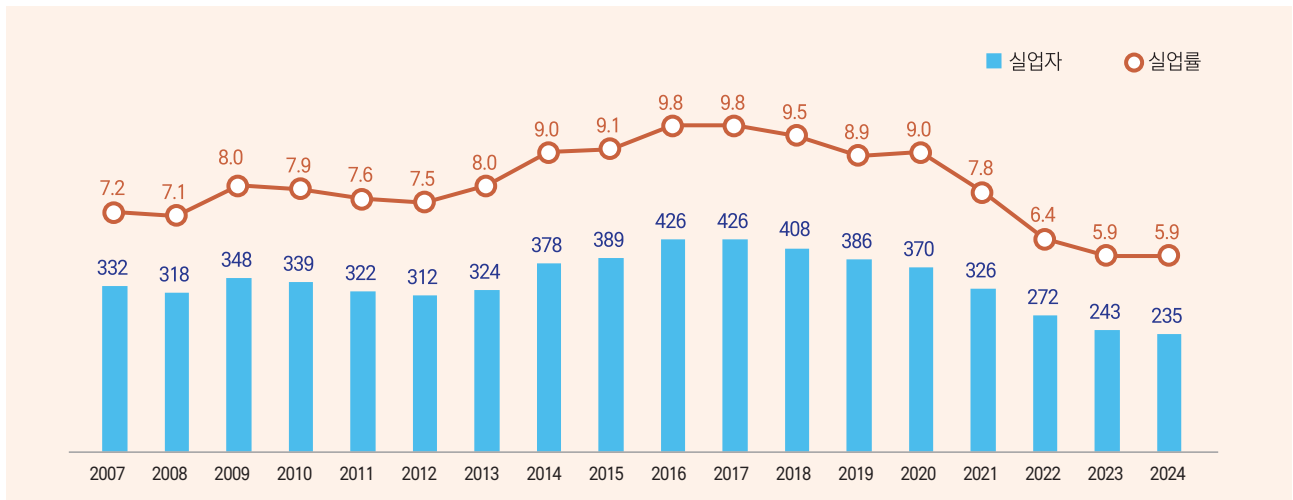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실업률

2024년 청년층 실업률은 5.9%로 '17년 9.8%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 청년층 실업자는 23만 5천명으로 청년인구 감소 및 고용률 상승 등에 따른 추세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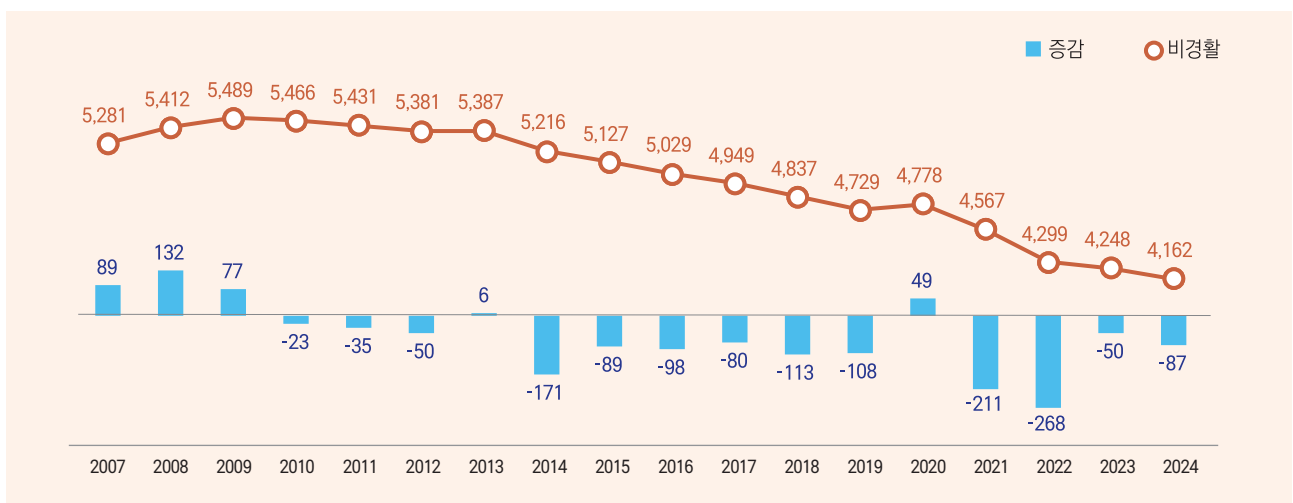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2020년 코로나19로 일시적 증가)하고 있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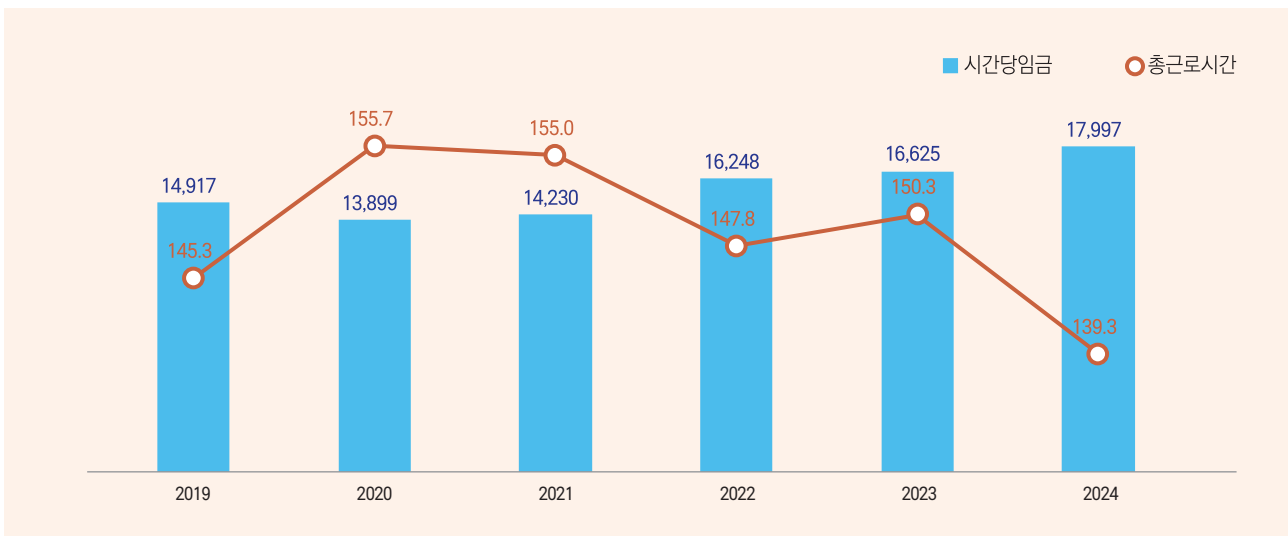
(단위: 천명)

청년 근로조건

취업자 및 고용률

2024년 청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7,997원이고 월 근로시간은 139.3시간이다.

- 청년층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25,156원의 71.5% 수준이며, 월근로시간은 전체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46.8시간보다 7.5시간 짧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19.6	'20.6	'21.6	'22.6	'23.6	'24.6
전 연령	시간당 임금	20,573	19,316	19,806	22,651	22,878	25,156
	월 근로시간	152.4	163.6	164.2	154.9	157.6	146.8
15~29세	시간당 임금	14,917	13,899	14,230	16,248	16,625	17,997
	월 근로시간	145.3	155.7	155.0	147.8	150.3	139.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시간)

참고

- 청년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¹⁾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6월): '22년(20) → '23년(21) → '24년(19)

취업 활동 과정

첫 취업 소요기간

2025년 청년들의 졸업 또는 중퇴 후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3개월이다.

	'16.5	'17.5	'18.5	'19.5	'20.5	'21.5	'22.5	'23.5	'24.5	'25.5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10.2	10.6	10.7	10.8	10.0	10.1	10.8	10.4	11.5	11.3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단위: 개월)

취업 경험 및 취업 소요기간 분포

취업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16.5	'17.5	'18.5	'19.5	'20.5	'21.5	'22.5	'23.5	'24.5	'25.5
취업 유경험자		4,033	4,101	4,140	4,168	4,070	4,056	4,117	3,947	3,765	3,607
임금 근로자		3,909	4,012	4,054	4,070	3,963	3,953	4,018	3,865	3,671	3,508
첫 취업 소요 기간	3개월 미만	1,998	2,006	2,011	2,015	1,950	1,874	1,967	1,890	1,750	1,608
	3~6개월 미만	511	542	487	522	532	556	482	457	412	400
	6개월~1년 미만	355	352	438	405	449	470	409	420	406	401
	1~2년 미만	420	465	468	476	471	464	528	507	491	496
	2~3년 미만	283	258	282	266	251	267	275	267	255	257
	3년 이상	343	389	368	387	309	323	358	324	357	346
비임금 근로자		124	89	86	98	107	103	99	82	94	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단위: 천명)



직업선택 기준

직업선택 기준으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보상	고용안정	성취	심신의 안녕	인정	지적추구
4.17	4.06	4.02	3.96	3.95	3.8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3년), 5점척도 (단위: 점)
 주) 청년패널조사 응답자 중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만19~28세) 대상이며, 횡단면 가중치 적용

취업 희망기업

청년들의 취업희망기업은 공공기관, 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순이다.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	일반중소기업	전문중소기업	창업
전체	23.9	34.2	3.1	25.6	9.6	3.6
남성	26.3	30.6	2.8	26.6	10.0	3.8
여성	21.0	38.7	3.4	24.4	9.1	3.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3년) (단위: %)
 주) 청년패널조사 응답자 중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만19~28세) 대상이며, 횡단면 가중치 적용

취업 애로사항

취업준비에서의 애로사항은 경력부족, 취업정보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 부족	적성파악 미흡	경력 부족	요구자격 부적합	수입·보수 부적합	근무환경 부적합	서류·면접 탈락부담	자격증 미보유	기타
전체	19.60	11.10	20.90	11.80	10.30	7.00	8.30	5.70	5.30
남성	20.00	10.60	20.00	12.40	10.90	7.50	8.00	5.90	4.70
여성	19.20	11.70	22.10	11.00	9.70	6.30	8.60	5.50	5.9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3년) (단위: %)
 주) 청년패널조사 응답자 중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만19~28세) 대상이며, 횡단면 가중치 적용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 여성

- ① 인구 및 노동력 현황
- ②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 ③ 여성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 ④ 여성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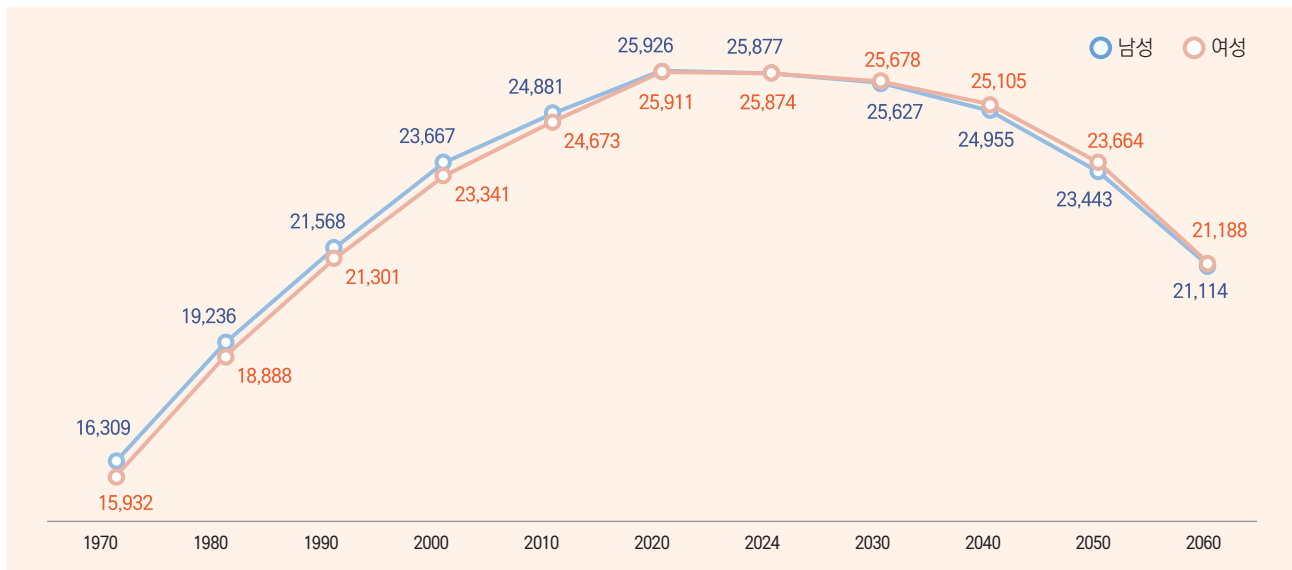


인구 및 노동력 현황

여성 인구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여성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부터는 남성인구를 초과하였다.

- 2019년 여성인구가 2,59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흐름을 보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4	2030	2040	2050	2060
전연령	남성	16,309	19,236	21,568	23,667	24,881	25,926	25,877	25,627	24,955	23,443	21,114
	여성	15,932	18,888	21,301	23,341	24,673	25,911	25,874	25,678	25,105	23,664	21,188
14세 이하	남성	7,113	6,708	5,708	5,245	4,156	3,241	2,813	2,129	1,982	1,917	1,498
	여성	6,596	6,243	5,266	4,667	3,823	3,065	2,672	2,031	1,897	1,834	1,435
15~64세	남성	8,787	11,984	15,039	17,122	18,531	19,164	18,677	17,636	15,099	12,789	10,782
	여성	8,753	11,733	14,662	16,580	17,677	18,215	17,651	16,529	13,930	11,659	9,905
65세 이상	남성	408	545	822	1,300	2,194	3,521	4,387	5,862	7,874	8,738	8,834
	여성	583	911	1,373	2,095	3,172	4,631	5,551	7,118	9,277	10,170	9,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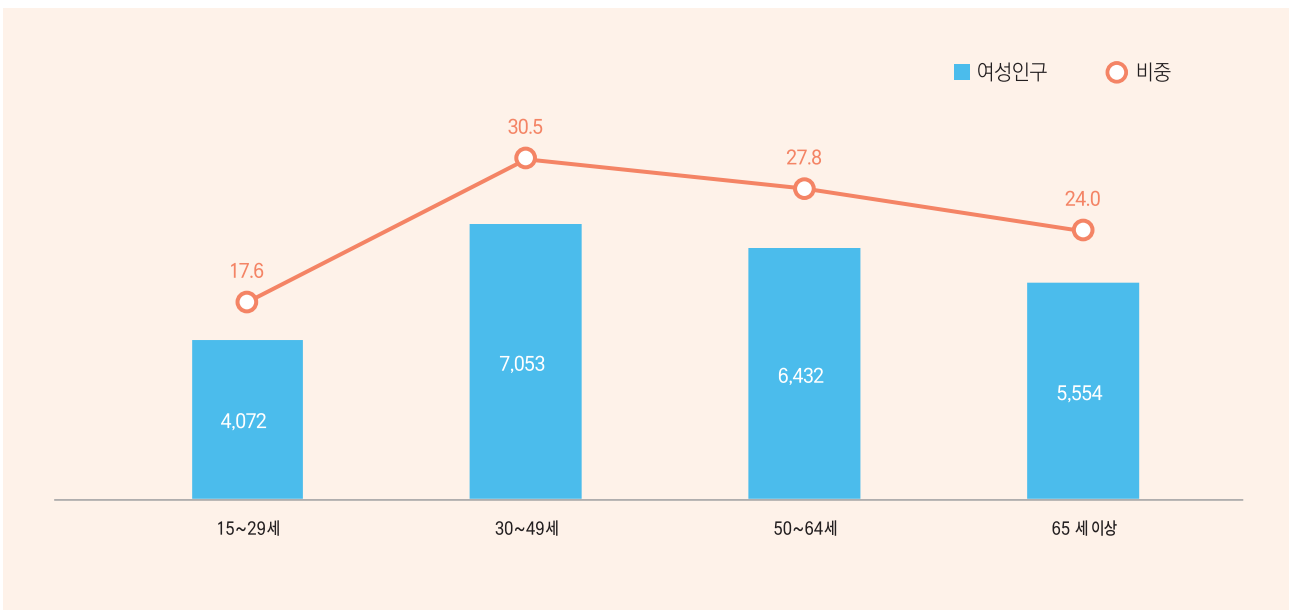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단위: 천명)

여성 노동력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4년 15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은 50.7%이다.

- 여성인구 중 15~29세는 17.6%, 30~49세는 30.5%, 50~64세는 27.8%, 65세 이상은 24.0%를 차지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2024년	합 계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45,570	23,111	4,072	7,053	6,432	5,554	
15세이상인구	(100.0)	(50.7)	[17.6]	[30.5]	[27.8]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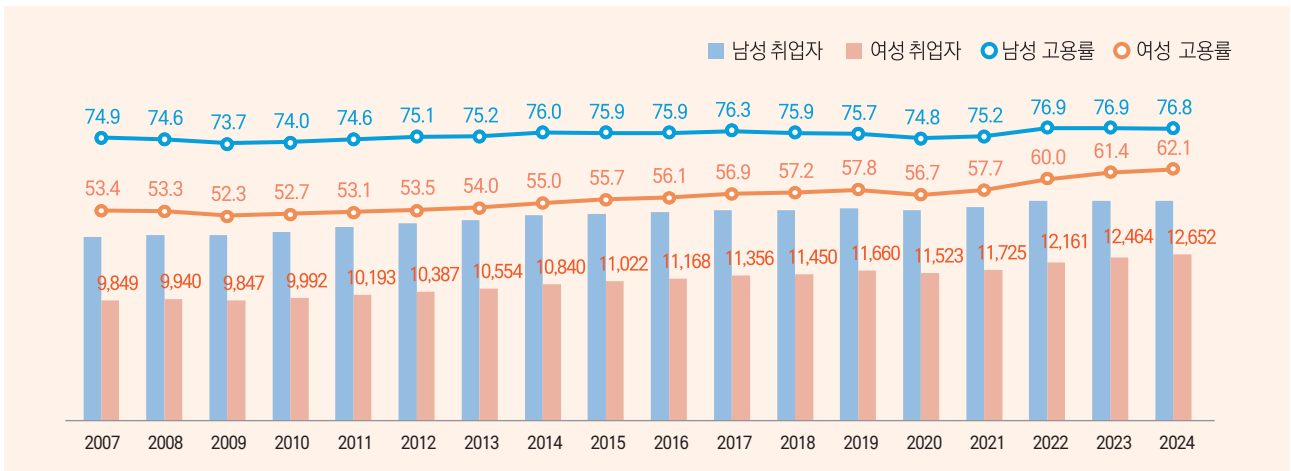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 전체인구 대비 비중, [] 여성인구 대비 비중 (단위: 천명,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인구는 인구추계의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숙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2024년 15세이상의 여성 취업자는 1,265만명이며, 15~64세 고용률은 62.1%이다.

- 여성취업자와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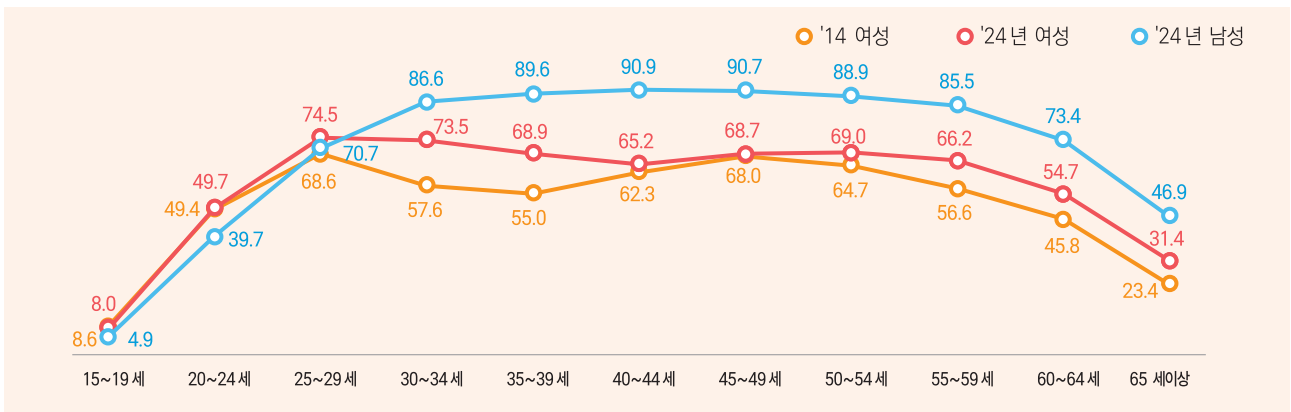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는 15세이상, 고용률은 15~64세 기준

(단위: 천명, %)

연령별 여성 고용률(M-커브)

성별로 5세 단위의 고용률 그래프를 그리면 여성은 M-커브형, 남성은 Arch형으로 나타난다.

- 여성의 고학력화, 남성의 군복무 등으로 2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률이 높음
- 30대에는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고용률이 하락하며 40대 초반에 저점을 찍어 M-커브 모양을 보임
- 여성의 '14년 M-커브와 '24년 M-커브를 비교해 보면, 만혼, 저출산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M-커브의 저점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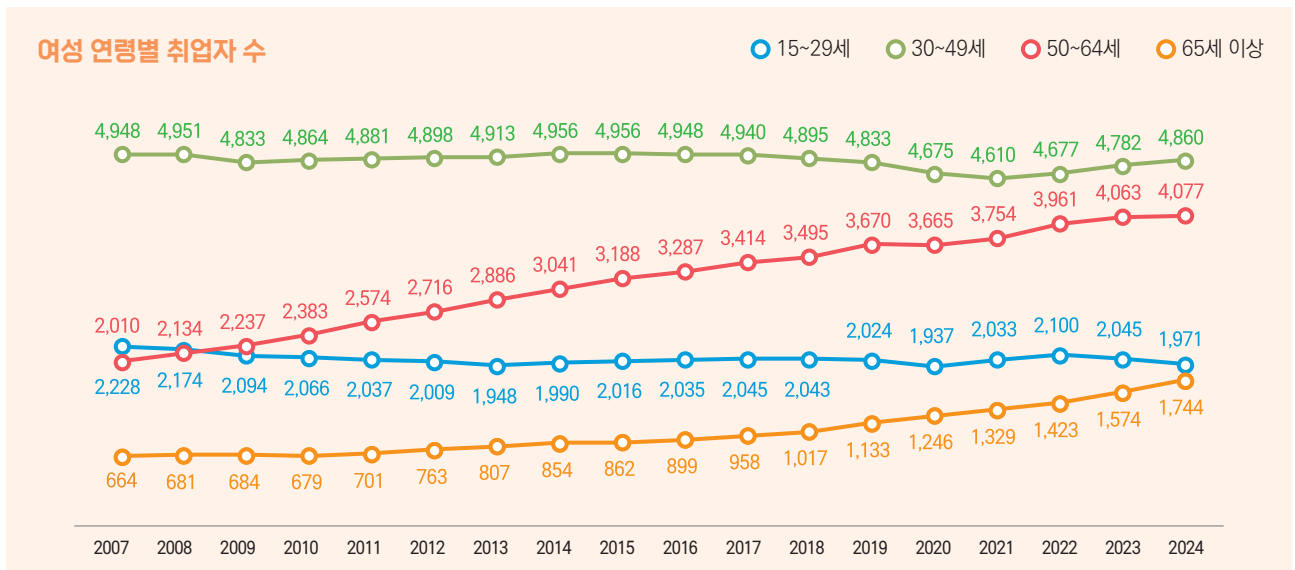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14년, '24년)

(단위: %)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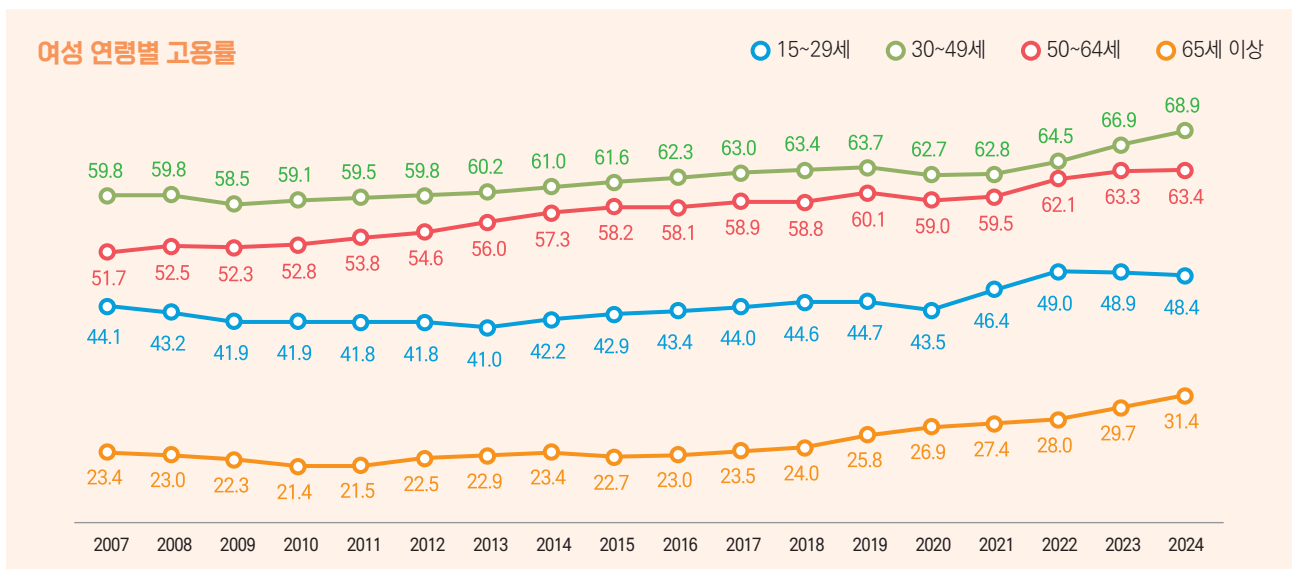
2024년 여성 취업자 중 30~49세 연령의 취업자는 486만명이고 고용률은 68.9%로 가장 높다.

- 인구고령화로 65세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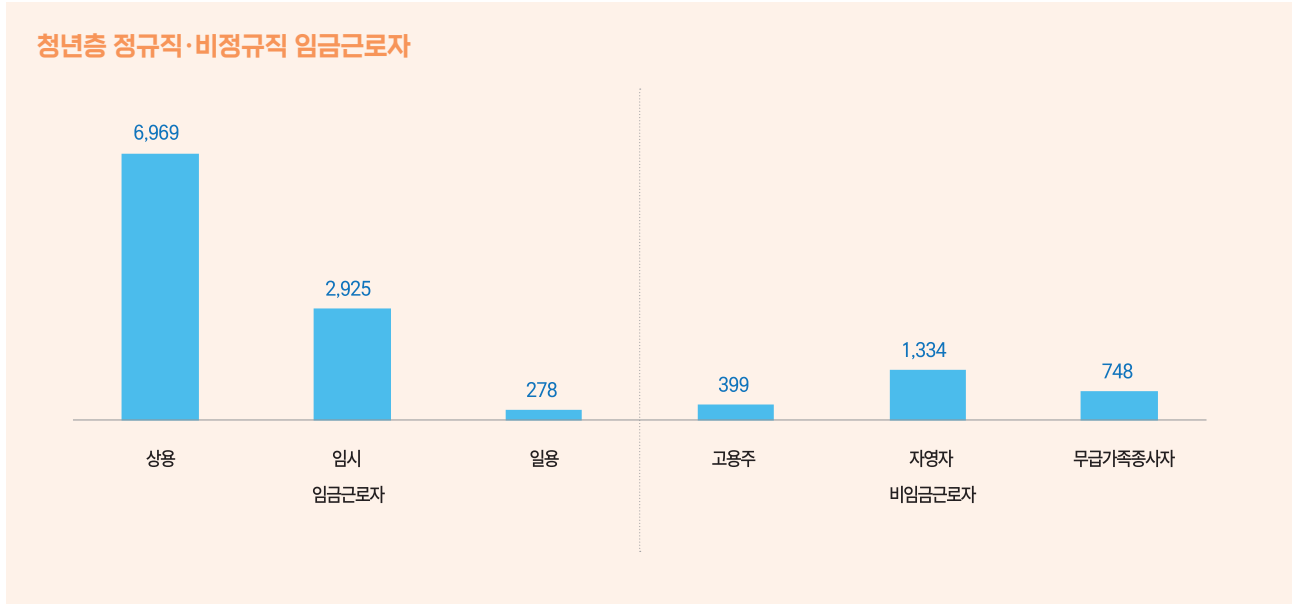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024년 여성 취업자 중 상용직은 55.1%, 임시,일용은 25.3%,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는 19.6%를 차지한다.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음



	'19	'20	'21	'22	'23	'24
전 체	11,660 (100.0)	11,523 (100.0)	11,725 (100.0)	12,161 (100.0)	12,464 (100.0)	12,652 (100.0)
임금근로자	9,085 (77.9)	9,028 (78.3)	9,312 (79.4)	9,694 (79.7)	9,976 (80.0)	10,172 (80.4)
상용	5,680 (48.7)	5,855 (50.8)	6,092 (52.0)	6,523 (53.6)	6,853 (55.0)	6,969 (55.1)
임시	2,901 (24.9)	2,730 (23.7)	2,856 (24.4)	2,848 (23.4)	2,803 (22.5)	2,925 (23.1)
일용	504 (4.3)	443 (3.8)	363 (3.1)	323 (2.7)	320 (2.6)	278 (2.2)
비임금근로자	2,575 (22.1)	2,495 (21.7)	2,413 (20.6)	2,467 (20.3)	2,488 (20.0)	2,480 (19.6)
자영업자	1,641 (14.1)	1,611 (14.0)	1,564 (13.3)	1,659 (13.6)	1,711 (13.7)	1,733 (13.7)
고용주	405 (3.5)	364 (3.2)	342 (2.9)	387 (3.2)	394 (3.2)	399 (3.2)
자영업자	1,236 (10.6)	1,247 (10.8)	1,222 (10.4)	1,272 (10.5)	1,317 (10.6)	1,334 (10.5)
무급가족종사자	935 (8.0)	884 (7.7)	850 (7.2)	807 (6.6)	777 (6.2)	748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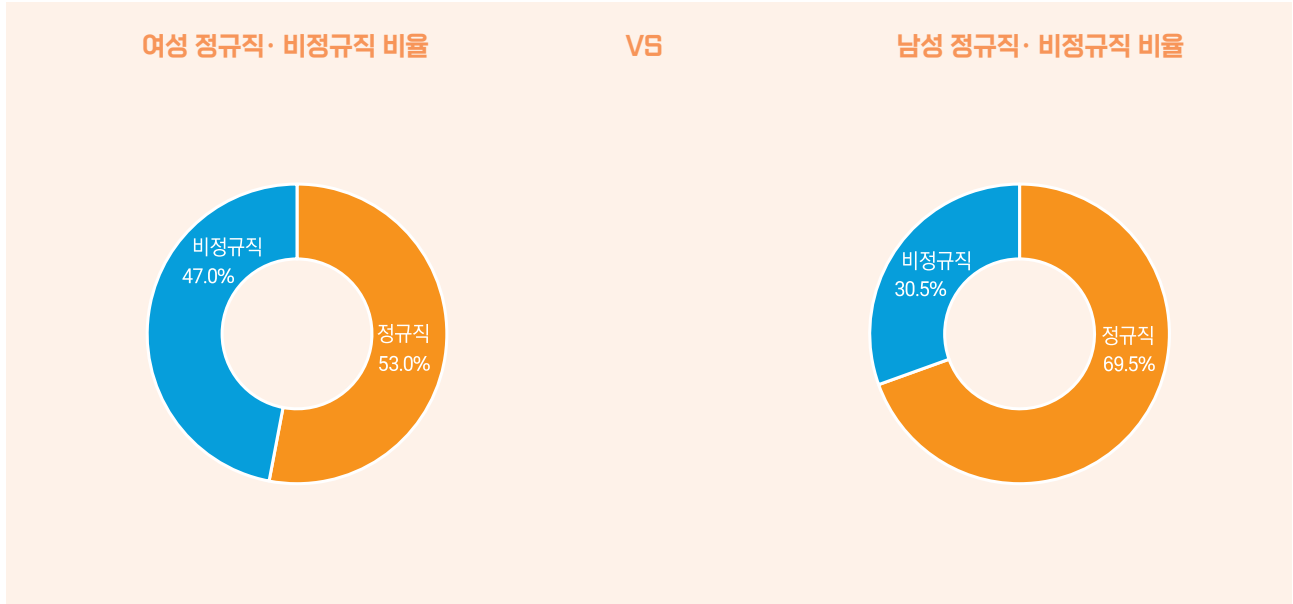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단위: 천명, %)

여성의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2025년 8월 기준 여성 정규직 비율이 53.0%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47.0%로 소폭 감소했다.

- 남성과 비교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여성	'19.8	'20.8	'21.8	'22.8	'23.8	'24.8	'25.8
임금근로자	9,163 (100.0)	9,085 (100.0)	9,476 (100.0)	9,788 (100.0)	10,027 (100.0)	10,235 (100.0)	10,460 (100.0)
정규	5,038 (55.0)	4,994 (55.0)	4,985 (52.6)	5,285 (54.0)	5,462 (54.5)	5,392 (52.7)	5,543 (53.0)
비정규	4,125 (45.0)	4,091 (45.0)	4,491 (47.4)	4,503 (46.0)	4,565 (45.5)	4,844 (47.3)	4,918 (47.0)
한시적	2,547	2,529	2,938	2,980	2,910	3,158	3,278
- 기간제	2,013	2,133	2,573	2,585	2,649	2,786	3,018
시간제	2,310	2,337	2,502	2,562	2,731	3,016	3,042
비전형	920	861	936	922	866	838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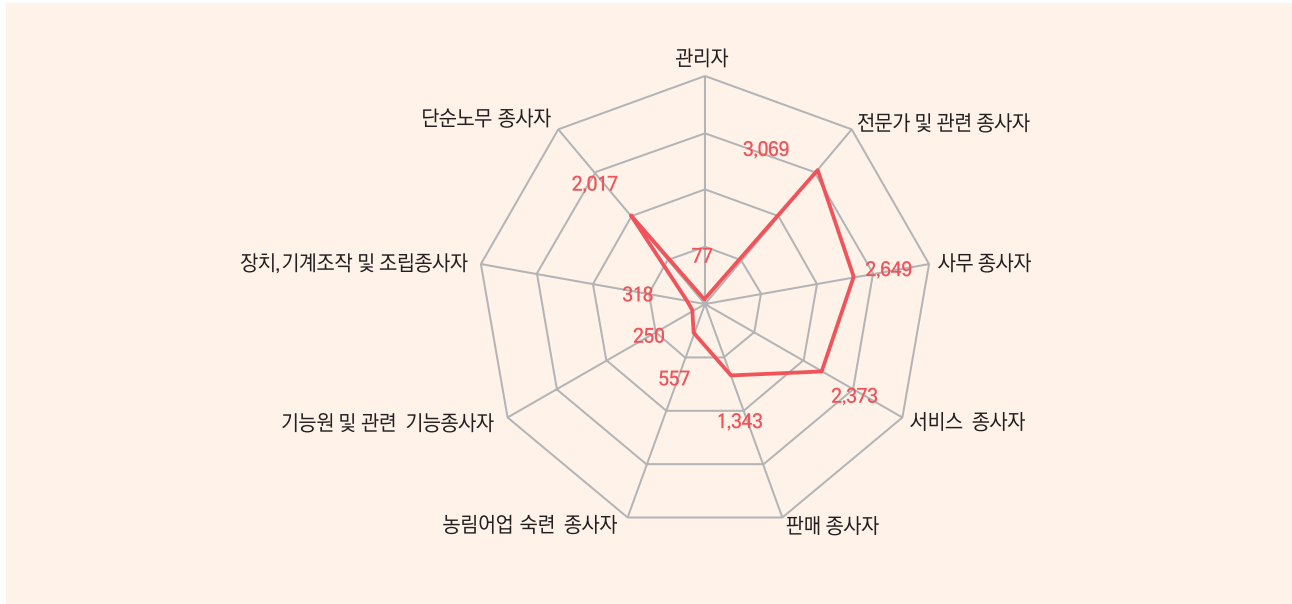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단위: 천명, %)

직종별 취업자

2024년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 여성관리자는 0.6% 수준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



	'20	'21	'22	'23	'24
전체	11,523 (100.0)	11,725 (100.0)	12,161 (100.0)	12,464 (100.0)	12,652 (100.0)
관리자	62 (0.5)	64 (0.5)	64 (0.5)	78 (0.6)	77 (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626 (22.8)	2,736 (23.3)	2,899 (23.8)	3,009 (24.1)	3,069 (24.3)
사무 종사자	2,377 (20.6)	2,428 (20.7)	2,513 (20.7)	2,575 (20.7)	2,649 (20.9)
서비스 종사자	2,030 (17.6)	2,020 (17.2)	2,121 (17.4)	2,278 (18.3)	2,373 (18.8)
판매 종사자	1,449 (12.6)	1,416 (12.1)	1,407 (11.6)	1,415 (11.4)	1,343 (10.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521 (4.5)	517 (4.4)	550 (4.5)	557 (4.5)	557 (4.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83 (2.5)	291 (2.5)	300 (2.5)	273 (2.2)	250 (2.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34 (2.9)	332 (2.8)	351 (2.9)	356 (2.9)	318 (2.5)
단순노무 종사자	1,841 (16.0)	1,923 (16.4)	1,957 (16.1)	1,923 (15.4)	2,017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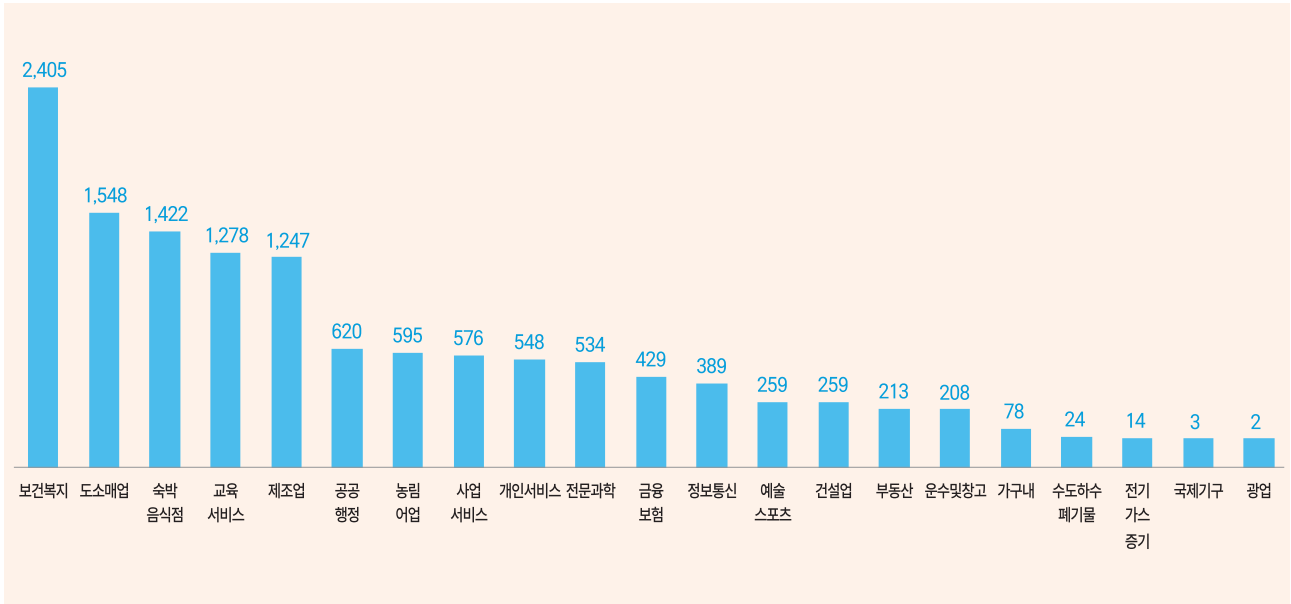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대비 비중
 주) 한국표준직업분류 8차개정(2024년) 기준

(단위: 천명, %)

산업별 취업자

2024년 여성 취업자는 보건복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순으로 많다.

- 보건복지업은 여성 취업자 규모가 가장 크고, 여성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	'21	'22	'23	'24
전 산업	11,523 (100.0)	11,725 (100.0)	12,161 (100.0)	12,464 (100.0)	12,652 (100.0)
농림어업	570 (4.9)	562 (4.8)	594 (4.9)	592 (4.7)	595 (4.7)
광업	2 (0.0)	2 (0.0)	1 (0.0)	1 (0.0)	2 (0.0)
제조업	1,239 (10.8)	1,257 (10.7)	1,290 (10.6)	1,291 (10.4)	1,247 (9.9)
전기가스증기	13 (0.1)	15 (0.1)	16 (0.1)	17 (0.1)	14 (0.1)
수도하수폐기물	23 (0.2)	30 (0.3)	27 (0.2)	23 (0.2)	24 (0.2)
건설업	208 (1.8)	215 (1.8)	236 (1.9)	257 (2.1)	259 (2.0)
도소매업	1,604 (13.9)	1,540 (13.1)	1,545 (12.7)	1,584 (12.7)	1,548 (12.2)
운수 및 창고	189 (1.6)	198 (1.7)	202 (1.7)	187 (1.5)	208 (1.6)
숙박음식점	1,323 (11.5)	1,284 (11.0)	1,333 (11.0)	1,384 (11.1)	1,422 (11.2)
정보통신	226 (2.0)	283 (2.4)	325 (2.7)	349 (2.8)	389 (3.1)
금융보험	403 (3.5)	424 (3.6)	407 (3.3)	414 (3.3)	429 (3.4)
부동산	197 (1.7)	203 (1.7)	213 (1.8)	216 (1.7)	213 (1.7)
전문과학	410 (3.6)	440 (3.8)	482 (4.0)	504 (4.0)	534 (4.2)
사업서비스	575 (5.0)	593 (5.1)	606 (5.0)	595 (4.8)	576 (4.6)
공공행정	495 (4.3)	500 (4.3)	539 (4.4)	563 (4.5)	620 (4.9)
교육서비스	1,198 (10.4)	1,231 (10.5)	1,276 (10.5)	1,266 (10.2)	1,278 (10.1)
보건복지	1,912 (16.6)	2,079 (17.7)	2,229 (18.3)	2,348 (18.8)	2,405 (19.0)
예술스포츠	239 (2.1)	227 (1.9)	233 (1.9)	255 (2.0)	259 (2.0)
개인서비스	597 (5.2)	554 (4.7)	528 (4.3)	539 (4.3)	548 (4.3)
가구내	95 (0.8)	84 (0.7)	78 (0.6)	76 (0.6)	78 (0.6)
국제기구	6 (0.0)	4 (0.0)	2 (0.0)	4 (0.0)	3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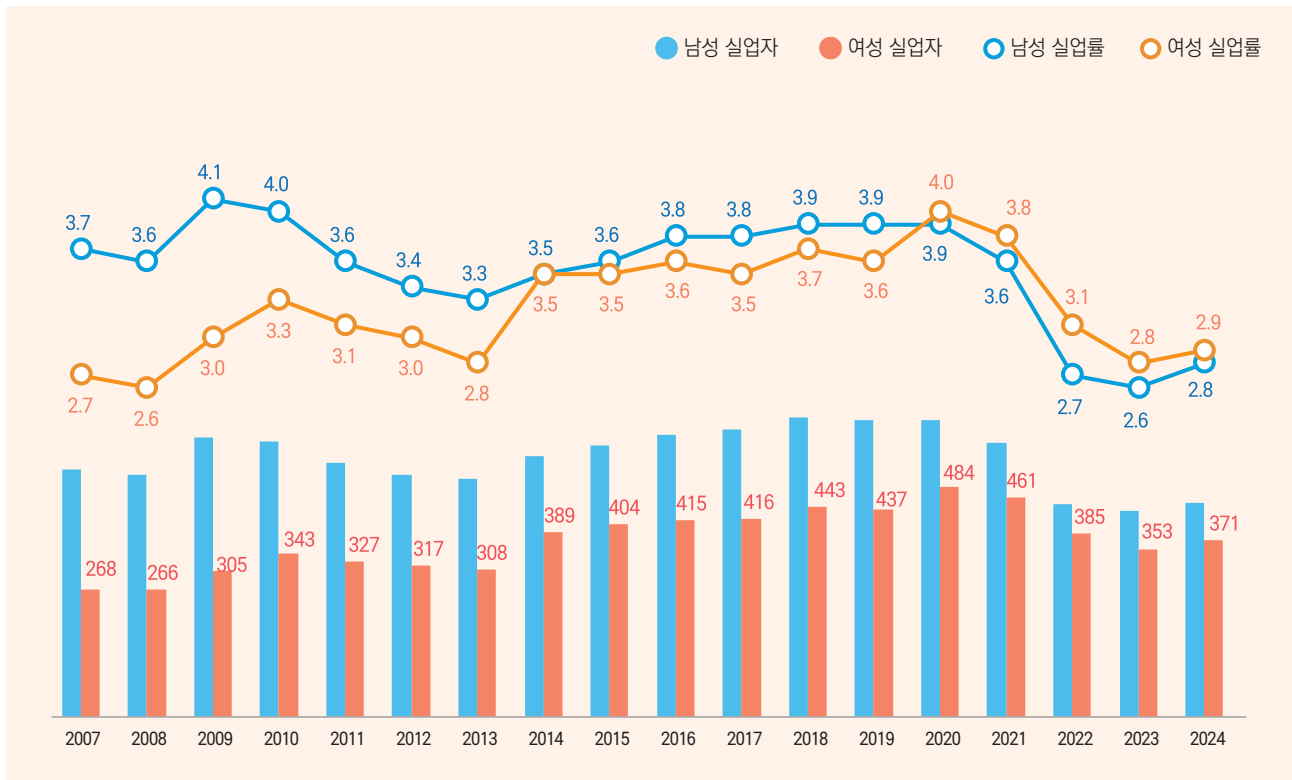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여성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실업률

2024년 여성 실업자는 37만명, 실업률은 2.9%다.

- '20년부터 여성실업률이 남성실업률을 소폭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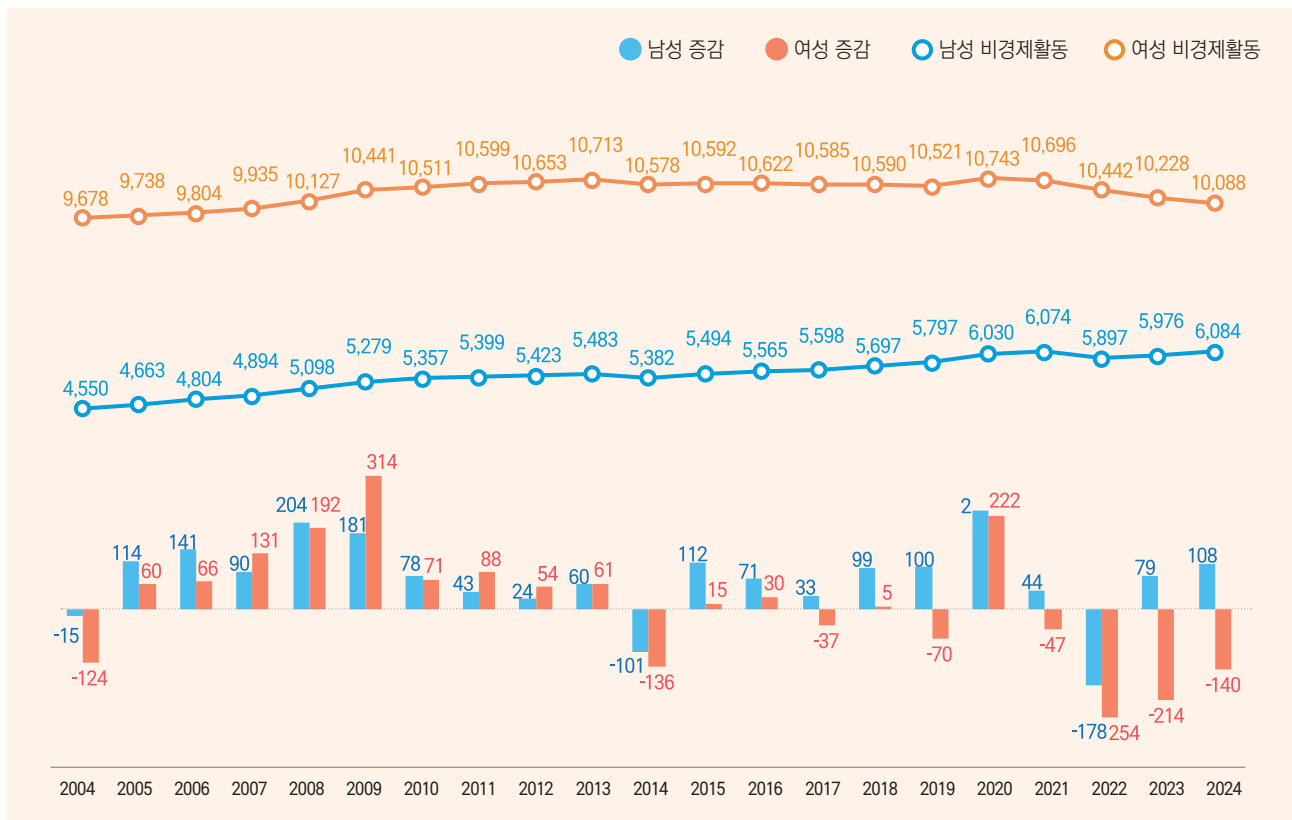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통상적으로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20년 이후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 (여성) '21년부터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 vs (남성) '23년부터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
-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98년 외환위기, '03년 카드대란, '09년 금융위기 시 남성보다 크게 증가 >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큰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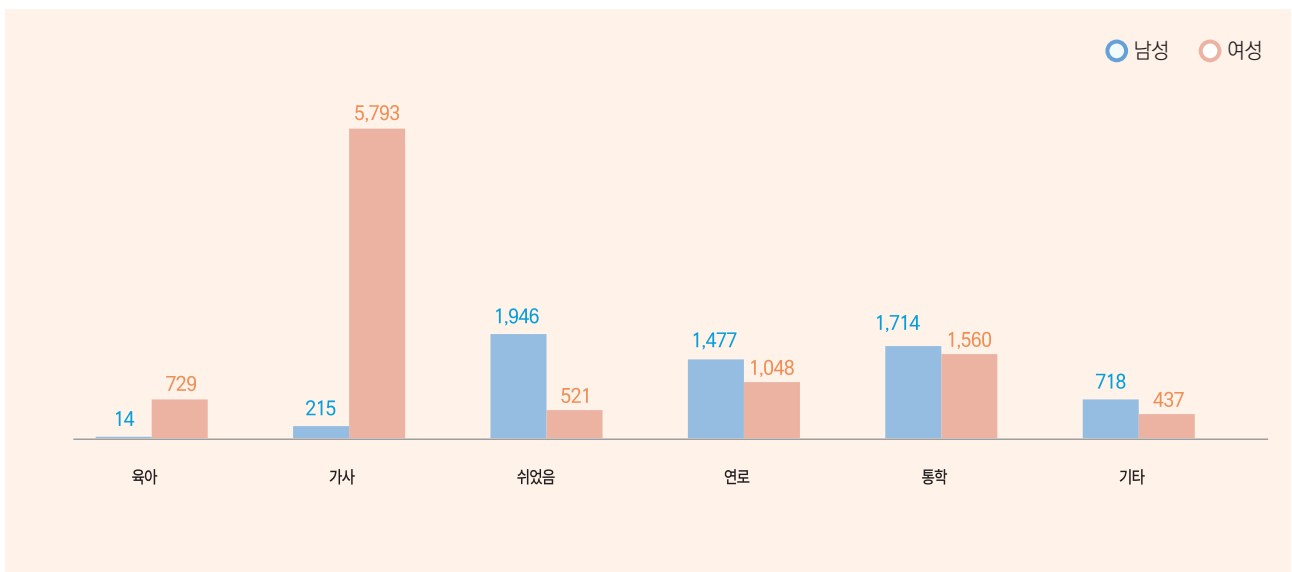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 사유

2024년 여성 비경제활동 사유를 보면, 가사가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통학, 연로 순이다.

- 성별 비교 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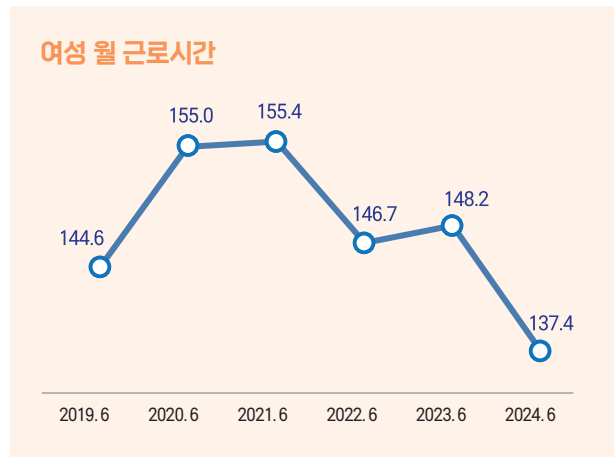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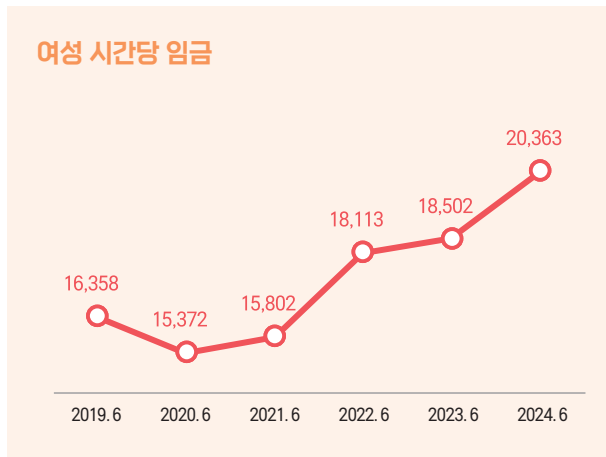
	비경제 활동인구 비경제	육아	가사	쉬었음	연로	통학	기타	
							취업준비	
전체	16,172 (100.0)	743 (4.6)	6,008 (37.2)	2,467 (15.3)	2,524 (15.6)	3,274 (20.2)	627 (3.9)	1,155 (7.1)
남성	6,084 (100.0)	14 (0.2)	215 (3.5)	1,946 (32.0)	1,477 (24.3)	1,714 (28.2)	365 (6.0)	718 (11.8)
여성	10,088 (100.0)	729 (7.2)	5,793 (57.4)	521 (5.2)	1,048 (10.4)	1,560 (15.5)	262 (2.6)	437 (4.3)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 연령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
 주)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수강 등을 포함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 기타 기관 수강(재학,수강)과 학원, 기관 외 취업준비의 합계(기타)
 (단위: 천명, %)

여성 근로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6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363원으로 남성(28,734원)의 70.9% 수준이고, 월 근로시간은 137.4시간으로 남성(153.8시간)보다 짧게 나타났다.



		'19.6	'20.6	'21.6	'22.6	'23.6	'24.6
시간당 임금	전체	20,573	19,316	19,806	22,651	22,878	25,156
	남성	23,566	22,086	22,632	25,886	26,042	28,734
	여성	16,358	15,372	15,802	18,113	18,502	20,363
월 근로시간	전체	152.4	163.6	164.2	154.9	157.6	146.8
	남성	157.9	169.5	170.4	160.8	164.4	153.8
	여성	144.6	155.0	155.4	146.7	148.2	137.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시간)

참고

- 여성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6월): '22년(20) → '23년(21) → '24년(19)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 장년(50세 이상)

- ① 인구 및 노동력 현황
- ② 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 ③ 장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 ④ 장년 근로조건
- ⑤ 정년 현황
- ⑥ 장년층 동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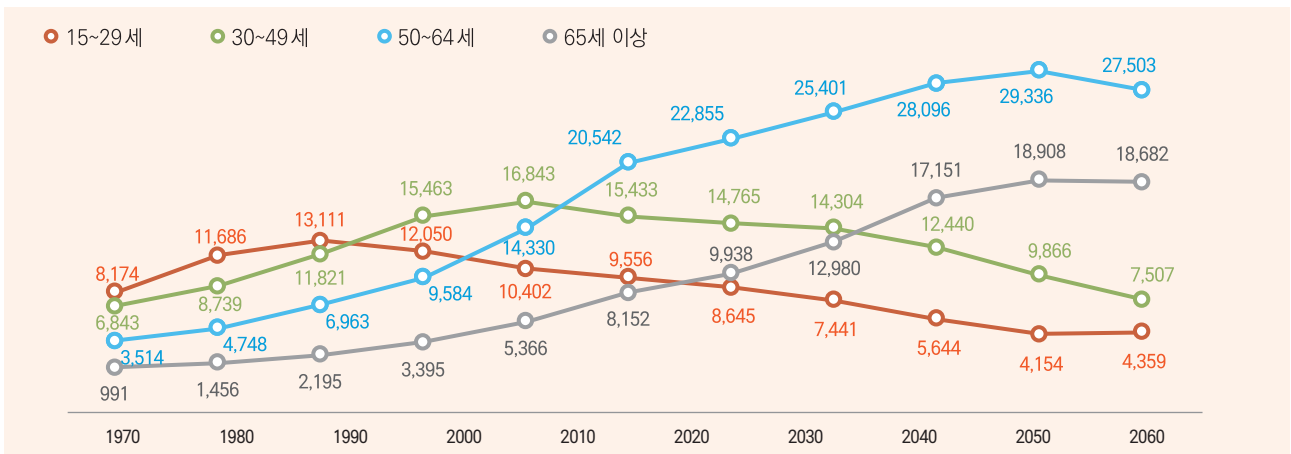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장년 인구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장년(50세이상)인구는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구 고령화로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향후 고령자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 > 고령사회) 18년 소요, (고령 > 초고령사회) 7년 소요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단위: 천명)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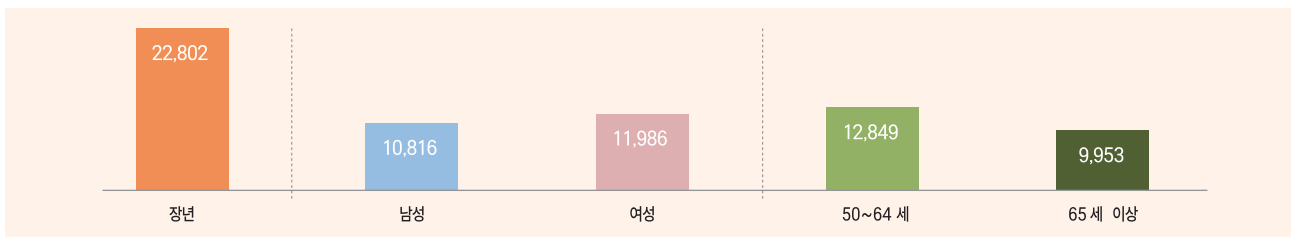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한국	2000년	18년	2018년	7년	2025년
일본	1970년	24년	1994년	11년	2005년
영국	1929년	46년	1975년	51년	2026년
미국	1942년	71년	2013년	15년	2028년
프랑스	1864년	126년	1990년	29년	2019년

자료: OECD, UN

주) 65세 이상인구의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14%를 넘으면 고령,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장년 노동력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4년 장년(50세이상) 인구는 2,280만명으로 여성 비율이 52.6%로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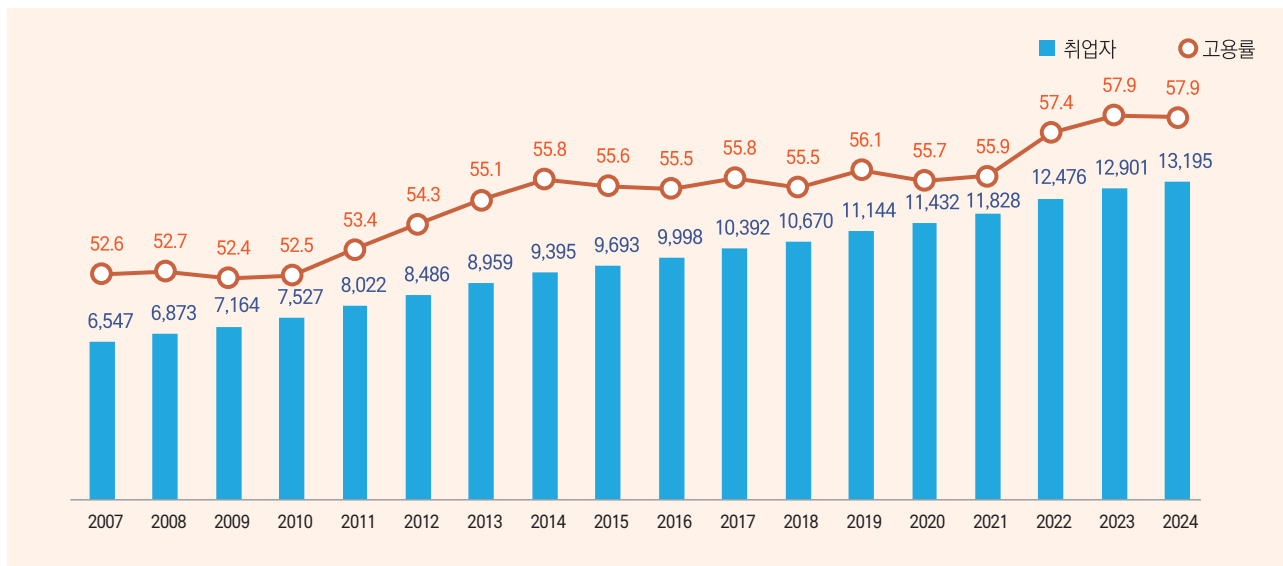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단위: 천명)

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2024년 장년(50세이상)인구 중 취업자는 1,320만명이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57.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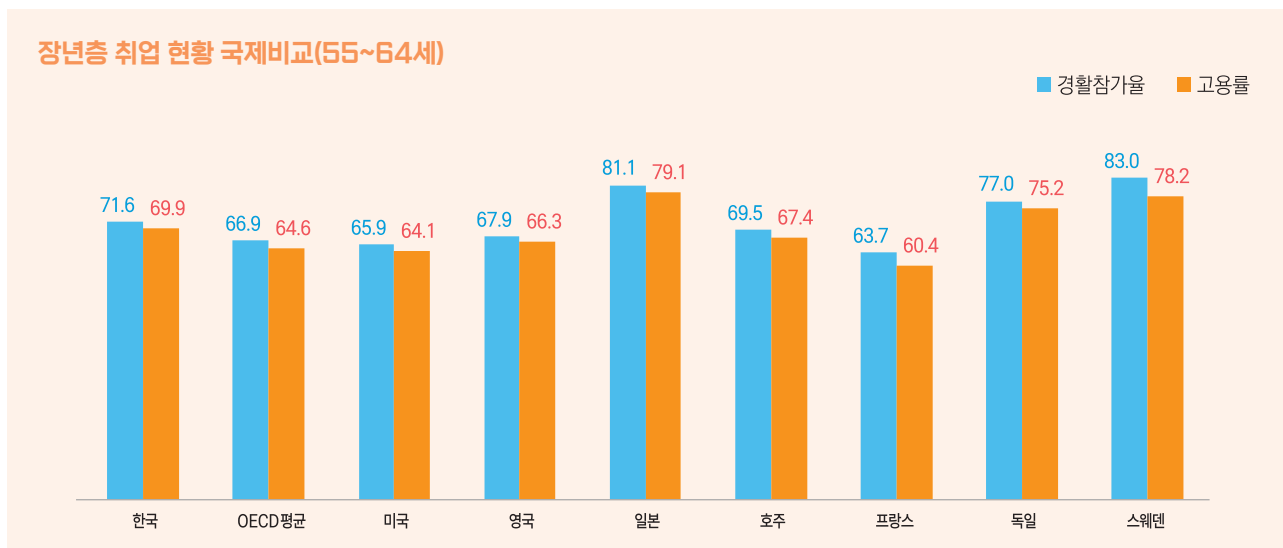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국제비교

2024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농업 및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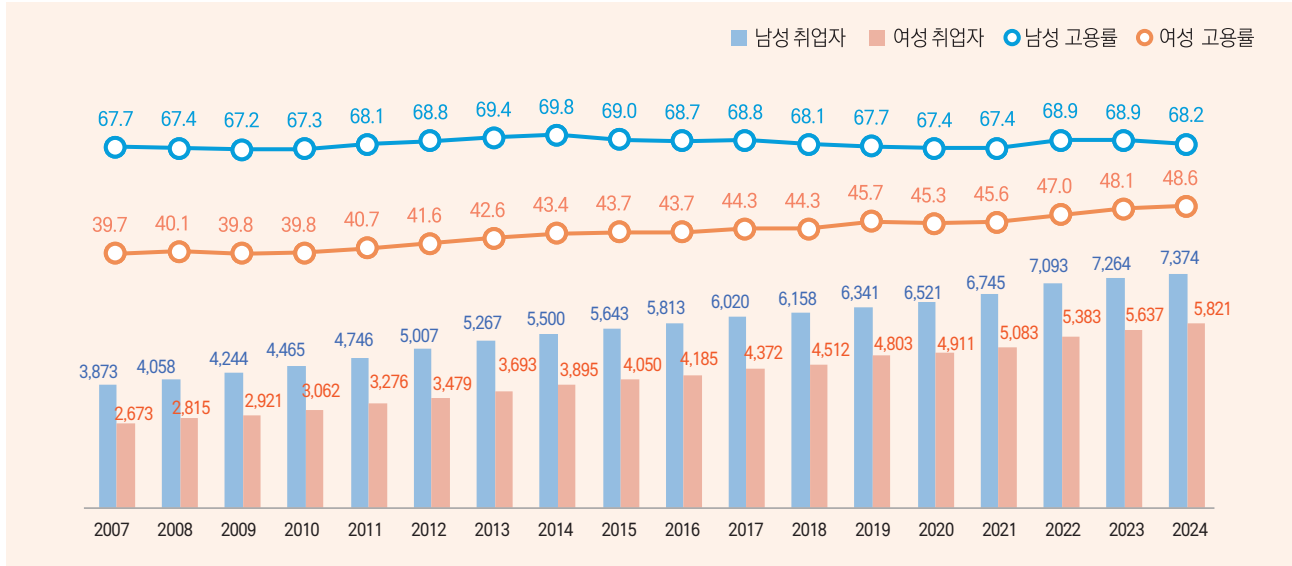
자료: OECD('24년)

(단위: %)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4년 장년층 남성취업자는 737만명, 고용률은 68.2%이고 여성취업자는 582만명, 고용률은 48.6%이다.

- 장년층 여성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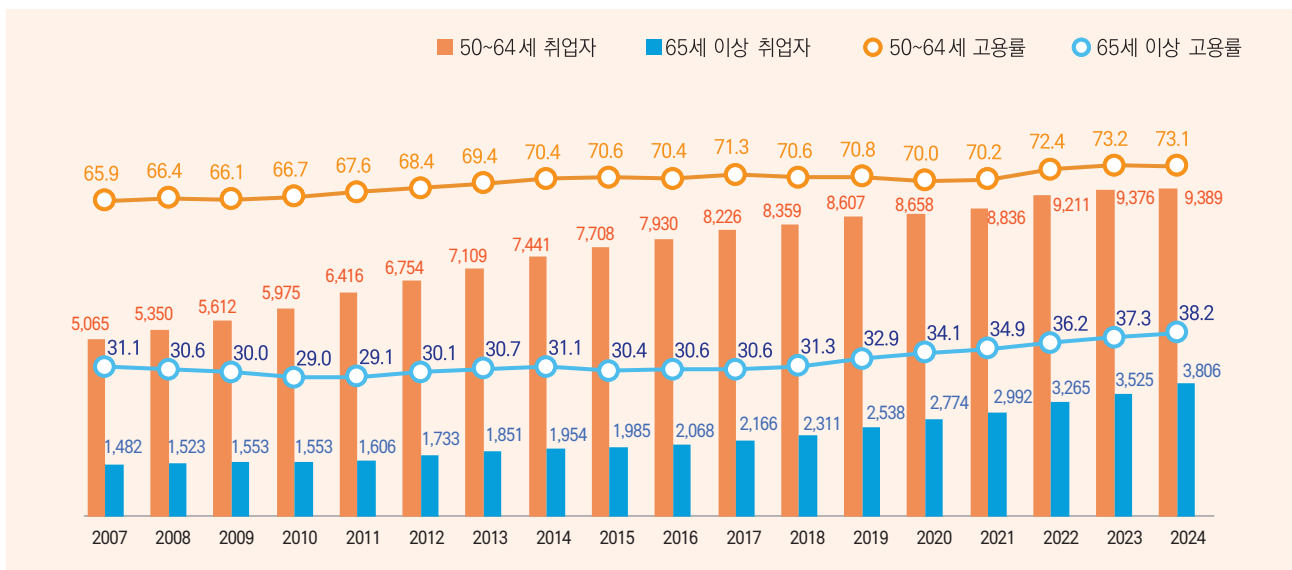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4년 50~64세 고용률은 73.1%로 전년대비 0.1%p 소폭 하락하였으나, 65세이상 고용률은 38.2%로 전년대비 0.9%p 상승하였다.

- 65세이상 고용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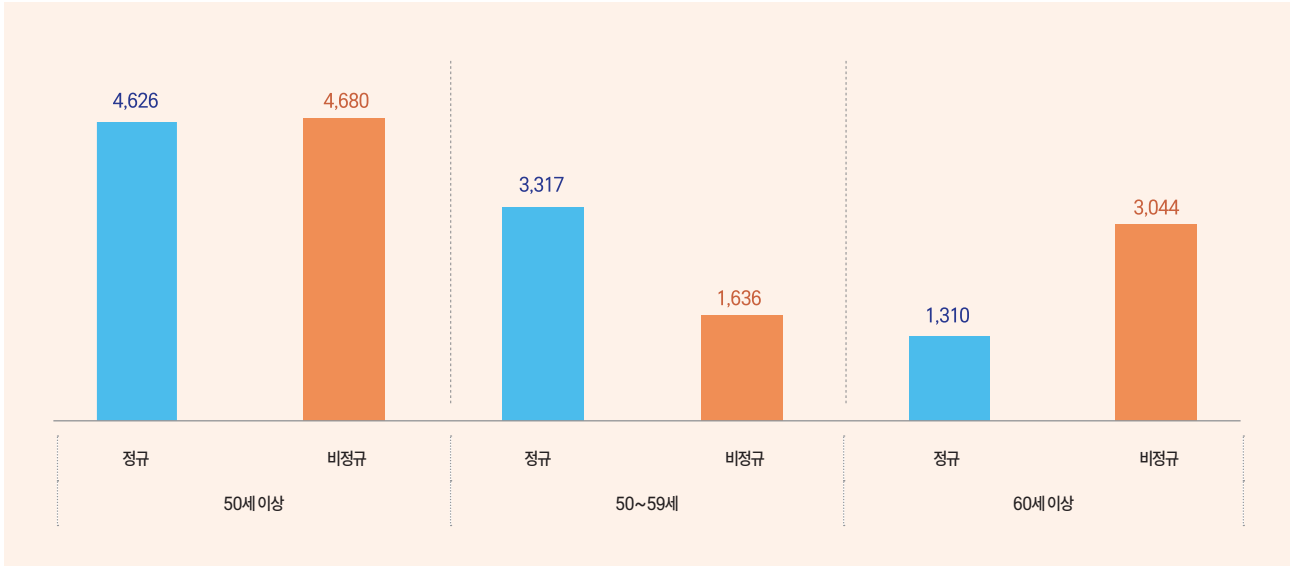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장년층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2025년 8월 장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49.7%, 비정규직은 5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60세이상의 비정규직 비중(69.9%)이 50대의 비정규직 비중(33.0%)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단위: 천명)

		'19.8	'20.8	'21.8	'22.8	'23.8	'24.8	'25.8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7,141	7,503	7,907	8,463	8,706	8,958	9,306
	정규	3,630	3,828	3,838	4,185	4,461	4,486	4,626
	비정규	3,511 (49.2)	3,675 (49.0)	4,070 (51.5)	4,278 (50.6)	4,246 (48.8)	4,472 (49.9)	4,680 (50.3)
50~59세	임금근로자	4,435	4,501	4,649	4,883	4,894	4,925	4,952
	정규	2,861	2,958	2,982	3,158	3,267	3,264	3,317
	비정규	1,574 (35.5)	1,543 (34.3)	1,667 (35.9)	1,725 (35.3)	1,627 (33.2)	1,661 (33.7)	1,636 (33.0)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2,706	3,002	3,259	3,580	3,812	4,033	4,354
	정규	769	870	856	1,026	1,193	1,222	1,310
	비정규	1,938 (71.6)	2,132 (71.0)	2,403 (73.7)	2,553 (71.3)	2,619 (68.7)	2,812 (69.7)	3,044 (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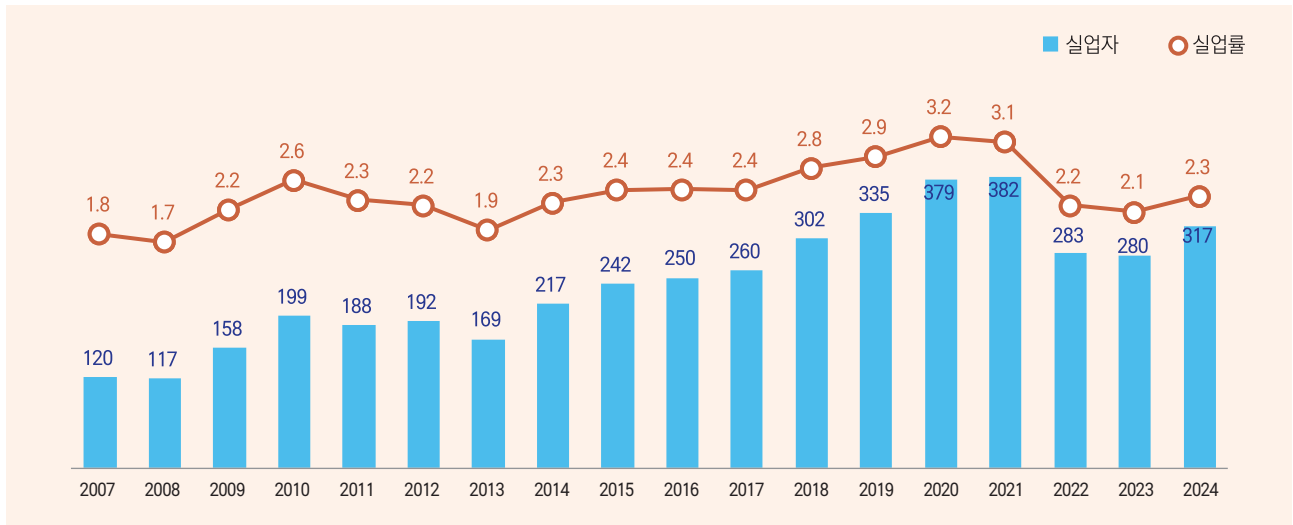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 ()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단위: 천명, %)

장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실업률

2024년 장년층 실업률은 2.3%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실업자는 31.7만명으로 전년대비 3.7만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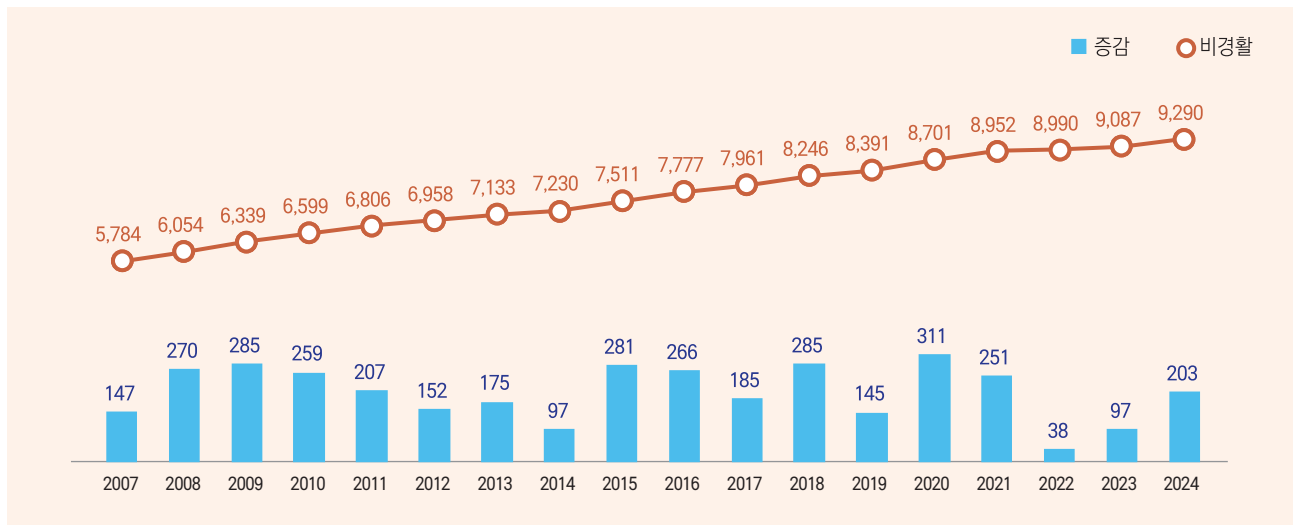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장년 노동력

2024년 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929만명으로 전년대비 20.3만명(2.2%) 증가하였다.

- 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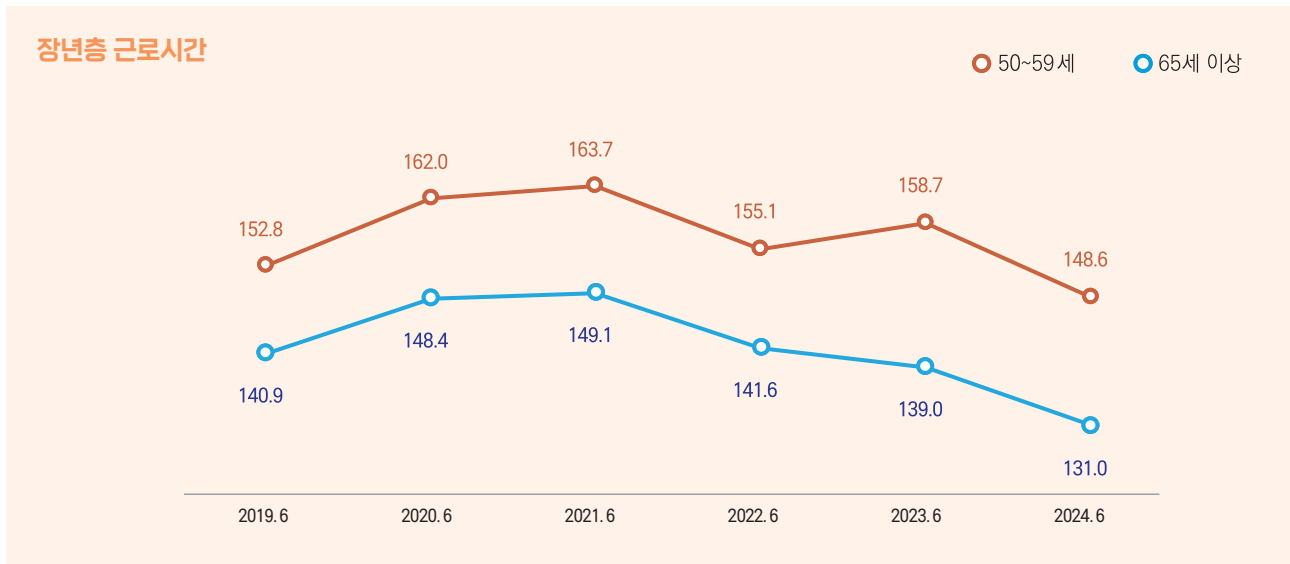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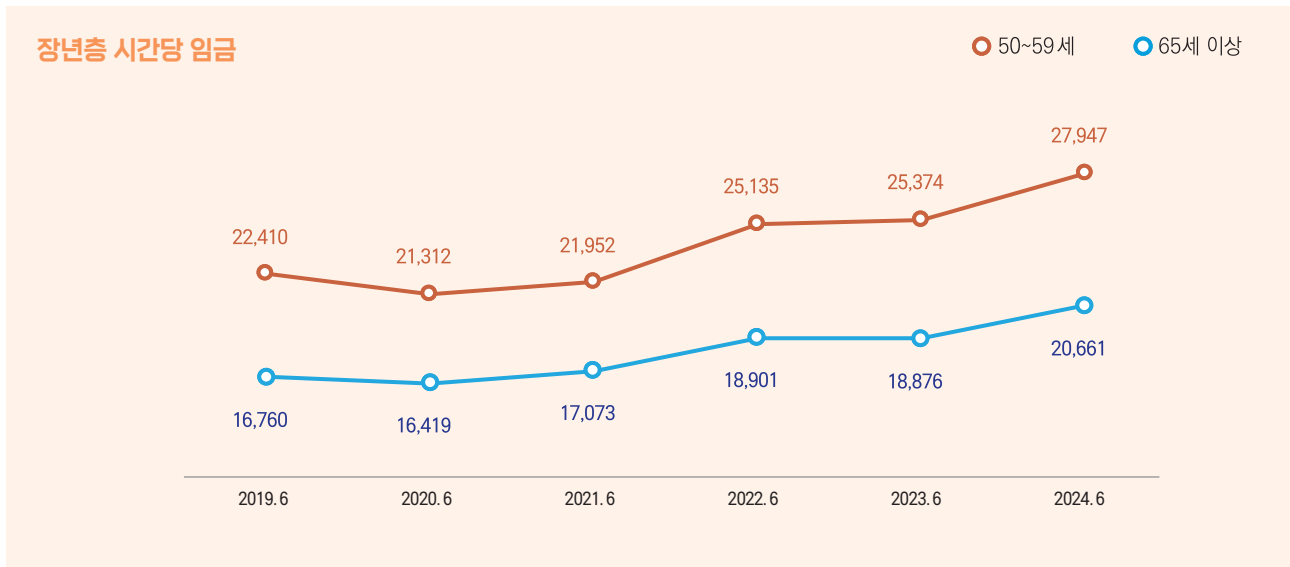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4년)

(단위: 천명)

장년 근로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장년 근로자는 50대가 60세이상보다 시간당임금도 높고, 월 근로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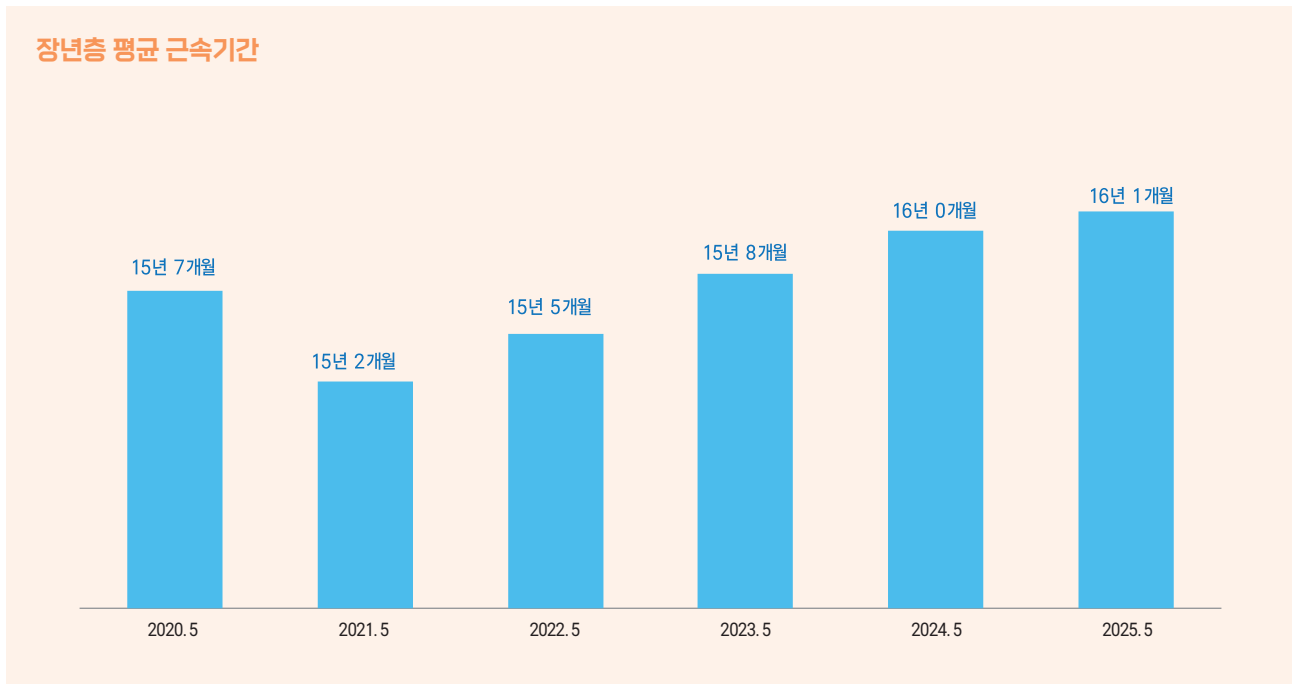
참고

- 장년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6월): '22년(20) → '23년(21) → '24년(19)

정년 현황

근속기간

2025년 5월 기준 55~64세 취업 유경험자들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근속기간은 16년 1개월이며, 10~20년 기간이 32.1%로 가장 많다.



	'20.5	'21.5	'22.5	'23.5	'24.5	'25.5
전 체	7,843 (100.0)	7,993 (100.0)	8,126 (100.0)	8,157 (100.0)	8,282 (100.0)	8,301 (100.0)
5년미만	1,222 (15.6)	1,287 (16.1)	1,216 (15.0)	1,137 (13.9)	1,117 (13.5)	1,097 (13.2)
5~10년미만	1,390 (17.7)	1,509 (18.9)	1,552 (19.1)	1,462 (17.9)	1,484 (17.9)	1,484 (17.9)
10~20년미만	2,353 (30.0)	2,407 (30.1)	2,465 (30.3)	2,638 (32.3)	2,667 (32.2)	2,663 (32.1)
20~30년미만	1,544 (19.7)	1,511 (18.9)	1,564 (19.3)	1,583 (19.4)	1,648 (19.9)	1,614 (19.4)
30년이상	1,335 (17.0)	1,280 (16.0)	1,329 (16.4)	1,337 (16.4)	1,368 (16.5)	1,443 (17.4)
평균 근속기간	15년 7개월	15년 2개월	15년 5개월	15년 8개월	16년 0개월	16년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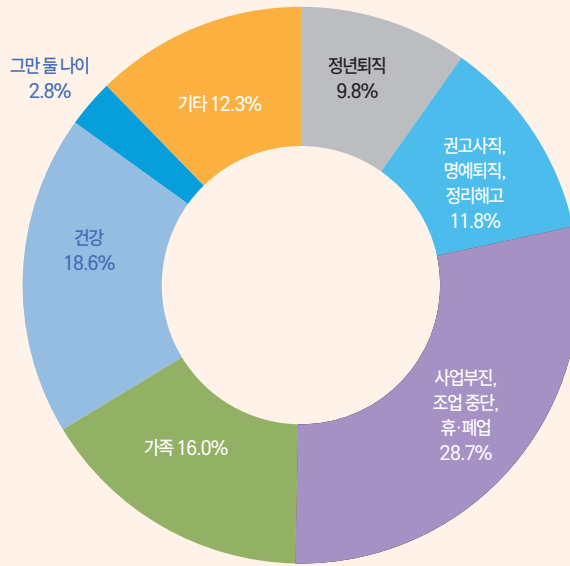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전년대비 비중
 주) 55~64세 인구 중 현재 취업자와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도 포함

(단위: 천명, %)

일 자리를 그만 둔 사유

2025년 5월 기준 가장 오래 근무한 일 자리를 그만 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 폐업',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직 연령은 49.2세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장년층 가장 오래 근무한 일 자리를 그만 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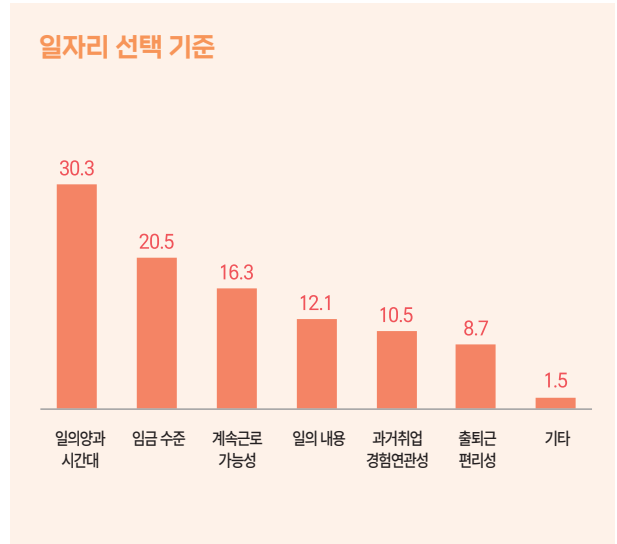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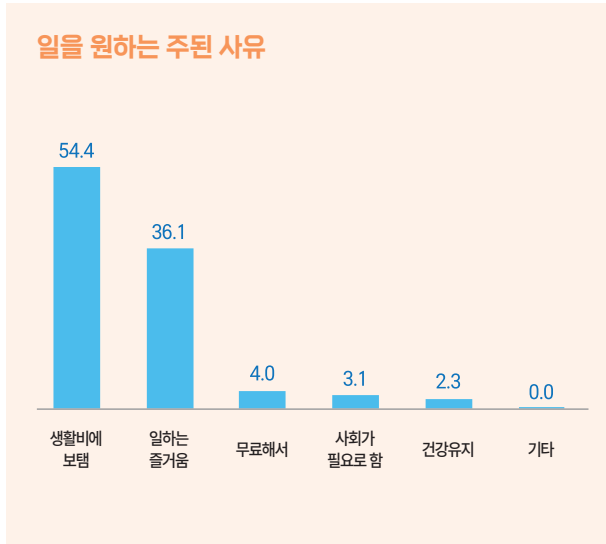
	'21.5		'22.5		'23.5		'24.5		'25.5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전 체	5,245	(100.0)	5,212	(100.0)	5,184	(100.0)	5,183	(100.0)	5,089	(100.0)
정년퇴직	394	(7.5)	417	(8.0)	443	(8.5)	482	(9.3)	498	(9.8)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639	(12.2)	569	(10.9)	588	(11.3)	605	(11.7)	602	(11.8)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1,733	(33.0)	1,611	(30.9)	1,565	(30.2)	1,509	(29.1)	1,461	(28.7)
가족을 돌보기 위해	738	(14.1)	788	(15.1)	767	(14.8)	818	(15.8)	815	(16.0)
건강이 좋지 않아서	987	(18.8)	996	(19.1)	997	(19.2)	990	(19.1)	947	(18.6)
일을 그만 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128	(2.4)	148	(2.8)	140	(2.7)	140	(2.7)	141	(2.8)
기타	627	(11.9)	683	(13.1)	685	(13.2)	640	(12.3)	625	(12.3)
평균 이직연령	49.3세		49.3세		49.4세		49.4세		49.2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 자리를 그만둔 사람
 주) 기타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기타

(단위: 천명, %)

희망일자리

2025년 5월 기준 55~79세 인구 중 69.4%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일을 원하는 주된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가장 컸으며,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가 주된 기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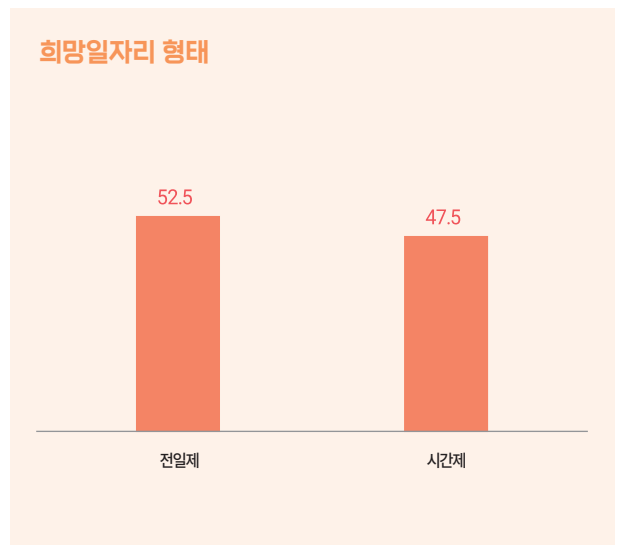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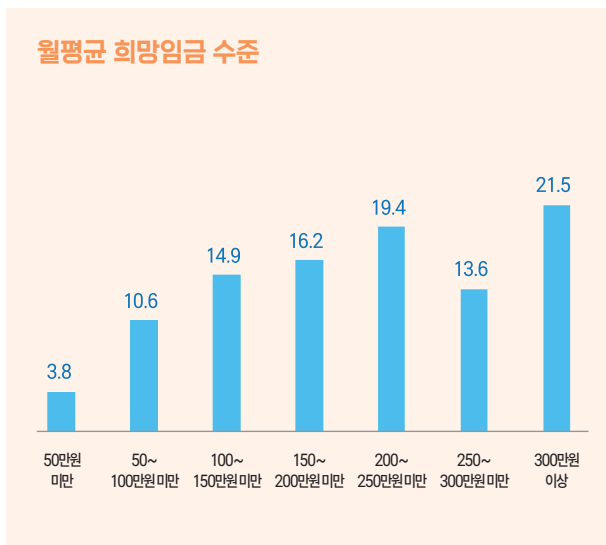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5.5월)

(단위: %)

희망 임금수준

2025년 5월 기준 55~79세 인구의 희망임금은 300만원 이상을 가장 많이 원했고 희망일자리 형태는 전일제 뿐만 아니라 시간제 역시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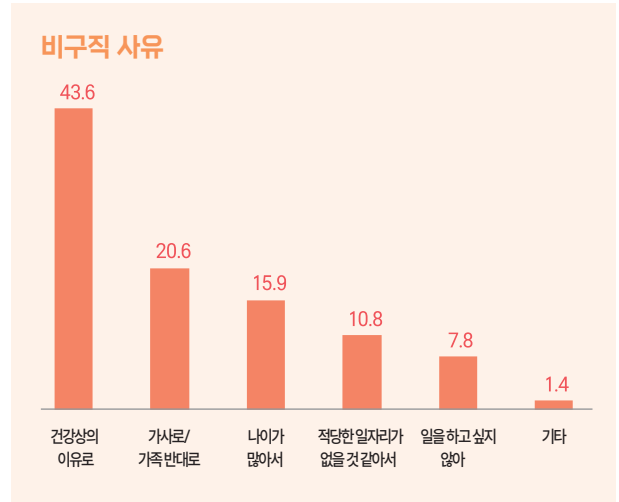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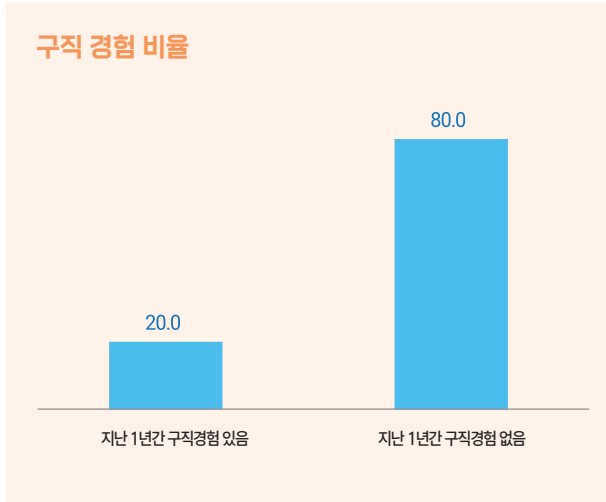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5.5월)

(단위: %)

구직경험 및 비구직사유 현황

55~79세 인구의 80%는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없으며, 비구직 미취업자의 비구직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가사 또는 가족의 반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5.5월)

(단위: %)

정년

2024년 단일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61.2세이다.

	'20.6	'21.6	'22.6	'23.6	'24.6
평균 정년	61.5	61.5	61.5	61.2	61.2
300인 미만 사업장	61.5	61.5	61.5	61.2	61.3
300인 이상 사업장	60.2	60.2	60.2	60.3	60.3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단일정년이 있는 사업장 기준

(단위: 세)

노동시장 은퇴

2022년 한국의 유효은퇴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평균보다 길게 나타났다.

		OECD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멕시코
남성	'12	62.8	67.8	62.2	66.4	61.3	62.6	59.3	67.5
	'22	60.7	63.7	68.3	65.4	66.9	63.2	65.2	64.4
여성	'12	62.0	66.4	63.0	64.2	61.1	61.7	59.5	64.5
	'22	62.2	63.4	67.0	67.4	65.6	62.8	65.3	63.1

자료: OECD

(단위: 세)

주) '유효 은퇴연령'은 OECD가 40세 이상 연령 계층의 5세 단위 구간별 경활참가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추정된 값

장년층 동태 분석

취업활동 상태 변동

2006년 당시 취업상태에 있던 장년층(45세이상) 중 2022년에도 취업상태인 비중은 53.9%이다.

그 중 동일직장 유지는 143만명(41.1%), 동일직장 유지 중 상용에서 임시, 일용으로 이동한 경우는 10.9%였다.

'06년 \ '22년	표본수 (가중치 적용)	전 체				
		취업자	동일직장 취업상태	일자리 이동	실업자	비경활
취업자('06년)	6,442,736[100]	3,472,721[53.9]	1,428,113	2,044,608	19,267[0.3]	2,950,749[45.8]
		(100.0)	(41.1)	(58.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단위: 명, %)
 주) 1차년도 취업 상태에 있는 3,922명 중 9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448명과 9차년도 종단가중 값이 결측치인 292명을 제외한 총 2,182명에 대해 가중치 부여

'06년 \ '22년	동일직장 취업 상태						
	상용	임시	일용	장기고정 기간근로자 (1년 이상)	단기임시 근로자 (3개월미만)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	87.7	10.4	0.5	0.9	0.5	0.0	0.0
임시	19.1	74.2	6.6	0.0	0.0	0.0	0.0
일용	2.7	12.6	84.7	0.0	0.0	0.0	0.0
자영업자	0.0	0.0	0.0	0.0	0.0	96.0	4.0
무급가족	0.0	0.0	0.0	0.0	0.0	30.5	69.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단위: %)
 주) 1차년도 동일직장 448명에 대해 가중치 부여, 1차년도 종사상지위 기준으로 100%

'06년 \ '22년	일자리 이동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	30.8	10.9	7.3	0.5	0.0
임시	19.8	13.0	17.1	4.0	0.0
일용	19.4	7.4	19.8	3.5	0.0
자영업자	17.1	7.7	6.8	1.3	0.4
무급가족	1.5	14.1	1.4	0.0	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단위: %)

주) 1차년도 일자리를 이동한 558명 중 응답거부 또는 무응답으로 응답한 17명을 제외한 총 541명에 대해 가중치 부여, 1차년도 종사상지위 기준으로 100%

직업 변동

일자리 이동한 장년층(45세이상) 중에서 이전 직업과 현직업이 동일한 경우는 ⑨단순노무,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④서비스근로자 순으로 높은 반면, ③사무직은 일자리 유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06년 \ '22년	직업 변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27.0	5.3	7.7	4.9	12.6	7.3	9.6	15.8	9.6
②	13.6	31.5	3.7	16.2	10.9	2.3	3.0	2.0	16.8
③	14.2	7.4	11.3	13.1	2.2	2.3	8.8	11.2	29.4
④	6.6	0.0	0.0	41.3	8.6	1.2	0.0	3.9	38.4
⑤	10.8	6.0	8.4	14.7	18.1	3.1	10.4	0.9	27.5
⑥	2.7	0.0	0.0	14.3	2.2	37.2	0.0	0.0	43.6
⑦	1.2	8.4	6.4	6.0	2.0	0.6	41.7	6.2	27.6
⑧	0.0	2.6	0.0	14.4	7.8	4.6	12.5	34.0	24.1
⑨	3.5	1.0	0.0	14.1	4.7	5.4	7.5	7.8	55.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단위: %)

주) ①관리자, ②(준)전문가, ③사무직, ④서비스근로자, ⑤판매근로자, ⑥농림어업 숙련근로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단순노무

산업 변동

일자리 이동에도 동일산업을 유지한 경우는 6개 산업 모두 30% 이상으로 나타난다. 장년층 구직자의 희망직종은 단순노무가 가장 많았다.

'06년 \ '22년	산업 변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①	53.9	0.0	8.0	10.6	0.0	27.4
②	1.5	31.0	8.8	7.5	6.8	44.3
③	5.4	0.0	39.1	14.7	12.9	28.0
④	3.0	4.5	9.8	39.8	8.5	34.4
⑤	6.6	1.6	3.8	10.0	39.5	38.6
⑥	5.1	2.8	8.1	14.7	4.1	65.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중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주) ①농림어업, ②제조업(광업 포함), ③건설업, ④도소매/음식/숙박업, ⑤전기/운수/통신/금융, ⑥기타서비스업

(단위: %)



산업 변동

장년층 구직자의 희망직종은 단순노무가 가장 많았고, 서비스가 그 다음 순이었다.

인적속성		희망직종	전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6.5	2.2	2.5	23.2	7.5	5.8	5.8	3.1	43.3
성별	남		12.2	1.4	3.5	15.2	3.8	6.6	12.6	7.3	37.4
	여		3.2	2.7	2.0	27.8	9.6	5.3	2.0	0.7	46.7
연령	55~59세		6.6	0.0	2.2	31.4	15.8	0.0	0.0	2.6	41.3
	60~64세		7.2	1.1	5.2	35.4	7.6	1.7	6.9	5.1	29.7
	65~69세		6.0	4.2	1.3	19.6	8.5	3.4	11.1	0.0	45.8
	70~74세		7.8	2.3	1.9	16.2	5.2	5.7	2.7	6.2	52.1
	75~79세		2.3	3.5	1.4	16.8	7.1	9.8	0.0	4.4	54.8
	80세이상		7.6	0.8	1.0	15.2	4.9	17.7	5.4	0.0	47.5
학력	초졸이하		3.9	2.6	0.6	16.6	5.2	15.3	2.2	0.0	53.6
	중졸이하		2.9	0.7	0.9	25.0	6.4	3.1	5.4	3.6	52.0
	고졸		5.6	2.0	4.7	24.2	9.8	2.1	4.8	5.0	41.8
	초대졸이상		17.4	3.9	2.1	30.2	6.6	1.8	15.3	3.0	19.6
수입	1,000만원미만		8.1	3.0	0.0	22.9	3.7	10.0	4.6	0.8	46.8
	1,000만~2,400만원미만		2.5	3.0	1.4	22.7	10.8	6.1	6.6	0.9	46.1
	2,400만~4,250만원미만		5.4	1.9	3.9	24.5	5.5	4.9	5.6	5.7	42.6
	4,250만원이상		10.1	1.2	4.0	22.6	9.5	3.2	6.3	4.1	38.9
지역	대도시		7.1	1.9	1.2	25.9	9.7	1.0	4.3	4.6	44.3
	중소도시		5.3	2.3	6.1	22.3	5.1	3.0	9.9	0.9	45.1
	읍면부		6.7	3.1	0.0	16.0	4.9	27.5	2.8	2.6	36.4
건강	보통이상		7.3	2.4	2.9	23.2	7.2	6.7	6.7	3.8	39.7
	나쁜편		2.8	1.4	0.8	23.4	8.7	1.8	1.7	0.0	59.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횡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주1) ①관리자, ②(준)전문가, ③사무직, ④서비스근로자, ⑤판매근로자, ⑥농림어업 숙련근로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정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단순노무
 주2) 수입은 조사 당해의 1년 전 가구소득

(단위: %)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4.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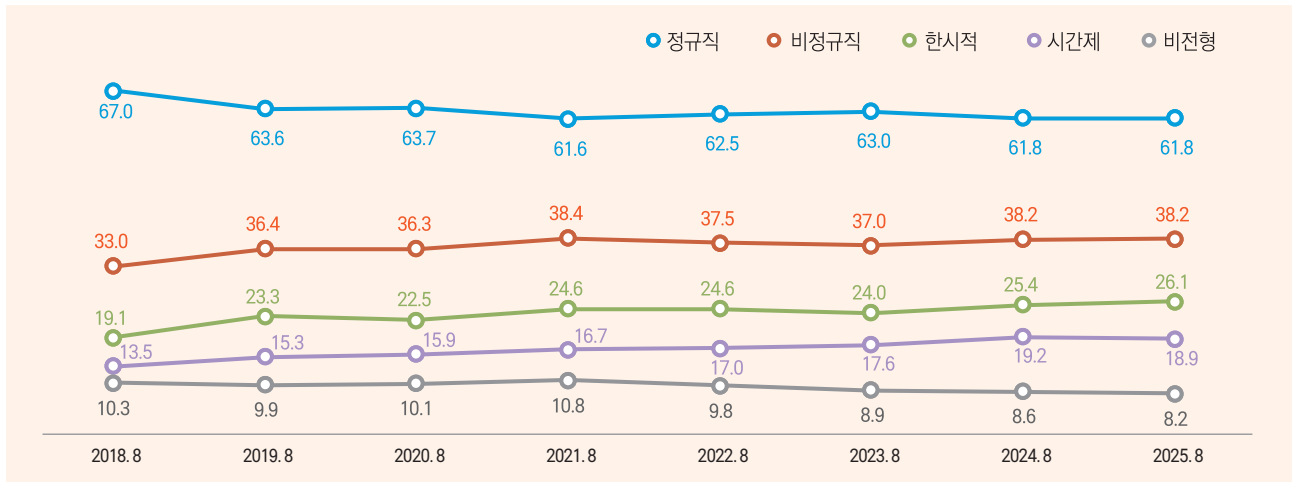
- ① 비정규직 취업현황
- ② 근로조건
- ③ 고용형태 변화



비정규직 취업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22,413천명) 대비 38.2% 수준이다.

비정규직 현황



	임금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순계*)	한시적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18.8월	20,045 (100.0)	13,431 (67.0)	6,614 (33.0)	3,823 (19.1)	3,005 (15.0)	2,709 (13.5)	2,071 (10.3)	189 (0.9)	596 (3.0)	506 (2.5)	53 (0.3)	801 (4.0)
'19.8월	20,559 (100.0)	13,078 (63.6)	7,481 (36.4)	4,785 (23.3)	3,799 (18.5)	3,156 (15.3)	2,045 (9.9)	182 (0.9)	615 (3.0)	528 (2.6)	46 (0.2)	748 (3.6)
'20.8월	20,446 (100.0)	13,020 (63.7)	7,426 (36.3)	4,608 (22.5)	3,933 (19.2)	3,252 (15.9)	2,073 (10.1)	164 (0.8)	552 (2.7)	498 (2.4)	49 (0.2)	896 (4.4)
'21.8월	20,992 (100.0)	12,927 (61.6)	8,066 (38.4)	5,171 (24.6)	4,537 (21.6)	3,512 (16.7)	2,278 (10.8)	211 (1.0)	585 (2.8)	560 (2.7)	79 (0.4)	955 (4.5)
'22.8월	21,724 (100.0)	13,568 (62.5)	8,156 (37.5)	5,348 (24.6)	4,689 (21.6)	3,687 (17.0)	2,131 (9.8)	189 (0.9)	567 (2.6)	561 (2.6)	95 (0.4)	814 (3.7)
'23.8월	21,954 (100.0)	13,832 (63.0)	8,122 (37.0)	5,259 (24.0)	4,809 (21.9)	3,873 (17.6)	1,957 (8.9)	221 (1.0)	534 (2.4)	553 (2.5)	72 (0.3)	665 (3.0)
'24.8월	22,143 (100.0)	13,685 (61.8)	8,459 (38.2)	5,628 (25.4)	4,999 (22.6)	4,256 (19.2)	1,903 (8.6)	237 (1.1)	541 (2.4)	576 (2.6)	63 (0.3)	570 (2.6)
'25.8월	22,413 (100.0)	13,845 (61.8)	8,568 (38.2)	5,848 (26.1)	5,337 (23.8)	4,229 (18.9)	1,834 (8.2)	213 (0.9)	558 (2.5)	566 (2.5)	75 (0.3)	475 (2.1)

자료: 국가데이터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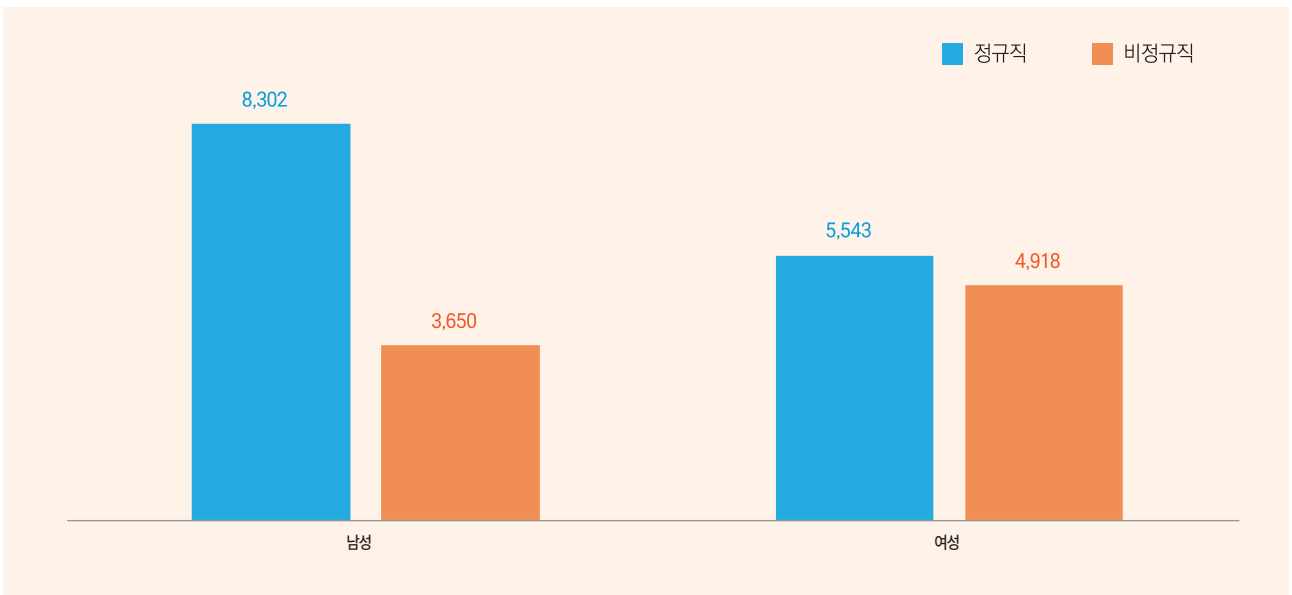
참고

- 비정규직은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며, 근로자를 종사상지위로 분류하는 상용, 임시, 일용직과는 서로 다른 개념임.
- ▣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 유형별 합계(예. 기간제이면서 시간제인 경우 기간제와 시간제 모두 집계되어 합산)는 비정규직 전체 수(순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성별 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57.4%로 남성 42.6%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정내근로, 시간제, 시간제근로자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음



	임금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순계*)	한시적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전체	22,413 (100.0) [100.0]	13,845 (100.0) [61.8]	8,568 (100.0) [38.2]	5,848 (100.0) [23.8]	5,337 (100.0) [18.9]	4,229 (100.0) [8.2]	1,834 (100.0) [0.9]	213 (100.0) [2.5]	558 (100.0) [2.5]	566 (100.0) [0.3]	75 (100.0) [2.1]	475 (100.0) [2.1]
남성	11,953 (53.3) [100.0]	8,302 (60.0) [69.5]	3,650 (42.6) [30.5]	2,570 (44.0) [21.5]	2,320 (43.5) [19.4]	1,187 (28.1) [9.9]	1,006 (54.9) [8.4]	107 (50.5) [0.9]	304 (54.5) [2.5]	247 (43.7) [2.1]	19 (24.6) [0.2]	368 (77.3) [3.1]
여성	10,460 (46.7) [100.0]	5,543 (40.0) [53.0]	4,918 (57.4) [47.0]	3,278 (56.0) [31.3]	3,018 (56.5) [28.9]	3,042 (71.9) [29.1]	828 (45.1) [7.9]	105 (49.6) [1.0]	254 (45.5) [2.4]	319 (56.3) [3.0]	57 (75.4) [0.5]	108 (22.7) [1.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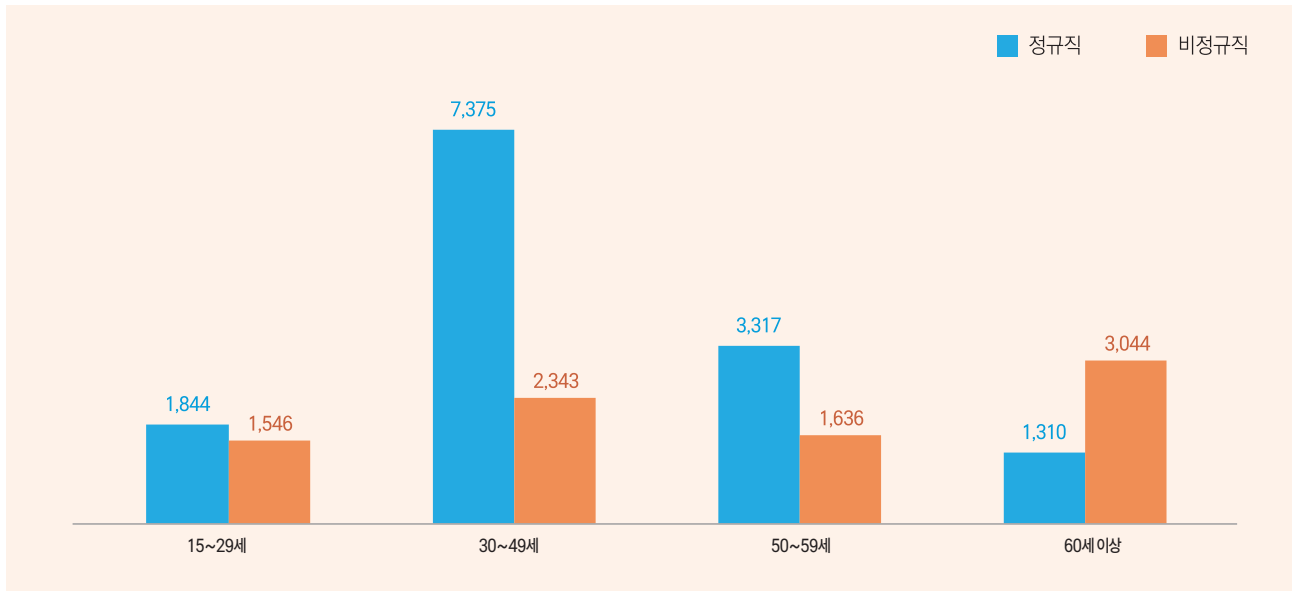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 유형 내 성별 비중 [] 성별 내 유형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연령별 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의 연령분포를 보면 30~49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고, 60세이상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전체	22,413 (100.0) [100.0]	13,845 (100.0) [61.8]	8,568 (100.0) [38.2]	5,848 (100.0) [26.1]	5,337 (100.0) [23.8]	4,229 (100.0) [18.9]	1,834 (100.0) [8.2]
15~29세	3,389 (15.1) [100.0]	1,844 (13.3) [54.4]	1,546 (18.0) [45.6]	991 (16.9) [29.2]	884 (16.6) [26.1]	858 (20.3) [25.3]	137 (7.5) [4.0]
30~49세	9,718 (43.4) [100.0]	7,375 (53.3) [75.9]	2,343 (27.3) [24.1]	1,577 (27.0) [16.2]	1,419 (26.6) [14.6]	799 (18.9) [8.2]	501 (27.3) [5.2]
50~59세	4,952 (22.1) [100.0]	3,317 (24.0) [67.0]	1,636 (19.1) [33.0]	1,005 (17.2) [20.3]	905 (17.0) [18.3]	656 (15.5) [13.3]	464 (25.3) [9.4]
60세 이상	4,354 (19.4) [100.0]	1,310 (9.5) [30.1]	3,044 (35.5) [69.9]	2,275 (38.9) [52.3]	2,130 (39.9) [48.9]	1,916 (45.3) [44.0]	732 (39.9) [16.8]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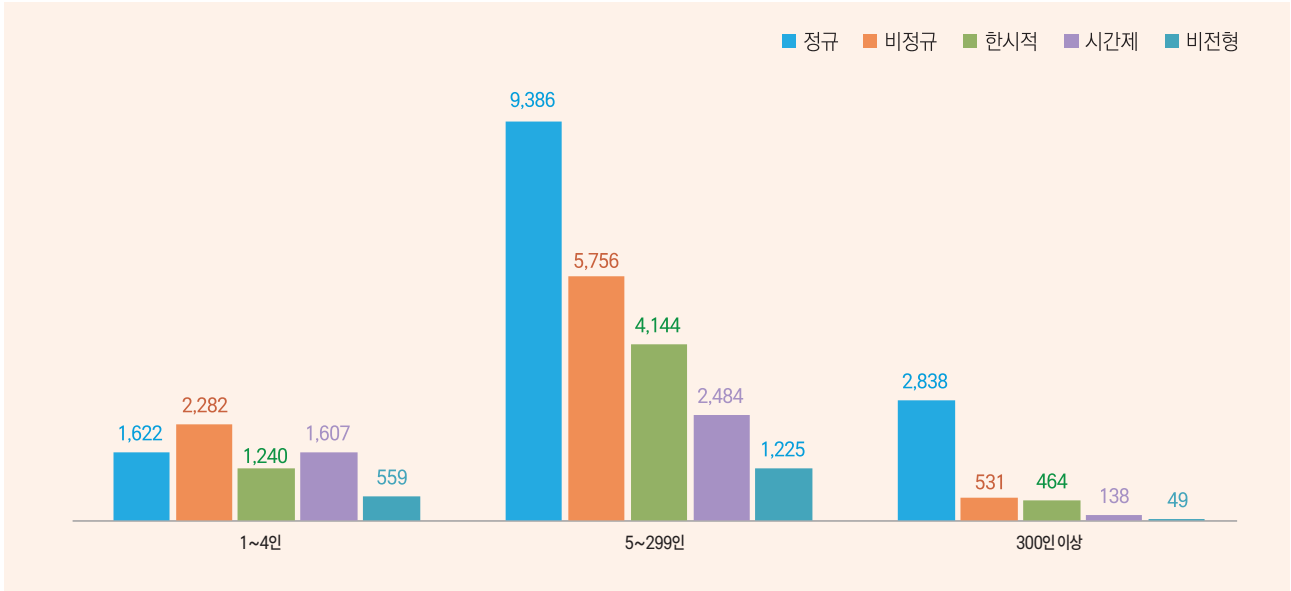
(단위: 천명, %)

() 전체 대비 비중,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사업체 규모별 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별 분포는 300인 미만에 93.8%가 집중되어 있다. 5인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은 58.5%로 높고, 전체 비정규직의 26.6%를 차지한다.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전체	22,413 (100.0) [100.0]	13,845 (100.0) [61.8]	8,568 (100.0) [38.2]	5,848 (100.0) [26.1]	5,337 (100.0) [23.8]	4,229 (100.0) [18.9]	1,834 (100.0) [8.2]
300인 미만	19,045 (85.0) [100.0]	11,007 (79.5) [57.8]	8,038 (93.8) [42.2]	5,384 (92.1) [28.3]	4,893 (91.7) [25.7]	4,091 (96.7) [21.5]	1,784 (97.3) [9.4]
1~4인	3,903 (17.4) [100.0]	1,622 (11.7) [41.5]	2,282 (26.6) [58.5]	1,240 (21.2) [31.8]	1,064 (19.9) [27.2]	1,607 (38.0) [41.2]	559 (30.5) [14.3]
5~299인	15,142 (67.6) [100.0]	9,386 (67.8) [62.0]	5,756 (67.2) [38.0]	4,144 (70.9) [27.4]	3,829 (71.7) [25.3]	2,484 (58.7) [16.4]	1,225 (66.8) [8.1]
300인 이상	3,368 (15.0) [100.0]	2,838 (20.5) [84.2]	531 (6.2) [15.8]	464 (7.9) [13.8]	445 (8.3) [13.2]	138 (3.3) [4.1]	49 (2.7) [1.5]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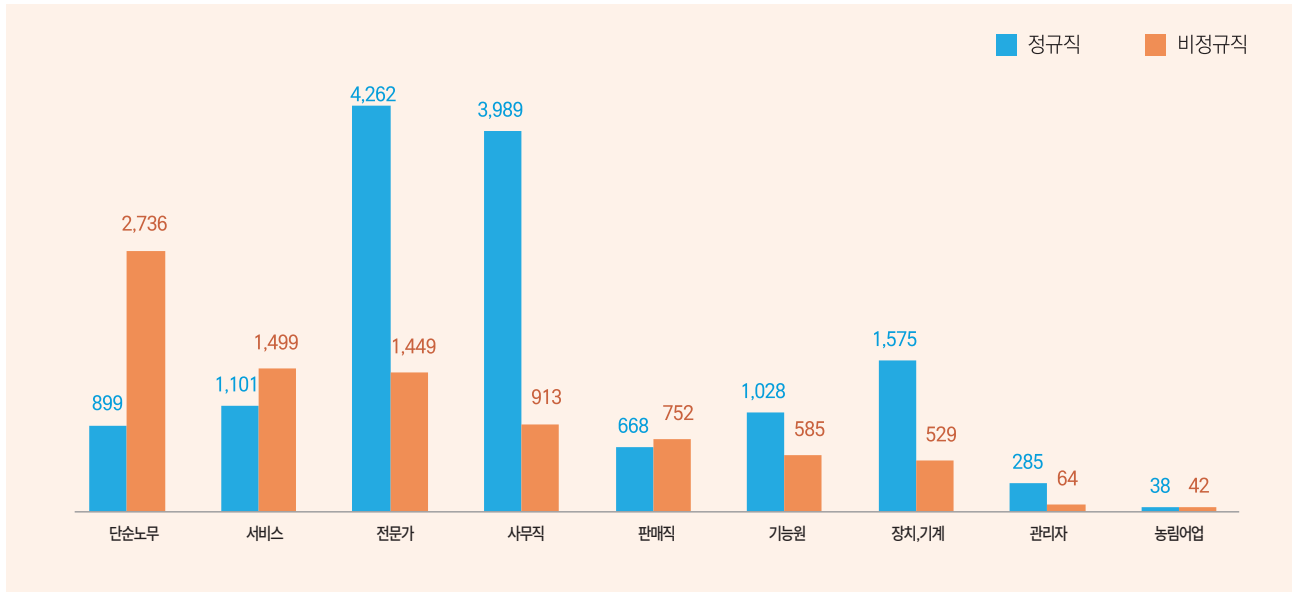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 전체 대비 비중,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직업별 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의 직종별 분포는 단순노무직이 31.9%로 가장 많다.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전 체	22,413 (100.0) [100.0]	13,845 (100.0) [61.8]	8,568 (100.0) [38.2]	5,848 (100.0) [26.1]	4,229 (100.0) [18.9]	1,834 (100.0) [8.2]
관리자	349 (1.6) [100.0]	285 (2.1) [81.7]	64 (0.7) [18.3]	54 (0.9) [15.6]	9 (0.2) [2.6]	4 (0.2) [1.1]
전문가	5,711 (25.5) [100.0]	4,262 (30.8) [74.6]	1,449 (16.9) [25.4]	1,114 (19.1) [19.5]	567 (13.4) [9.9]	132 (7.2) [2.3]
사무직	4,902 (21.9) [100.0]	3,989 (28.8) [81.4]	913 (10.7) [18.6]	695 (11.9) [14.2]	340 (8.0) [6.9]	83 (4.5) [1.7]
서비스	2,600 (11.6) [100.0]	1,101 (8.0) [42.3]	1,499 (17.5) [57.7]	931 (15.9) [35.8]	1,107 (26.2) [42.6]	111 (6.0) [4.3]
판매직	1,420 (6.3) [100.0]	668 (4.8) [47.0]	752 (8.8) [53.0]	255 (4.4) [17.9]	368 (8.7) [25.9]	337 (18.4) [23.7]
농림어업	80 (0.4) [100.0]	38 (0.3) [47.3]	42 (0.5) [52.8]	36 (0.6) [44.3]	6 (0.1) [7.1]	5 (0.3) [6.6]
기능원	1,613 (7.2) [100.0]	1,028 (7.4) [63.8]	585 (6.8) [36.2]	377 (6.4) [23.4]	99 (2.3) [6.1]	209 (11.4) [12.9]
장치,기계	2,104 (9.4) [100.0]	1,575 (11.4) [74.9]	529 (6.2) [25.1]	421 (7.2) [20.0]	72 (1.7) [3.4]	116 (6.3) [5.5]
단순노무	3,636 (16.2) [100.0]	899 (6.5) [24.7]	2,736 (31.9) [75.3]	1,965 (33.6) [54.1]	1,663 (39.3) [45.7]	837 (45.6) [23.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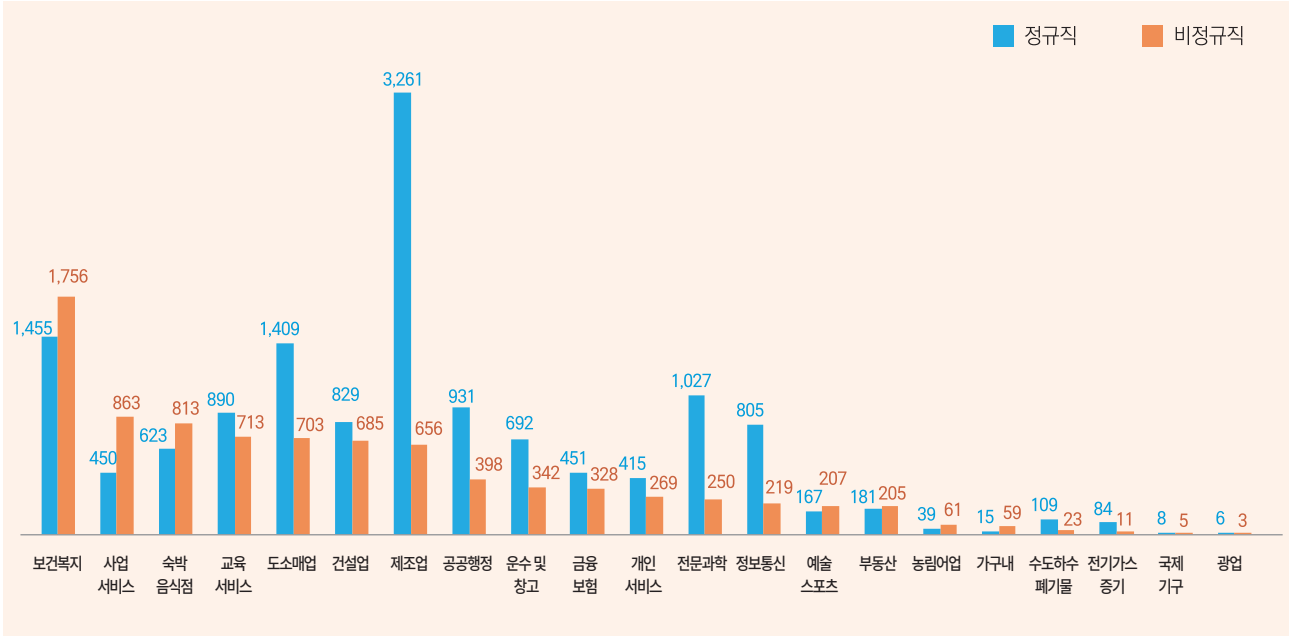
(단위: 천명, %)

() 전체 대비 비중,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산업별 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의 산업별 분포는 보건복지업(20.5%), 사업지원서비스업(10.1%), 숙박음식업(9.5%) 순으로 많다.



산업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전 체	22,413 (100.0) [100.0]	13,845 (100.0) [61.8]	8,568 (100.0) [38.2]	5,848 (100.0) [26.1]	4,229 (100.0) [18.9]	1,834 (100.0) [8.2]
농림어업	100 (0.4) [100.0]	39 (0.3) [38.6]	61 (0.7) [61.4]	36 (0.6) [36.4]	17 (0.4) [16.8]	22 (1.2) [22.5]
광업	8 (0.0) [100.0]	6 (0.0) [68.7]	3 (0.0) [31.3]	3 (0.0) [31.3]	- - -	- - -
제조업	3,917 (17.5) [100.0]	3,261 (23.6) [83.2]	656 (7.7) [16.8]	540 (9.2) [13.8]	131 (3.1) [3.3]	44 (2.4) [1.1]
전기가스증기	94 (0.4) [100.0]	84 (0.6) [88.6]	11 (0.1) [11.4]	7 (0.1) [7.7]	4 (0.1) [4.0]	2 (0.1) [1.6]
수도하수폐기물	132 (0.6) [100.0]	109 (0.8) [82.5]	23 (0.3) [17.5]	21 (0.4) [15.7]	4 (0.1) [3.3]	2 (0.1) [1.6]
건설업	1,514 (6.8) [100.0]	829 (6.0) [54.8]	685 (8.0) [45.2]	383 (6.5) [25.3]	142 (3.3) [9.3]	298 (16.3) [19.7]

(단위: 천명, %)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근로형태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도소매업	2,112 (9.4) [100.0]	1,409 (10.2) [66.7]	703 (8.2) [33.3]	364 (6.2) [17.2]	415 (9.8) [19.7]	103 (5.6) [4.9]
운수 및 창고	1,034 (4.6) [100.0]	692 (5.0) [66.9]	342 (4.0) [33.1]	206 (3.5) [20.0]	114 (2.7) [11.1]	102 (5.6) [9.8]
숙박음식점	1,436 (6.4) [100.0]	623 (4.5) [43.4]	813 (9.5) [56.6]	382 (6.5) [26.6]	657 (15.5) [45.7]	43 (2.3) [3.0]
정보통신	1,024 (4.6) [100.0]	805 (5.8) [78.6]	219 (2.6) [21.4]	166 (2.8) [16.2]	53 (1.3) [5.2]	42 (2.3) [4.1]
금융보험	779 (3.5) [100.0]	451 (3.3) [57.9]	328 (3.8) [42.1]	89 (1.5) [11.4]	51 (1.2) [6.6]	243 (13.2) [31.2]
부동산	387 (1.7) [100.0]	181 (1.3) [46.9]	205 (2.4) [53.1]	153 (2.6) [39.6]	64 (1.5) [16.6]	48 (2.6) [12.4]
전문과학	1,277 (5.7) [100.0]	1,027 (7.4) [80.4]	250 (2.9) [19.6]	190 (3.2) [14.9]	81 (1.9) [6.4]	15 (0.8) [1.2]
사업서비스	1,313 (5.9) [100.0]	450 (3.3) [34.3]	863 (10.1) [65.7]	606 (10.4) [46.2]	233 (5.5) [17.7]	643 (35.1) [48.9]
공공행정	1,329 (5.9) [100.0]	931 (6.7) [70.0]	398 (4.6) [30.0]	387 (6.6) [29.1]	267 (6.3) [20.1]	4 (0.2) [0.3]
교육서비스	1,603 (7.2) [100.0]	890 (6.4) [55.5]	713 (8.3) [44.5]	535 (9.2) [33.4]	426 (10.1) [26.5]	54 (2.9) [3.4]
보건복지	3,211 (14.3) [100.0]	1,455 (10.5) [45.3]	1,756 (20.5) [54.7]	1,459 (25.0) [45.5]	1,264 (29.9) [39.4]	58 (3.1) [1.8]
예술스포츠	373 (1.7) [100.0]	167 (1.2) [44.7]	207 (2.4) [55.3]	134 (2.3) [35.8]	116 (2.7) [31.2]	26 (1.4) [6.8]
개인서비스	684 (3.1) [100.0]	415 (3.0) [60.7]	269 (3.1) [39.3]	165 (2.8) [24.1]	142 (3.3) [20.7]	71 (3.9) [10.4]
가구내	75 (0.3) [100.0]	15 (0.1) [20.3]	59 (0.7) [79.6]	18 (0.3) [24.3]	46 (1.1) [61.9]	15 (0.8) [19.9]
국제기구	12 (0.1) [100.0]	8 (0.1) [62.6]	5 (0.1) [36.6]	3 (0.1) [24.4]	2 (0.0) [12.2]	- -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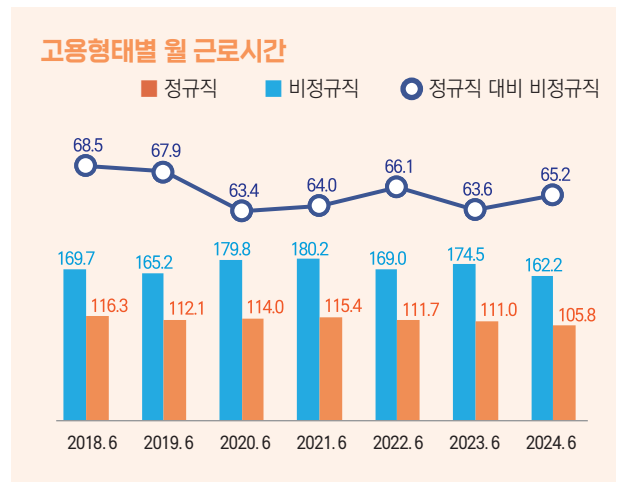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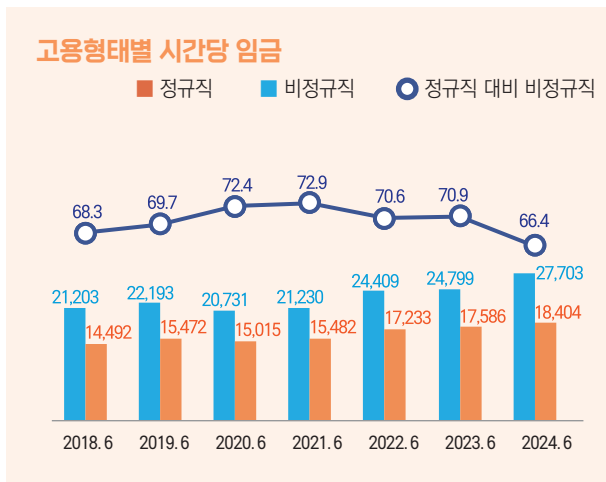
() 전체 대비 비중,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근로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8,404원이고, 정규직 대비 66.4%이며, 월 근로시간은 105.8시간이고 정규직 대비 65.2%이다.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고용형태별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18.6	19,522	21,203	14,492	14,680	10,046	13,402	12,021	12,694	17,180
'19.6	20,573	22,193	15,472	15,501	11,393	14,423	12,809	14,288	18,297
'20.6	19,316	20,731	15,015	14,719	11,566	13,594	12,338	13,744	18,499
'21.6	19,806	21,230	15,482	15,069	12,068	14,220	12,421	12,945	19,283
'22.6	22,651	24,409	17,233	17,517	12,638	15,515	13,558	13,762	21,416
'23.6	22,878	24,799	17,586	17,972	12,971	15,741	13,952	14,523	21,907
'24.6	25,156	27,703	18,404	19,588	14,066	15,883	15,414	14,917	23,29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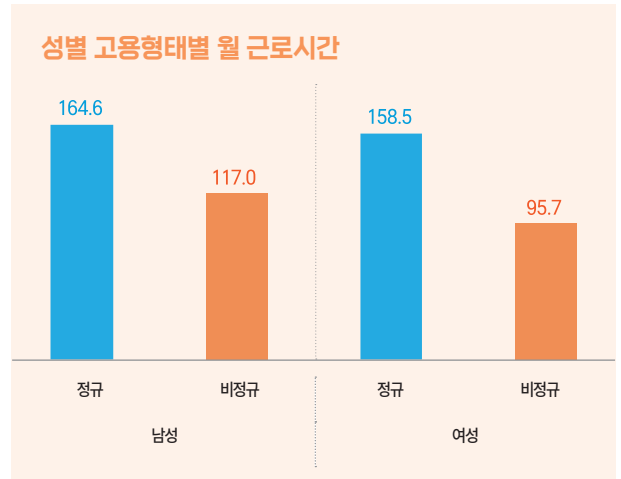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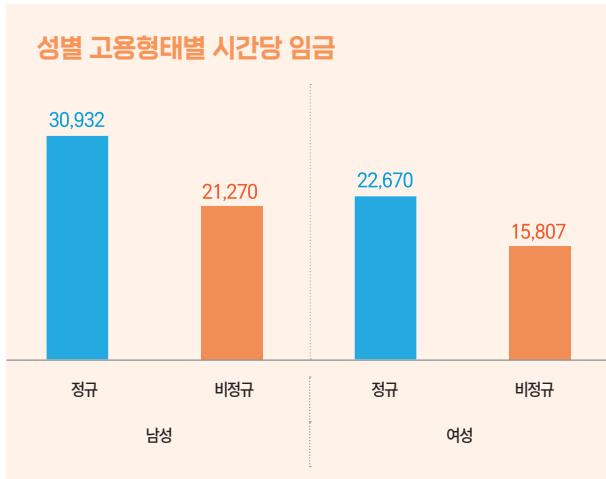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고용형태별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18.6	156.4	169.7	116.3	170.3	132.4	79.2	165.4	123.2	90.8
'19.6	152.4	165.2	112.1	160.6	112	76	163.7	112.5	85
'20.6	163.6	179.8	114	172.7	118.9	79.4	173.5	116.7	79.6
'21.6	164.2	180.2	115.4	175.7	118	78.6	173.3	117.2	80.2
'22.6	154.9	169	111.7	167.1	116.2	76.1	167.1	113	79.9
'23.6	157.6	174.5	111.0	169.7	118.5	74.0	170.9	114.7	80.0
'24.6	146.8	162.2	105.8	159.4	113.0	71.9	164.4	112.1	79.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시간)

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남성 21,270원, 여성 15,807원으로 각각 정규직 대비 68.8%, 69.7%이며, 비정규직의 월 근로 시간은 남성 117.0시간, 여성 95.7시간으로 각각 정규직 대비 71.1%, 60.4%이다.



	시간당 임금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25,156	27,703	18,404	146.8	162.2	105.8
남성	28,734	30,932	21,270	153.8	164.6	117.0
여성	20,363	22,670	15,807	137.4	158.5	95.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4.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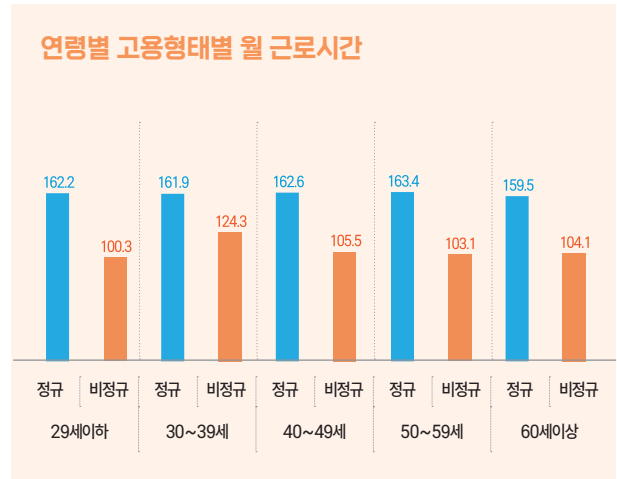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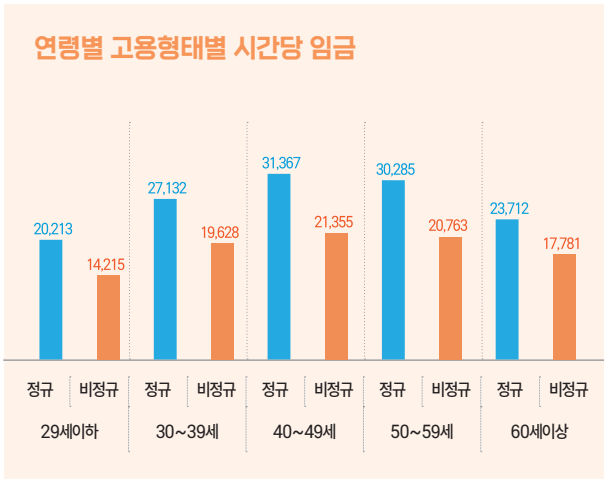
(단위: 원, 시간)



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은 40대 21,355원을 정점으로 50대부터 감소한다.

-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40대가 68.1%로 가장 낮음
- 비정규직 월 근로시간은 30대에서 124.3시간으로 가장 긴 반면, 29세 이하에서 100.3시간으로 가장 짧음



	시간당 임금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25,156	27,703	18,404	146.8	162.2	105.8
29세이하	17,997	20,213	14,215	139.3	162.2	100.3
30~39세	25,928	27,132	19,628	155.9	161.9	124.3
40~49세	29,664	31,367	21,355	152.9	162.6	105.5
50~59세	27,947	30,285	20,763	148.6	163.4	103.1
60세이상	20,661	23,712	17,781	131.0	159.5	1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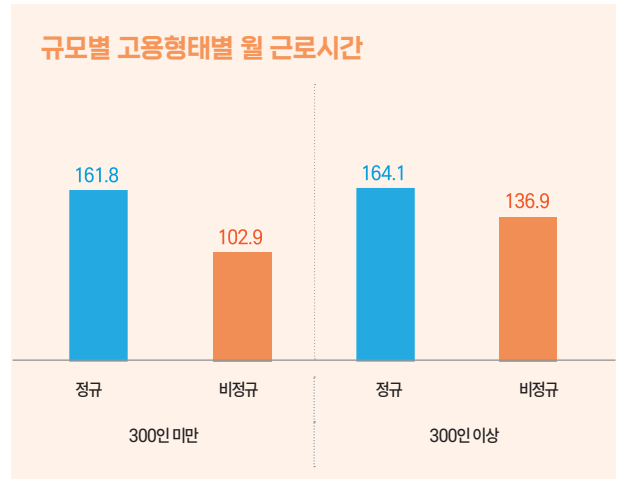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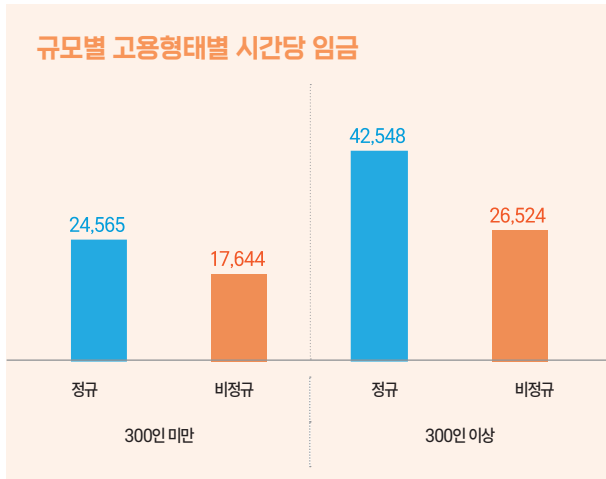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4.6월)

(단위: 원, 시간)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300인 미만 사업장 17,644원, 300인 이상 26,524원이며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각각 71.8%, 62.3% 수준이며, 비정규직 월 근로시간은 300인 미만 102.9시간, 300인 이상 136.9시간이다.



	시간당 임금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25,156	27,703	18,404	146.8	162.2	105.8
300인 미만	5인미만	17,798	19,390	126.7	158.9	80.0
	5-29인	23,102	24,699	146.2	160.2	109.9
	30-299인	25,561	27,543	156.3	165.4	125.3
	300인 이상	40,046	42,548	159.8	164.1	1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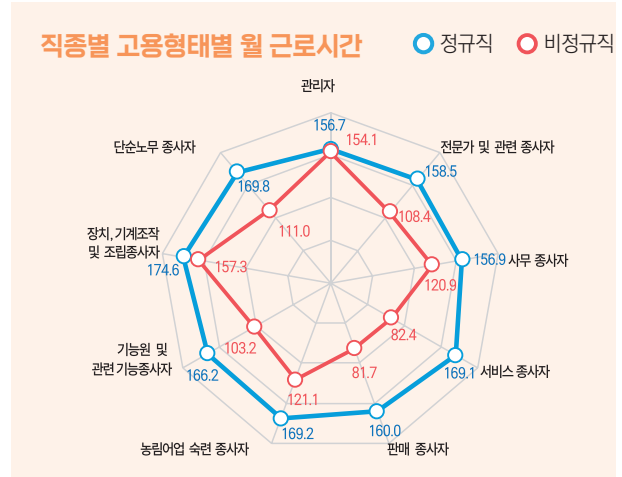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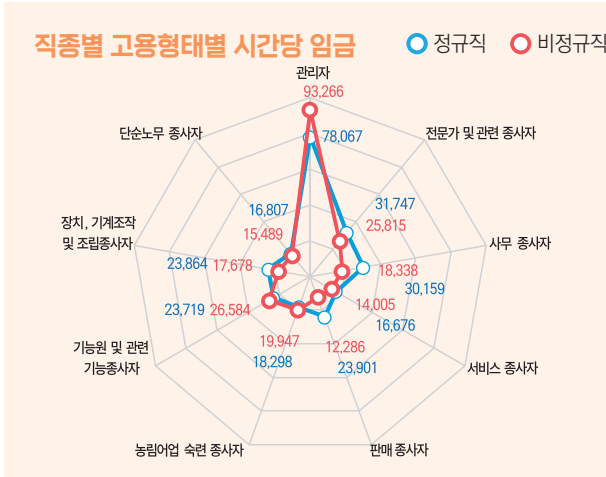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4.6월)

(단위: 원, 시간)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6월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높고,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낮으며, 비정규직 월 근로시간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가장 길고, 판매종사자가 가장 짧게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25,156	27,703	18,404
관리자	79,155	78,067	93,26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843	31,747	25,815
사무 종사자	28,776	30,159	18,338
서비스 종사자	15,117	16,676	14,005
판매 종사자	20,426	23,901	12,28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9,185	18,298	19,9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4,920	23,719	26,58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2,848	23,864	17,678
단순노무 종사자	16,011	16,807	15,489

(단위: 원)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146.8	162.2	105.8
관리자	156.5	156.7	154.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0.9	158.5	108.4
사무 종사자	152.7	156.9	120.9
서비스 종사자	118.5	169.1	82.4
판매 종사자	136.5	160.0	81.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43.3	169.2	12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39.8	166.2	103.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1.7	174.6	157.3
단순노무 종사자	134.3	169.8	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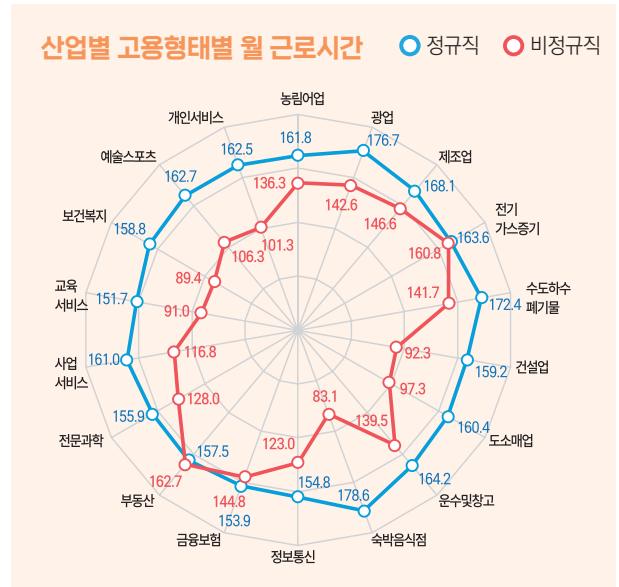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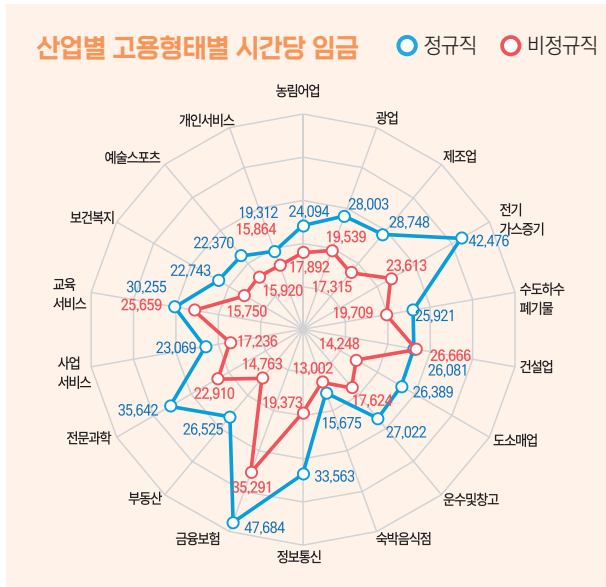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4.6월)

(단위: 시간)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4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은 금융보험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높고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순으로 낮다.

월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전기·가스·증기업 순으로 길고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짧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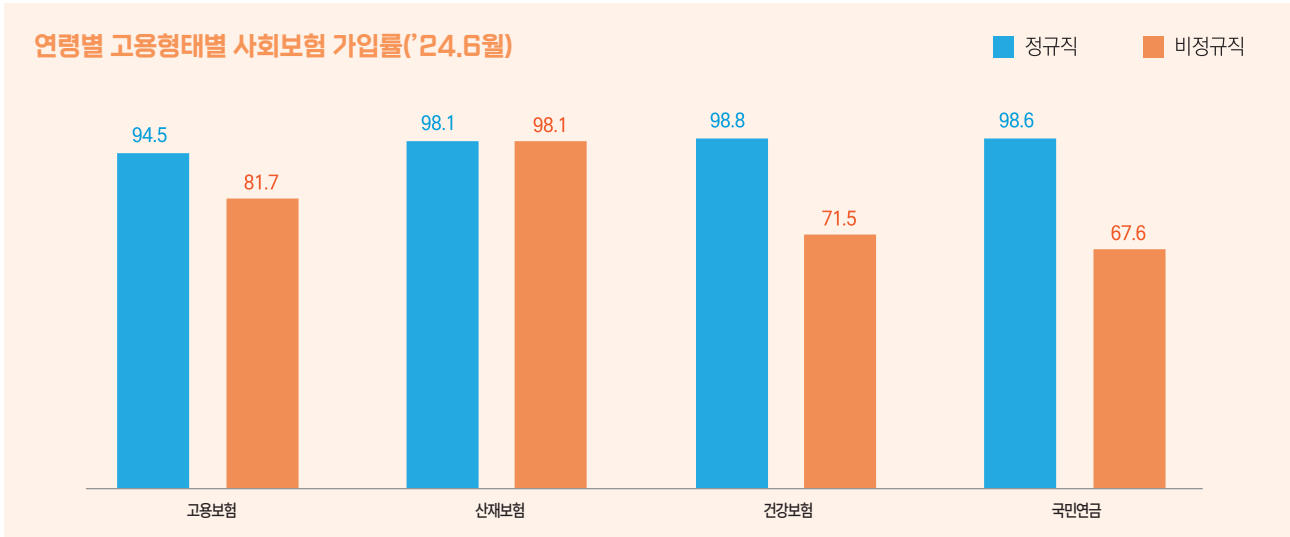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25,156	27,703	18,404	146.8	162.2	105.8
농림어업	21,758	24,094	17,892	152.2	161.8	136.3
광업	26,975	28,003	19,539	172.6	176.7	142.6
제조업	27,372	28,748	17,315	165.5	168.1	146.6
전기 가스 증기	40,744	42,476	23,613	163.3	163.6	160.8
수도하수 폐기물	25,209	25,921	19,709	168.9	172.4	141.7
건설업	26,378	26,081	26,666	125.2	159.2	92.3
도소매업	23,800	26,389	14,248	146.9	160.4	97.3
운수 및 창고	25,229	27,022	17,624	159.5	164.2	139.5
숙박음식점	14,227	15,675	13,002	126.9	178.6	83.1
정보통신	32,179	33,563	19,373	151.7	154.8	123.0
금융보험	45,987	47,684	35,291	152.7	153.9	144.8
부동산	18,971	26,525	14,763	160.8	157.5	162.7
전문과학	34,027	35,642	22,910	152.4	155.9	128.0
사업서비스	22,010	23,069	17,236	153.0	161.0	116.8
교육서비스	28,039	30,255	25,659	122.4	151.7	91.0
보건복지	20,046	22,743	15,750	132.0	158.8	89.4
예술스포츠	19,415	22,370	15,920	136.9	162.7	106.3
개인서비스	18,443	19,312	15,864	147.0	162.5	101.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4.6월)

(단위: 원, 시간)

사회보험 적용

2024년 6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81.7%, 산재보험 98.1%, 건강보험 71.5%, 국민연금 67.6%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10~30%p 크게 차이가 나는 반면, 산재보험은 동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	연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고용보험	'20	90.3	94.4	74.4	86.2	43.9	81.1	96.2	76.2	55.8
	'21	90.5	94.2	76.1	89.3	46.3	80.3	95.0	79.9	58.6
	'22	91.8	94.6	80.7	91.5	51.2	84.4	94.8	81.7	64.3
	'23	91.7	94.5	81.4	92.9	52.9	84.2	94.9	82.4	66.1
	'24	91.8	94.5	81.7	93.1	50.3	81.7	96.4	80.4	67.3
산재보험	'20	97.8	97.9	97.5	99.0	85.4	95.7	99.7	100.0	97.7
	'21	97.8	97.8	97.6	98.9	86.6	95.9	98.5	100.0	98.5
	'22	98.2	98.1	98.4	99.2	93.3	97.6	98.6	100.0	98.5
	'23	98.1	98.1	98.2	99.0	90.5	97.2	99.3	98.9	98.9
	'24	98.1	98.1	98.1	99.0	87.2	97.0	99.6	99.9	98.7
건강보험	'20	91.1	98.5	64.9	93.1	41.4	79.0	96.1	78.7	20.2
	'21	91.5	98.5	66.4	93.6	42.8	79.1	95.4	78.9	22.9
	'22	92.5	98.6	70.3	95.7	44.3	83.5	95.3	83.1	24.9
	'23	92.5	98.8	71.7	95.8	46.3	85.0	95.6	78.7	28.6
	'24	92.4	98.8	71.5	94.3	48.2	81.6	97.4	81.7	27.4
국민연금	'20	91.3	98.3	61.7	86.6	39.5	77.6	94.9	80.2	20.5
	'21	91.7	98.3	63.0	88.7	41.9	76.5	93.2	82.5	22.9
	'22	93.0	98.5	67.5	91.8	41.5	81.4	93.7	87.4	24.5
	'23	92.9	98.6	68.5	91.4	39.2	81.9	93.4	86.1	27.6
	'24	92.6	98.6	67.6	90.0	36.6	78.0	95.1	81.9	25.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

주: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5세이상, 3개월미만으로 근로하는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미만, 60세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고용형태 변화

기간제근로자

2024년 12월 전체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기간제근로자는 187.8만명으로 전체근로자의 11.8%를 차지했으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자 중 계약종료는 73.0%, 계속고용은 18.0%, 정규직 전환은 8.6%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

전체 근로자 (A)	기간제 근로자 (B)	비율 (B/A)	계약기간 만료자	계약 종료 (D1)		정규직 전환 (D2)		계속 고용 (D3)	
				비율 (D1/D)	비율 (D2/D)	비율 (D3/D)			
15,979,175	1,878,085	11.8	52,979	38,685	73.0	4,566	8.6	9,533	18.0

자료: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24년 12월p)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단위: 명, %)
 주1) '계속고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종료 및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경우
 2) 방침미정 등의 기타 조치 사항은 제외

근속기간별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 비율을 살펴보면, 1년 6개월 초과~2년 이하 근속기간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속기간별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

	계약기간 만료자 (D)	계약 종료 (D1)		정규직 전환 (D2)		계속 고용 (D3)	
		비율 (D1/D)	비율 (D2/D)	비율 (D3/D)			
전체	52,979	38,685	73.0	4,566	8.6	9,533	18.0
1년6개월 이하	44,944	33,593	74.7	2,780	6.2	8,387	18.7
1년6개월 초과~2년 이하	5,338	3,392	63.5	1,276	23.9	671	12.6
2년 초과	2,698	1,701	63.0	510	18.9	475	17.6

자료: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24년 12월p)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단위: 명, %)
 주1) '계속고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종료 및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경우
 2) 방침미정 등의 기타 조치 사항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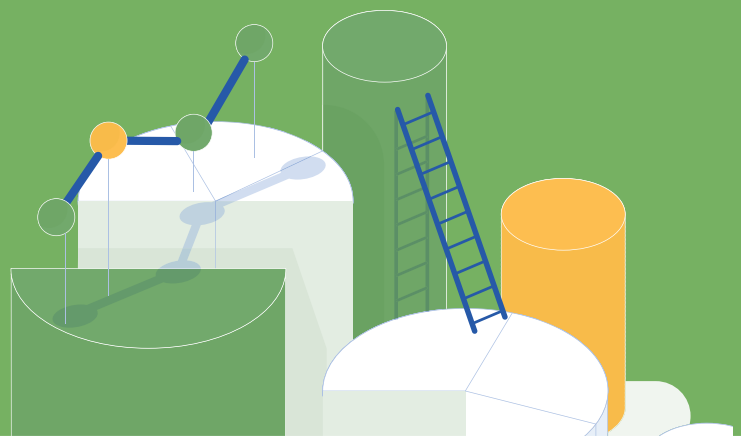


고용노동관련 OECD 국제비교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① 인구 및 고용
- ② 근로조건
- ③ 분배지표
- ④ 기타 고용노동지표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고용노동 관련 OECD 국제비교

OECD 국제통계 수록범위



OECD 통계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국제비교 통계 중 고용노동 분야의 주요 지표 32개 항목을 수록하였음



본문 통계표에는 38개 회원국가 중 15~64세 이상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인 13개 국가의 최근 자료를 수록하였음



국제비교의 필요성이 있지만 OECD에서 별도로 발표하지 않은 한국의 지표는 OECD 통계 DB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2개 이상의 발표된 지표를 가공하여 생산하였음

이용 시 참고사항



모든 지표에 대하여 산정 기준과, 자료의 출처, 이용상의 한계 등을 숙지한 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국가별 최신 자료 수록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 23개국 (회원국의 2/3) 이상의 자료가 수록된 최신 연도의 통계를 수록하였음



모든 자료는 2025.7.31.일 OECD통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해당 시점에 자료가 수록 발표되지 않은 국가는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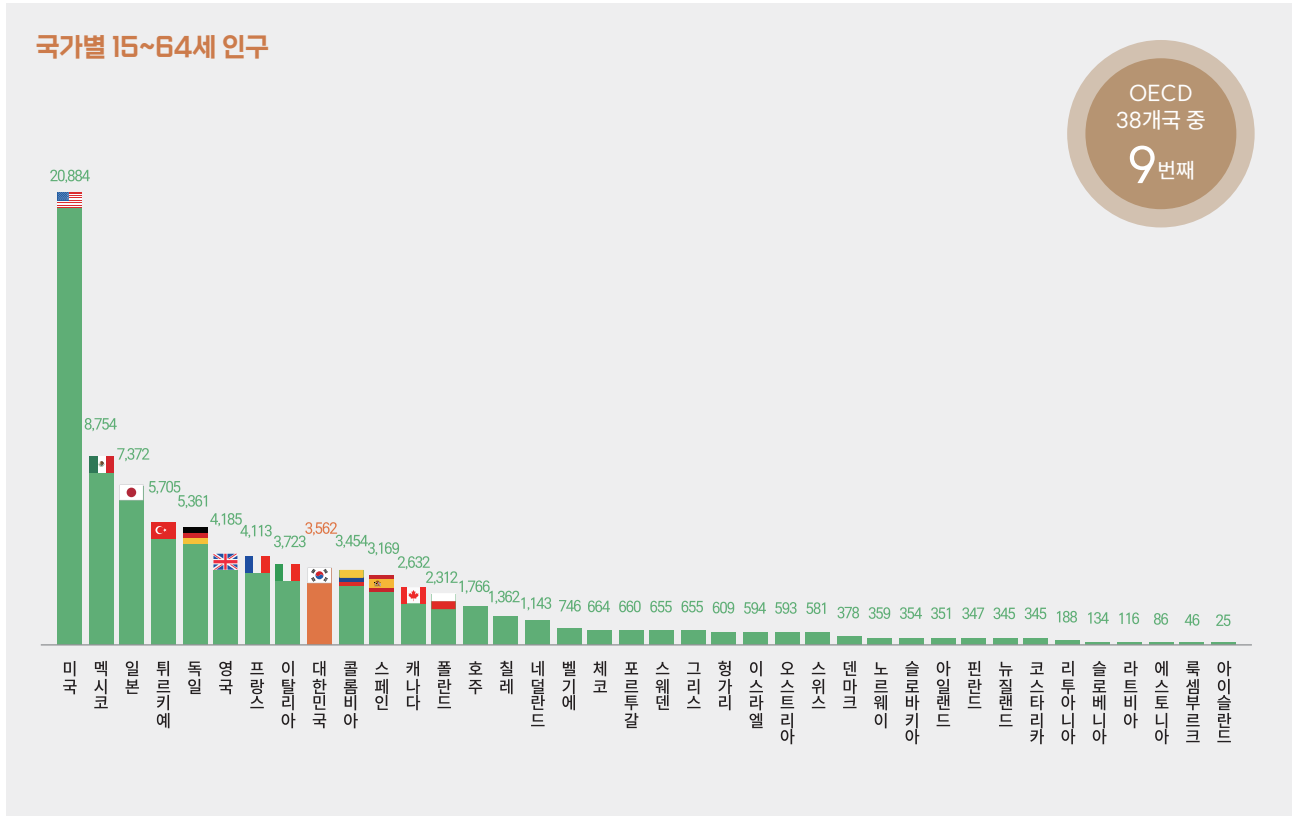
'OECD평균'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발표된 지표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였으며, 통계표 하단에 이를 표기하였음

1

인구 및 고용

인구

OECD는 15~64세 인구는 노동연령대 인구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24년 3,562만명으로 OECD 38개국 중 9번째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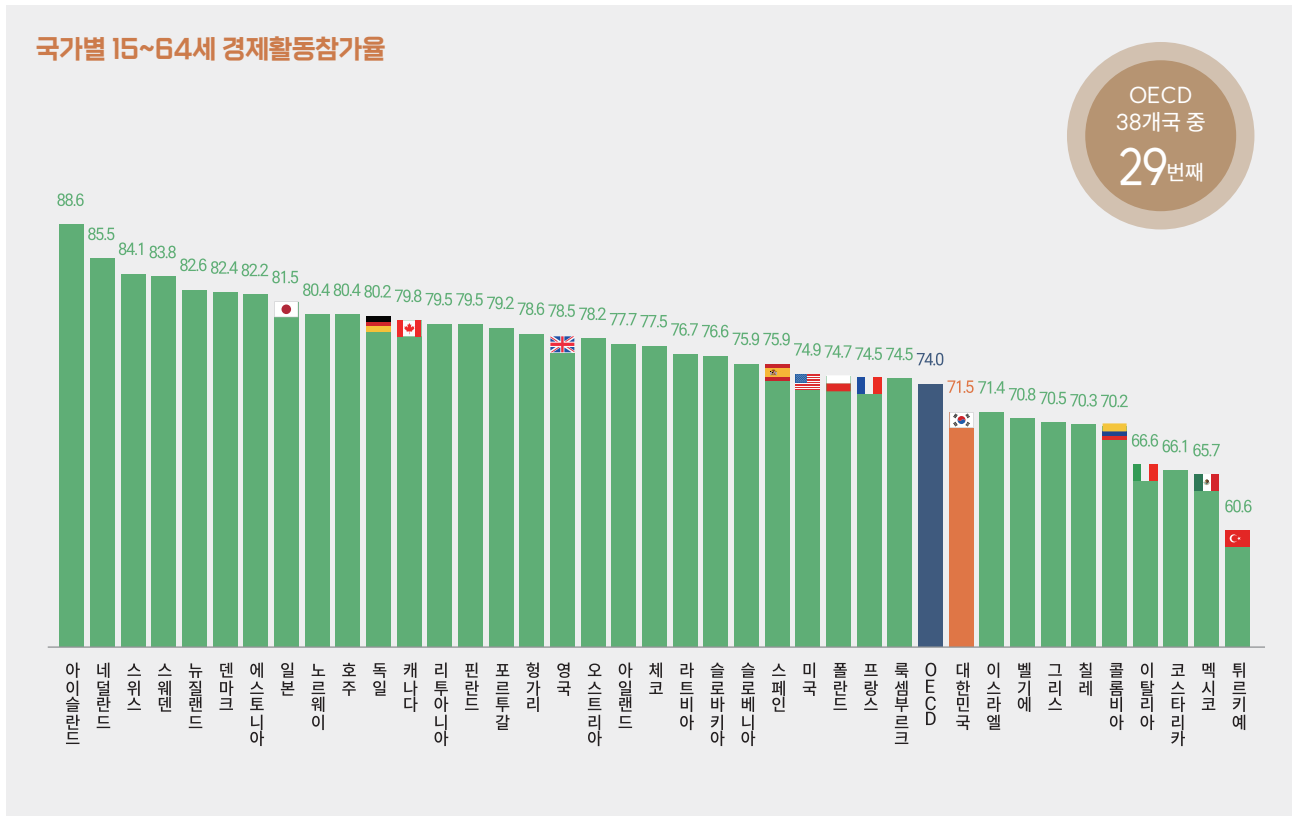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국	20,627	20,572	20,526	20,726	20,868	20,884
멕시코	8,351	8,477	8,568	8,672	8,712	8,754
일본	7,511	7,469	7,410	7,413	7,393	7,372
튀르키예	5,415	5,483	5,557	5,632	5,685	5,705
독일	5,355	5,326	5,297	5,332	5,358	5,361
영국	4,133	4,137	4,137	4,151	4,168	4,185
프랑스	4,081	4,069	4,056	4,082	4,093	4,113
이탈리아	3,801	3,780	3,753	3,727	3,714	3,723
대한민국	3,679	3,664	3,650	3,623	3,596	3,562
콜롬비아	3,222	3,287	3,355	3,391	3,421	3,454
스페인	3,042	3,060	3,070	3,095	3,135	3,169
캐나다	2,438	2,458	2,460	2,484	2,543	2,632
폴란드	2,418	2,407	2,378	2,352	2,330	2,312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levels (단위: 만명)
 주) 위에서 15세~64세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로서, 추계인구 중 군인, 재소자 등 속박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구에 해당함.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에서 한국은 '24년 71.5%로 OECD 38개국 중 29번째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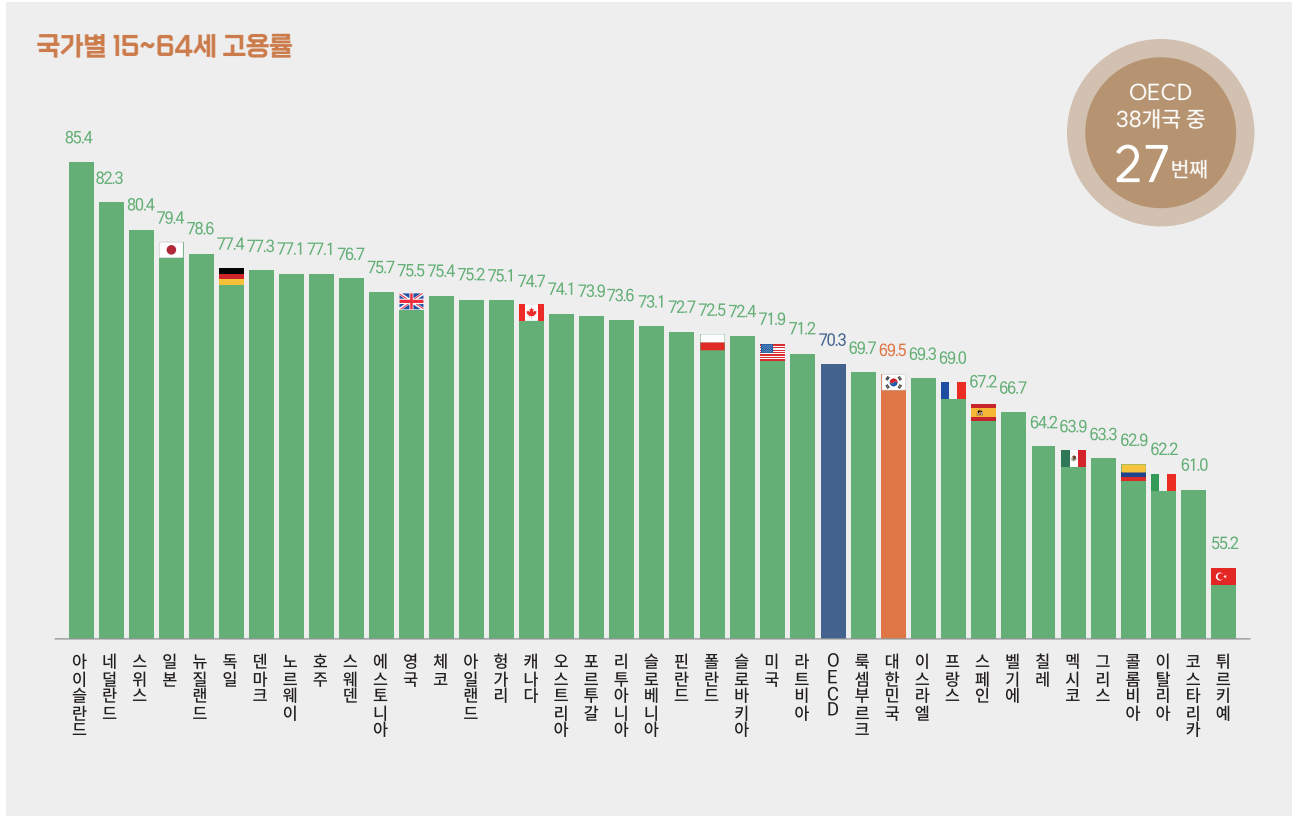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일본	79.6	79.6	80.0	80.6	81.1	81.5
독일	79.2	78.6	78.5	79.3	79.7	80.2
캐나다	79.1	77.7	79.5	79.8	80.3	79.8
영국	78.8	78.8	78.3	78.3	78.7	78.5
스페인	75.0	73.4	74.9	75.3	75.8	75.9
미국	74.1	73.0	73.4	74.0	74.7	74.9
폴란드	70.8	71.1	72.9	73.6	74.5	74.7
프랑스	71.7	71.0	73.0	73.6	73.9	74.5
대한민국	69.5	68.6	69.0	70.5	71.1	71.5
콜롬비아	70.5	66.3	67.4	69.6	70.3	70.2
이탈리아	65.7	64.1	64.5	65.5	66.7	66.6
멕시코	64.6	62.3	63.8	64.7	65.6	65.7
튀르키예	58.5	54.9	57.2	59.2	59.5	60.6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주) 위에서 15~64세 인구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구로서, 인구추계상의 인구에서 군인,재소자 등 숙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구는 국가마다 산출방법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
 OECD에서는 각종 고용지표를 발표할 때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15~64세 인구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고용률

'24년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9.5%로 OECD 38개국 중 27번째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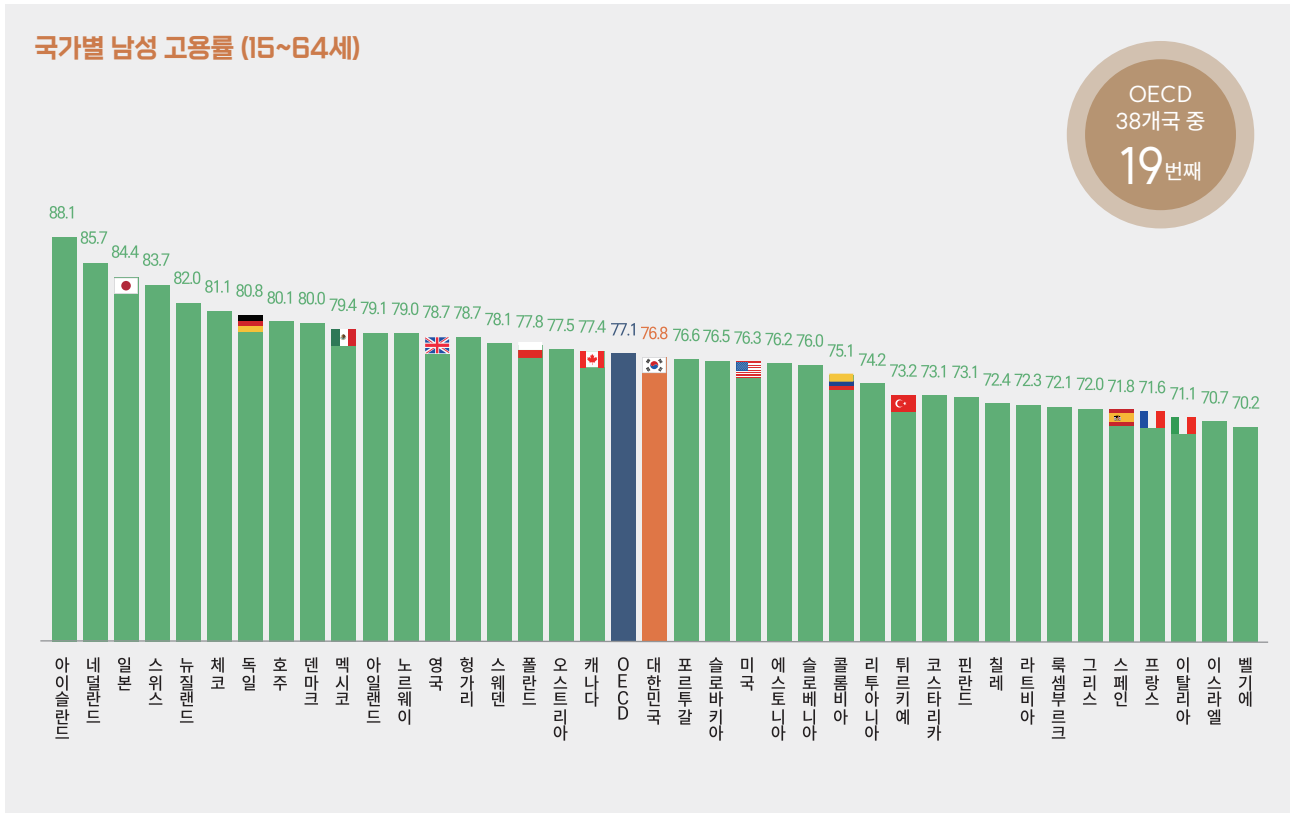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일본	77.6	77.3	77.7	78.4	78.9	79.4
독일	76.7	75.4	75.6	76.8	77.2	77.4
영국	75.6	75.1	74.7	75.5	75.7	75.5
캐나다	74.6	70.1	73.5	75.6	75.9	74.7
폴란드	68.5	68.8	70.4	71.5	72.4	72.5
미국	71.4	67.1	69.4	71.3	72.0	71.9
대한민국	66.8	65.9	66.5	68.5	69.2	69.5
프랑스	65.5	65.3	67.2	68.1	68.4	69.0
스페인	64.3	61.9	63.7	65.4	66.5	67.2
멕시코	62.2	59.4	61.0	62.5	63.7	63.9
콜롬비아	62.6	55.0	57.9	61.6	63.0	62.9
이탈리아	59.1	58.1	58.2	60.1	61.5	62.2
튀르키예	50.3	47.5	50.2	52.9	53.8	55.2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성별 고용률

'24년 한국의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6.8%, 여성은 62.1%로, OECD 38개국 중 남성은 19, 여성은 31번째에 위치한다. OECD 평균에 비해 남성고용률과 여성고용률 모두 낮은 편이다.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일본	84.1	83.8	83.9	84.2	84.4	84.4
독일	80.5	78.9	79.1	80.4	80.8	80.8
멕시코	78.8	75.6	77.3	78.7	79.3	79.4
영국	79.7	78.5	78.0	78.8	79.3	78.7
폴란드	75.5	75.9	76.8	77.4	77.8	77.8
캐나다	77.5	73.3	76.5	78.4	78.7	77.4
대한민국	75.7	74.8	75.2	76.9	76.9	76.8
미국	76.5	72.1	74.3	76.1	76.4	76.3
콜롬비아	75.4	68.4	71.9	74.4	75.2	75.1
튀르키예	68.3	65.2	68.6	71.1	71.9	73.2
스페인	69.9	67.3	68.7	70.5	71.3	71.8
프랑스	68.8	68.5	70.1	70.8	71.0	71.6
이탈리아	68.1	67.2	67.1	69.2	70.4	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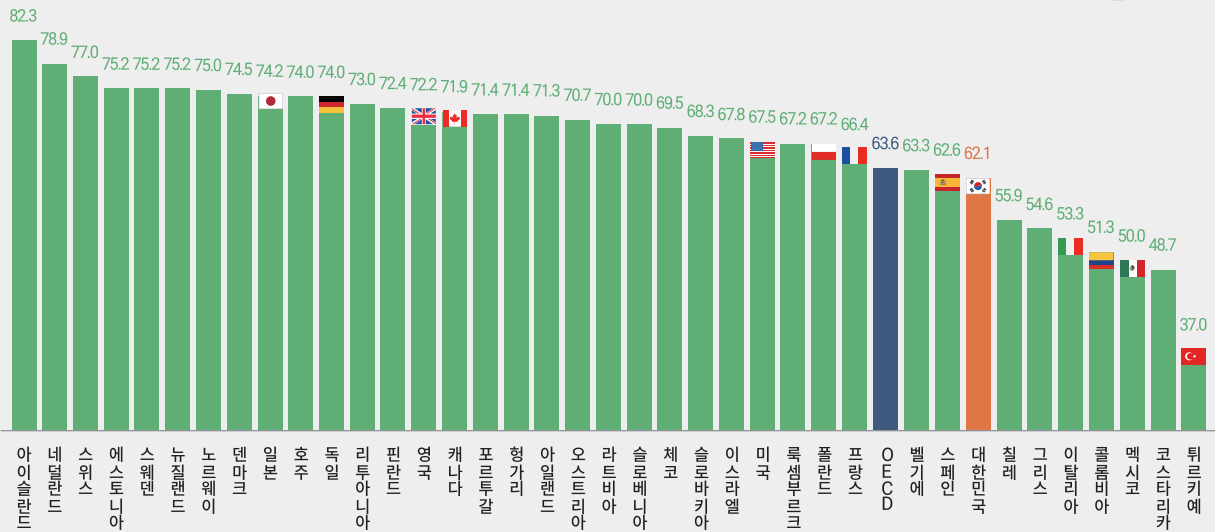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국가별 여성 고용률 (15~64세)

OECD
38개국 중
31번째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일본	70.9	70.6	71.3	72.4	73.3	74.2
독일	72.8	71.8	71.9	73.0	73.6	74.0
영국	71.6	71.7	71.5	72.2	72.2	72.2
캐나다	71.6	66.9	70.5	72.8	73.1	71.9
미국	66.3	62.2	64.6	66.5	67.5	67.5
폴란드	61.4	61.6	64.0	65.5	66.9	67.2
프랑스	62.4	62.2	64.5	65.6	66.0	66.4
스페인	58.8	56.6	58.6	60.2	61.7	62.6
대한민국	57.8	56.7	57.7	60.0	61.4	62.1
이탈리아	50.2	49.0	49.4	51.1	52.5	53.3
콜롬비아	50.6	42.4	44.6	49.5	51.4	51.3
멕시코	47.0	44.6	46.2	48.0	49.7	50.0
튀르키예	32.2	29.7	31.7	34.5	35.6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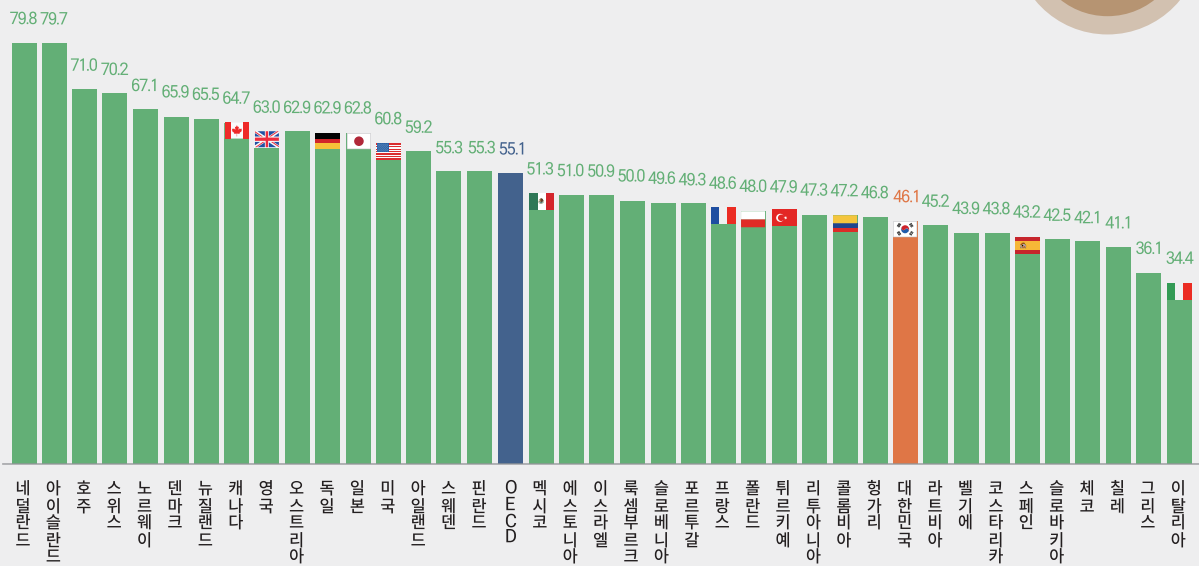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연령별 고용률

'24년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6.1%로 OECD 38개국 중 29번째로 낮은편에 위치한다. 높은 대학진학률, 군복무 등으로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15~29세 고용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캐나다	67.1	59.3	64.6	67.7	67.0	64.7
영국	65.5	64.3	63.7	64.8	64.6	63.0
독일	60.4	59.5	59.8	61.6	62.5	62.9
일본	60.6	60.0	60.6	61.0	61.8	62.8
미국	61.9	56.2	59.9	61.2	61.6	60.8
멕시코	50.2	47.8	49.3	50.4	51.2	51.3
프랑스	44.6	43.1	46.6	48.6	48.9	48.6
폴란드	50.8	48.1	48.2	48.4	49.0	48.0
튀르키예	41.5	37.9	41.1	44.1	46.4	47.9
콜롬비아	48.0	41.0	43.6	46.7	47.8	47.2
대한민국	43.5	42.2	44.2	46.6	46.5	46.1
스페인	40.9	36.4	38.8	41.7	42.7	43.2
이탈리아	31.7	29.8	31.1	33.8	34.7	34.4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주 1) 15~29세 인구와 취업자수를 기초로 재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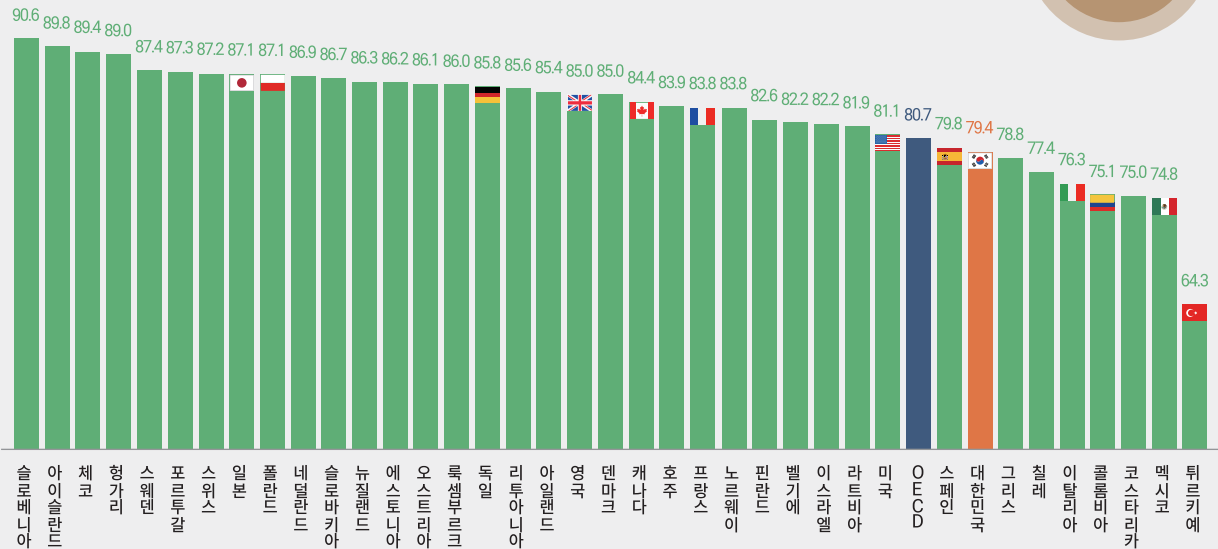
2) OECD에서는 연령별 고용률을 15~24세(청년), 25~54세(중년), 55~64세(장년)로 나누어 제시. 우리나라는 남성의 군복무 등으로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기준을 15~29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OECD의 통계 DB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 고용률을 15~29세(청년), 30~54세(중년), 55~64세(장년)로 나누어 재산정



'24년 한국의 30~54세 중년 고용률은 79.4%로 OECD 38개국 중 31번째로 낮은편에 위치한다.

국가별 30~54세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1번째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일본	85.6	85.2	85.6	86.3	86.7	87.1
폴란드	83.6	84.3	85.6	86.4	86.9	87.1
독일	86.2	84.8	84.9	85.8	85.7	85.8
영국	84.5	84.4	84.4	85.0	85.2	85.0
캐나다	83.8	80.4	83.0	85.1	85.4	84.4
프랑스	81.8	81.8	82.9	83.4	83.4	83.8
미국	80.1	76.1	77.8	80.0	80.9	81.1
스페인	76.9	74.5	76.3	77.8	79.0	79.8
대한민국	77.4	76.3	76.6	78.0	78.9	79.4
이탈리아	72.7	71.9	72.2	74.1	75.5	76.3
콜롬비아	75.0	66.6	70.1	74.2	75.3	75.1
멕시코	73.0	70.0	71.8	73.4	74.7	74.8
튀르키예	60.2	58.0	60.6	63.3	63.3	64.3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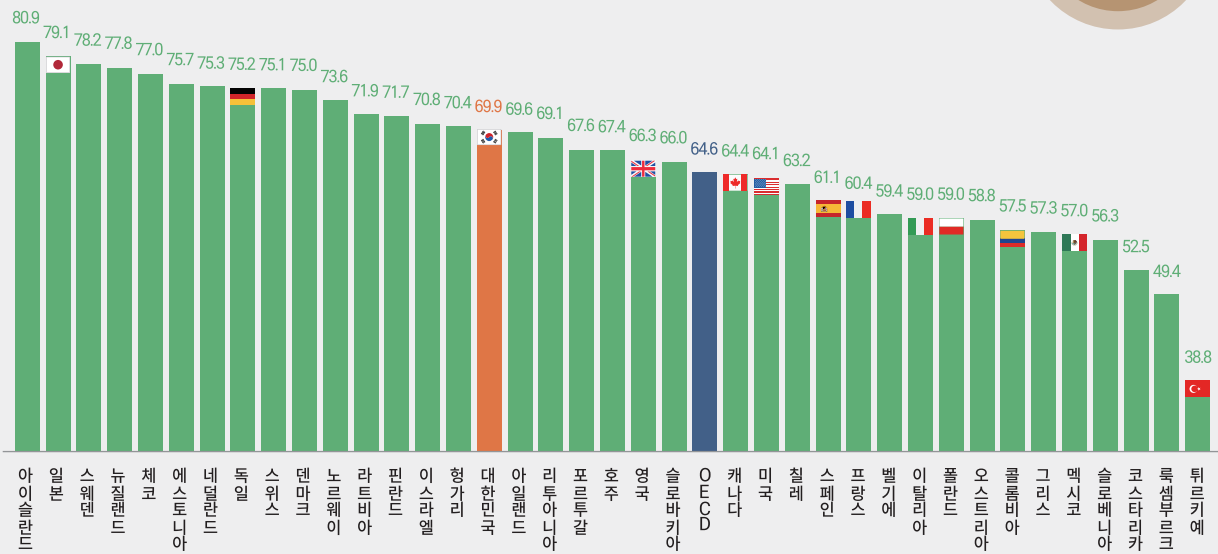
(단위: %)



'24년 한국의 55~64세 장년 고용률은 69.9%로
OECD 38개국 중 16번째로 청년, 중년 고용률에 비해 높은편에 위치한다.

국가별 55~64세 고용률

OECD
38개국 중
16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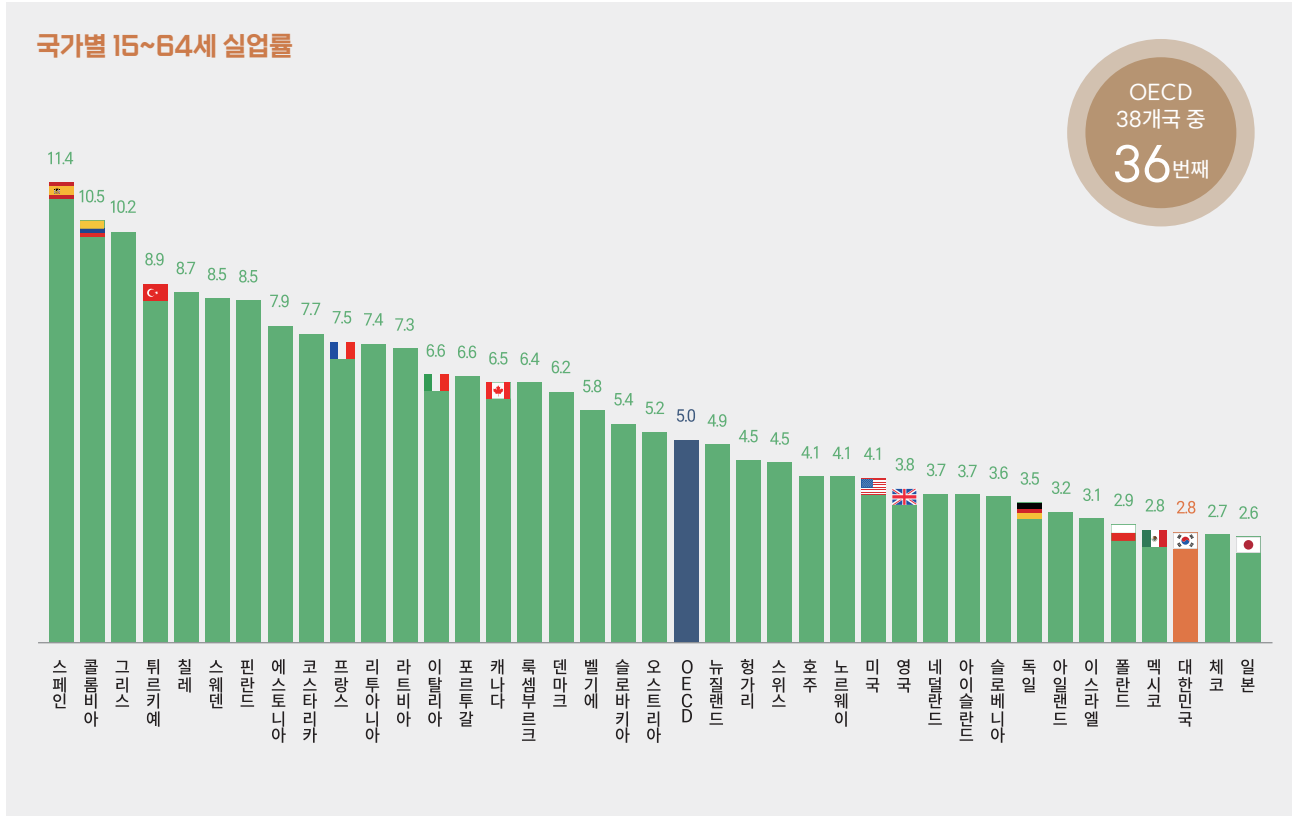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일본	76.3	76.7	76.9	78.1	78.7	79.1
독일	72.7	71.6	71.8	73.3	74.6	75.2
대한민국	66.9	66.6	66.3	68.8	69.9	69.9
영국	66.2	65.3	64.5	64.2	65.0	66.3
캐나다	63.0	60.4	62.8	63.2	64.7	64.4
미국	63.7	60.3	61.9	63.5	64.2	64.1
스페인	53.8	54.7	55.8	57.7	59.5	61.1
프랑스	53.0	53.8	55.9	56.9	58.4	60.4
이탈리아	54.3	54.0	53.4	55.0	57.3	59.0
폴란드	49.5	51.9	54.7	56.5	58.1	59.0
콜롬비아	58.0	51.1	51.7	55.2	57.5	57.5
멕시코	56.0	52.3	53.1	55.6	56.9	57.0
튀르키예	33.6	31.1	33.4	35.2	36.6	38.8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실업률

'24년 15~64세 실업률에서 한국은 2.8%로 OECD 38개국 중 36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한국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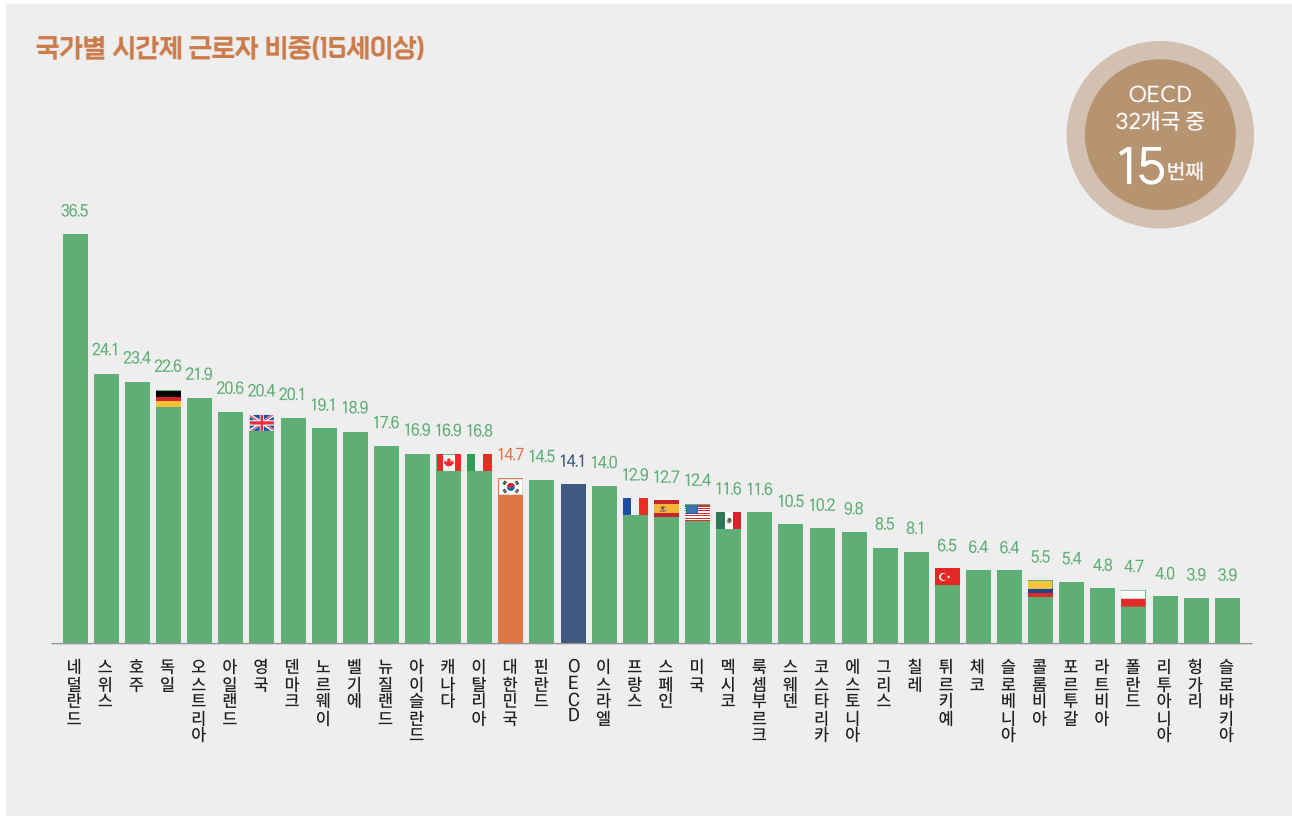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스페인	14.2	15.6	15.0	13.1	12.3	11.4
콜롬비아	11.2	16.9	14.1	11.5	10.4	10.5
튀르키예	14.0	13.4	12.2	10.6	9.6	8.9
프랑스	8.5	8.1	7.9	7.4	7.4	7.5
이탈리아	10.1	9.4	9.7	8.2	7.8	6.6
캐나다	5.8	9.7	7.5	5.3	5.5	6.5
미국	3.7	8.1	5.4	3.7	3.7	4.1
영국	4.0	4.7	4.5	3.6	3.8	3.8
독일	3.2	4.0	3.7	3.2	3.2	3.5
폴란드	3.3	3.2	3.4	2.9	2.9	2.9
멕시코	3.7	4.5	4.3	3.4	2.9	2.8
대한민국	3.8	4.0	3.6	2.9	2.7	2.8
일본	2.5	3.0	3.0	2.7	2.7	2.6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고용구조

OECD는 주된 일자리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24년 한국은 14.7%로 32개국 중 15번째에 위치한다.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독일	22.3	22.5	22.1	22.2	22.5	22.6
영국	22.0	21.3	20.3	20.5	20.3	20.4
캐나다	18.0	16.5	17.0	16.7	16.7	16.9
이탈리아	19.4	19.2	18.2	17.7	17.5	16.8
대한민국	11.8	12.7	13.4	13.3	13.8	14.7
프랑스	13.4	12.8	13.5	12.7	12.9	12.9
스페인	13.6	12.8	13.7	12.8	12.5	12.7
미국	12.4	11.7	11.7	11.7	11.9	12.4
멕시코	11.6	11.5	11.6	10.9	11.3	11.6
튀르키예	5.3	6.1	5.0	5.0	5.5	6.5
콜롬비아	6.7	5.7	5.2	5.4	5.6	5.5
폴란드	5.2	5.1	4.6	4.4	4.7	4.7

자료: OECD, Incidence of full-time and part-time employment based on OECD-harmonized defi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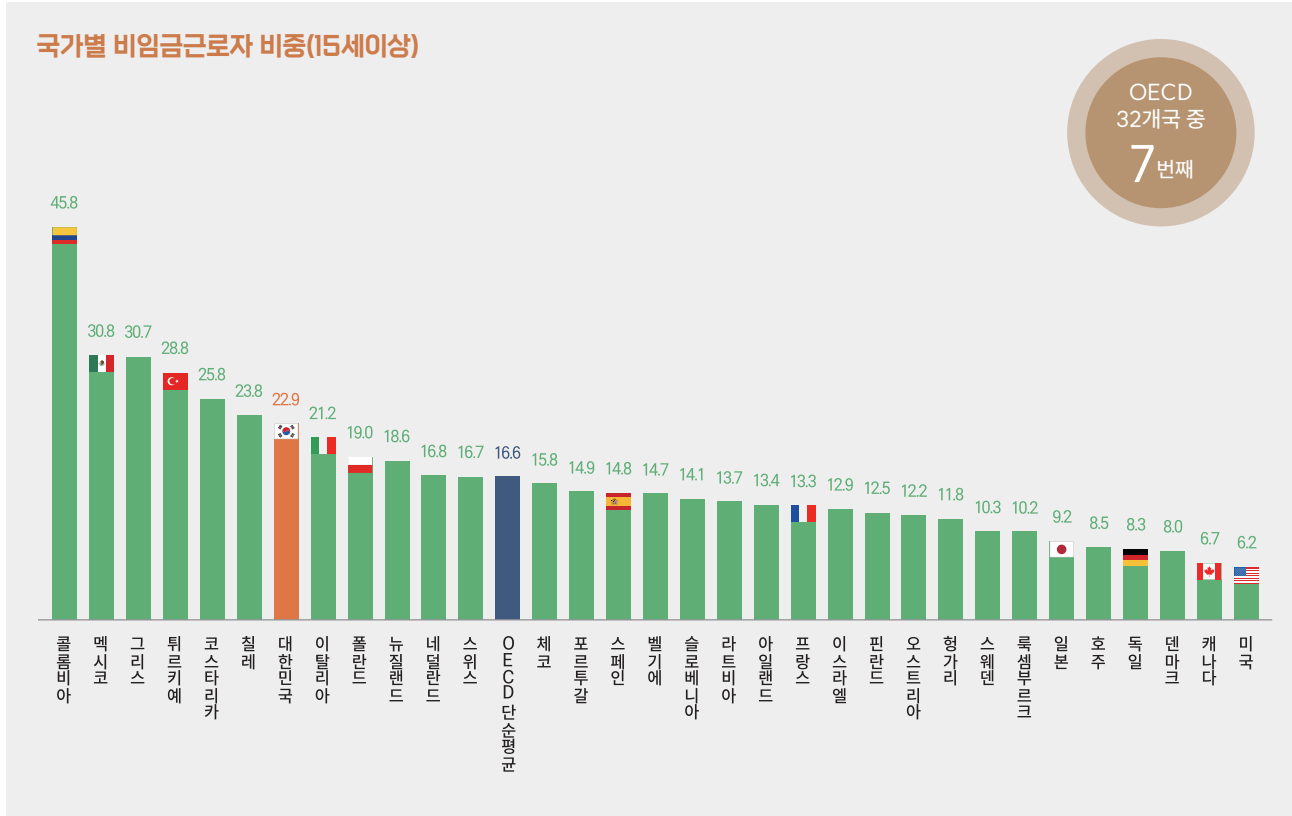
(단위: %)

주 1) 시간제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의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인 임금근로자, 한국은 경찰 임금근로자 자료를 통해 별도로 포함

2) 그래프 상의 OECD 평균(14.1%)은 한국을 포함한 단순평균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인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지표이다. '24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9%로 OECD 32개국 중 7번째로 높은 편에 속한다.



국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콜롬비아	47.9	48.8	48.9	47.1	46.6	45.8
멕시코	31.8	30.4	31.8	31.8	31.4	30.8
튀르키예	31.5	30.2	30.1	29.3	28.6	28.8
대한민국	24.6	24.4	23.9	23.5	23.2	22.9
이탈리아	22.7	22.5	21.8	21.5	21.4	21.2
폴란드	19.5	19.9	19.5	19.6	19.9	19.0
스페인	15.7	16.1	15.9	15.4	15.2	14.8
프랑스	12.1	12.4	12.6	13.1	12.9	13.3
일본	10.0	9.9	9.8	9.6	9.5	9.2
독일	9.6	0.0	9.1	8.9	8.7	8.3
캐나다	8.0	8.4	7.6	7.2	6.8	6.7
미국	6.1	6.3	6.6	6.3	6.1	6.2

자료: OECD, Annual labour force survey, summary tables
 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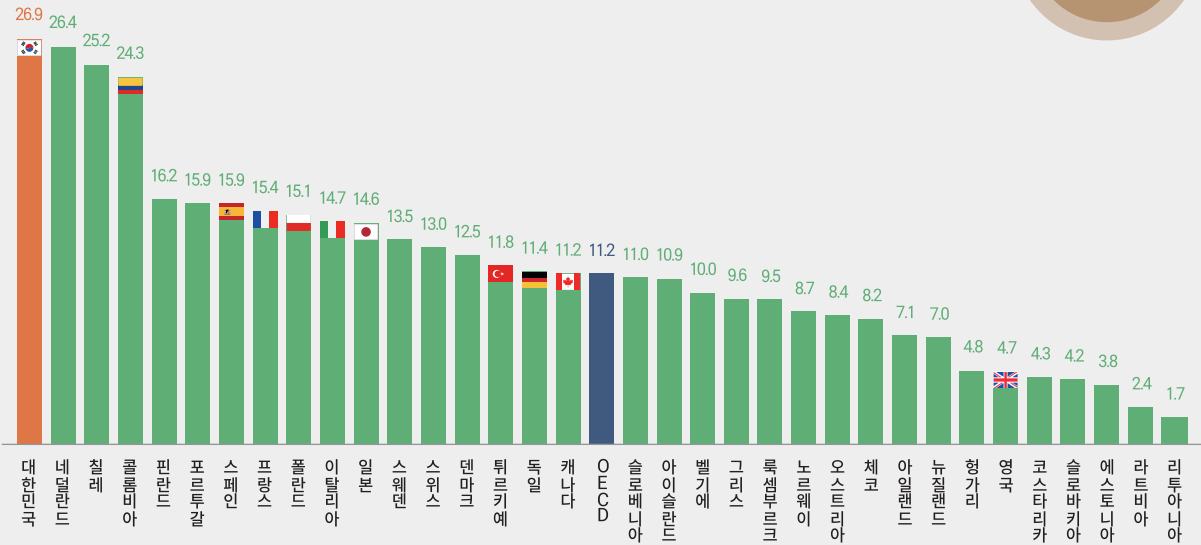
(단위: %)



OECD국가들의 고용 안정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임시직근로자 비중을 볼 수 있다.(국가별 임시직의 정의는 차이가 있음) '24년 한국은 26.9%로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임시직근로자(Temporary Employment) 비중(15세 이상)

OECD
34개국 중
1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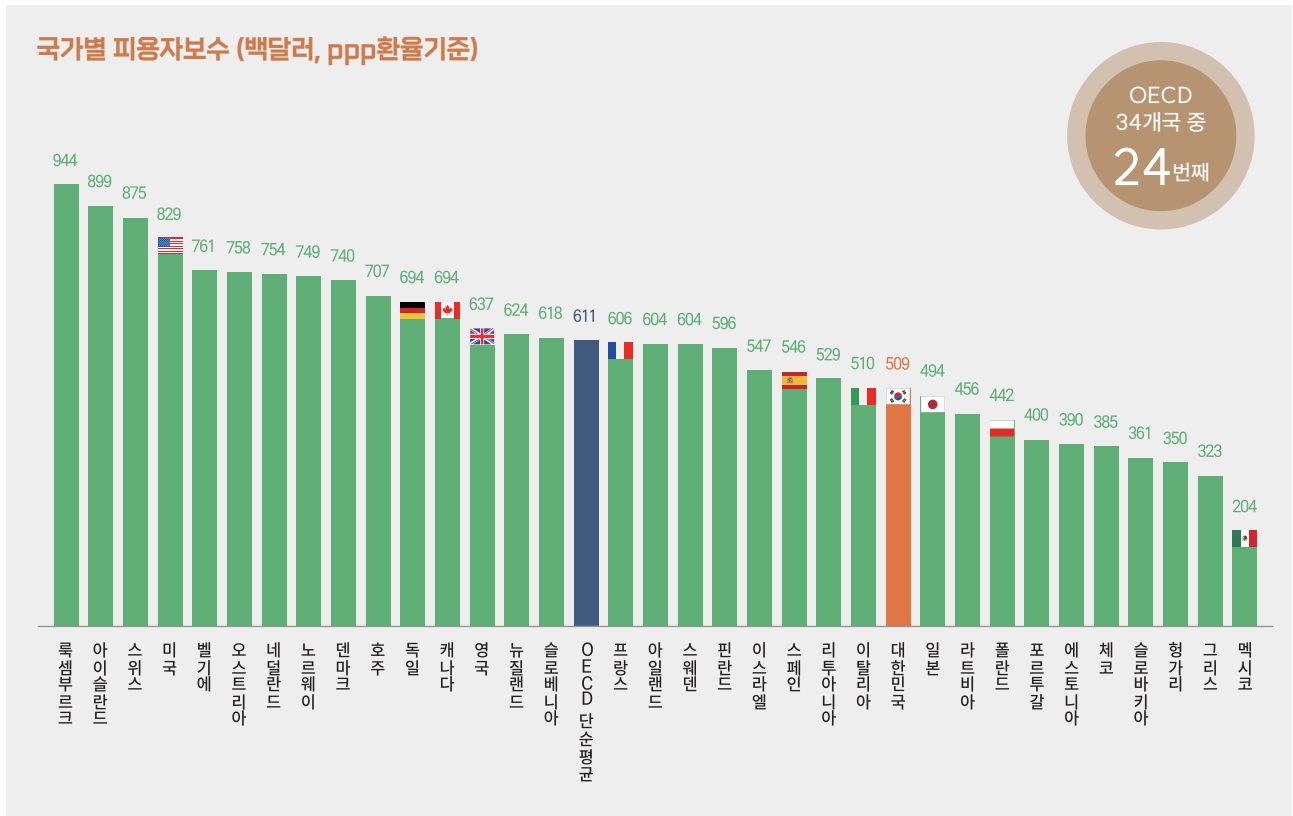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대한민국	24.4	26.1	28.3	27.3	26.7	26.9
콜롬비아	28.6	27.1	26.1	26.4	25.4	24.3
스페인	26.3	24.1	25.2	21.3	17.2	15.9
프랑스	16.3	15.4	15.1	16.2	15.7	15.4
폴란드	21.8	18.7	15.2	15.6	15.5	15.1
이탈리아	16.9	15.0	16.4	16.8	16.0	14.7
일본	15.7	15.4	15.0	15.0	14.9	14.6
튀르키예	11.6	10.9	11.6	10.7	11.0	11.8
독일	12.0	10.9	11.5	12.4	12.0	11.4
캐나다	12.7	11.4	12.0	11.9	11.6	11.2
영국	5.2	5.4	5.6	5.4	5.3	4.7

자료: OECD,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 - Incidence,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자료 활용 (단위: %)
 주 1) 임시직근로자의 국가별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음
 2) 주요국의 임시직 기준: 한국(기간제+단기기대+파견+일일근로), 캐나다(종료일이 정해진 경우), 일본(1년미만 기간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14개국(일의 종료가 객관적으로 정해진 경우)

근로조건

피용자보수

OECD국가들의 1인당 피용자보수를 실질구매력 기준인 US\$ PPP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24년 한국은 연간 50,947달러로 OECD 34개국 중 24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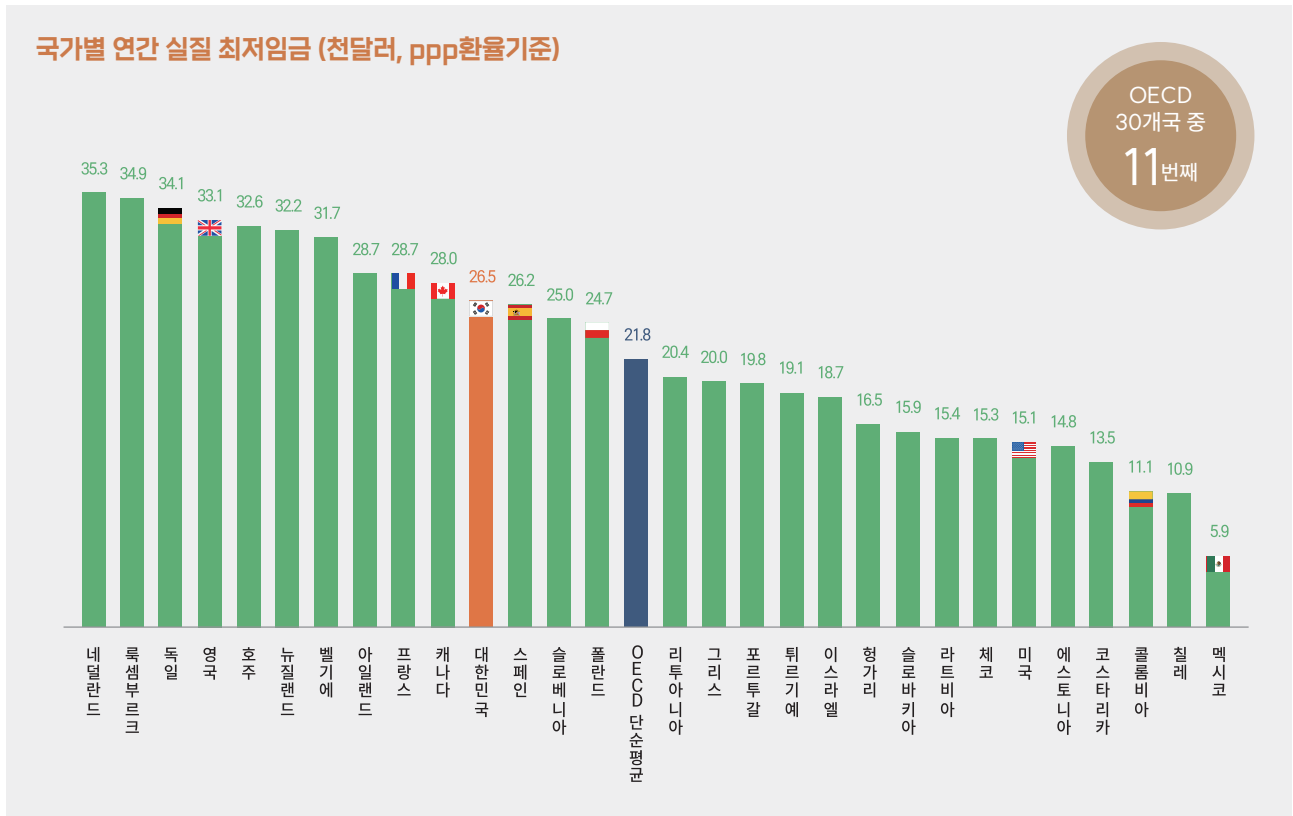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국	78,044	82,783	84,211	81,838	82,078	82,933
독일	70,225	69,751	69,829	68,226	68,104	69,433
캐나다	67,228	69,663	70,002	69,304	69,299	69,417
영국	63,238	62,433	63,586	62,477	62,797	63,691
프랑스	61,632	58,591	60,901	61,156	60,141	60,608
스페인	53,700	53,463	55,357	53,954	54,460	54,564
이탈리아	53,572	51,016	53,317	51,950	50,514	51,019
대한민국	51,123	52,299	52,412	50,672	50,314	50,947
일본	51,098	50,712	51,138	50,458	49,173	49,446
폴란드	41,872	42,610	42,383	40,539	41,578	44,211
멕시코	20,570	19,801	20,366	20,607	20,836	20,423

자료: OECD, Average annual wages, 단위 US달러(PPP환율 기준) (단위: US\$)
 주)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 국가별 임금수준 비교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실질 최저임금

'24년 OECD국가들의 연간 실질최저임금액을 보면 한국은 26,512달러로 30개국 중 11번째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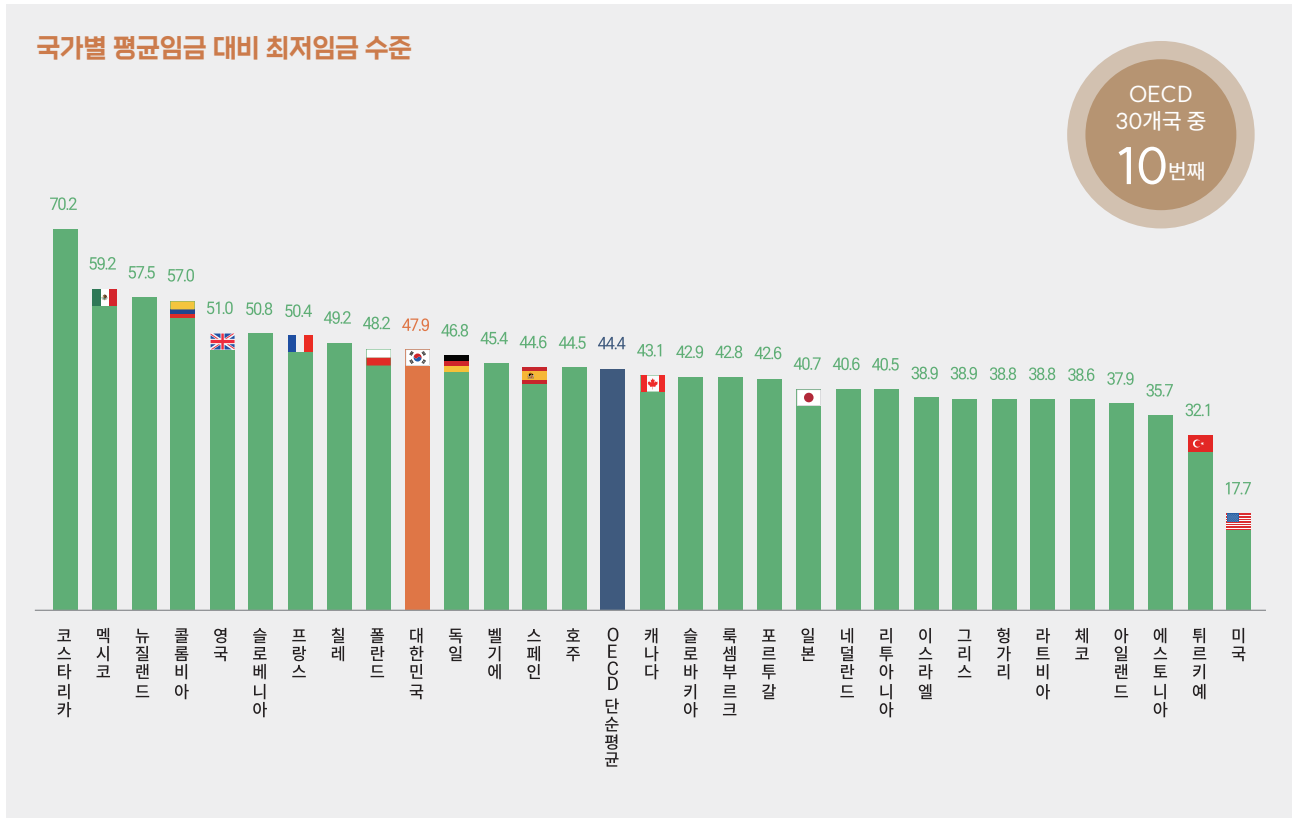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독일	30,928	30,546	30,615	30,448	33,855	34,053
영국	29,580	31,003	31,205	30,497	31,136	33,071
프랑스	28,321	28,524	28,499	28,505	28,653	28,710
캐나다	27,369	27,868	27,584	26,954	27,282	27,985
대한민국	25,774	26,373	26,119	26,108	26,467	26,512
스페인	24,659	26,113	25,329	24,598	25,660	26,216
폴란드	18,740	20,948	21,474	20,173	21,303	24,730
미국	18,503	18,278	17,457	16,164	15,525	15,080
콜롬비아	9,854	10,187	10,188	10,178	10,566	11,107
멕시코	3,167	3,675	3,999	4,521	5,141	5,892
일본	19,637	20,094	20,319	20,451	20,511	-

자료:OECD, Real minimum wages at constant prices, 단위 US달러(PPP환율 기준)

(단위: US\$)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24년 OECD국가들의 평균임금(Mean wage)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한국은 47.9%로 30개국 중 10번째에 위치한다.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멕시코	37.1	41.3	45.0	51.1	55.2	59.2
콜롬비아	55.8	58.3	58.4	53.7	55.2	57.0
영국	45.5	47.6	47.6	48.6	49.6	51.0
프랑스	49.6	49.4	49.2	49.1	50.2	50.4
폴란드	41.9	45.2	43.9	43.0	44.0	48.2
대한민국	49.4	49.6	48.9	47.8	48.1	47.9
독일	41.8	41.2	39.5	42.1	45.1	46.8
스페인	41.5	43.1	40.5	42.6	44.0	44.6
캐나다	44.3	43.0	43.0	43.1	43.1	43.1
일본	36.2	38.8	38.9	39.8	40.5	40.7
튀르키예	40.5	39.4	40.2	40.1	36.7	32.1
미국	22.3	21.1	20.5	19.1	18.3	17.7

자료: OECD,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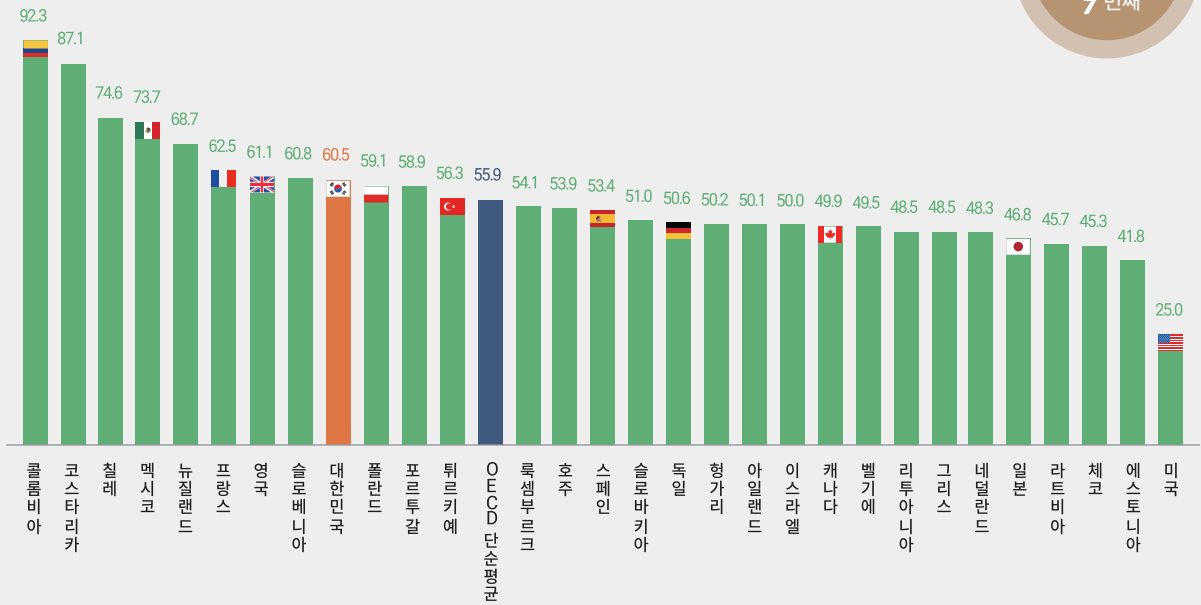
주)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주40시간제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24년 OECD국가들의 중위임금(Median wage)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한국은 60.5%로 30개국 중 9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OECD
30개국 중
9번째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콜롬비아	87.2	90.7	90.9	89.9	91.3	92.3
멕시코	46.0	51.3	56.7	63.0	68.3	73.7
프랑스	61.5	61.2	61.0	60.9	62.2	62.5
영국	55.1	57.6	57.0	57.9	59.2	61.1
대한민국	62.7	62.5	61.4	60.9	60.9	60.5
폴란드	51.1	55.3	53.8	52.8	54.0	59.1
튀르키예	71.0	69.1	70.4	70.2	64.3	56.3
스페인	49.5	51.5	48.5	51.0	52.6	53.4
독일	46.7	46.2	44.8	48.1	51.5	50.6
캐나다	51.2	48.9	48.9	49.1	49.6	49.9
일본	41.7	44.7	44.5	45.4	46.1	46.8
미국	31.6	29.5	29.1	27.4	26.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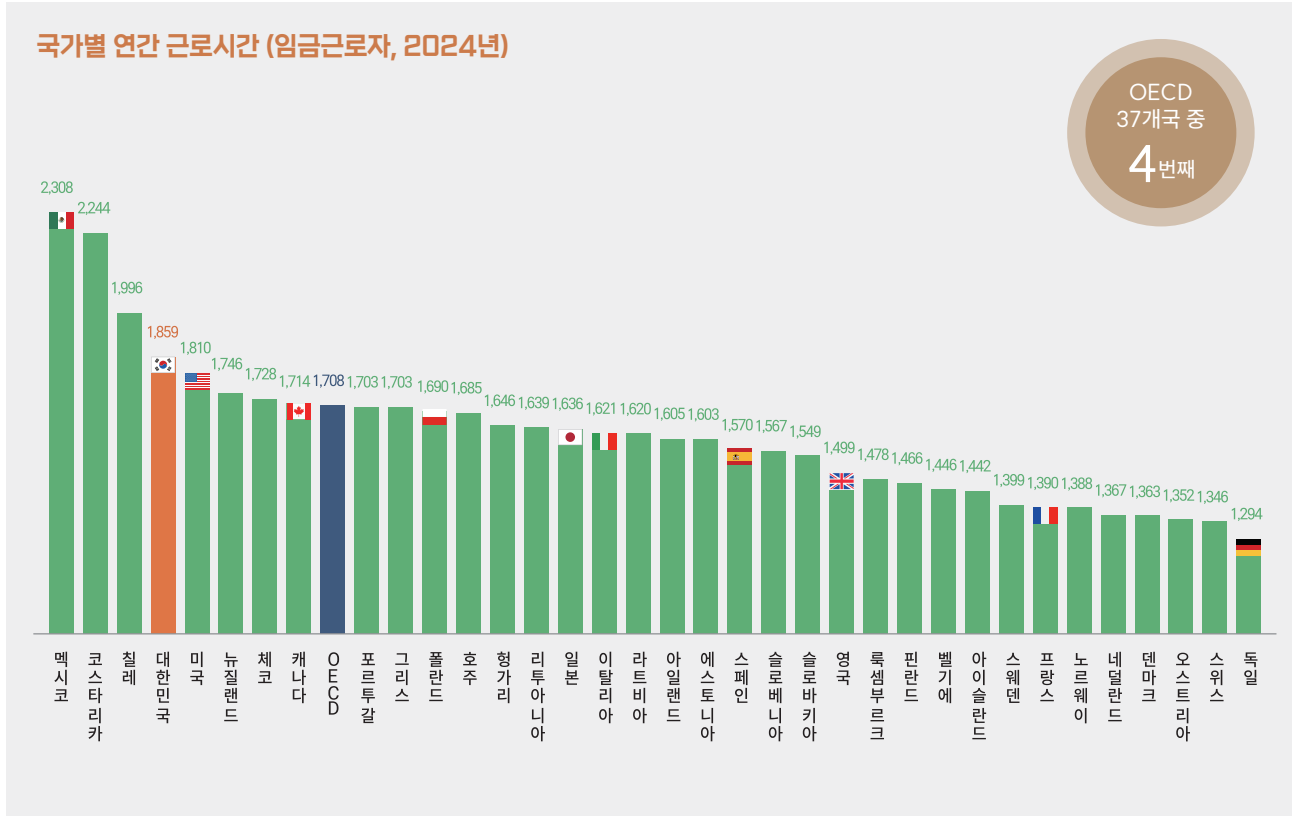
자료: OECD,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

(단위: %)

주)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주40시간제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연간 근로시간 및 취업시간

'24년 OECD국가들의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을 보면
한국은 1,859시간으로 37개국 중 4번째에 위치한다.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멕시코	2,336	2,326	2,328	2,335	2,323	2,308
대한민국	1,957	1,927	1,928	1,904	1,874	1,859
미국	1,832	1,819	1,833	1,822	1,817	1,810
캐나다	1,705	1,681	1,711	1,709	1,711	1,714
폴란드	1,701	1,692	1,725	1,713	1,706	1,690
일본	1,669	1,621	1,633	1,633	1,637	1,636
이탈리아	1,583	1,444	1,559	1,596	1,612	1,621
스페인	1,599	1,513	1,567	1,592	1,577	1,570
영국	1,487	1,219	1,482	1,494	1,485	1,499
프랑스	1,395	1,287	1,364	1,386	1,383	1,390
독일	1,321	1,271	1,299	1,297	1,295	1,294
콜롬비아	2,435	2,311	2,287	2,267	2,228	-

자료: OEC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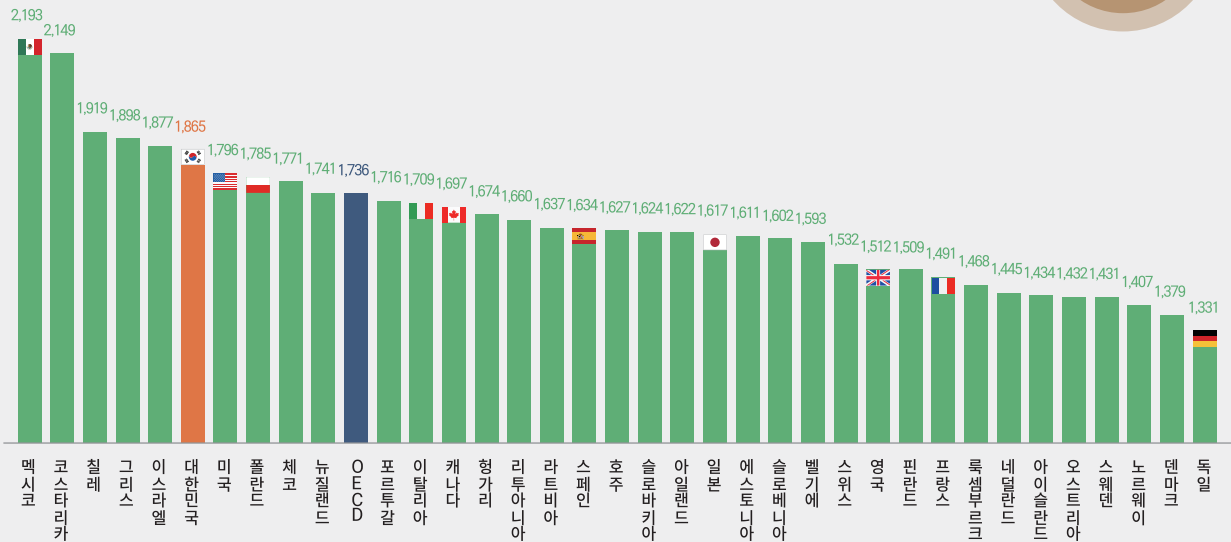
(단위: 시간)



'24년 OECD국가들의 전체취업자(Total Employment)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을 보면 한국은 1,865시간으로 36개국 중 6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연간 취업시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OECD
36개국 중
6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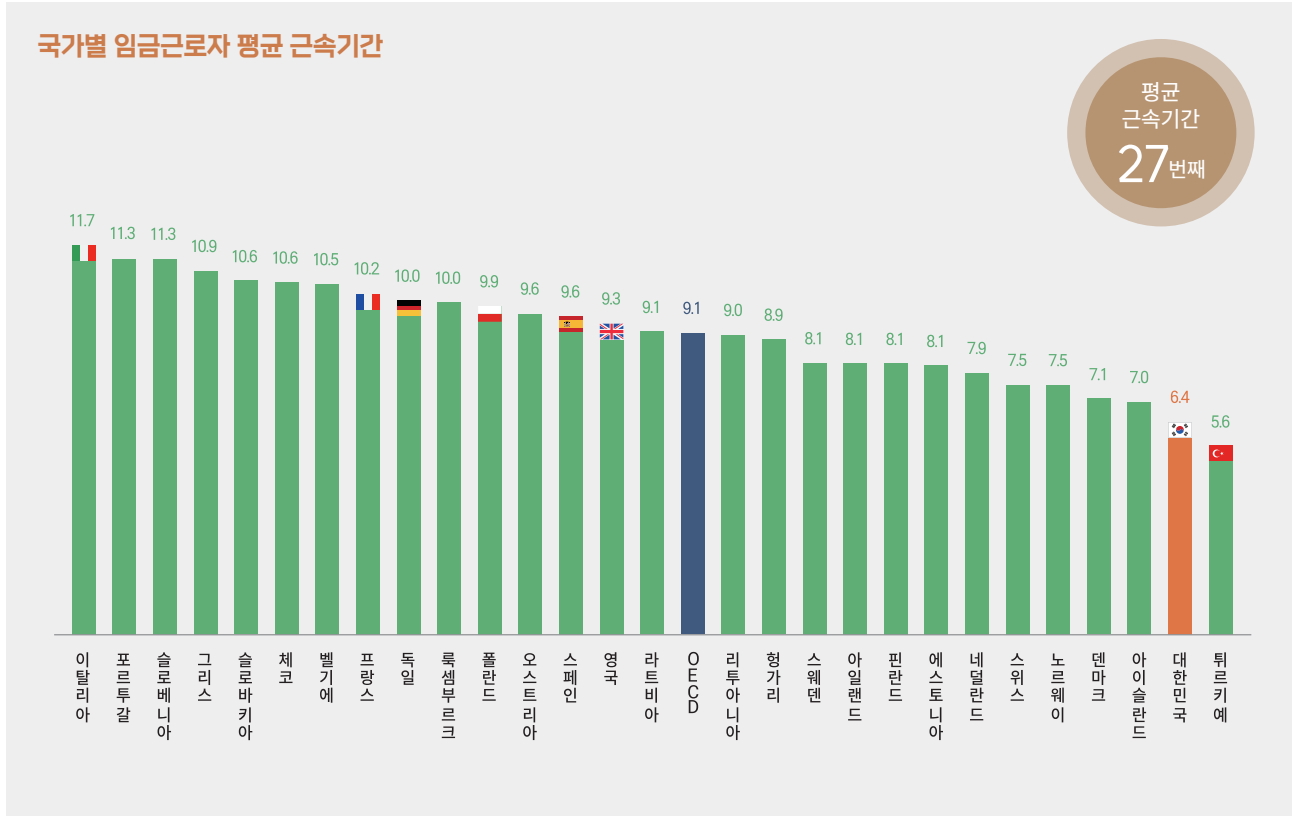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멕시코	2,228	2,207	2,216	2,226	2,207	2,193
대한민국	1,966	1,907	1,910	1,900	1,872	1,865
미국	1,823	1,800	1,820	1,811	1,805	1,796
폴란드	1,797	1,779	1,828	1,818	1,807	1,785
이탈리아	1,680	1,514	1,653	1,691	1,701	1,709
캐나다	1,693	1,658	1,691	1,693	1,694	1,697
스페인	1,678	1,563	1,633	1,653	1,638	1,634
일본	1,644	1,597	1,607	1,607	1,611	1,617
영국	1,509	1,207	1,486	1,505	1,496	1,512
프랑스	1,504	1,391	1,469	1,494	1,489	1,491
독일	1,372	1,314	1,342	1,340	1,335	1,331
콜롬비아	2,383	2,069	2,288	2,282	2,252	-

자료: OEC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단위: 시간)

근속기간

'24년 OECD국가들의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에서 한국은 6.4년으로 28개국 중 27번째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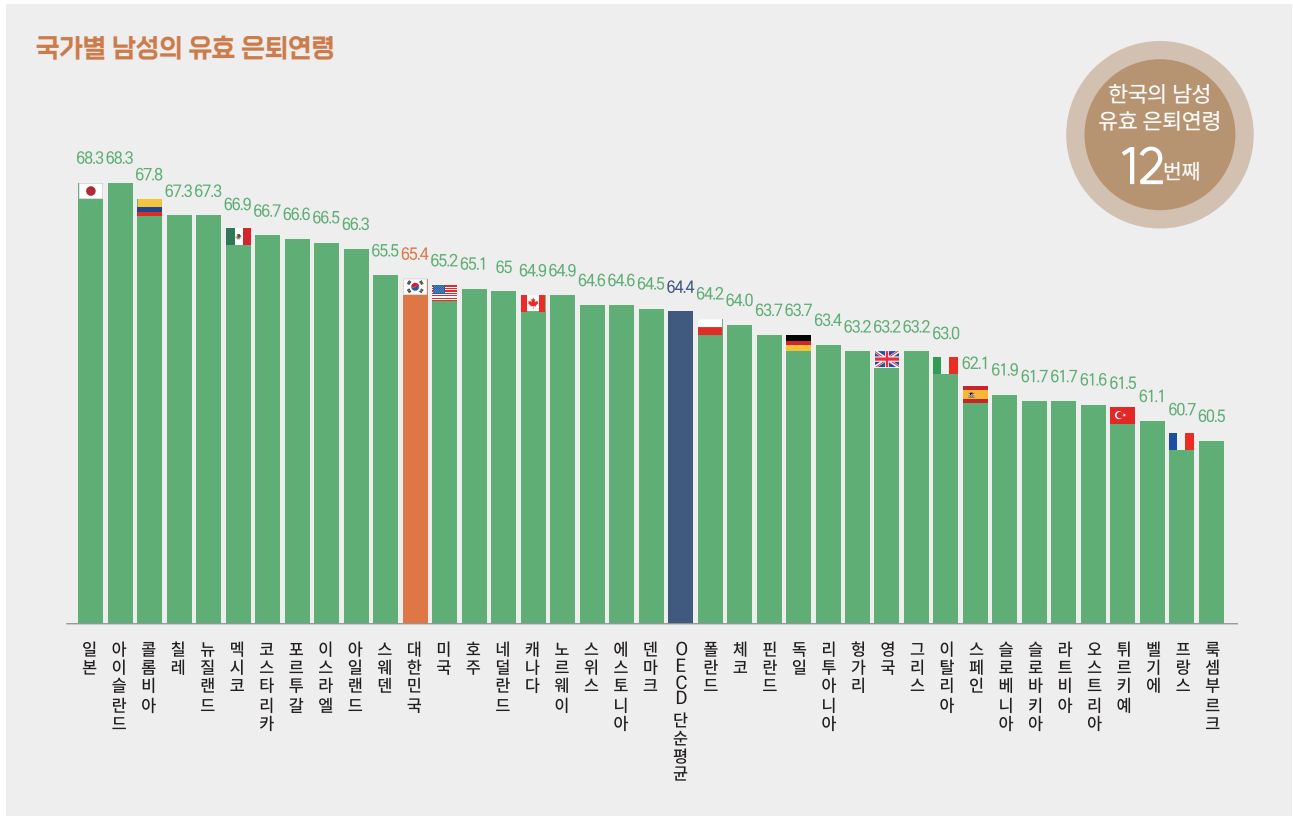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탈리아	12.2	12.4	12.1	11.7	11.7	11.7
프랑스	10.9	11.0	10.7	10.6	10.4	10.2
독일	10.5	10.8	10.5	10.2	10.1	10.0
폴란드	9.6	9.9	9.9	9.9	10.0	9.9
스페인	10.0	10.6	10.4	10.1	10.0	9.6
영국	7.8	9.6	9.7	9.5	9.4	9.3
대한민국	5.9	6.0	5.9	6.0	6.2	6.4
튀르키예	5.7	6.0	5.8	5.7	5.7	5.6

자료: OECD, Employment by job tenure intervals - average job tenure,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활용

(단위: 연)

은퇴연령

'22년('17~'22년 5년평균) OECD국가들의 유효은퇴연령에서 38개국 중 한국 남성은 65.4세(12위), 한국 여성은 67.4세(1위)로 모두 OECD 평균 은퇴연령보다 높은 편이다.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일본	67.5	67.7	68.2	67.9	68.3
콜롬비아	68.8	68.9	66.7	67.8	67.8
멕시코	67.2	67.6	66.2	66.8	66.9
대한민국	68.6	66.6	65.7	65.3	65.4
미국	65.0	65.3	64.9	64.8	65.2
캐나다	63.6	64.7	63.9	64.7	64.9
폴란드	61.4	61.9	62.2	63.8	64.2
독일	63.0	63.4	63.1	63.4	63.7
영국	63.3	63.4	63.6	63.5	63.2
이탈리아	62.0	62.6	62.3	61.9	63.0
스페인	61.5	61.5	61.0	61.5	62.1
튀르키예	61.9	61.5	60.7	61.3	61.5
프랑스	60.3	60.0	60.4	61.0	60.7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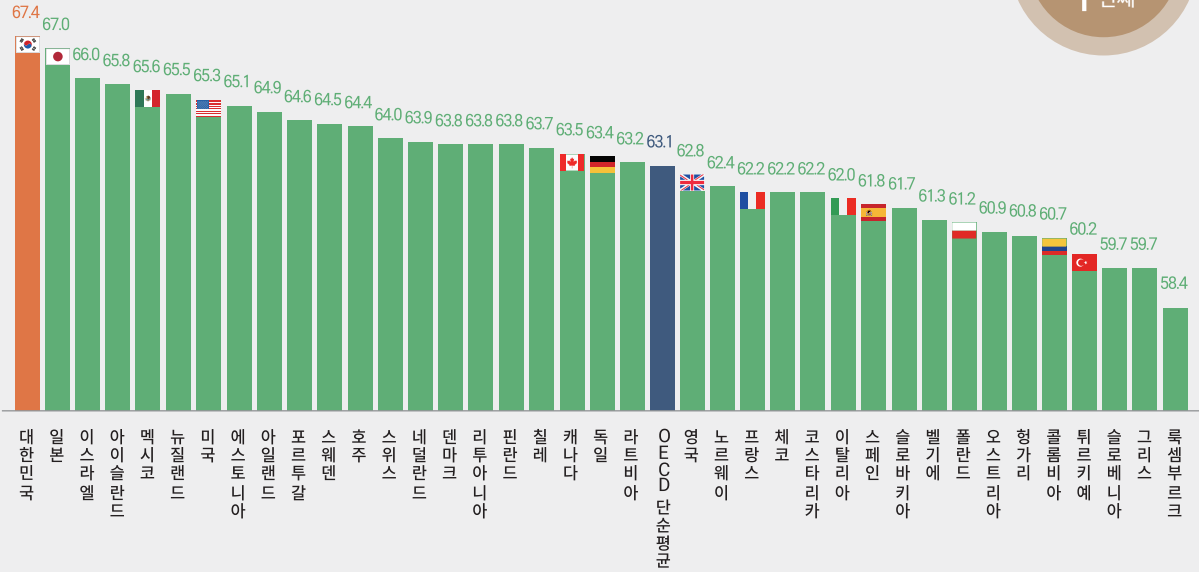
(단위: 세)

주1) 각 연도의 통계치는 5년 평균 은퇴연령임. 예를 들어 '18년은 '13~'18년 평균 은퇴연령임

주2) "평균 유효 퇴직연령"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 수정되었음('21.11)

국가별 여성의 유효 은퇴연령

한국의 여성 유효 은퇴연령
1 번째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대한민국	68.4	67.9	64.9	66.0	67.4
일본	66.6	67.1	66.9	66.7	67.0
멕시코	63.0	64.9	62.5	63.7	65.6
미국	64.3	64.8	64.7	65.2	65.3
캐나다	62.5	63.0	62.6	63.8	63.5
독일	62.9	63.3	63.1	62.9	63.4
영국	62.5	62.8	63.1	62.9	62.8
프랑스	60.2	60.4	60.9	61.5	62.2
이탈리아	60.7	61.7	61.3	61.3	62.0
스페인	60.6	61.2	60.4	61.2	61.8
폴란드	59.7	59.6	60.1	60.8	61.2
콜롬비아	62.4	62.3	60.3	61.1	60.7
튀르키예	62.8	62.6	59.3	59.6	60.2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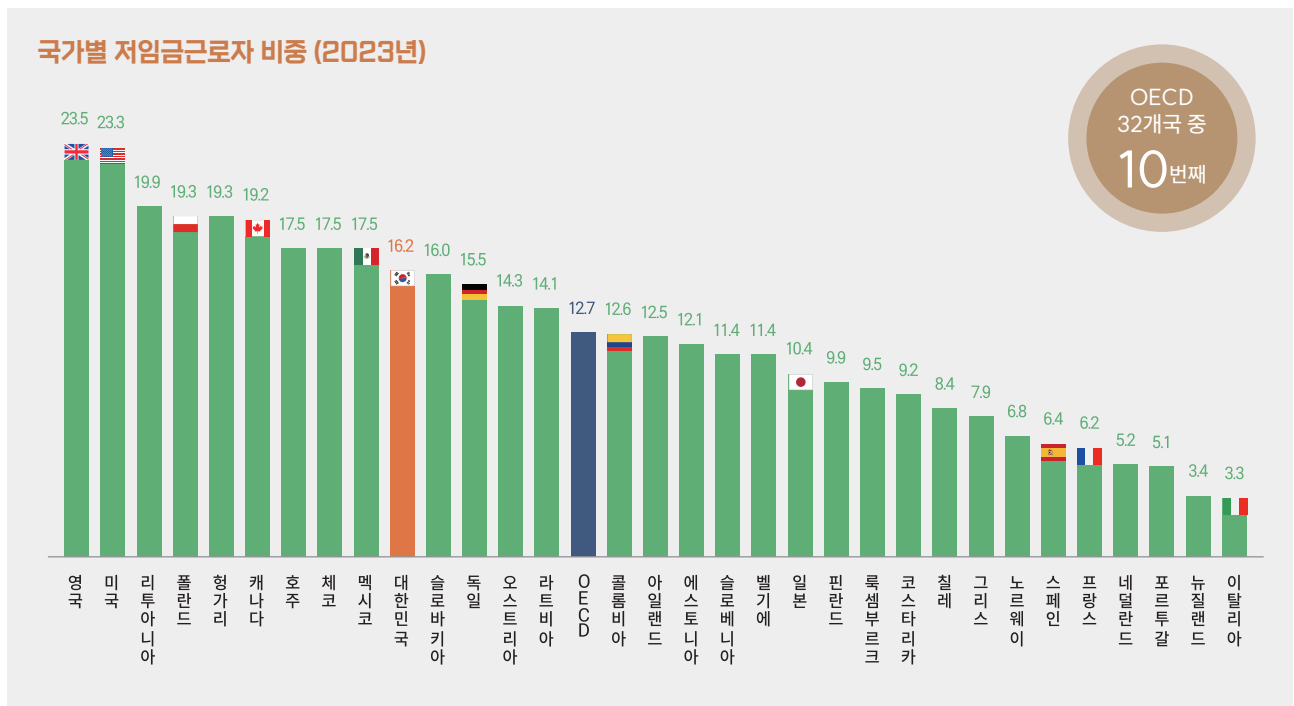
주1) 각 연도의 통계치는 5년 평균 은퇴연령임. 예를 들어 '18년은 '13~'18년 평균 은퇴연령임

주2) "평균 유효 퇴직연령"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 수정되었음('21.11)

3. 분배지표

저임금근로자 비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중위임금(Median)의 2/3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23년 OECD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에서 한국은 16.2%로 32개국 중 10번째로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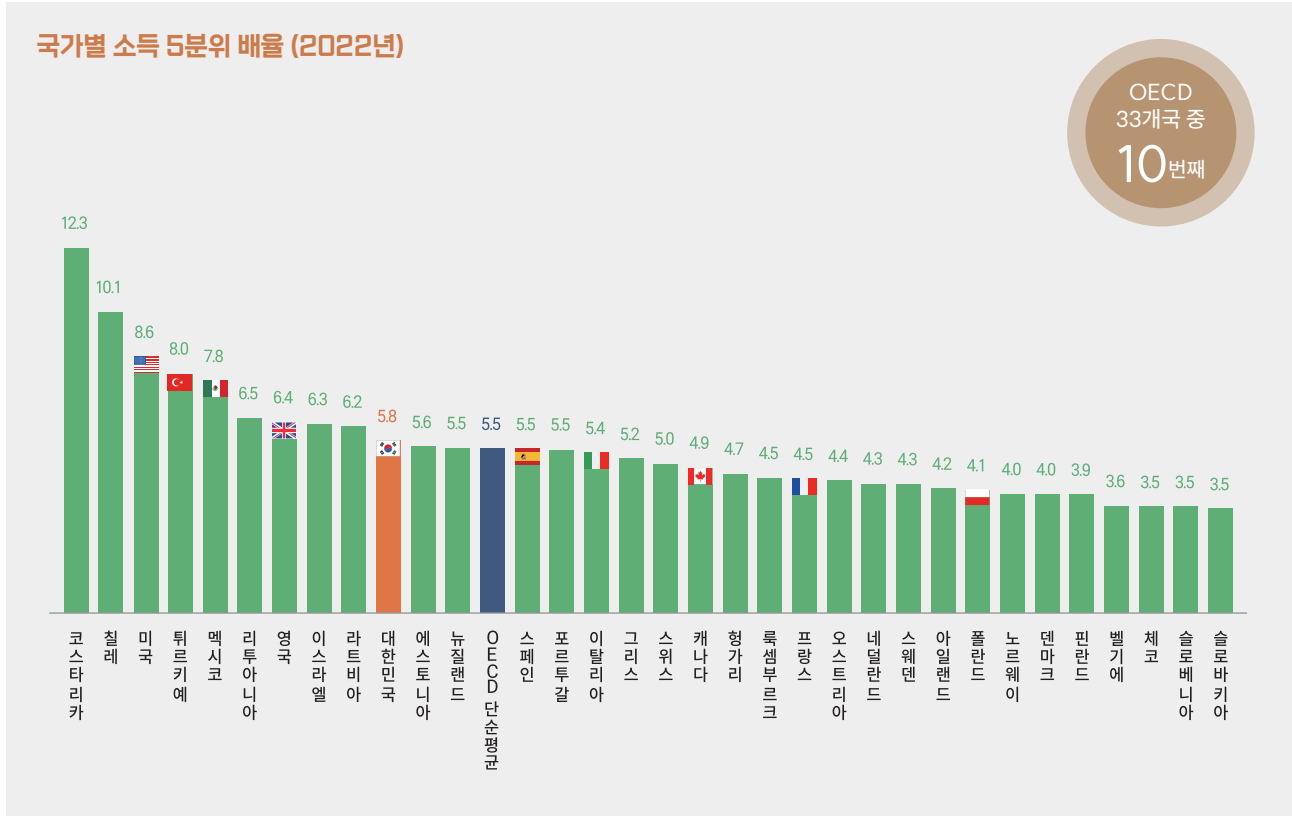


	'18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영국	27.3	26.5	26.8	25.4	24.7	23.5
미국	24.1	23.4	23.8	22.7	22.7	23.3
폴란드	21.1	-	18.9	-	18.5	19.3
캐나다	20.7	19.4	18.7	19.5	19.1	19.2
멕시코	15.7	17.1	16.9	13.2	15.7	17.5
대한민국	19.0	17.0	16.0	15.6	16.9	16.2
독일	17.6	17.8	17.5	16.2	16.4	15.5
콜롬비아	9.7	11.7	12.8	11.4	12.2	12.6
일본	12.1	11.8	10.9	10.7	10.3	10.4
스페인	10.8	-	-	-	7.5	6.4
프랑스	7.7	-	-	-	6.3	6.2
이탈리아	3.7	-	-	-	3.5	3.3
튀르키예	1.0	-	-	-	-	-

자료: OECD, Incidence of low and high pay (단위: %)
 주 1) 저임금근로자 비중: 중위임금의 2/3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중.
 2) 저임금근로자 비중 등 분배관련 지표는 나라마다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행정통계 등 출처가 다양하고, 대상자의 범위도 다양하여 직접비교 시 주의, 예) 일본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정액급여만을 기준으로 지표 산정

소득 5분위 배율

'22년 한국의 가계소득 5분위 기준 상위20%(5분위)/하위20%(1분위)의 배율은 5.8배로 OECD 33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미국	8.4	8.4	8.4	7.5	7.2	8.6
튀르키예	7.7	7.5	8.2	7.8	8.4	8.0
멕시코	-	8.6	-	8.9	-	7.8
영국	6.2	6.5	6.5	6.1	6.2	6.4
대한민국	7.0	6.5	6.3	5.8	5.8	5.8
스페인	6.0	5.9	5.7	6.1	5.6	5.5
이탈리아	6.1	6.0	5.8	5.9	5.7	5.4
캐나다	5.1	4.9	4.8	4.2	4.6	4.9
프랑스	-	-	-	4.1	4.5	4.5
폴란드	4.2	4.3	4.0	4.0	3.9	4.1
일본	-	6.2	-	-	6.4	-
독일	4.5	4.4	4.6	4.9	5.1	-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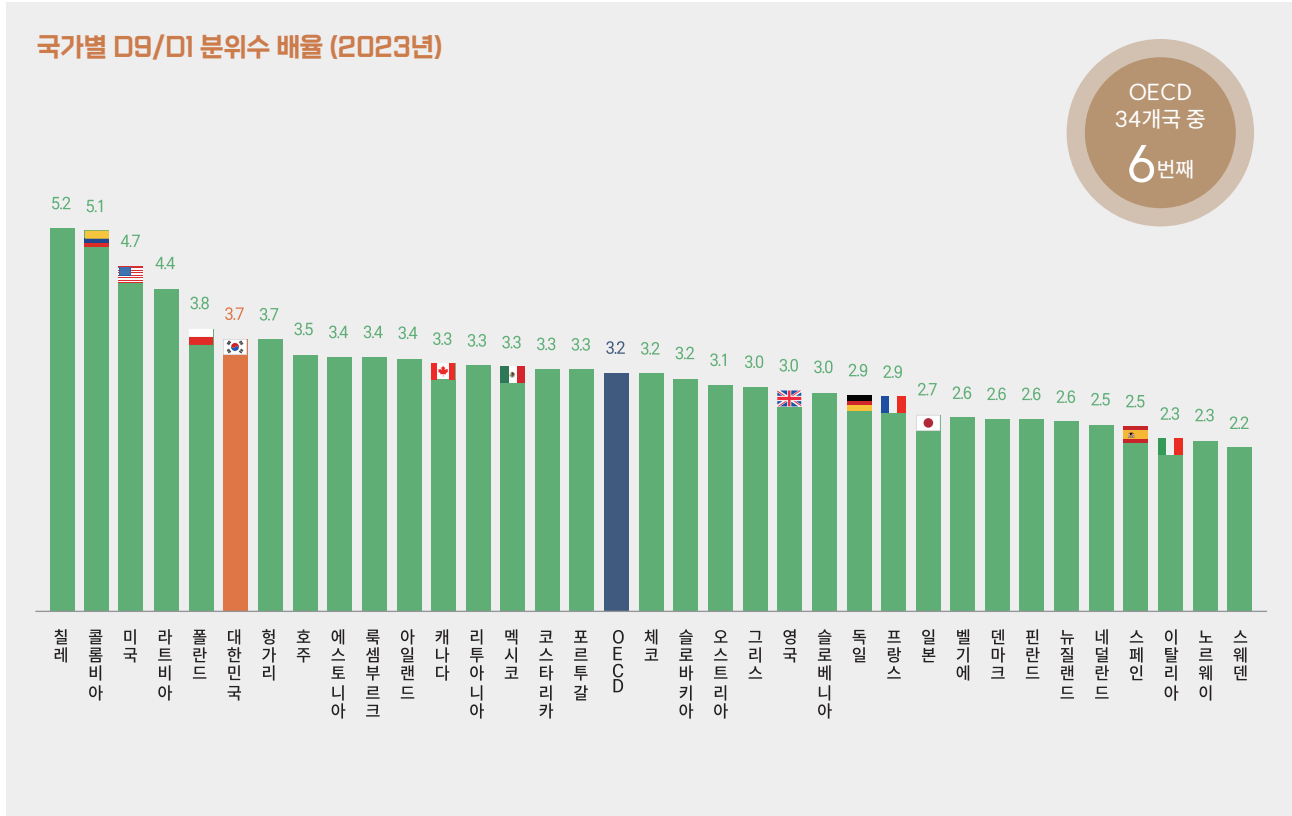
(단위: 배)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 하위 20%(1분위).

2) OECD는 소득분배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1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눈 후 구간별 평균소득에 대한 배율을 지표로 제공

임금 10분위수 배율

'23년 한국의 임금소득 10분위 기준 상위9분위(D9)/하위1분위(D1)의 배율은 3.7배로 OECD 34개국 중 6번째로 높다.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콜롬비아		4.2	4.5	4.7	4.8	5.8
미국	5.0	5.0		4.8	4.8	4.6
폴란드	3.7	-	3.5		-	3.5
대한민국	3.9	3.6	3.6	3.6	3.7	3.7
캐나다	3.5	3.4	3.4	3.3	3.3	3.3
멕시코	3.3	3.3	3.5	3.6	3.4	3.3
영국	3.4	3.3	3.4	3.4	3.2	3.0
독일	3.3	3.3	3.1	3.1	3.1	3.0
프랑스	2.9	2.9	2.9	2.8	3.0	3.0
일본	2.8	2.8	2.8	2.7	2.7	2.7
스페인	3.2	3.7	3.7	2.5	3.6	3.1
이탈리아	2.6	2.6	2.6	2.7	3.1	2.6
튀르키예	3.4	-	-	-	-	-

자료: OECD,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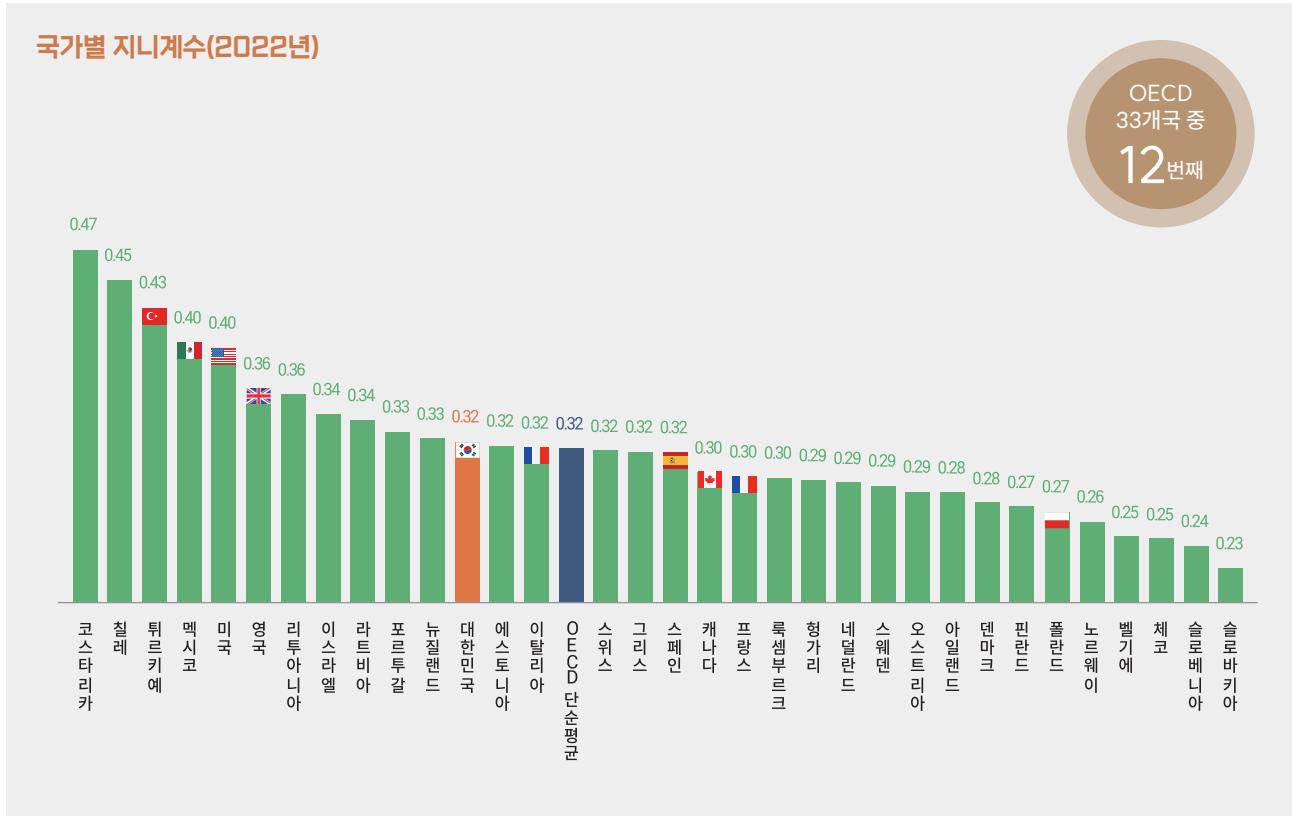
(단위: 배)

주1) 임금 10분위수 배율: 임금소득 10분위 기준 상위9분위(D9)/하위1분위(D1)

주2) OECD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분포를 분위수 배율(Decile Ratio) 지표로 발표하고 있다. 분위수 배율은 전일제근로자의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누고, 분위별 경계값을 임금이 낮은 쪽부터 높은 쪽으로 D1~D9로 정의한 후 이들의 배율로서 D5/D1, D9/D5, D9/D1 등을 보여준다.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0~1사이 값 중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22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4로 OECD 33개국 중 12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은 편이다.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튀르키예	0.409	0.397	0.415	0.403	0.433	0.427
멕시코	-	0.418	-	0.420	-	0.400
미국	0.390	0.393	0.395	0.377	0.375	0.396
영국	0.357	0.366	0.366	0.355	0.354	0.365
대한민국	0.354	0.345	0.339	0.328	0.329	0.324
이탈리아	0.334	0.330	0.325	0.331	0.330	0.319
스페인	0.333	0.330	0.320	0.329	0.320	0.316
캐나다	0.310	0.304	0.300	0.280	0.292	0.300
프랑스	-	-	-	0.278	0.298	0.297
폴란드	0.275	0.281	0.268	0.265	0.261	0.270
일본	-	0.334	-	-	0.338	-
독일	0.289	0.289	0.296	0.303	0.3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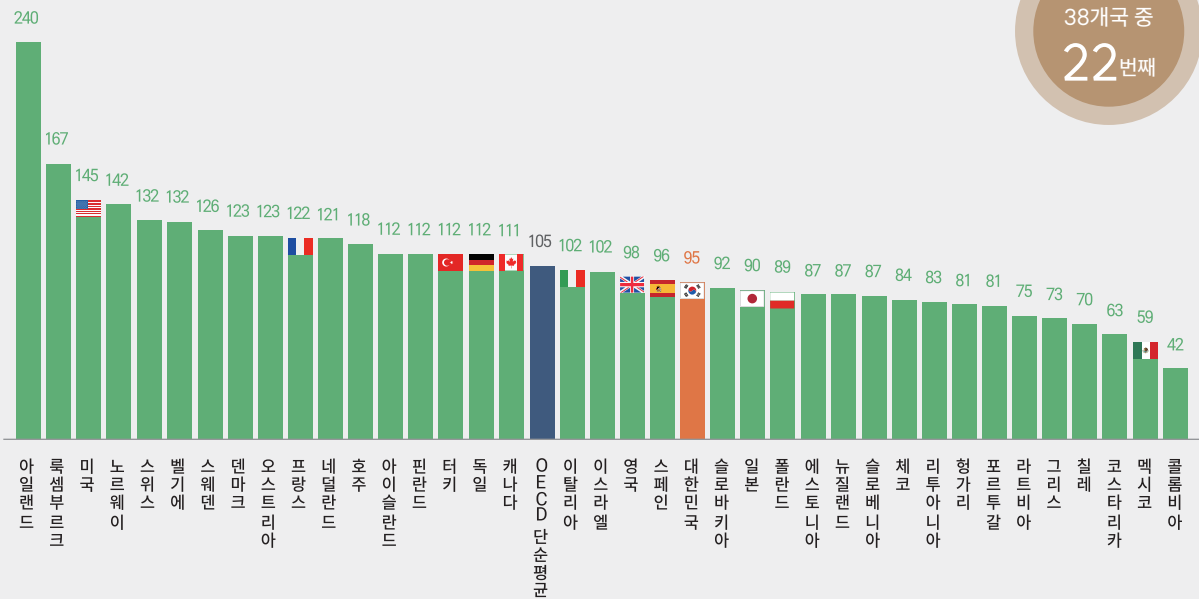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기타 고용노동 지표

노동생산성

한국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US\$ PPP 환율기준으로 9.5만달러이며, OECD 38개국중 22번째이다.

국가별 노동생산성 (ppp기준, 2022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미국	133	135	137	142	146	145
멕시코	67	68	67	63	66	70
일본	83	83	81	78	81	81
튀르키예	81	81	84	90	93	92
독일	113	112	112	109	112	112
영국	109	109	109	99	108	112
프랑스	124	125	126	117	122	122
이탈리아	115	115	114	106	115	118
대한민국	89	91	92	92	95	95
콜롬비아	38	39	40	41	43	42
스페인	103	103	102	95	99	102
캐나다	99	100	100	105	103	102
폴란드	78	83	85	83	86	89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22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단위: 천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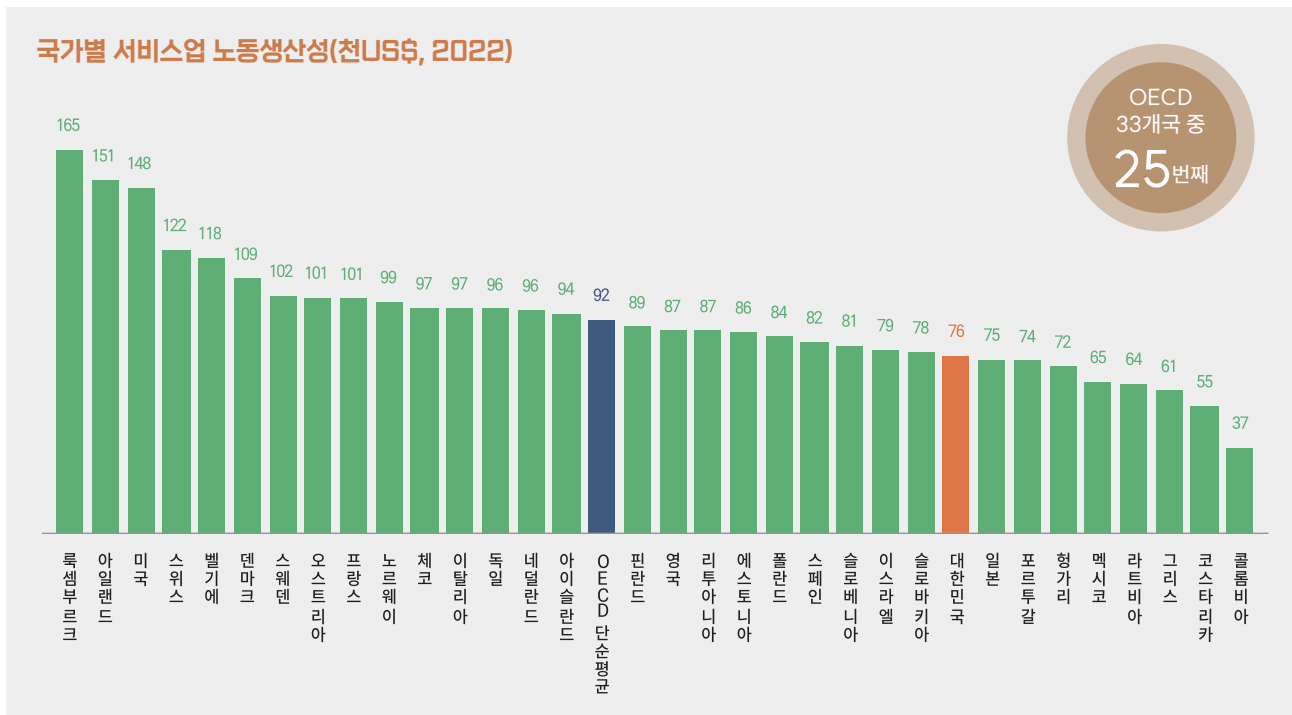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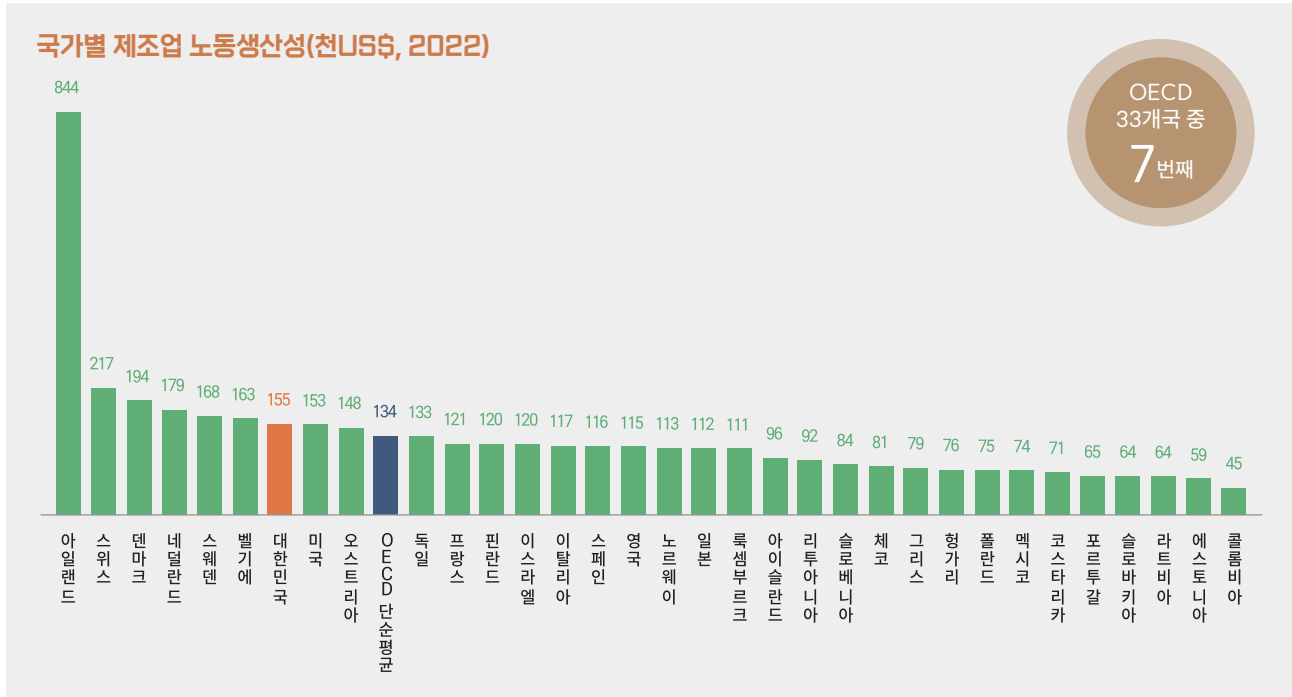
주)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1단위당 산출량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 창출에 노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투입량 1단위를 취업자 1인으로 정의하는 1인당 노동생산성과 1시간으로 정의하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산식에서 '산출량'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은 물론 1인당 자본 장비율, 효율적 경영, 기술진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높은 것은 아님

국가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2년 15만 5천 달러로 33개국 중 7번째이며 서비스업은 7만 6천달러로 25번째이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22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주)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1단위당 산출량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 창출에 노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투입량 1단위를 취업자 1인으로 정의하는 1인당 노동생산성과 1시간으로 정의하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산식에서 '산출량'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은 물론 1인당 자본 장비율, 효율적 경영, 기술진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높은 것은 아님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4기준

발행인 김영훈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www.moel.go.kr
Tel. (국번없이)1350

편집·인쇄 디자인 신성기획 (044.862.1960)

본 책의 내용을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202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이라고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